

# 2011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정은미 · 이상신 · 박정란

#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1

## 2011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1. 12. 31

발 행 2011. 12.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김병로·강원택·정은미·이상신·박정란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  
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1) 통일의식조사. 1 /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정은미,  
이상신, 박정란.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11)

ISBN 978-89-968013-0-6 93300 : ₩1000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5

320.9519-DDC21

CIP2012000008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Ⅲ

# 2011 통일외식조사



# 목차

서장	1. 2011년과 남북관계	4
	2. 2011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7
	3. 조사목적	9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1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9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20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25
	3. 통일에 대한 기대	29
	4. 통일과 민주주의	35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39
	6. 소결	41
	II. 북한에 대한 인식	44
	1. 북한의 존재 인식	44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50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52
	4. 북한위기의식	56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62
	6. 소결	65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9
1. 남북 교류의 통일 기여도	70
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	76
3.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82
4. 소결	89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91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2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94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0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2
5. 소결	118
V.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13
1. 2011년 대외인식	113
2. 대외인식 기초분석	114
3. 소결	134

제2부 심층분석	I. 세대별 통일 의식과 통일 준비	139
	1. 우리사회의 세대와 통일 의식	139
	2. 세대별 통일 의식 개요	141
	3. 2007~2011년 세대간 통일 의식 차이 문항 분석	149
	4. 세대별 통일 의식의 특징	159
	5. 소결: 통일 준비 방향	162
	II. 동북아 정세 변화와 대외 인식 변화	172
	1. 2011년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인식 변화	172
	2. 대외 인식	173
	3. 소결	196
	III. 차기 대선과 대북 정책	198
	1. 서론	198
	2. 차기 대선에서의 중요한 쟁점	199
	3.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	203
	4.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213
	5. 소결	219

<b>결장</b>	1. 2011년 조사에 나타나는 통일의식의 특징	224
	2. 2012년 전망	234
<b>부록</b>	1. 응답자	239
	2. 결과집계표	242
	3. 설문지	349

# 표목차

[표 1-I-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56
[표 1-III-1]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70
[표 1-III-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항	77
[표 1-III-3]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정성	83
[표 1-III-4]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84
[표 1-III-5]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86
[표 1-III-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87
[표 1-V-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114
[표 1-V-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2007~2011)	118
[표 1-V-3]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정도 (2009~2011)	121
[표 1-V-4]	미국의 국가 이미지	122
[표 1-V-5]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23
[표 1-V-6]	중국의 국가 이미지	125
[표 1-V-7]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26
[표 1-V-8]	북한의 국가 이미지	127
[표 1-V-9]	북·미 월드컵 대결시 응원하고 싶은 팀	133
[표 1-V-10]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134
[표 2-I-1]	2007~2011년도 세대별 견해 차 문항	144
[표 2-I-2]	2007~2011년도 의식차 문항	147
[표 2-I-3]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표	167
[표 2-III-1]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	200

[표 2-Ⅲ-2] 이항 로지스틱 분석: 차기 대선 이슈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201
[표 2-Ⅲ-3] 정파별 차기 대선 중요 이슈	203
[표 2-Ⅲ-4]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205
[표 2-Ⅲ-5] 남북관계 악화의 각국별 책임 정도	206
[표 2-Ⅲ-6]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207
[표 2-Ⅲ-7] 이항 로지스틱 모델: 정파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 정책 평가	209
[표 2-Ⅲ-8]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 신뢰도	211
[표 2-Ⅲ-9]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이념성향별 신뢰도 비교	212
[표 2-Ⅲ-10] 지지 정파별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한 신뢰 정도	213
[표 2-Ⅲ-11] 차기 정부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	214
[표 2-Ⅲ-12]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215
[표 2-Ⅲ-13] 정당 지지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216
[표 2-Ⅲ-14] 정당 지지별 차기 정부 대북 최우선 정책	216

##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21
[그림 1-I-2]	통일의 이유	24
[그림 1-I-3]	통일가능시기 전망	28
[그림 1-I-4]	통일의 기대이익: 집단과 개인	30
[그림 1-I-5]	정치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33
[그림 1-I-6]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관계	37
[그림 1-I-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	37
[그림 1-I-8]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40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45
[그림 1-II-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47
[그림 1-II-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48
[그림 1-II-4]	대북 비판의식	51
[그림 1-II-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53
[그림 1-II-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54
[그림 1-II-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55
[그림 1-II-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58
[그림 1-II-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59
[그림 1-II-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0
[그림 1-II-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1
[그림 1-II-12]	북한사회 인지도	62
[그림 1-IV-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추이	93
[그림 1-IV-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종합)	94
[그림 1-IV-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동네 이웃	95

[그림 1-IV-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직장동료	96
[그림 1-IV-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사업동업자	98
[그림 1-IV-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결혼상대자(1)	99
[그림 1-IV-7]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결혼상대자(2)	99
[그림 1-IV-8]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추이	101
[그림 1-IV-9]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103
[그림 1-IV-10]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추이	104
[그림 1-IV-11]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1)	106
[그림 1-IV-12]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2)	107
[그림 1-IV-13]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1)	108
[그림 1-V-1]	지원대상으로의 북한-이념별 분포	128
[그림 1-V-2]	협력대상으로의 북한-이념별 분포	129
[그림 1-V-3]	경계대상으로의 북한-이념별 분포	129
[그림 1-V-4]	적대대상으로의 북한-이념별 분포	130
[그림 2-I-1]	2011년도 분야별 견해차 문항수	143
[그림 2-I-2]	2007~2011년도 세대별 견해 차 문항 수 추이	145
[그림 2-II-1]	이념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174
[그림 2-II-2]	연령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176
[그림 2-II-3]	이념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178
[그림 2-II-4]	연령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179
[그림 2-II-5]	이념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180
[그림 2-II-6]	연령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182

## 2011 통일의식조사

[그림 2-II-7] 이념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185
[그림 2-II-8] 연령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186
[그림 2-II-9] 이념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187
[그림 2-II-10] 연령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189
[그림 2-II-11] 이념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191
[그림 2-II-12] 연령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192
[그림 2-II-13]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비교(2009~2011)	194
[그림 2-II-14] 진보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195
[그림 2-II-15] 중도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195
[그림 2-II-16] 보수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196

# 서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 장

매년 북한,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출간하기 위해 마지막 교정을 보는 시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전세계적으로 유독 오랫동안 권좌에 있던 독재자들이 여러 이유로 물러난 2011년의 끝자락에서 듣게 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새로이 3대 권력자로 부상한 김정은 체제가 향후 얼마나 공고하게 자리잡을지, 이로 인해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논의와 토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 비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유동적이라는 점, 그 유동성은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동반한다는 점,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올 것이라는 점 등이다. 비교적 예측가능했던 김정일 체제에 비해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불확실성이 클 것이고 이 때문에 북한 내부는 물론,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 등도 훨씬 복잡해질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의 미래에 일차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한국사회로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다. 그 중에는 한국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 환경적 요소들도 있고 한국정부 내지 사회의 판단과 정책이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여지도 있다. 변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정부 및 사회의 책임과 지향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향후 한반도의 미래질서를 구축하는 데에서 한국이 보여줄 집합적 방향과 판단, 정책구상의 효과가 앞으로 훨씬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이 조사는 2011년 7월에 실시된 것이어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란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 및 남북관계,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태도나 인식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결과가 향후 미칠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매년 어떻게 달라져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포착해 오고 있다.<sup>1</sup> 이런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1. 2011년과 남북관계

한 해 전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2010년도가 휴전 이후 남북관계의 가장 위태로운 해가 아니었나 생각했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관계 속에서만 조심스레 논의되던 남북간 정치적 대화재개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2010년을 지나면서 현저하게 약해졌고 한국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강경한 원칙론이 점차 힘을 얻

---

<sup>1</sup> 2007년부터 매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간행된 박명규, 김병로 외, [2007 통일의식조사], [2008 통일의식조사], [2009 통일의식조사], [2010년 통일의식조사]를 참조할 것.

어가는 형세였기 때문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역시 한·미·일의 강고한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불일치와 상호불신도 커졌던 것을 기억한다. 2010년을 유별난 해로 만들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2010년 3월 25일 대한민국 구축함 천안함이 피격, 침몰되고 46명의 장병이 산화하는 비극적 참변이었다. 이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강경한 5.24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교류와 대북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이었다. 한때의 위기론을 넘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개성공단의 미래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게 된 것도 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5.24조치 이후의 일이다. 2010년 조사결과는 이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직후의 북한,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지형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통일의식은 바로 이 천안함 폭침 이후, 또 정부의 5.24조치 이후의 상황으로부터 1년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이 1년 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2010년도 말에 벌어진 연평도 피격사건이다. 천안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지난 반세기 남북관계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심각한 사건이었다. 북한은 11월 23일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에 불시 포탄 공격을 가하여 민가를 파괴하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한국의 연평도 앞바다 사격훈련을 비난하고 NLL의 무효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여 민간인을 사상시키고 민간인의 마을을 파괴한 예는 처음이었다. 이 도발은 북한의 공격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줌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대내외에 각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그 주체와 성격에 대한 국내외의 의혹과 불신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연평도 피격은 너무도 북한의 도발성이 뚜렷하고 이전과는 다른 위기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관련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010년 하반기 이래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이래 2011년의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 까지 줄곧 야당의 승리가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는 야당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정국 주도권을 크게 흔든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자랑처럼 여겼던 여당으로서는 기업 및 중도세력들의 불만과 비판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을 불안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정국 주도권의 상당한 약화로 이어졌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면에서도 5.24조치 이후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현정부 전반에 대한 민심이반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할 점은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 한국정부에 의해 통일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안팎으로 천명한 것인데 북한의 체제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과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의 실현불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치적 동기와는 별도로 한동안 뜸했던 통일론이 다시금 주요한 정책적 의제이자 국가전략의 목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가 두 차례 열리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남북한 간 접촉과 교류의 계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점은

특기할 일이다. 12월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새로 부임하여 전임 장관에 비해 유연한 대북정책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지만, 실제 조사가 시행된 이후의 일이므로 그 효과는 2012년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2011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무엇보다도 2011년은 2012년을 바로 앞둔 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의 권력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해이며, 선거로 인해 특히 남북관계가 논쟁과 토론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해온 때여서 무언가 특별한 준비가 불가피한 해다. 미국 역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국도 권력의 이행이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2011년은 더더욱 2012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정책이나 반응도 그것이 2012년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11년의 의식은 2010년도 이래 경험한 바의 누적적 효과임과 동시에 2012년도를 내다보고 전망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예비적 반응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2011년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보려 한다. 첫째로 작년 말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은 후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이 어느 정도 질적 전환을 나타내는가를 2010년도 조사결과와 비

교하여 검토하는 작업이다. 천안함 사건의 충격이 매우 컸지만 뒤이은 6.2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그 정치적 영향은 단일 방향이 아니었던 것에 비해 연평도 포격의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5.24조치 이후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5.24조치는 2011년 남북관계를 규율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던만큼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식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의식의 양면성, 이중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것이다. 흔히 언급하는 ‘민심’이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이 의식조사에서 줄곧 지적한 바 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발견되던 현실주의적이면서 양면적인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일정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전쟁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응 속에는 늘 모순적인 지향이 혼재하며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강경책에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미묘한 반응들이 존재한다. 군사적 응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군과 정부에 비난을 쏟아부는 한편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연에 조치하는 정치적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려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의식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쉽지 않지만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조사목적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1년에 들어서도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도 이래의 긴장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반응, 평가를 읽어낼 수 있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뚜렷하게 발견했던 ‘정부교체효과’가 이제 만 3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효과’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도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적 흐름을 포착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정책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

사회의 자기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의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못하지만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있는 변화와 흐름들이 확인된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비교됨으로써 일종의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로 이 조사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종합적 비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듯 무력충돌의 위험과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 위해서는 주변국의 반응과 개입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

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등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는가를 시계열별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월~8월 기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해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도 기본적으로 이전 조사의 문항들을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이전 통일의식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의 경우엔 설문 문항의 내용이 나 답지 구성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

계 인식이다.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부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개별 대북정책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어느정도 가졌는지, 또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도 조사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여론 반영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 대북 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뼈라 살포문제,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교류협력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문항도 이 부문에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설문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이밖에도 설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 무엇이며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최근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을 이번 조사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상이 이 설문조사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부분이다. 기초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일의식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이 질문들에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차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부인 기초 분석에서는 위의 기본 다섯 설문 부문에 대한 기초적 기술 통계를 소개하는 한편 지난 5년 간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고, 제2부인 심층 분석에서는 이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종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적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를 수록하여 다른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2011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요약뿐 아니라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이래 5년 간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11년 통일의식조사는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 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11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랜덤하게 추출하였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뽑힌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 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frequency)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제1부  
기초분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I. 통일에 대한 인식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의 중층적 구조는 국민의 통일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가 통일의식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통일의식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011년 조사에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도 사건은 6.25전쟁 이후 최초의 남한본토 공격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보불안을 크게 고조시켰다. 연평도 사건은 지난해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의 조사에서 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선 2010년 통일외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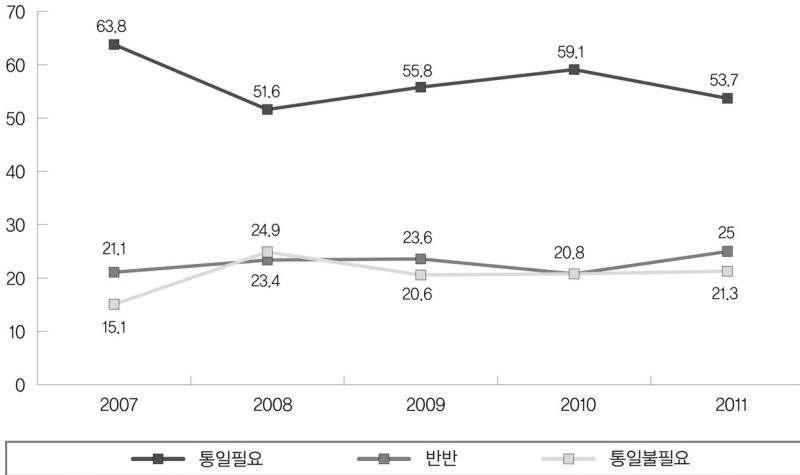
주의 관계,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희망체제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비교분석을 한다.

##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3.7%를 차지해,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25.0%)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1.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10년에 나타난 59%보다 5.4% 낮아졌다. 이로써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그림 1- I -1]에서 보이듯 2007년 63.8%에서 2008년 51.6%로 12.2%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고 선언하고 “통일 준비”를 주문한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통일공론화 사업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통일인식은 정부주도의 의식화 교육보다는 남북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통일 공론화 사업도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성별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60.7%인 반면에 여성은 46.4%에 불과해 남녀간 응답률 격차가 14.3%이다. 작년 조사에서는 남성 65.6%, 여성 52.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남녀간 응답률 격차가 13.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올해 조사에서 성별간 응답률 격차는 더 벌어져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보수화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29세의 보수화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9세~29세는 40.8%, 30대는 49.0%로 전체 평균 응답률(53.7%)보다 낮은 반면에 40대는 57.5%, 50대 이상은 63.9%로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경우 19세~29세를 제외한 30대~5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서는 모두 전체 평균 응답률(21.3%)보다 낮았지만, 19세~29세는 32.6%로

평균 응답률보다 훨씬 높아 19세~29세의 보수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충청권(60.3%)과 호남권(58.6%), 제주(76.9%)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영남권(46.9%)과 강원(48.6%)은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유지한 반면, 여타 지역은 통일의식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났다. 통일의식의 지역별 차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져 2009년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호남권의 통일 필요성 의식 하락과 충청권, 강원, 제주 지역의 통일 필요성 의식 상승이 지역간 차이를 좁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변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은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05년에 수도권의 통일의식은 낮은 편이었으나, 2008년 이후 급상승하여 2010년에는 가장 높은 호남권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충청권도 2008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높은 통일의지를 형성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진보와 중도에서는 약 8~9%가 떨어졌지만, 보수 성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진보와 중도는 천안함 사건과 달리 연평도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반면, 보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은 이념집단의 통일의식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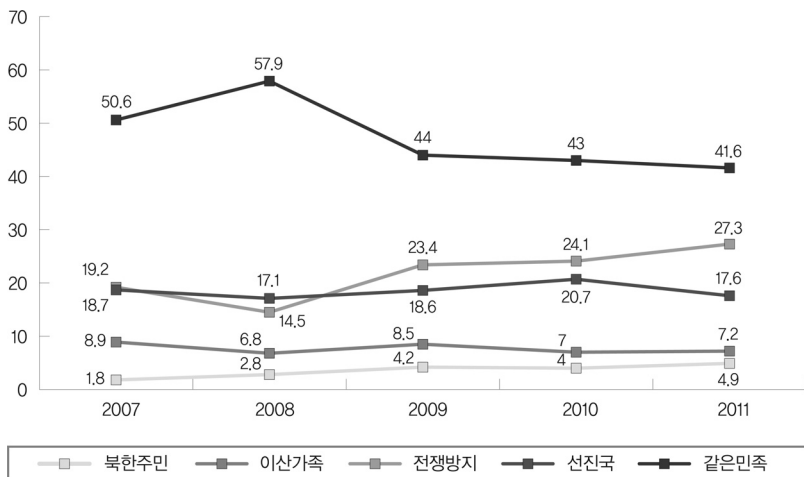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행위는 진보와 중도 성향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올해에 진보·보수간 통일의식 차이가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통일의 이유: 전쟁방지 비중 증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1.6%)를 꼽아 ‘민족의식’이 여전히 통일의 중요한 추동력이다. 반면, ‘전쟁방지’(27.3%)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17.6%), ‘이산가족 고통해소’(7.2%),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4.9%)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5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6%→2008년 57.9%→2009년 44.0%→2010년 43.0%→2011년 41.6%로 변했으며, 올해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의 응답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그림 1- I -2]에서 보듯이 2007년 19.2%→2008년 14.5%→2009년 23.4%→2010년 24.1%→2011년 27.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통일의 주요 이유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강조된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2008년 17.1%→2009년 18.6%→2010년 20.7%로 계속 상승세이었으나 2011년 17.6%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갔다. 이는 여전히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동기부여에 경제적 발전보다는 군사적 대립 해소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I -2] 통일의 이유

연령별로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52.9%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39.5%, 41.1%로 중간이었고, 19세~29세는 29.5%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화’ 이유에 대해서는 19세~29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전쟁방지’ 응답에서 19세~29세는 34.9%로 30대(27.1%), 30대(26.0%), 50대(22.9%)에 비해 높았고, ‘선진화’ 응답에서도 22.8%로 다른 연령층(30대 19.3%, 40대 18.2%, 50대 11.8%)에 비해 높았다. 이는 19세~29세 젊은층의 통일외식을 특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19세~29세가 전쟁과 선진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함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를 이념적 틀로 보지 않고 ‘전쟁의 방지’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매우 실용적이며 독립국가적 사고의 틀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흥미롭게 교육수준에 따라 상반된 응답태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까’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57.9%가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했지만, 고졸 응답자는 45.8%,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는 34.5%만이 선택했다. 반대로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는 통일의 이유로 ‘선진화’를 선택한 비율이 21.5%인 반면에, 고졸 응답자는 15.8%, 중졸 이하는 6.2%만이 선택하였다.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 태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불교의 경우는 51.3%가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한 반면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는 각각 39.8%, 38.2%만이 선택했다. 반대로 천주교의 경우 통일의 이유로 ‘선진화’를 선택한 비율이 20.9%인 반면에, 불교는 13.3%에 불과했다.

##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 1) 통일의 추진 속도

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급속한 통일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진적 통일이나 빠른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응답 모두 정체상태에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07년 10.6% → 2008년 9.6% → 2009년 8.6% → 2010년 10% → 2011년 9.6%로 오차범위 ±2.8%를 감안하면 5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70.6% → 2008년 64.8% → 2009년 68.3% → 2010년 67% → 2011년 66.9%로 2009년 이후 3년 연속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역시 2007년 7% →

2008년 8.5% → 2009년 7.5% → 2010년 6.9% → 2011년 8.2%로 오차 범위  $\pm 2.8\%$ 를 감안하면 5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 추진 속도에 대한 의식의 정체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 준비’에 대한 전망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 주목된다.

연령별로 보면, ‘점진적 통일’에 대해서는 40대의 응답률이 71.2%로 다른 연령층의 응답률(58.9%~68.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현상유지’는 20대의 응답률이 22.1%로 다른 연령층의 응답률(11.3%~16.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20대가 10.8%인 반면에 40대는 5.7%로 거의 2배 가까운 격차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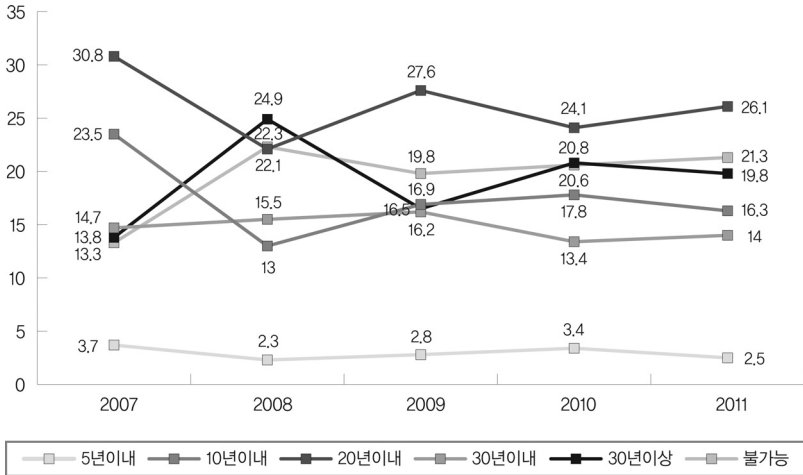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영남권의 응답자들이 ‘점진적 통일’에 대한 의견은 가장 낮은 반면, ‘현상유지’에는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 점진적 통일에 대해 영남권은 54.8%로 수도권(71.5%), 충청권(77.4%), 호남권(64.9%)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현상유지’는 22.6%로 수도권(14.3%), 충청권(9.4%), 호남권(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은 ‘빠른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15.2%로, 다른 지역의 응답률(수도권 9.1%, 충청권 7.7%, 영남권 10.0%, 강원 2.9%, 제주 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종교에 따른 응답 격차도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점진적 통일’에 대한 응답률의 경우 천주교가 81%인 반면에 불교와 기독교는 모두 63.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빠른 통일’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5.2%에 불과한 반면, 불교와 기독교는 각각 13.7%, 16.8%로 나타났다. 또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의 경우 천주교와 기독교는 각각 5.1%, 6.9%인 반면에 불교는 11%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2) 통일의 가능 시기

올해 조사에서는 통일을 5~10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 전망보다는 20년 혹은 30년의 장기적 전망이 많았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단기적 전망에 해당되는 ‘5년, 10년 이내’로 보는 견해는 각각 2.5%, 16.3%였고, 중장기인 ‘20년,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은 각각 26.1%, 14.0%였으며, 그리고 ‘30년 이상’,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각각 19.8%, 21.3%나 되었다. [그림 1- I -3]에서 보이듯 전반적으로 올해 결과는 지난해 조사 결과의 패턴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통일인식을 강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1- I -3]에 나타나듯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5~10년 이내’로 예측했던 단기 통일 가능 의견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과 ‘불가능’의 의견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5년 이내’의 응답을 제외한 다른 응답 범주가 2007~2009년 시기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에, 2011년에는 응답 범주의 분포가 상당히 좁혀졌다. 5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응답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서 2007년 13.3%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21.3%까지 늘어나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1-I-3] 통일가능시기 전망

한편,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해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응답자의 경우 ‘20년 이내’의 응답률(28.8%)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2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에 비해 여자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19세~29세를 제외한 30대~5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시기는 ‘20년 이내’이며, 19세~29세는 ‘30년 이상’(33.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고, 연령층간 응답률의 격차도 크지 않아 19세~29세 20.9%, 30대 24.3%, 40대 19.2%, 50대 이상 20.9%로 나타났다.

### 3. 통일에 대한 기대

#### 1)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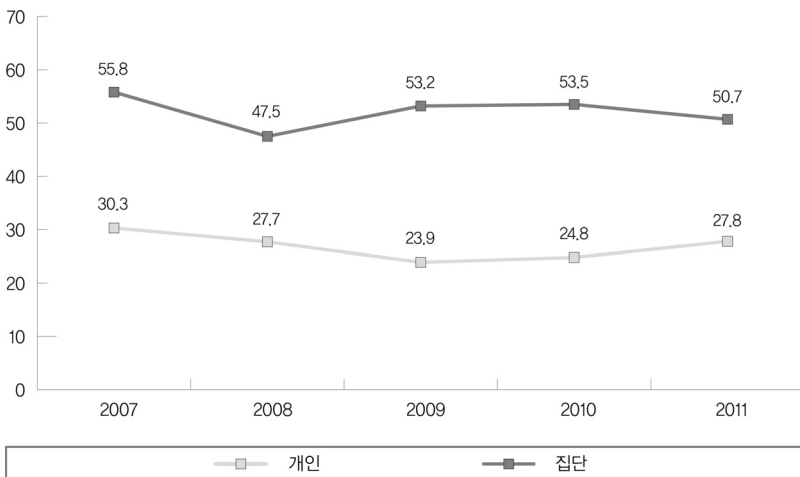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의 질문에 50.7%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49.3%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27.8%만이 ‘이익이 된다’고 대답한 반면, 72.2%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로써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1- I -4]에서 나타나듯이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간의 격차는 2008년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벌어졌고 2011년에는 다시 좁혀지고 있다. ‘집단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55.8% → 2008년 47.5% → 2009년 53.2% → 2010년 53.5% → 2011년 50.7%로 초반에 급강하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30.3% → 2008년 27.7% → 2009년 23.9% → 2010년 24.8% → 2011년 27.8%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양자의 기대감 격차는 2009년에 29.3%로 가장 크게 벌어졌지만 2011년에는 22.9%로 눈에 띄게 줄었다.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양자의 격차는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영향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인식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격차가 큰

경우 정부와 사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통일 대비 차원에서 국민들은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조세에 당면해서는, 부담을 느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집단지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의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기대감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이 가져올 지리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이익이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개개인의 삶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통일정책을 준비해야만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I-4] 통일의 기대이익: 집단과 개인

한편,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 인식에서 성별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남자의 응답률은 '집합적 이익 기대감'(56.3%)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34.2%) 모두에서 여자의 응답률(44.8%, 21.2%)보다 큰 비율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에서 19세~29세·30~50대 이상이 각각 49.2%, 47.8%, 45.6%인데 비해 40대는 60.3%라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도 다른 연령층이 19세~29세(22.9%), 30대(27.5%), 50대 이상(25.7%)인데 비해 40대는 34.6%의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른바 386세대로 불렸던 진보적 세대의 통일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으나, 일부 영역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응답 분포를 보면,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응답률이 큰 격차를 보였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중졸 이하의 응답자의 경우 '집단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이 각각 34.9%, 20.8%이지만,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각각 45.6%, 28.6%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집합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띤다.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집단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이 각각 41.8%, 25.3%인 반면에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각각 56.6%, 29.4%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집합적 이익 기대감'에서 더 크다. 결과적으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변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통일이 가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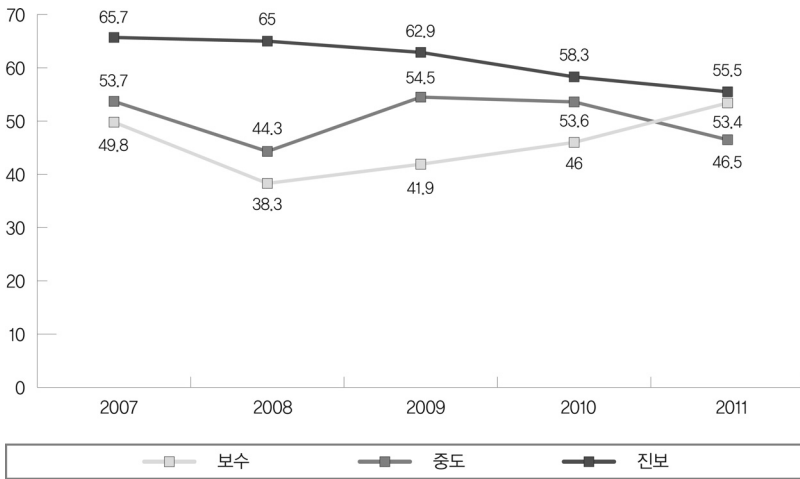
줄 ‘개인적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 지역만이 유독 특이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다.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은 46.2%~54.3%에 분포하지만, 강원 지역은 25.7%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이 23.7%~29.6%에 분포하는 반면에 강원 지역은 3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 응답 태도에서는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응답률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그림 1-I-5]에서 보듯 진보적 성향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2007년 65.7% → 2008년 65.0% → 2009년 62.9% → 2010년 58.3% → 2011년 55.5%로 5년 연속 줄어들었다. 반면에 보수적 성향에서는 2007년 49.8% → 2008년 38.3% → 2009년 41.9% → 2010년 46.0% → 2011년 53.4%로 상승세에 있다. 그 결과 진보와 보수 간의 응답률 격차가 2007년에 15.9%에서 2011년 2.1%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양집단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보수적 성향에서보다 진보적 성향에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서 진보적 성향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이 ‘개인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정치 성향별 응답 태도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다.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격차는 2007년 11.1%(진보 38.3%, 보수 27.2%)에서 2010년 8.3%(진보 37.2%, 보수 28.9%)로 소폭 줄어들었다.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 대한 정치 성향별 응답 분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은 32.5%에서 37.2%로 4.7%로 줄어든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은 18.1%에서 28.9%로 10.8%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부가 통일공론화 사업, 특히 통일편익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 보수적 성향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I-5] 정치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위의 질문은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한 것으로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성이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이전에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은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면 통일의 편익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대수준이 낮다면 통일의 편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 모든 사회문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났다. 단,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항목에서 ‘통일 이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모두 20% 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데 반해, 유일하게 ‘실업문제’에서는 20%가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세계 경제위기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우리사회의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개발붐이 일어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는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응답률이 45.7%로 나타나 통일로 인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별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률을 보면, 통일 이후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실업문제 25.5% → 부동산투기 17.3% → 이념갈등 13.5% → 빈부격차 13.1% → 지역갈등 10.0% → 범죄문제 6.9% 순서로 나타나 사회문제 중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반면에 ‘범죄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반대로 ‘통일이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범죄문제 75.1% → 빈부격차 70.6% → 이념갈등 70.1% → 지역갈등 67.8% → 부동산투기 61.8% → 실업문제 60.8%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 이후 범죄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치안문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회문제가 통일 이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통일사회상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통일의 편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론화 사업이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미래의 통일사회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된다.

#### 4. 통일과 민주주의

우리 국민은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가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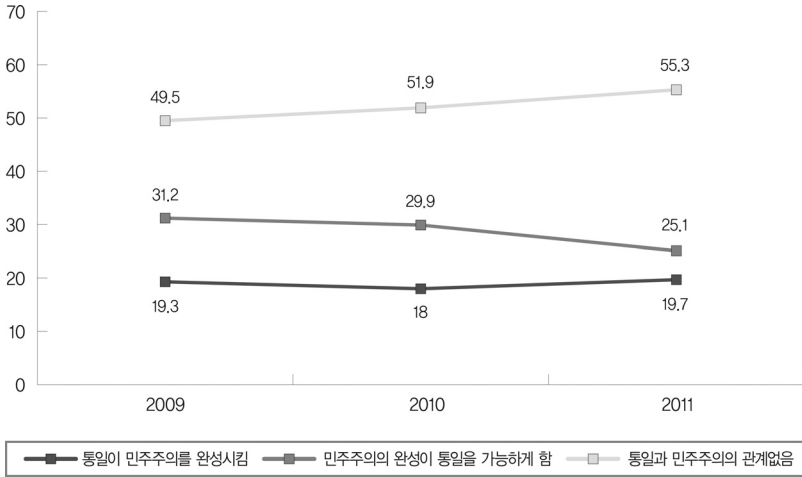
먼저,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응답자는 19.7%,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5.1%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5.3%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반을 넘는다.

지난 3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1-I-6]에서 보이듯 ‘남한사회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반면에 ‘둘 간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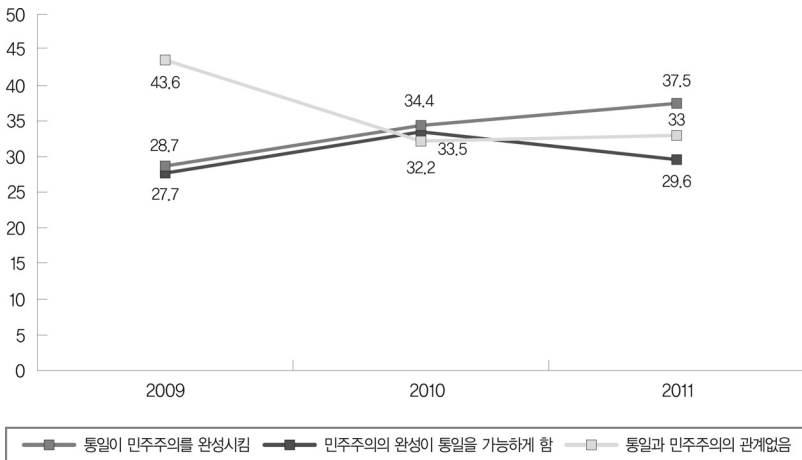
일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응답은 2009년 19.3% → 2010년 18% → 2011년 19.7%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09년 31.2% → 2010년 29.9% → 2011년 25.1%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조적으로,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은 2009년 49.5% → 2010년 51.9% → 2011년 55.3%로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볼 때, 우리 국민은 과거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계하여 접근하던 틀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통일을 민주주의 문제와 분리된 독립된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우는 남한과 달리 아직까지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관계가 없다’는 응답보다 많게 나타났다. 또 남한의 경우와 달리 북한에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그림 1- I -7]에 보이듯 2009년 28.7% → 2010년 34.4% → 2011년 37.5%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09년 27.7% → 2010년 33.5% → 2011년 29.6%로 아직은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은 2009년 43.6% → 2010년 32.2% → 2011년 33%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북한인권 문제나 대북전단지 살포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보다 북한에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없으며 통일과 같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I-6]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관계



[그림 1-I-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이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양자가 관계가 있다’는 응답에서는 연령별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19세~29세와 30대는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통일이 되어야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대로 40대와 50대는 전자의 응답이 후자의 응답보다 더 많았다.

북한의 경우에는 응답 분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19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인식한 반면, 19세~29세만 유일하게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일 정책에 대한 연령층 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북한의 내부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같은 외적 요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빠른 통일에 대해 좀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19세~29세와 같이 어린 연령층은 북한의 내부분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북한 인권 개선이나 북한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 분포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남한에서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보수적 성향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61.4%로 전체 평균 55.3%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별 응답태도의 차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경우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률이 24.7%에 불과했으나, 보수적 성향에서는 40.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진보와 중도에서 모두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보수적 성향은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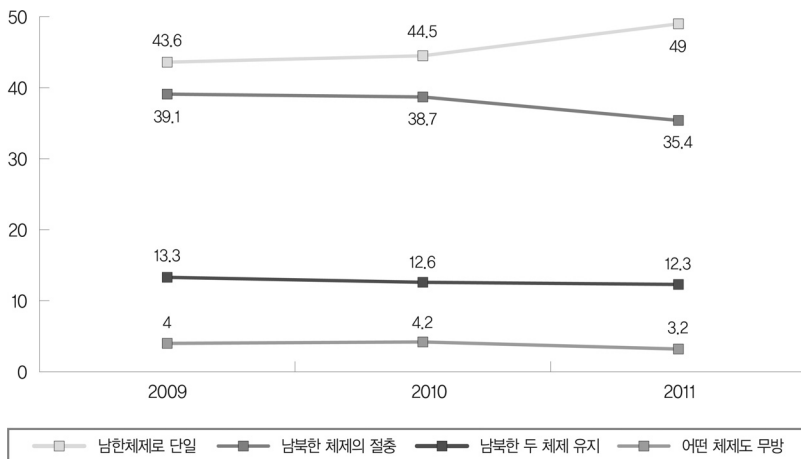
##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의 44.5%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5.4%로 2010년의 38.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와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각각 12.3%, 3.2%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1- I -8]에서 보이듯,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남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남한체제로 단일화한다는 응답은 2009년 43.6% → 2010년 44.5% → 2011년 49%로 3년 동안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2009년 39.1% → 2010년 38.7% → 2011년 35.4%로 3년 동안 계속 하락하였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두 체제를 각각 유지한다’는 응답은 2009년 13.3% → 2010년 12.6% → 2011년 12.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통일만 된다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 역시 2009년 4% → 2010년 4.2% → 2011년 3.2%로 3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다.

이상의 3년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늘어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남북한 체제의 공존형’은 낮은 선호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통일방식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일 이후 김정으로 이어지며 3대 부자세습이 확실히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I -8]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연령층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세~29세와 30대의 응답률은 각각 55.5%, 51.1%로 전체 평균 응답률(49%)보다 높았던 반면에,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은 각각 45.4%, 45.5%로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았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체제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한 절충형’에 대한 응답률은 20대 30.9%, 30대 34.6%, 40대 38%, 50대 이상 37.2%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보면, ‘통일 이후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은 영남권(58.2%), 강원(60%), 제주(61.5%)이었고, 반대로 응답이 적었던 지역은 호남권(36.8%),

수도권(46.2%), 충청권(46.2%)으로 나타났다. ‘절충형’의 경우는 호남권(47.7%)이 가장 많았고, 강원(14.3%)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공존형’의 경우는 강원(25.7%)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과 제주가 동일 비율(7.7%)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별 분포는 흥미롭다. 보수적, 진보적, 중도적 성향 모두에서 남한의 현 체제 유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수 > 중도 > 진보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보수는 52.9% → 51.8%로 줄었지만, 진보는 43.6% → 46.2%로 중도는 41% → 49.2%로 모두 증가했다. 반대로 ‘절충형’의 경우 진보와 보수는 각각 37.7% → 40%, 29% → 32.1%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중도는 44.2% → 34.4%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밖에 ‘남북한 두 체제를 각각 유지한다’는 항목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항목에서는 정치적 성향별 큰 격차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통일 한국의 체제로서 절충형에서 남한체제의 단일형으로 크게 이동한 점이 주목되는 변화이다. 이러한 중도의 인식 변화는 지난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통해 목격한 북한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남한체제의 단일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6. 소결

2011년 통일 인식에는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단순히 교류협력의 양적 감소 수준을 넘어 군사적 대립 양상으로까지 악화되자 통일에 대한 비판적 또는 회의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5.4%가 낮아졌으며,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

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모두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다. 또한 ‘통일이 남한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 요소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현실주의적인 통일 의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서 ‘남북한 간 전쟁방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009년 이후 계속 증가고 있다. 또 통일의 가능 시기 역시 단기적 전망(5~10년 이내)은 줄어들고 중장기적 전망(20~30년)은 늘어났다. 그리고 주요 사회문제들 중에서 ‘실업문제가 통일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은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체제로의 단일형’과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양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배경변수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여자의 응답률은 남자의 응답률보다 14.3%나 낮았다. 연령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9세~29세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서 19세~29세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응답에서는 19세~29세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지역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통일에 우호적인 호남권의 의식이 주춤해졌으며,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에서 통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는 의욕적으로 통일공론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흡수통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남한 주도의 합의통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가 하면, 현실적인 통일준비론

을 강조하며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통일교육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통일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에 의한 파급효과와 남북관계의 오랜 교착상태가 정부 노력의 효과를 상쇄해버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 안에서 통일에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시도하는 것과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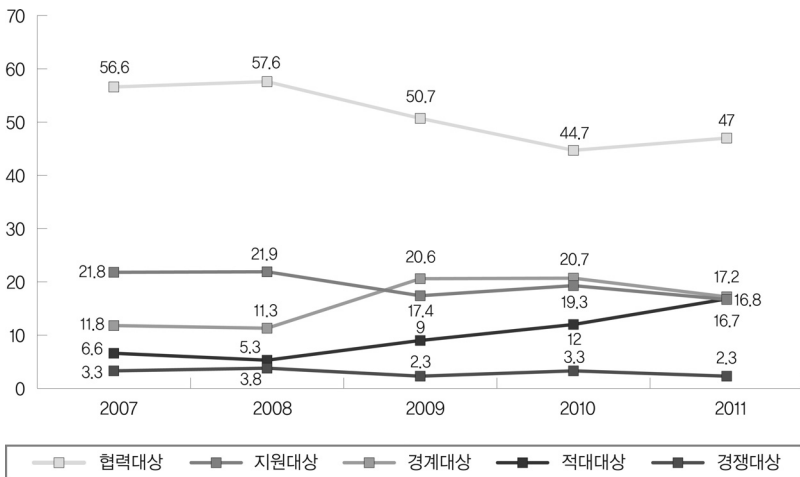
## II.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 안에서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이나 위협적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사건이 대북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0%

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17.2%, ‘지원대상’ 16.7%, ‘적대대상’ 16.8%, ‘경쟁대상’ 2.3%로 각각 응답했다.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2.3% 증가하였으며,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각각 3.5%, 4.8% 높아졌다. 반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2.6% 감소했다. 작년까지는 ‘협력대상’이 감소하는 만큼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이 증가하는 상반된 관계를 보여 왔는데, 2011년에는 ‘협력대상’과 ‘적대·경계대상’이 동반 상승하는 특이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작년까지 지속되던 비판적·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2011년을 기점으로 양극화되는 양상으로 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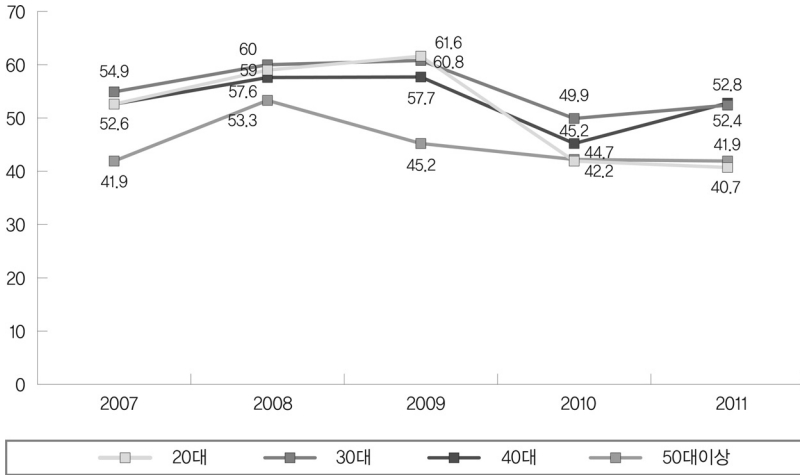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이처럼 대북인식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사건 등 남북간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같은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의식이 성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남북관계의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의식이 함께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대북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희망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와 19세~29세, 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II-2]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30·40대와 20·50대의 두 집단으로 정확히 구분되었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23.8%, 26.2%로 높게 나왔다.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가 40대로부터 분리되어 40대에서만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19세~29세와 30대, 50대 이상에서는 ‘지원대상’이 각각 16.2%, 18.3%, 16.3%인데 비해, 40대는 26.2%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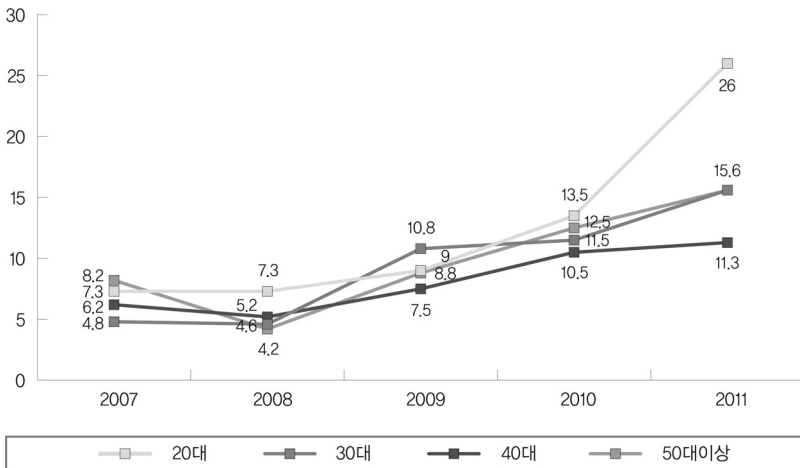
세대별 대북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북한 ‘협력대상’ 인식에서 2010년에 40대가 19세~29세·30대 그룹으로부터 50대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2011년에 다시 30대 쪽으로 이동하여 협력적 대북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19세~29세의 경우에는 2010년에 30·40대로부터 벗어나 50대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 흐름이 뚜렷해진 이후 2011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9년까지는 북한의 존재인식에서 19세~29세가 30~40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50대 이상 그룹 쪽으로 이동하였고, 2011년에도 그러한 패턴이 지속되었다. ‘협력대상’ 응답을 보면, 30대와 40대는 각각 52.4%, 52.8%이며, 2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0.7%, 41.9%로 30·40대와 19세~29세·50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림 1-II-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20대의 보수화’는 [그림 1-II-3]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11년에 급상승한 데서도 발견된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응답한 19세~29세는 26.0%로 30대·50대(15.6%)나 40대(11.3%)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19세~29세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비율(35.0%)이 다른 연령층(30대 28.1%, 40대 27.1%, 50대 23.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세~29세가 협력적 대북인식을 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이른바 ‘북한효과’에 19세~29세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월드컵축구 이후 한동안 휩쓸던 19세~29세의 진보적 경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보수화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2009년에는 촛불시위 등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

‘20대의 보수화’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2010년 이후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반면 40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통일의식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2011년에는 협력적 대북인식이 다시 높아졌다. 이는 연평도 폭격과 같은 충격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30·40대는 북한을 협력적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안정된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실용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II-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협력대상’ 인식에서 중졸(34.7%) < 고졸(46.3%) < 대졸(50.3%)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경계대상’ 인식에서 중졸이 하가 27.1%로 고졸(17.2%)이나 대졸(15.2)보다 10%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경계대상’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특히 전업주부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적대대상’에서는 남자(19.6%)이 여자(13.8%)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다른 의식을 보이던

호남권의 특성이 약화된 반면, 2011년에는 영남권의 의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48.2%, 55.1%, 50.0%인데 비해, 영남권은 38.9%로 매우 낮았다. 또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각각 15.0%, 17.1%, 14.9%인데 비해, 영남권은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북인식에서 호남권이 보이던 기존의 흐름과 매우 달라진 현상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5.1%, 25.4%, 32.8%였는데 비해, 호남권은 10.1%로 매우 낮았으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9.7%, 17.8%, 16.9%인데 비해, 호남권은 27.7%로 매우 높았다. 한편, 강원지역의 ‘협력대상’ 응답은 6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경계대상’ 응답은 8.6%로 매우 낮아 호남권의 특성이 약화된 부분을 강원지역이 차지하였다. 또한 ‘적대대상’이라는 강한 비판의식은 다른 지역(충청 13.2%, 호남 12.9%, 강원 11.4%)에 비해 영남권(17.6%)과 수도권(17.9%)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호남권의 대북 긍정인식의 둔화와 영남권의 대북경계인식 상승, 강원지역의 대북협력인식 강화 등의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의한 위협 및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수준을 넘어서 연평도 폭격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매우 절박한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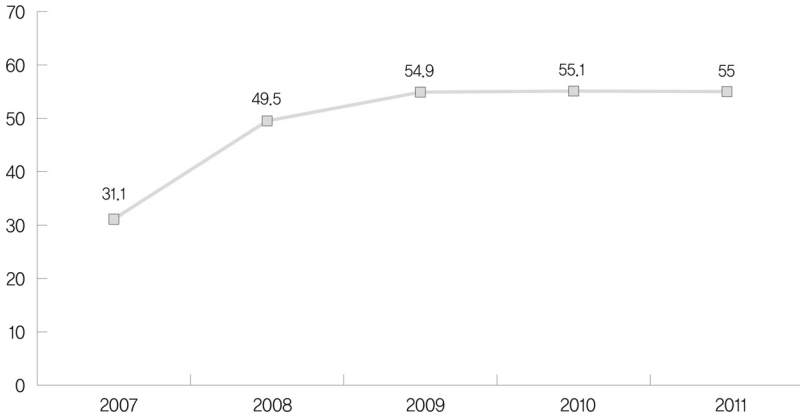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보의 대북인식이 비판적·부정적 성향을 유지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진보가 2009년에 60.9%에서 2010년에 49.4%로 줄었고, 2011년에도 49.5%로 작년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2009년에 15.5%에서 2010년에 18.6%로 늘었으나 2011년에는 12.5%로 낮아졌다. 그러나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진보는 작년의 11.1%에서 2011년에 16.4%로 늘어났다.

2010년에 급격히 감소했던 진보의 협력적 대북인식은 현상 유지되었으나, ‘경계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이동하는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진보의 대북인식이 비판적·부정적으로 변한 데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별로 보면, 종교간 대북인식이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21.1%, 22.7%로 불교(17.4%)와 무종교(13.7%)에 비해 높았으며, ‘협력대상’에서는 천주교가 51.2%로 기독교(46.2%)와 불교(45.6%), 무종교(47.0%)에 비해 높았다. ‘경계대상’에서는 천주교(8.7%) < 기독교(14.4%) < 무종교(18.5%) < 불교(20.1%)로 천주교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에서는 불교(13.8%) < 기독교(14.9%) < 천주교(15.7%) < 무종교(19.3%)로 불교가 가장 낮았다.

##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지 않고 있다’(55.0%)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45.0%)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작년과 동일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은 2007년(31.1%) → 2008년(49.5%) → 2009년(54.9%) → 2010년(55.1%) → 2011년(55.0%)로 2008년과 2009년에 높아진 이후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Ⅱ-4] 대북 비판의식

연령별로 보면, 19세~29세·50대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유지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50대(58.0%) > 19세~29세(57.0%) > 30대(54.1%) > 40대(50.9%) 순으로 30~40대에 비해 19세~29세·50대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을 비교하면 이른바 386세대인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19세~29세의 보수화 경향도 강화되었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간 의식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대북우호인식에서 호남권(55.2%) > 충청권(50.4%) > 수도권(45.0%) > 영남권(40.5%)으로 각 지역간에 5%의 차이를 유지하였다. 작년에 충청권이 빠른 속도로 호남권과 같은 대북 우호인식을 형성해 가던 추이가 다시 분화되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보수(62.1%) > 중도(55.4%) > 진보(48.4%)로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였다. 작년에는 중도(60.1%)가 보수(57.5%)를 압도하는 비판의식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보수의 대북 비판의식이

62.1%로 높아지고 중도가 55.4%로 낮아짐으로써 정치이념별 대북의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회에서는 2011년에 정치이념간 차이가 줄어든 반면, 대북인식에서는 이념적 차이가 더 확연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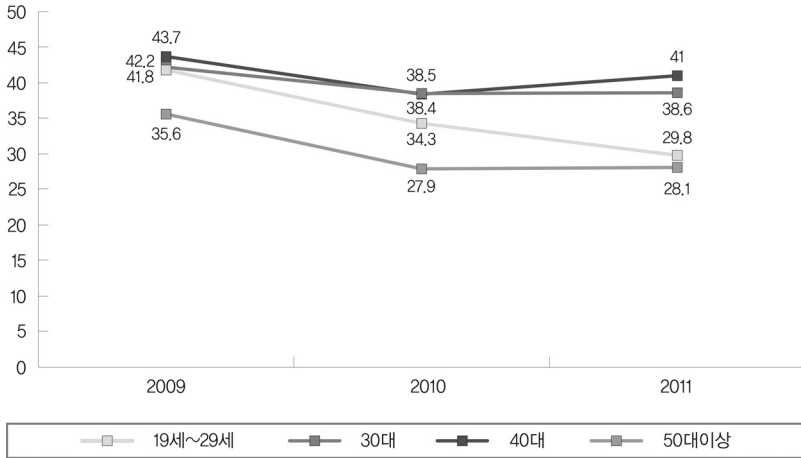
종교유무로 보면, 무종교(59.2%)가 유종교(52.0%)에 비해 대북 비판 의식이 강했으며, 종교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기독교(53.8%)와 천주교가 (52.3%)가 불교(49.9%)보다 약간 높은 대북 비판의식을 유지했다.

###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5.7%로 ‘가능하다’(34.3%)는 응답보다 2배가 많았으며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0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이 그 이전 해(59.1%)에 비해 6%가 높아진 65.1%였으나, 2011년에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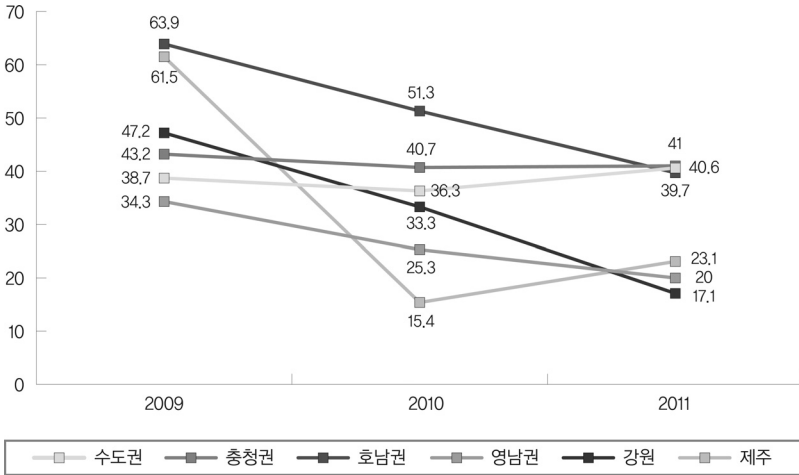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능하다’는 신뢰가 각각 38.6%, 41.0%로 높았으며, 19세~29세와 50대는 각각 29.8%, 28.1%로 낮았다. 대북 신뢰도 인식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상인식과 마찬가지로 30~40대와 19세~29세·50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30~40대가 19세~29세·50대에 비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대북 신뢰도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Ⅱ-5]에서와 같이 20대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즉 다른 연령층에 비해 19세~29세의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림 1-II-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각각 40.6%, 41.0%, 39.7%로 비슷한 데 비해 영남권은 20.0%로 매우 낮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호남권의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 2010년에는 51.3%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2011년에는 39.7%로 대폭 감소하여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유사한 대북인식을 형성했다. 호남권의 이러한 현상은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11월의 연평도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천안함 사건은 국내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반복되던 서해상의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되었으나, 연평도 사건은 본토의 공격 가능성과 전쟁에 대한 우려를 가져다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대북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제적인 전쟁의 위협 상황 속에서 호남권의 대북 신뢰도가 매우 위축됨으로써 은둔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반면, 영남권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20%나 높은 불신의 의식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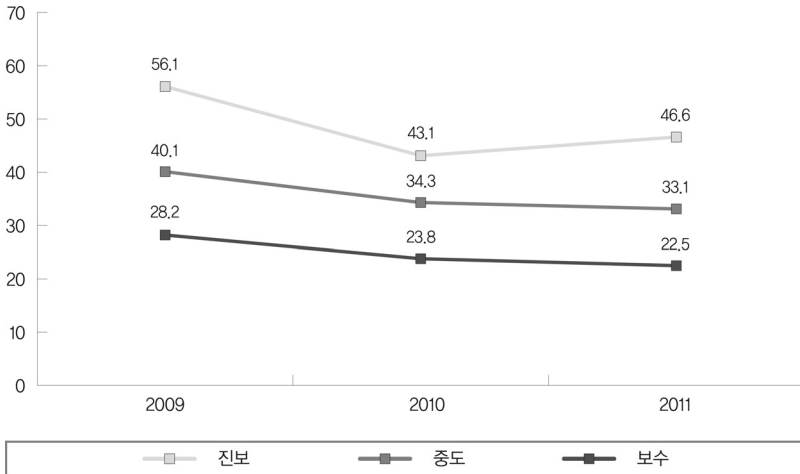


[그림 1-II-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정치적 이념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6.6%) > 중도(33.1%) 보수(22.5%) 순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진보의 대북신뢰도는 2009년(56.1%) → 2010년(43.1%) → 2011년(46.6%)으로 2010년에 13%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2011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sup>2</sup> 이는 진보가 2010년에 느꼈던

<sup>2</sup>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으로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지형이 급격히 변화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진보층은 8.2%나 확장되고 보수층은 5.1%가 줄어든 것이다. 2011년에는 진보 27.9%, 중도 48.1%, 보수 24.0%로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으로부터 대화상대 내지 신뢰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II-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3.2%로 2009년(83.7%), 2010년(82.8%)과 거의 비슷하였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불신은 2008년의 71.7% 보다 11~12%나 늘어난 것이며, 이는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 11월의 연평도 사건 등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이나 정치적 성향, 종교 등 여러 변수에 차이가 없었다.

표 1-1-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연도	2008	2009	2010	2011
백분율	71.7%	83.7%	82.8%	83.2%

2011년의 특이한 점은 '연평도 효과'가 작년의 천안함 효과와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권(66.4%)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식이 다른 집단(영남권 86.5%, 중부권 88.1%, 수도권 82.7%, 강원 91.7%)보다 20% 정도 낮게 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는 수도권(80.9%), 충청권(91.0%), 호남권(83.6%), 영남권(83.6%)로 호남권의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호남권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2009년에 5%였던 것에 비하면 2010년에 호남권이 보인 경향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전개된 정부 정책에 대한 일종의 불신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4. 북한위기의식

#####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5.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5.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2007년(68.2%) → 2008년(61.3%) → 2009년(74.3%) → 2010년(73.8%) → 2011년(80.7%)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세대, 교육,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이념, 종교, 성별 등의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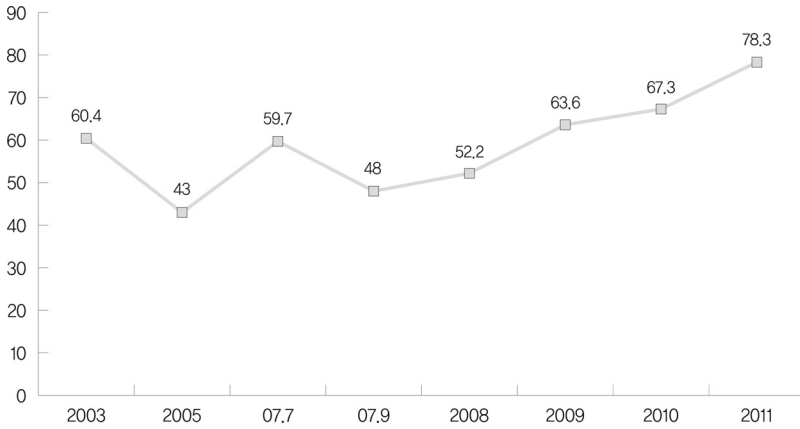
지역적으로는 충청권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70.9%로 수도권(84.0%)이나 영남권(81.0%)이, 호남권(77.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적으로는 보수가 89.3%로 중도(79.5%)나 진보(75.6%)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불교 82.2%, 기독교 84.0%, 천주교 85.2%)보다 무종교(77.3%)가 ‘북핵 위협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여자(83.3%)이 남자(78.2%)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대답했다.

천안함 효과가 작용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작년에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금년에는 정치이념과 지역에서 분화가 진행되었고 성별에서도 남녀간에 작년의 10% 차이가 5%로 줄어들었다. 이는 이번 조사에 작용했던 연평도 효과가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위협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생각된다.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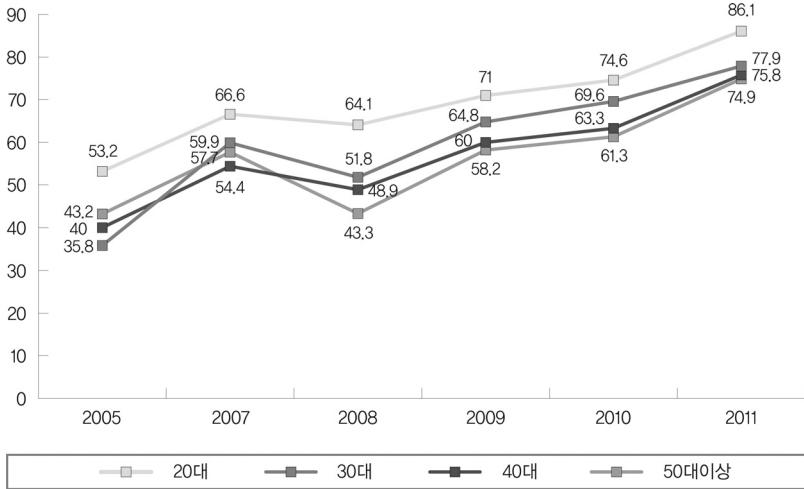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78.3%)는 응답이 ‘없다’(21.7%)는 응답보다 네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2007년(59.7%) → 2008년(52.2%) → 2009년(63.6%) →

2010년(67.3%) → 2011년(78.3%)로 변화했다. 전쟁 불안감은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1.4%가 높아졌고, 2011년에 다시 11%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1-II-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19세 ~ 29세가 86.1%로 30대(77.9%), 40대(75.8%), 50대 이상(74.9%)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나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까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다른 연령층으로부터 19세 ~ 29세가 갈라져 나왔다. 이는 19세 ~ 29세의 젊은 세대는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복무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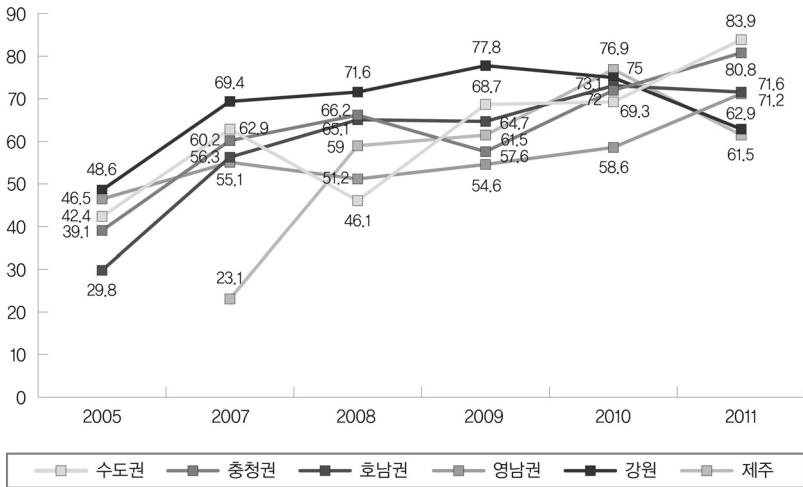


[그림 1-II-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지역별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수도·충청권, 호남·영남권, 강원·제주권 등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수도권과 충청권은 각각 83.9%, 80.3%로 응답하여 호남권(71.6%)과 영남권(71.2%)에 비해 8~9%가 높고, 강원(62.9%)과 제주(61.5%)에 비해 20% 가량 높았다. 2010년에는 영남권이 58.6%로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에는 영남권의 안보불안도 높아졌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안보불안 심리가 크게 고조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불안인식은 정권의 지지와 깊은 관련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46.1%)이 영남권(51.2%)과 함께 다른 지역(중부 66.2%, 호남 65.1%, 강원 71.6%)에 비해 안보불안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수도권의 안보불안이 2008년(46.1%) → 2009년(68.7%) → 2011년(83.9%)로 급상승했고, 2010년 이후에는 중

부권의 안보불안도 2009년(57.6%) → 2010년(72.0%) → 2011년(80.8%)로 급상승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던 수도권이 2009년에 이탈했고 2010년에는 중부권이 이탈함으로써 안보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원인은 핵 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야기된 것이나, 수도권과 충청권의 안보불안 증대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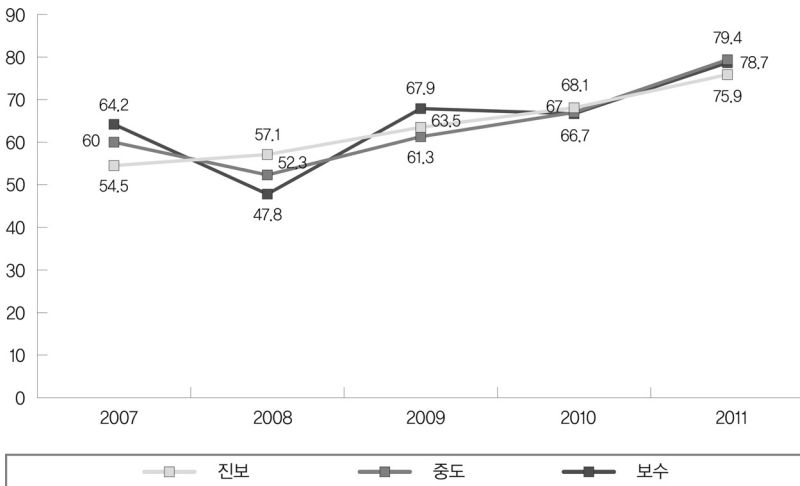


[그림 1-II-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진보(75.9%), 중도

3- 두 지역의 높은 안보불안심리가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엇갈렸다. 대북정책 만족도는 충청권에서 18.4%로 호남권(24.1%)보다 낮은 반면, 수도권은 43.5%로 영남권(48.5%), 강원(42.9%)과 비슷하여 충청권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79.4%), 보수(78.7%)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천안 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안보불안이 크게 높아져 정치이념간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뚜렷하였다. 즉 2007년에는 보수(64.2%)가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반대로 진보(57.1%)가 보수(47.8%)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에는 ‘북한효과’가 압도하여 보수가 안보불안을 더 크게 느끼거나 진보·보수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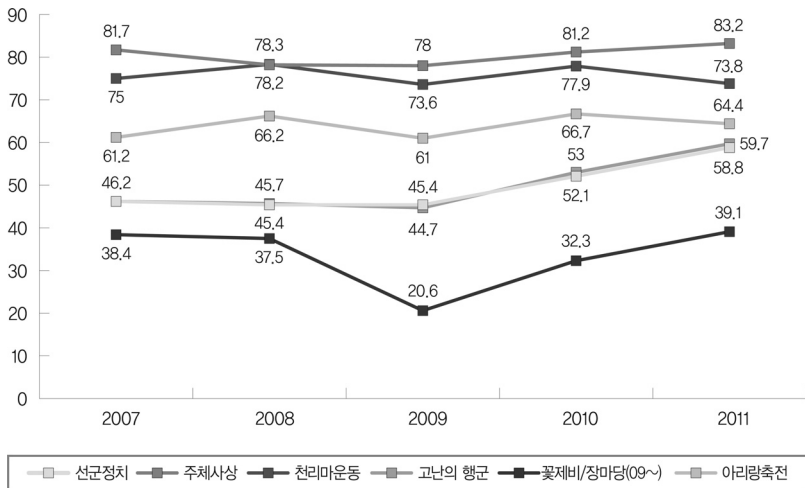


[그림 1-Ⅱ-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1년에는 작년에 이어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2008~2009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그림 1-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11년에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다. 2011년에 북한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부가 통일준비 및 통일공론화 사업 등 통일교육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북중관계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세 차례나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북한관련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Ⅱ-12] 북한사회 인지도

연령별로는 19세~29세의 북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고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북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 4년간은 호남권의 북한관련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수도권과 영남권은 가장 낮았다. 그런데 2010년에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 이어 2011년에는 영남권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선군정치’ 인지도는 영남권(61.2%) > 수도권(59.6%) > 충청권(57.7%) > 호남권(53.4%)의 순이며, ‘장마당’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영남권(44.0%) > 수도권(42.6%) > 충청권(29.9%) > 호남권(19.8%)의 순으로 영남권과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영남권과 수도권이 북한관련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2009년까지 호남권의 북한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 이후 완전히 달라져 2011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군정치’, ‘장마당’, ‘주체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호남권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급작스런 호남권의 변화는 북한효과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호남권의 전반적인 은둔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사회 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북한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지난 4년 동안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인적 왕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31.5%로 2009년의 46.2%나 2010년의 37.4%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4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2007년(40.8%) → 2008년(31.2%) → 2009년(46.2%) → 2010년(37.4%) → 2011년(31.5%)로 2009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남북왕래의 단절과 인터넷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의 통제로 북한서적과 매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07년(8.9%) → 2008년(9.3%) → 2009년(10.9%) → 2010년(13.8%) → 2011년(16.2%)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이나 개성 등 북한방문경험자는 지난 4년간 2007년(4.5%) → 2008년(3.5%) → 2009년(4.2%) → 2010년(3.8%) → 2011년(4.3%)로 등락을 거듭하고, 자원활동과 단체참여 경험도 2007년(2.8%) → 2008년(2.4%) → 2009년(1.4%) → 2010년(2.2%) → 2011년(2.0%)로 부침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관련 경험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남권이 9.4%로 수도권(19.0%)나 충청권(17.9%), 호남권(14.7%)에 비해 매우 낮았다. 영남권은 작년에도 6.2%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호남권은 작년에만 특이하게도 5.9%로 낮았으며 2009년에는 17.6%로 높았었다. 충청권은 북한방송·영화·소설을 접착한 경험이 20.5%로 다른 지역(호남권 34.2%, 영남권 36.9%, 수도권 30.5%)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작년에는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47.5%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호남권과 충청권의 부침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9%), 생활수준(96.6%), 법률제도(88.3%), 언어사용(90.7%), 생활풍습(88.3%), 가치관(93.6%)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각 영역에서 2009년에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2010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작년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2011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북의 동질성 인식을 촉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6. 소결

2011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작년까지의 비판적·부정적 인식의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북한과의 협력, 대화, 타협 가능성을 기대하는 의식도 성장하는 양면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북한의 ‘협력대상’ 인식은 2011년에 다시 높아졌다. 즉 2008년을 정점으로 2008년(57.6%) → 2009년(50.7%) → 2010년(44.7%) → 2011년(47.0%)으로 2년 연속 13%가 감소하던 ‘협력대상’ 인식은 2011년에 2.3%가 증가함으로써 반전되기 시작했다. 또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도 2007년(31.1%) → 2008년(49.5%) → 2009년(54.9%) → 2010년(55.1%) → 2011년(55.0%)로 답보상태를 유지했고,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도 작년에 59.1% → 65.1%로 6%가 증가한데 비해, 2011년에는 65.1% → 65.7%로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의식’이 동반상승하여 특이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연평도 효과’가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전의 ‘천안함 효과’와는 달리 연평도 사건으로 위기의식과 불안심리가 고조됨과 동시에 최고조에 달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거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천안함 사건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안보불안을 고조시켰으나, 기존에 관성화되었던 서해상의 충돌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또 국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됨으로써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반면, 연평도 사건은 휴전 이후 발생한 첫 육지충돌이라는 점에서 만약 본토로 확대될 경우 당면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함으로써 양면적 의식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문제로 인한 불안의식은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불안의식은 2007년(59.7%) → 2008년(52.2%) → 2009년(63.6%) → 2010년(67.3%) → 2011년(78.3%)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은 40~60% 사이를 왕래하였으며 6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전쟁불안의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009년의 핵실험에 이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셋째, 대북인식에서 나타난 세대별 특징은 ‘19세~29세의 보수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29세가 스스로 밝힌 정치의식은 진보가 35.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존재인식과 변화인식, 신뢰도, 위기의식 등 모든 영역에서 19세~29세는 50대 이상과 비슷한 의식을 보였다. 19세~29세의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잠시 주춤

하였으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지면서 북한변수에 의해 나머지 변수가 압도당하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다른 연령층보다 19세~29세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19세~29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북비판의식과 보수의식을 주도하였다.

넷째, 북한인식 가운데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 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북한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북한인식에 대한 이념간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과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대북 신뢰도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단일변수임은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명되었다.

다섯째, 지역변수에서는 영남권의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반면, 호남권의 대북우호의식은 크게 둔화되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영남권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대북우호인식에서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45.0%)이 그 다음으로 낮은 호남권(55.25%)과 충청권(50.4%)에 비해 대북 비판의식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대북인식에서 금년에는 영남권과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의식에서도 영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 가량 낮게 나타나 가장 비판적인 대북관을 유지했다. 2011년의 특징 가운데 호남권의 약진이 크게 둔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작년에는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의 독주를 막지 못했으나, 2011년에는 호남권의 대북의식이 크게 완화되어 별다른 독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대북신뢰에서도 호남권인 작년에 다른 지역에 비해 20%가 높게 나타났으나, 금년에는 5% 정도 차이 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북한정권’을 보는 견해도 39.7%로 수도권(40.6%)과 충청권(41.0%)과 맥을 같이했다.

결론적으로 2011년의 대북인식은 연평도 효과가 발휘되어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 연령별로는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줌으로써 비판적 대북인식을 추동하였다. 전통적으로 대북우호의식을 견지했던 호남권의 의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연평도 효과는 천안함 효과를 넘어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거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대북우호의식 내지 신뢰의식이 생성되었다. 특히 작년에 천안함 사건으로 진보·보수의 이념간 차이가 무력화되었으나, 2011년에는 진보·보수간 의식의 차이가 다시 분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아직 예년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나, 2011년의 대북인식에서 이념적 분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10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이후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적지 않은 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후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군사적 긴장관계도 상당 기간 동안 고조되었다. 침몰 원인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없었지만, 한반도 내의 안보 관리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어났다. 한편,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특사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남북 교류의 통일 기여도

### 1) 남북교류 각 측면별 비교

이번 조사에서도 네 가지 방식의 남북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남북 교류 방식은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등 네 가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1-Ⅲ-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Ⅲ-1**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2011	2010	2009	2008	2007
정기적 남북 회담	71.3	75.3	73.3	64.3	74.7
남북한 경제 협력	61.5	68.6	64.2	57.3	72.5
사회문화 교류	64.8	66.8	68.1	59.9	69.7
인도적 지원	50.7	52.3	54.0	51.8	57.4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도움 + 다소 도움]

금년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흥미로운 특성은 각 교류 방식이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모두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정기적인 남북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0년 조사에 비해서 4% 낮아졌다. ‘남북한 경제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 가량 낮아졌으며,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4%,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5% 낮아졌다. 각 항목

마다 작년에 비해 하락한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경험하고 난 이후 북한이나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각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순서는 이전 조사와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남북한 간의 정기 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그 때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8년 조사에서의 응답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방식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정기적 남북 간 회담

‘정기적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71.3%,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답자들은, 작년보다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남북한 당국자 간 정기적인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패턴을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된다. 40대에서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과 달리 유독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0대 응답자들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78.8%였지만, 19~29세에서는 69.3%, 30대에서는 67.2%,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69.7%로 나타났다. 40대를 제

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40대 중 다수가 이른바 ‘386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응답자의 경우,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 다른 집단에서는 모두 비슷하게 73% 가량의 응답률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역시 영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65.9%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긍정의 비율이 나타난 곳은 충청권으로 79.9%였으며 그 다음이 호남권으로 78.7%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지역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편, 이념별로는 역시 진보적 성향 응답자들 가운데 정기적 남북 간 회담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76.3%로 높았고, 중도적 성향에서는 69.7%, 그리고 보수적 성향에서는 6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별 응답 패턴은 작년의 경우와는 매우 달라진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이념성향별 응답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진보에서 긍정적 응답률은 76.1%, 중도 74.7%, 보수 7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념 성향별 차이가 확대된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 3) 남북한 경제 협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61.5%, 부정적 응답은 38.3%였다. 연령별로는 응답 패턴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기적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40대 집단의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70.3%, 19~29세의 58.4%, 30대 59.2%, 50대 이상 58.1%의 응답률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의 진보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조사에서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통일 도움 정도에 대한 긍

정적 응답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중졸 이하에서는 56.5%, 고졸에서는 59.8%, 그리고 대재 이상에서는 64.2%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대북접촉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긍정의 답을 보였다. 영남권에서는 50.9%였는데, 가장 높은 응답은 호남권의 77.9%로 그 차이가 무려 2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충청권으로 71.8%, 수도권은 62%였다. 영남과 호남 간 남북한 경제 협력을 둘러싼 이와 같이 커다란 시각의 차이는 ‘해별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경제협력 정책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념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에서 68.8%의 긍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보수적 성향에서는 57.2%, 그리고 중도 성향에서는 59.5%의 응답을 보였다. 작년 조사에서는 이념 집단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사회문화 교류

남북한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가 통일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64.8%가 긍정적 응답을, 35.1%가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여기서도 40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흥미로운 점은 19~29세의 가장 젊은 집단에서 긍정의 비율은 57.4%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40대와는 거의 15% 가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30대에서는 65.1%, 그리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7%였다. 19~29세의 젊은 응답자들 가운데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과의 문화적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에서 68.6%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는 63.1%, 그리고 고졸은 61.2%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다. 영남권은 59.5%였으며, 호남권은 68.7%, 수도권은 66.2%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영호남 간 입장의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에서 68.3%, 중도적 성향에서 64.2%, 그리고 보수적 성향에서 62.2%로 이념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5) 인도적 대북 지원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이 조금 넘는 50.7%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뚜렷이 낮은 응답률이다.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49.3%였다. 이 사안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거의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여기서도 역시 4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비율은 56.7%였다. 반면 19~29세에서는 45.6%로 긍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30대는 48.2%, 그리고 50대 이상은 51.4%였다. 흥미롭게도 젊은 19세~29세·30대와 그 이상 연령층 간의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의 응답이 높았다. 대재 이상에서 긍정적 응답은 52.3%, 고졸에서는 49.8%, 그리고 중졸 이하에서는 48.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체로 이전 항목과 유사한 응답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긍

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권으로 61.8%였으며 그 다음이 충청권으로 58.5%, 반면 영남권은 43%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52.7%였다. 이념성향별로 비교적 뚜렷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진보적 성향에서의 긍정적 응답은 58.2%, 중도적 성향은 49.7%, 그리고 보수적 성향에서는 44.2%로 나타났다. 2009년, 2010년 조사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는 진보 > 중도 > 보수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낮은 긍정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이념적 갈등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본 대북 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네 가지 방식의 대북 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전 항목에서 연령적으로 40대,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 이념 집단에서 대북 교류의 영향을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두드러졌다. 그 까닭은 이들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의 긍정 비율이 작년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다른 연령집단, 다른 이념 집단에서는 대북 교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진 반면, 대북 정책에 대한 상대적 진보성을 갖는 연령, 이념 집단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시각 차이가 대북 정책 분야에서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른바 ‘386세대’가 다수인 40대의 진보성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젊은 19~29세에서 대북 교류의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남북한 당국자들 간의 정기적 회합을 제외하면, 다른 방식의 교류에 대한 적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가 확인되며, 특히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양분된 응답 패턴에서 보듯이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강한 불신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북 교류에 대해 보수적인 영남권과 진보적인 호남권의 구분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북 교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종합하면, 작년과 비교할 때 대북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충격으로 인해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이념적, 세대적 입장의 차이가 다시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 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의 시급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군사적 긴장 해소’, ‘북한의 개혁과 개방’, ‘북한의 인권 개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응답 패턴을 보였다. 여섯 항목 중 ‘군사적 긴장 해소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을 고비로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영향을 받았다면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조성이 이런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2011년 조사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은 ‘북한의 인권 개선’으로 80.0%였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도 79.4%였다. 북한

의 인권 개선이나 개방, 개혁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변화, 개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도 75.8%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67.7%로 2009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그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1%로 2009년 이후 낮아진 응답의 패턴이 2011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III-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항

	2011	2010	2009	2008	2007
군사적 긴장 해소	83.2	83.6	83.5	70.6	79.9
북한의 개방과 개혁	79.4	78.2	80.2	68.9	78.3
북한의 인권 개선	80.0	82.8	76.2	76.0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75.8	75.7	72.9	72.2	79.9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67.7	69.7	72.0	61.7	66.8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24.1	24.3	24.9	30.3	31.1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시급 + 다소 시급]

### 1)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긴장 해소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83.2%에 달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하위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더욱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 난 이후의 조사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한 높은 응답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성별로는 남자가 84.9%, 여자가 81.4%로 남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두 80%

를 넘었는데 특히 40대에서 86.4%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29세는 82.9%, 30대는 81.4%, 50대 이상은 82.1%였다. 앞 절의 논의와 관련하여,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온 것은 이들 연령층이 적대적 대북정책보다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에서 85.5%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고졸은 모두 81.1%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9.3%로 대북 긴장 완화에 대한 시급성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항목과는 달리 영남-호남 간 시각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영남에서는 84.7%, 호남에서는 83%였다. 지역과 무관하게 ‘군사적 긴장 해소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념 집단별로도 응답 패턴에 차이가 없었다. 진보적 성향에서는 83.8%, 중도적 성향에서는 82.7%, 보수적 성향에서는 83.4%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의 인권 개선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북한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40대, 19세~29세의 순으로 시급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 40대에서는 82.9%, 19~29세는 80.7%였다. 30대는 78.0%, 50대 이상은 78.7%였다. 북한과 관련된 다른 질문 항목에서는 40대의 진보성, 20대의 보수성이 구분되었는데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졌는데, 대재 이상은 83.4%인데 비해 고졸은 77.8%, 그리고 중졸 이하는 71.6%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75.5%로 작년과 유사

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고, 반면 충청권에서는 89.3%, 호남권에서는 84.8%의 응답율을 보였다. ‘보수적인’ 영남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념 성향별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 응답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진보 성향은 83.2%, 보수 성향은 81.5%, 그리고 중도 성향은 77.4%였다.

### 3)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시급함’에 대한 인식은 우선 성별로 다소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는 81.4%이며 여자는 77.4%였다. 연령별로는 여기서도 40대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86.7%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19~29세는 74.8%, 30대는 78.3% 그리고 50대 이상은 77.4%였다. 40대와 19~29세 간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12% 정도나 되었다.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대재 이상은 81.0%, 고졸은 78.6%, 그리고 중졸 이하는 75.7%였다.

지역별로는 흥미롭게도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 그 비율은 81.3%였고 영남권은 79.2%였다. 수도권에서는 79.3%였고, 충청권은 75.2%였다. 다른 사안에서 진보적 속성이 강했던 충청권은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에서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의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그 비율은 84.5%였으며, 보수는 78.3%, 그리고 중도적 성향은 77.1%였다.

#### 4)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우선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기서도 40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에서는 78.9%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19~29세로 76.7%였다. 30대는 74.7%, 50대 이상은 73.5%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는데, 대재 이상에서는 77.4%, 고졸에서는 74.7% 그리고 중졸 이하에서는 73.4%였다.

지역별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은 74.0%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호남권은 83.9%, 충청권은 83.3%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국군포로의 이슈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된 탓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념 성향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보수 성향에서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은 78.3%, 진보적 성향은 75.2%, 그리고 중도적 성향은 75.0%였다.

#### 5)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 지역, 이념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집단에서 72.7%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64.4%로 가장 낮았다. 19~29세 역시 64.7%로 낮았다. 30대에서는 69%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7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충청권으로 72.2%였다. 이에 비해 영남권에서 그 비율은 64.9%에 불과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비율의 차이는 대략 14%에 달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비율이 74.9%였음에 비해서 보수적 성향에서는 60.6%,

그리고 중도적 성향에서는 67.0%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보수와 진보 집단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폭발성이 있는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대재 이상에서 69.7%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층이 66.6% 그리고 고졸에서 65.8%였다.

## 6)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한에서 미군 철수의 시급함’에 대한 인식은 그 비율이 24.1%에 불과해서 하위 집단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된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는 21.8%인데 비해 여자는 26.4%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작년 조사에도 유사한 패턴이었다. 둘째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27.4%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30대는 25.5%, 40대는 25.9%로 서로 비슷했고, 50대 이상은 18.7%로 크게 낮았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이 항목에서는 40대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3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충청권에서도 27.4%, 영남권에서도 25.6%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그리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념 성향별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진보적 성향에서는 30.3%, 중도적 성향은 22.6%, 그리고 보수적 성향에서는 19.8%의 응답률을 보였다.

## 7)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논의된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해서는 지역, 이념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 볼 때 여기서도 40대가 흥미로운데, 앞에서 본 대로 대북 교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인권 개선 시급성’이나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볼 때 보수적인 영남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단지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 성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북 사안별 시급성의 인식에는 교육 수준별 차이가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념, 지역, 세대별 시각 차이는 이 이슈가 정치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 3.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1) 대북 지원 수준의 적정성

대북 지원 규모나 방식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 온 사안이었다. 현재의 대북 지원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 작년과 대체로 유사한 응답의 패턴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9.8%로 나타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22.3%의 응답보다 17.5%나 높았다(작년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작년보다 1% 높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북 지원에 더욱 소극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하위 집단별로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첫째, ‘지금보다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에서 남자는 26.8%인데 비해 여자는 17.6%로 비교적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령별로는 역시 40대에서 ‘지금보다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9~29세에서는 17.8%로 가장 낮았다. 30대는 19%인 데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23.3%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9세~29세·30대와 40대 이상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 집단에서 26.1%가 현재보다 대북 지원을 늘려야 했지만, 고졸에서는 18.8%, 중졸 이하에서는 19.8%에 불과했다. 넷째,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대북 지원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 각각 34.2%, 33.3%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영남권에서 그 비율은 13.4%에 그쳤다. 지역 간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조사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작년 조사에서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영남 15.2%, 호남은 51.3%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시각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보적 성향의 33.3%가 현재보다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 반면, 보수적 성향에서의 그 비율은 16.4%, 그리고 중도적 성향은 18.8%에 그쳤다. 진보·보수 간 거의 두 배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세대, 이념 성향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III-3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정성

	대폭 늘려야	조금 늘려야	현수준 유지	조금 줄여야	대폭 줄여야
2011	5.5	16.7	38.0	24.6	15.2
2010	5.7	19.0	36.4	23.6	15.2
2009	4.2	14.7	40.9	24.7	15.9
2008	2.5	12.8	45.3	26.0	13.3
2007	3.8	12.3	44.8	26.8	12.4

## 2) 대북 지원 축소의 주장 이유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작년의 응답 패턴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달했고,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므로’, ‘대북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므로’라는 응답이 각각 18.9%, 17.9%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응답은 결국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은 한국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조사 이후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대북 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III-4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국민 부담이 커지므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므로	대북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므로	기타
2011	49.6	11.2	18.9	17.9	2.3
2010	47.9	10.1	21.0	19.8	1.3
2009	59.9	9.1	16.0	12.8	2.3
2008	48.3	25.8	12.9	11.3	1.6
2007	51.5	18.5	14.7	13.8	1.4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북 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지원을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별로는 남자가 9.8%인데 비해 여자는 12.6%로 3% 가량 여자들이 세금 부담의 원인을 더 많이 들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 연령 집단에서의 응답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고, 반면 30대에서는 6.3%로

가장 낮았다. 40대는 11.5%, 그리고 50대 이상은 10.9%로 나타났다. 대북 지원 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로, 젊은 세대들은 북한 정권을 불신하는 것 못지 않게 세금 부담의 우려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에서 15.0%로 가장 높았고, 전업 주부들 가운데서 12.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국내의 세금 부담으로 인한 지원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전업 주부층에서의 높은 응답률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북 지원 축소라는 입장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념 성향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국내 세금 부담 때문에 지원 축소의 주장은 중도적 성향에서 14.5%로 가장 높았고, 진보적 성향에서는 8.8%, 그리고 보수적 성향에서는 7.5%로 서로 유사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 3) 대북 지원의 효과성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패턴은 이전의 응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는 응답이 6.7%로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43.4%였다. 이에 비해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56.4%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13% 높았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43.6%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응답도 12.7%였다. 이 항목 역시 남한 시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III-5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모름/무응답
2011	6.7	36.7	43.6	12.7	0.3
2010	9.2	35.6	39.7	15.5	0
2009	8.0	37.6	38.5	15.9	0
2008	6.0	38.2	41.2	14.5	0.2
2007	8.1	41.4	38.9	11.4	0.2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 52.3%였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60.5%로 8.2% 더 높았다. 연령 별로는 흥미롭게도 19~29세 연령층에서 59.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그 비율은 57.4%, 40대는 53.3% 그리고 50대 이상은 55.9%였다. 젊은 연령층이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불신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별로는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졸은 60.3%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에서는 55.5%, 그리고 대재 이상에서는 5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는데, 역시 호남 지역에서 50%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고, 반면 영남권에서는 58.7%, 충청권에서는 54.7%, 수도권은 54.6%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역별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호남 지역에서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평가가 50%, 부정적인 평가가 50%로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념적으로는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보수적 성향에서는 63.29%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중도적 성향은 58.0%, 그리고 진보적 성향은 47.6%로 나타났다. 보수-중도-진보 이념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의 경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52.1% 대 47.6%로 그리 큰 태도의 쏠림 현상을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국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대북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보다 지배적이지만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이러한 태도는 2011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은 65%인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35%에 그쳤다. 예년 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1-III-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모름/무응답
2011	13.3	51.6	30.3	4.7	0
2010	11.8	52.8	31.1	4.3	0
2009	12.8	53.5	27.0	6.5	0.2
2008	8.1	52.0	35.5	4.3	0

하위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자는 68%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여자는 61.8%로 남자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북한 변화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자들이 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역시 40대에서 70.1%로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19~29세는 62%, 30대는 66.5%,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61.4%였다.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19~29세의 부정적 평가가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증대되었다. 중졸 이하 58.9%, 고졸 61.2% 그리고 대재 이상 69.9%가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역시 호남권에서 긍정적 평가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영역에서 비교적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충청권은 64.1%로 비교적 낮았고 영남권의 응답 62.7%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서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66.4%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보적 성향에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70.7%, 중도적 성향에서는 66.4% 그러나 보수적 성향에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55.5%에 그쳤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보·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 5) 대북 지원 인식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북 지원 문제는 그동안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갈등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이러한 갈등적 속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는 작년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발견된다.

우선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19~29세의 보수화 경향이다. 젊은 세대들이 지닌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며, 대북 지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담에 대한 거부도 컸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40대 연령층의 진보성과 매우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한편, 대북 정책 전반에 걸쳐 성별 간 태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 시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19~29세 연령층과 유사하게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감, 비용 부담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부정적 태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에 비해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이념 성향별로 여전히 대북 지원 정책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일부 항목, 예컨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호남 지역, 진보적 성향에서도 그것을 평가하는 시각이 양분된 형태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진 것이 그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 4. 소결

지금까지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통일에 대한 남북 교류의 기여도, 통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 그리고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비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세대 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반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에 기인

한다. 특히 19~29세 젊은 세대들이 지닌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며, 대북 지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담에 대한 거부도 컸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40대 연령층의 진보성과 매우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한편, 연령을 제외한 지역·이념·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각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대북 교류의 경우, 진보 이념 집단에서, 호남권에서, 대체적으로 고학력 집단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에 대한 사안별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역, 이념 요인이 각 사안별 시급성을 평가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대북 사안별 시급성을 인식하는 데 일관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지역, 이념 성향별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호남 지역과 진보 이념의 집단 내부에서도 대북 지원을 평가하는 시각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과 비교할 때 대북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충격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적, 세대적 입장의 차이가 다시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대북 지원 문제는 그동안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갈등적인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그러한 갈등적 속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볼 때 작년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의 증대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지니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사회적 시선과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일방향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인식에 마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작용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과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재구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뿐 아니라 통일 미래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민적 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것을 가정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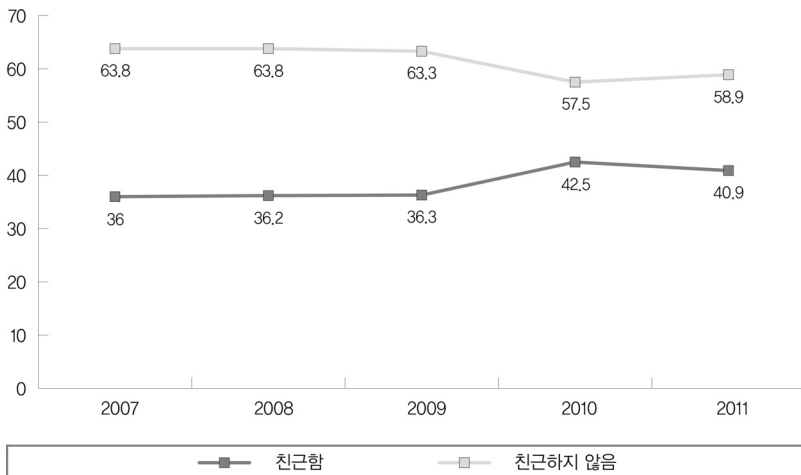
이에 본 글에서는 2007년~2011년도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추이를 분석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다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경쟁에 대한 의견 등이다.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8.9%로 나타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40.9%였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2010년보다 1% 가량 상승한 것이나 2007~2009년도까지 63%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하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근하다’는 응답은 지난 2010년도보다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 또한 2007~2009년에 36%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이어 큰 변화는 보

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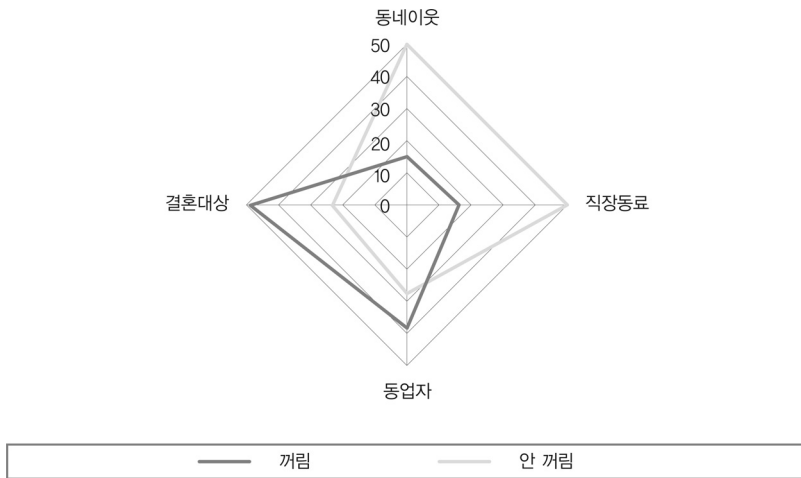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나타난 응답률 분포를 보면, 우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19세~29세 31.5%, 30대 41.4%, 40대 42%, 50대 이상 46.5%)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의 차가 15%에 달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가장 높게 표시한 반면(59.1%), 전업주부는 32.7%에 머물러 응답률에 있어 30%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다’는 응답이 영남권은 28.4%, 강원 31.4%에 머무는 반면, 제주 61.5%, 충청권 52.6%, 수도권 45.3%에 달하고 있었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도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률이 50%로 과반수였는데, 중도, 보수는 각각 37.2%, 37.6%에 머물렀다.



[그림 1-IV-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추이

##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꺼리지 않는 ‘동네이웃, 직장동료’ vs. 꺼리는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매우 적었다. 이에 반해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에서는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네이웃,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동업자와 결혼상대자로서는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년 20%대에 머물고 있었다. 2011년도 응답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 직장동료, 결혼대상, 사업동업자로 어떻게 생각(꺼림, 꺼리지 않음)하는가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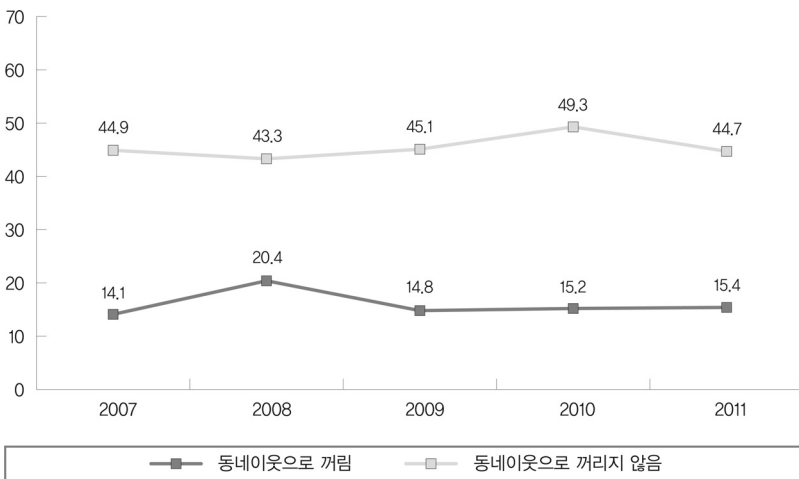


[그림 1-IV-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중합)

## 1) 동네 이웃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서의 관계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났으며, ‘꺼려진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9.9%에 달했다.

응답자별로는 직업에 따른 견해 차를 눈여겨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서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전업주부에서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블루칼라 18.8%, 화이트칼라 14.6%, 무직·기타 12.2%, 자영업 12.1%, 농수축산업 6.1%였다. 전업주부와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응답차가 14% 가량이었다.



[그림 1-IV-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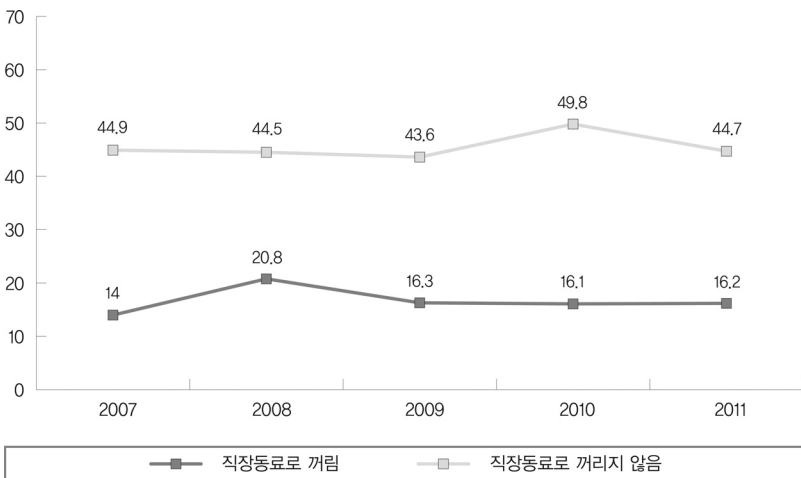
## 2) 직장 동료

‘북한이탈주민과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44.7%였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6.2%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 매년 조사결과에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는 교육,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우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꺼린다’는 응답이 24.4%로 평균(16.2%)을 10% 가까이 상회하였으며, 대재 이상은 10.8%만이 ‘꺼린다’는 응답을 보여 평균치를 밑돌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24.1%로 여타 응답자들에게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6~18% 사이에 머문 것과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응답차가 눈에 띈다.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20.2%인데,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13.2%의 응답률을 보여 소득에 따른 응답률 차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영남에서 24%로 나타나 여타 지역이 10%대의 응답률에 머문 것(수도권 13.5%, 충청권 12%, 호남권 16.4%, 강원 11.4%)과 비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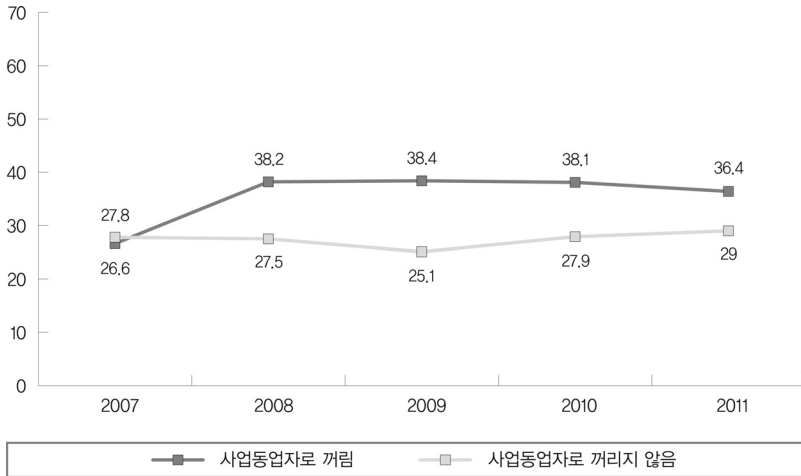


[그림 1-IV-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 3) 사업 동업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은 36.4%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29%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보았던 ‘동네 이웃,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맺기에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꺼린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 맺기에서도 사업동업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40.9%로 나타나 여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20대 34.8%, 30대 34.7%, 40대 34.3%). 교육수준별로는 대재이상에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나 여타 응답자들이 40%대의 응답률을 보인 것보다 10% 가량 낮게 나타났다(중졸 이하 42.4%, 고졸 40.5% 등).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전업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사업 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률에서 각각 44.8%, 44.1%의 응답률을 보여 여타 직업군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농수축산업 32.5%, 자영업 33%, 화이트칼라 31.2%, 무직·기타 28%).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꺼려진다는 응답률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타 지역에서 20~30%대에 머문 것과 차이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자가 33.4%, 보수적이라는 응답자 42.4%에서 사업동업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가 꺼려진다는 응답률을 보여 10% 가까운 응답률 차를 보였다(중도 35.1%).



[그림 1-IV-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 4) 결혼상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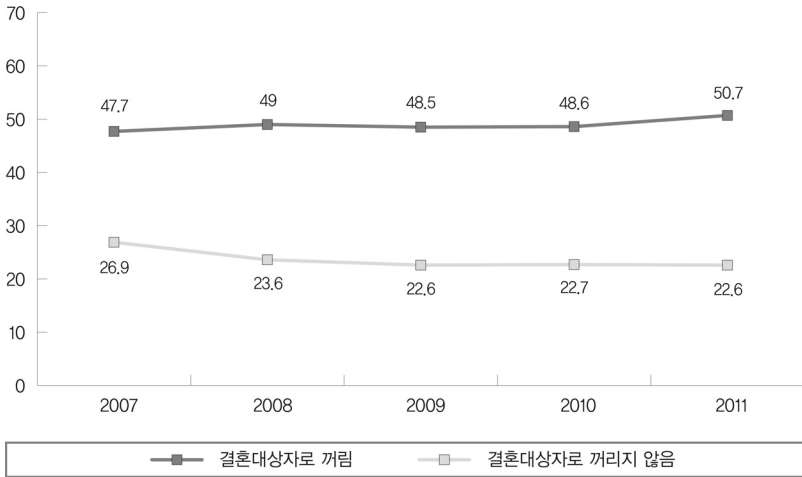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50.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6.7%,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2.6%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7년~2010년도 조사결과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꺼린다’는 응답이 지난해 대비 2%가량 상승세를 보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에 대한 응답률 차이는 성별, 직업별, 연령대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성별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즉, 결혼상대자로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남자는 39.9%인데 비해 여자는 61.9%로 나타나 응답률 차가 20% 이상이다. 이러한 성별 응답률 차는 지난 2010년<sup>4</sup>보다 소폭이지만 더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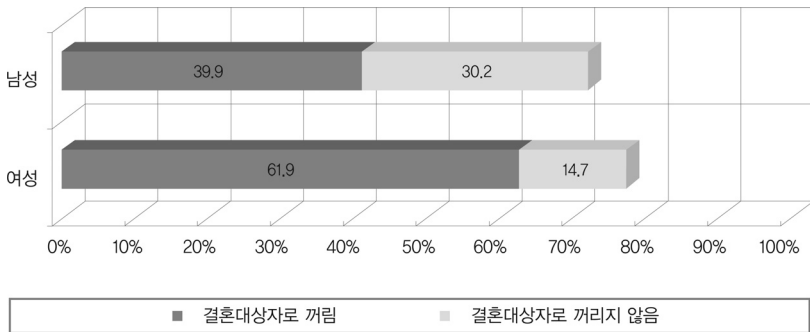
또한 직업별 응답률 차도 두드러지는데,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북

<sup>4</sup> 지난 2010년에는 남자가 40.9%인 것에 비해 여자는 56.4%로 나타났다.

한이탈주민이 결혼상대자로 꺼려진다'는 응답률이 18.4%에 그쳐 평균 응답률(50.7%)에 크게 못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업주부의 '꺼려진다'는 응답이 63.1%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IV-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1)



[그림 1-IV-7]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2)

###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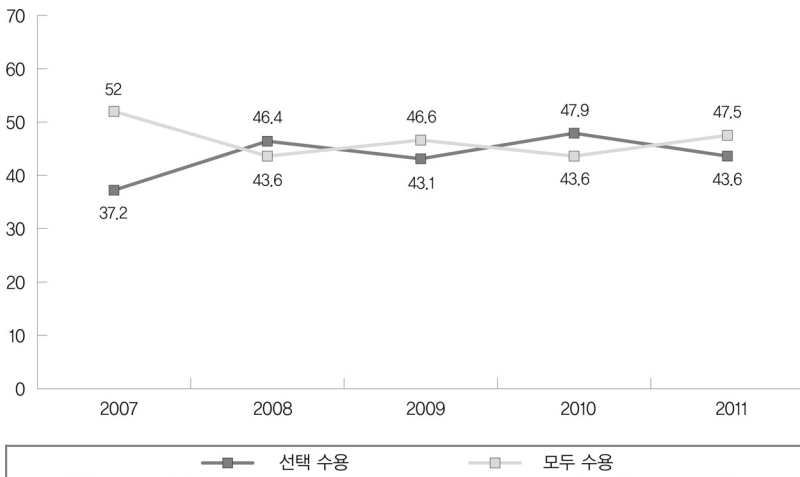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47.5%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 43.6%를 앞섰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8.8%였다. 이는 지난해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소폭 앞선 것에서 변화된 것이다. 지난 2007, 2009년 조사결과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선택적 수용’을 앞섰던 결과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집단별 응답률 차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에서 51.7%, ‘선택적 수용’에 40.6%의 응답률을 보여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에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3.3%) 보다 앞섰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을 앞섰지만, 19~29세와 30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 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의 응답률이 여타 응답자와 구분되는데, 중졸이하의 경우 ‘모두 수용’에 37.3% 응답률을 보인 반면 ‘선택적 수용’에는 52.2%로 여타 응답자들이 ‘선택적 수용’ 보다 ‘모두 수용’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종사자의 응답률이 특징적인데, ‘모두 수용’에 77.5%의 응답률을 보여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선택적 수용’에는 22.5% 응답률에 그쳤다. 이에 비해 전업주부는 ‘선택적 수용’에 44.5%, ‘모두 수용’에 40.8%의 응답률을 보여 북한이탈주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자의

경우 ‘모두 수용’에 55.3%, ‘선택 수용’에 37.3%의 응답률을 보여 여타 응답자가 ‘모두 수용’보다 ‘선택 수용’에 소폭이지만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한 편이다. 강원은 ‘모두 수용’이 68.6%, ‘선택 수용’이 28.6%인 반면 영남권은 ‘모두 수용’이 37.6%에 그치고 ‘선택 수용’이 51.8%로 나타나 지역간 견해차를 보였다. 종교로 보면 천주교인 응답자가 ‘모두 수용’에 60%, ‘선택 수용’에 33.9%로 나타나 ‘선택 수용’보다 ‘모두 수용’에 30% 가까운 차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독교의 경우도 ‘모두 수용’ 53.1%, ‘선택 수용’ 38.8%로 나타나 ‘선택 수용’에 비해 ‘모두 수용’에 15% 가량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불교는 ‘모두 수용’에 44.8%, ‘선택 수용’에 43.6%의 응답률을 보여 ‘모두 수용’에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타, 종교 없음 응답자의 경우 ‘선택 수용’에 더 높은 응답률<sup>5</sup>을 보였다.



[그림 1-IV-8]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추이

5-종교없음 응답자는 ‘모두 수용’에 43.3%, ‘선택 수용’에 48.3%, 기타 응답자는 ‘모두 수용’에 29.8%, ‘선택 수용’에 70.2%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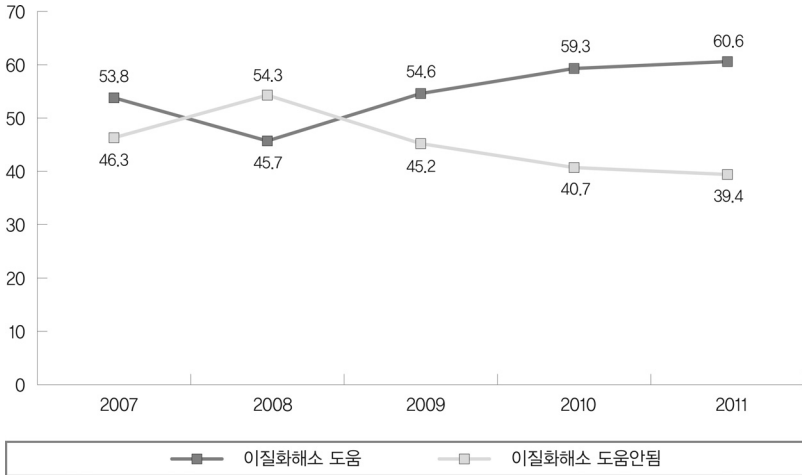
##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60.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4%로 나타났다.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7년 53.8%를 기록한 이래, 2008년 45.7%로 하강하다 2009년~2011년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각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른 응답률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별 응답률을 보면 전업주부의 응답률이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58~65% 응답수준을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65.5%의 응답률을 보여 여타 직업종사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5.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은 65.2%로 나타나 응답차가 20%가까이 이르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적 성향은 56.7%에 머문 반면 진보적 성향은 이보다 12%가량 높은 68.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중도적 성향은 58%의 응답률을 보여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응답자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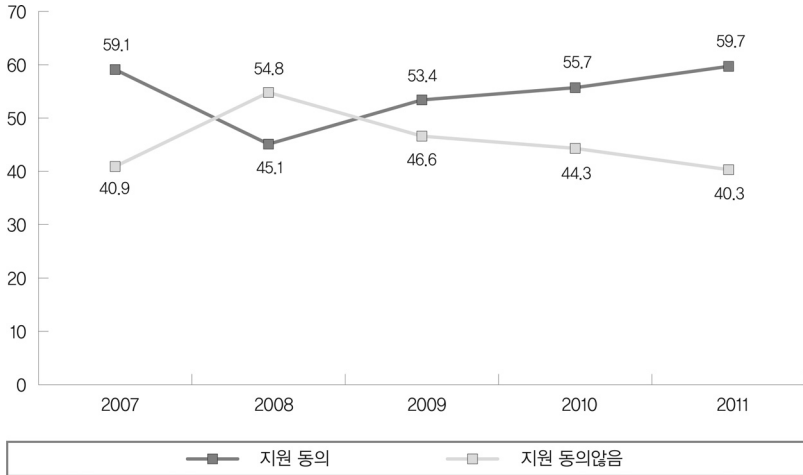


[그림 1-IV-9]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9.7%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 40.3%에 비해 20% 가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 응답률의 차이가 10% 가량에 머물던 것에서 2011년도에는 20% 격차로 10% 더 커졌다. 2008년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도 대비 10% 이상 낮아진 것에서 2009년 다시 반등, 2010~2011년 연속 상승세로 이어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서 보았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양상이다. 즉, 2007년 응답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2008년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 2010년 점차 상승세로 이어져 2007년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IV-10]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추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에서는 성별, 가구소득수준과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를 눈여겨 볼만하다.

성별로는 남자의 동의 비율이 65.1%이나 여자가 이보다 10%가량 낮은 54.1%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재 이상의 동의 비율이 66.5%인데 중졸이하에서는 49.4%로 차이를 보였다. 고졸은 그 중간 수준인 55.1%의 응답률이었다. 직업별로는 동의 비율에서 전업주부가 49.6%로 가장 낮은 반면 자영업자가 6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화이트 칼라는 이와 비슷한 응답수준인 63.4%,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55%, 블루칼라는 5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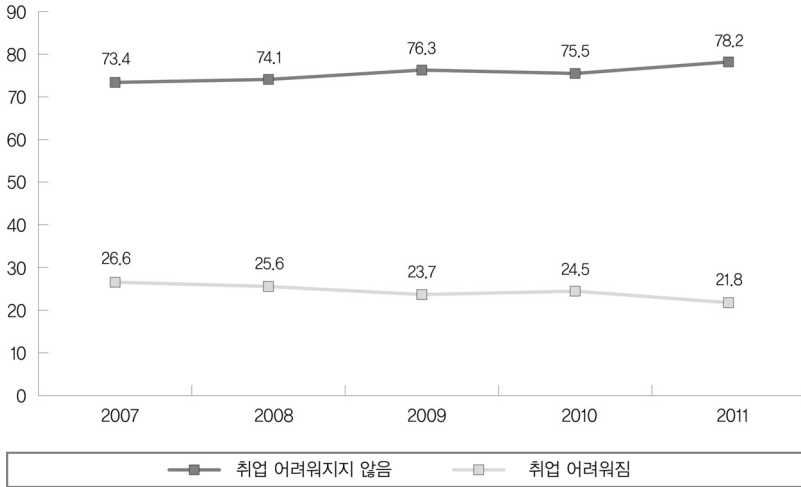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의 동의 응답률이 53.3%, 200~299만원이라는 응답자가 55.6%로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며 여

타 응답자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6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300~399만원이라는 응답자는 61.1%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영남권에서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원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권으로 72.2%를 기록했다. 충청권 다음으로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64.5%, 호남권 61.2%, 강원이 51.4%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보적 성향일 경우 66.7%가 동의하고 있었는데, 중도, 보수는 각각 57.5%, 55.9%로 진보에 비해 10% 내외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종교별 응답률 차도 나타났는데, 종교가 천주교라는 응답자의 지원 동의 응답률이 7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타 71.9%, 기독교 64.4%, 불교 58.5%의 순이었다.

### 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1.8%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8.2%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도 이후 별다른 변동 폭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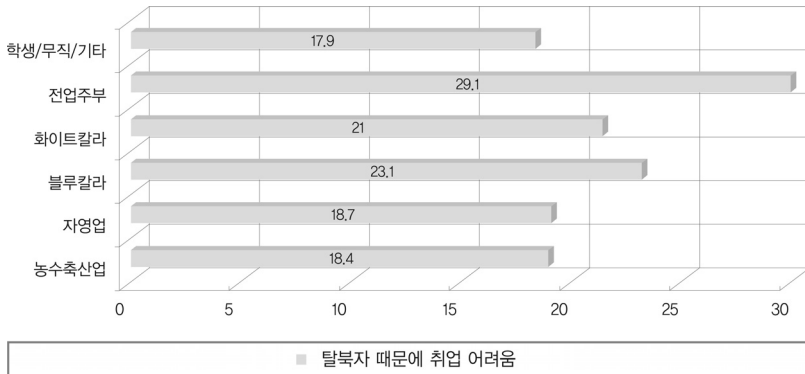


[그림 1-IV-11]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률은 남자(19.5%)보다 여자(24.2%)가 5% 가량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25.1%)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25.4%)을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는 근소한 차로 고졸 24.2%, 대재 이상은 19.3%의 응답률이였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29.1%로 여타 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업주부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직업군은 블루칼라 23.1%, 화이트칼라 21%, 자영업 18.7%, 농수축산업 18.4% 순이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에게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 22.9%, 수도권 21.3%, 호남권 17.1%, 충청권 16.2% 순이었다. 종교별로는 불교와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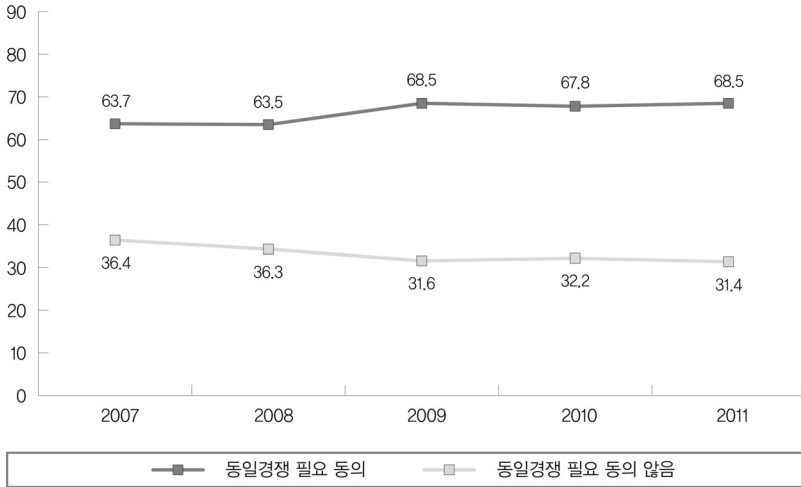
교라는 응답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응답률이 각각 25.6%, 23.6%로 나타났다.



[그림 1-IV-12]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2)

#### 4)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쟁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68.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4%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 내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지난 2007~2010년도 응답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그림 1-IV-13]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 (1)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별 견해 차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조직내에서 동일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농수축산업 종사자 찬성률이 75.5%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 외 직종은 60~70% 사이의 응답률 분포를 나타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200만원 이하에서 62.9%에 머문 반면 400만원 이상에서 71.1%가 ‘북한이탈주민도 조직내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응답에 동의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수도권 69.7%, 충청권 65.4%, 영남권 62.9%, 호남권 58.9%로 호남권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5. 소결

2011년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우세한 응답률을 보인 답항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비교적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비록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는 꺼려지지 않으나,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는 꺼려지는 상황이다. 남한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지는 않으나, 조직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도 똑같이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답항들은 대개 20~30%의 차로 차순위 답항의 응답률을 앞서면서 우위를 유지했고, 50% 가까이 앞서는 응답률도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우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2007년도 이래 매년 실시된 조사결과의 추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별다른 변화의 폭을 보이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 가운데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지 않다거나,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꺼려진다’는 응답 외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소폭이나마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조사결과에서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들 응답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면 고무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나아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비용 부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부담 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간 이질화를 해소할 것이

라는 사회적 역할 기대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항하는 기제로써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의 상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지향적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게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문항에서도 조금씩이나마 그 정도를 줄여가고 있는 추이를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별 태도에서 ‘사업동업자로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을 매년 앞서고 있으면서도 2010~2011년도에는 조금씩이나마 양 응답률차가 줄어들고 있어 2011년도 조사결과에서는 그 차가 7%에 머물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 친근하다’는 응답과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률 차는 매년 20%에 육박하면서도 지난 2010-2011년도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2011년도에는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이 ‘친근하다’는 응답에 비해 18% 높게 나타나는 데에 그쳤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아직까지 경쟁대상이라기 보다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에 비해 50% 가까이 앞지르면서 미미하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첫 번째로 보았던 인식의 추이와 종합해 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의제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게 불거지기보다 국민들 간에 합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을 위한 비용부담이 장기화되고 그 효과가 가시

화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피로감과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면서도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문향을 유의 깊게 봐야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별 태도에서 ‘결혼상대자로서 꺼려진다’는 ‘응답이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률보다 매년 30% 가까이 높게 유지되면서 고착화된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막연히 이웃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은 용인할 수 있으나 직접 마주하며 1차 집단 내에서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경계의 틀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꺼려진다’는 응답에 더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직업별 응답차를 파악한 결과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여타 직업종사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에 여자의 비율이 남자 대비 압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상대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여자의 인식 층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항별로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 분석은 향후 남북한 간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예견케 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별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내지 경계가 여타 응답자들에 비해 두드

러지는 대상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블루칼라, 지역별로는 영남권,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적 응답자,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하에서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고찰해 보면,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문제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도 투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불안정, 인구 노령화, 양극화 현상, 사회적 배제 등에 누구보다 맞부딪치고 있는 대상들, 즉, 20대 청년들과 여성, 전업주부, 블루칼라,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여타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보수성향, 50대 이상, 영남 지역 등에서는 통일의식조사의 다른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타 응답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불안정성에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에 대한 합의구축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파급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정착 문제, 사회적 갈등을 예측하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 1. 2011년 대외인식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는 것은 통일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런 이유로 통일인식조사는 2007년 이후 대외인식의 변화를 추적해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2010년 이후로 대외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견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증대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자 투자처로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범주를 넘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한·중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의 앞날을 조망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 2. 대외인식 기초분석

### 1) 가장 가까운 주변국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변 4강 국가와 북한에 느끼는 친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응답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중 자신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하나의 나라를 골라 답하는데, [표 1-V-1]에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이 설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정리하였다.

**표 1-V-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미국	53.4	60.7	68.3	70.6	68.8	64.4
일본	11.6	9.5	8.7	9.6	9.1	9.7
북한	24.0	20.4	15.9	14.9	16.0	18.2
중국	10.2	7.8	6.1	4.2	5.3	6.7
러시아	0.9	1.7	1.0	0.8	0.8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N = 5,990 (무응답 제외)  $\chi^2 = 129.77$   $p < 0.0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7년 이후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53.4%에서 60.7%로 증가하였고, 이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도 약 8%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작년인 2010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인 70.6%에 달하였다가 올해는 68.6% 약간 떨어졌으나 오차범위

내에 있어 사실상 작년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2009년과 2011년 사이 15%와 16% 수준에서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2009년 5월의 제 2차 핵실험,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이 기간 동안 거의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위험한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국민의 비율은 15~16%로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비록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이어 북한은 한국 국민들이 두 번째로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 변화의 폭은 미국과 북한의 친밀도 변화에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편이다. 주어진 다섯 개 국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항의 구조 상,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 폭은 애초에 그리 클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미국에 대한 친밀도 변화를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53.4%에서 2010년 70.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17.6%, 2007년에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33.2%나 상승한 것이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미국 친밀도 상승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sup>6</sup>. 특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쇠퇴기 수입 문제로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보수 언론에서는 반미 감정의 확산을 우려하기도 하였는데, 이 변화를 보면 촛불 시위가

6. 박명규 외. 2009.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124.;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반미 감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8년(60.7%)에서 2009년(68.3%) 사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한다(60.3%→68.2%).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한미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남북관계의 악화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설문이 주변 5개 국가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0.2%였던 대중국 친밀도는 2010년 4.2%로 떨어졌다. 이 설문의 분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타국들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친밀도의 이러한 변화는 오차범위를 넘는 것이다.

미국의 친밀도가 상승한 것과 더불어 큰 변화를 보인 것이 북한에 대한 친밀도이다. 북한에 대한 친밀도 변화는 대미친밀도 변화와 역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즉, 대미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대북친밀도는 반대로 24.0% (2007년)에서 15.9%(2009년)로 크게 하락했다. 그 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대미친밀도가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친밀도 역시 2010년 14.9%, 2011년 16%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비록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세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정점을 찍었다. 2010년 통일의식 조사는 천안함 사건 후에 실시되었으며 2011년 조사 결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친밀도 변화가 불과 10% 정도의 하락에 머물렀다는 것은 오히려 매우 놀라운 바가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거의 준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본격적 군사분쟁에 근접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후 이보다 더 큰 충격적 상황이 남북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최저점은 2010년의 14.9% 정도가 아닐까 짐작된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2008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2007년과 2008년 사이 약간 친밀도가 낮아진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악화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는 5년 간의 조사를 통틀어 1% 이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국가별 친밀도와 더불어 주변국 인식의 중요 지표로 통일의식조사에서 측정되는 항목은 주변국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이다. 친밀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를 나열하였을 때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2011년의 조사에서 드러난 위협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에서 느끼는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1-V-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2007~2011)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미국	21.1	16.0	12.5	8.3	8.6	13.3
일본	25.9	34.5	17.7	10.4	11.6	20.0
북한	36.1	33.7	52.9	55.6	46.0	44.8
중국	15.6	14.6	15.9	24.6	33.6	20.8
러시아	1.3	1.2	1.1	1.2	0.3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N=6,001 (무응답 제외)  $\chi^2=617.03$   $p < 0.01$

국가별 친밀도 분석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느끼는 위협도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도는 2010년까지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대북위협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은 중국을 가장 한반도에 위협적인 국가로 꼽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에 미국이 가장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1.1%에 달했고, 이는 같은 해의 북한의 위협도 36.1%를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미국 위협도는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2008년에 미국 위협도 약화는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의 위협도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위협도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분쟁이 일었던 2008년에 34.5%를 기록, 오히려 북한의 33.7%를 넘었다. 2008년에는 오히려 북한보다 일본을 가장 위협한 주변국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08년 통일의식조사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sup>7</sup> 이후인 8월 21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다. 2009년까지도 일본은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한반도에 위협적인 국가로 꼽혔다. 2010년부터는 중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오랜 갈등을 생각하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는 응답자의 비율이 항상 가장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어 두 번째로 위험한 국가는 2009년까지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 오면 중국이 일본을 매우 큰 차로 따돌리고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의 위협도는 24.6%인 반면 일본의 위협도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했다. 2010년 조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오히려 북한의 위협도는 2009년 52.9%에서 2010년 55.6%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국의 위협도는 2009년 15.9%에서 2010년 24.6%로 약 9%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11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져서 2011년 중국의 위협도는 또다시 9%가 상승한 33.6%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2011년 위협도 46%와 불과 12.4%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은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보다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그 깊이와 충격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다.

7-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남한 주민 박왕자 씨가 북측 경계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

### 3)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로운 문항을 신설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기로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제시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아래 [표 1-V-3]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우선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크다는 반응이 지난 3년간 8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금 크다’라는 반응보다 ‘아주 크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반면 ‘별로 크지 않다’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은 2% 미만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이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크다는 반응도 결코 적은 편은 아니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53.4%와 54.2%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이보다 약간 줄어든 47.7% 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한국보다도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책임 정도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V-3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정도 (2009~2011)

국가	조사 연도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합계
북한	2009	57.9%	30.3%	88.1%	10.1%	1.4%	.3%	1.7%	100.0%
	2010	62.6%	27.0%	89.6%	9.0%	1.1%	.3%	1.4%	100.0%
	2011	63.1%	25.7%	88.8%	10.3%	.6%	.2%	.7%	100.0%
한국	2009	13.9%	39.5%	53.4%	30.7%	13.7%	2.2%	16.0%	100.0%
	2010	14.3%	39.8%	54.2%	32.5%	10.0%	3.3%	13.3%	100.0%
	2011	10.4%	37.3%	47.7%	34.7%	13.7%	3.9%	17.6%	100.0%
미국	2009	18.4%	43.0%	61.3%	28.8%	7.8%	2.0%	9.8%	100.0%
	2010	15.8%	40.7%	56.5%	34.4%	7.8%	1.3%	9.1%	100.0%
	2011	13.9%	35.7%	49.6%	36.7%	11.0%	2.7%	13.7%	100.0%
중국	2009	13.1%	34.3%	47.4%	40.6%	10.1%	1.8%	12.0%	100.0%
	2010	20.8%	38.6%	59.4%	32.4%	6.7%	1.5%	8.2%	100.0%
	2011	26.5%	39.1%	65.5%	27.5%	6.1%	.9%	7.0%	100.0%

역시 이 설문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반응이다. 중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은 2009년 이래 47.4%에서 59.4%, 그리고 다시 65.5%로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가장 책임이 큰 국가는 북한이지만, 중국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주변국의 국가 이미지

북한을 포함 주변국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국가 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 (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 스키마(schema)를 국제정치에서 응용하여 쓰이는 개념이다. 이 국가 이미지를 통해 개인들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이미지를 통해 정당화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통일외교조사에서는 주변 4대국에 대해서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네 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대상’이라는 한 가지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보겠다.

### (1) 미국

아래 [표 1-V-4]에서 보듯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협력대상’, 즉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미친밀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8년을 기점으로,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 또한 상승하였다.

**표 1-V-4** 미국의 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합계
조사 연도	2007	53.1%	21.9%	21.9%	2.9%	100.0%
	2008	70.2%	13.0%	14.8%	2.0%	100.0%
	2009	73.6%	13.7%	11.7%	.9%	100.0%
	2010	76.4%	14.6%	8.2%	.8%	100.0%
	2011	75.0%	14.2%	9.7%	1.1%	100.0%
합계		69.7%	15.5%	13.3%	1.5%	100.0%

\* 모름/무응답 제외

2007년 53.1% 였던 협력대상 이미지가 2008년에 70.2%로 상승한 이후, 계속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70%에서 75%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2007년 이후의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위 표에서 보다시피 4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스키마로서의 국가 이미지는 한번 안정되면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당시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던 ‘경쟁대상’ 혹은 ‘경제대상’으로서의 미국 이미지는 이후 4년 동안 10%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엄청난 규모의 촛불시위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촛불시위가 최소한 미국의 국가 이미지 변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미관계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지 않는 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V-5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
조사 연도	2007	50.6%	1.3%	45.5%	2.6%	100.0%
	2008	57.4%	1.4%	37.4%	3.8%	100.0%
	2009	65.1%	.7%	32.3%	2.0%	100.0%
	2010	74.7%	.7%	23.0%	1.7%	100.0%
	2011	72.4%	1.6%	24.1%	1.9%	100.0%
평균		64.0%	1.1%	32.5%	2.4%	100.0%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또 다른 설문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 4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이 2007년부터 측정되고 있다. [표 1-V-5]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보기로 제시된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 중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까웠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도 5년치의 설문결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에 대한 예측은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돕거나, 아니면 한국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두 가지 예측으로 나뉘고 있다. 이 두 가지 예측 중에서 전자의 비율이 2007년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서 살펴본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 (2) 중국

미국이 2008년 이후 매우 안정되게 동맹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 앞의 분석들, 즉 대중친밀도, 대중위협도,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정도 등에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살펴해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이미지도 ‘협력대상’이나 ‘경쟁대상’에서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의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아래 [표 1-V-6]은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분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1-V-6 중국의 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합계
조사 연도	2007	19.3%	46.3%	30.9%	3.3%	100.0%
	2008	23.7%	38.1%	32.8%	5.1%	100.0%
	2009	21.1%	42.0%	33.3%	3.6%	100.0%
	2010	19.7%	45.1%	31.8%	3.4%	100.0%
	2011	20.5%	40.2%	34.9%	4.4%	100.0%
평균		20.8%	42.3%	32.8%	4.0%	100.0%

\* 모름/무응답 제외

즉, ‘협력대상’으로서의 중국은 최고 23.7%에서 최저 19.3% 사이, ‘경쟁대상’은 최고 46.3%에서 최저 38.1% 사이, ‘경계대상’은 최고 33.3%에서 최저 30.9% 사이, ‘적대대상’은 최고 5.1%에서 최저 3.3%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최고값과 최저값 간의 변이가 가장 큰 것은 ‘경쟁대상’인데, 2008년에 38.1%로 갑작스럽게 조금 떨어졌다가 곧장 40%대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국의 국가이미지 분석에서 다시 한 번 스키마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안정된 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도 분석에서 이미지 개념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최근 2-3년 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태도 변화는 아직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변화시킬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V-7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
조사 연도	2007	5.3%	26.8%	56.4%	11.4%	100.0%
	2008	4.5%	30.3%	52.2%	12.9%	100.0%
	2009	3.1%	38.5%	50.7%	7.7%	100.0%
	2010	3.3%	55.5%	37.4%	3.8%	100.0%
	2011	2.4%	62.8%	31.0%	3.8%	100.0%
평균		3.7%	42.8%	45.6%	7.9%	100.0%

[표 1-V-7]에 따르면, 한반도 발발시 중국의 대처에 대한 예상을 보면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국외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011년에는 62.8%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급격히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중국의 국가 이미지 분석과 결합해보면, 아직까지는 ‘경쟁’ 혹은 ‘경계대상’으로서의 중국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면 적대국으로서의 중국 이미지가 새롭게 정착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북한

국가 이미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북한의 국가 이미지이다. [표 1-V-8]을 보면 북한의 국가이미지는 지난 5년간 일정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급격하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이 비율이 2007년 56.6%이었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던 2008년에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56.9%를 기록했다. 그러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협력대상’으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0년에는 44.7%까지 줄어들었지만 2011년에는 약간 반등하여 47.1%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4년 간의 굴곡진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량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 1-V-8 북한의 국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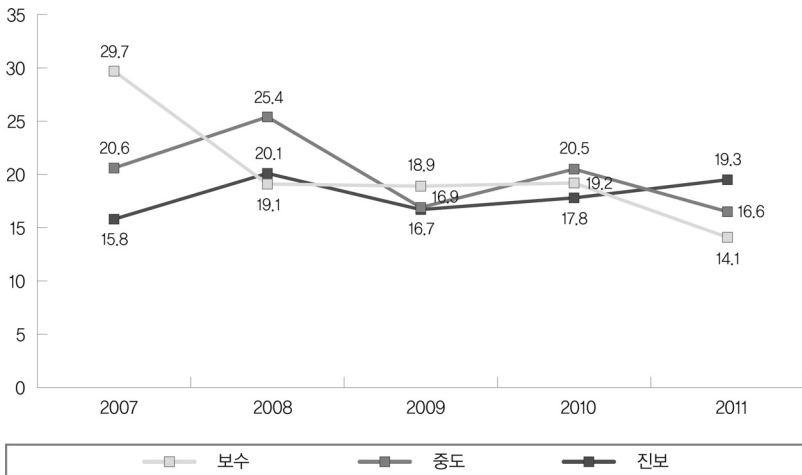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상	합계
조사 연도	2007	21.8%	56.6%	3.3%	11.8%	6.6%	100.0%
	2008	22.3%	56.9%	3.5%	11.9%	5.4%	100.0%
	2009	17.4%	50.7%	2.2%	20.6%	9.1%	100.0%
	2010	19.3%	44.7%	3.3%	20.7%	12.0%	100.0%
	2011	16.7%	47.1%	2.3%	17.1%	16.7%	100.0%
평균		19.5%	51.2%	2.9%	16.4%	9.9%	100.0%

여기에 더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본다는 답변도 큰 변화 없이 20% 안팎으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 간의 통일외식 조사에서 항상 65%에서 70% 사이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협력대상’ 혹은 ‘지원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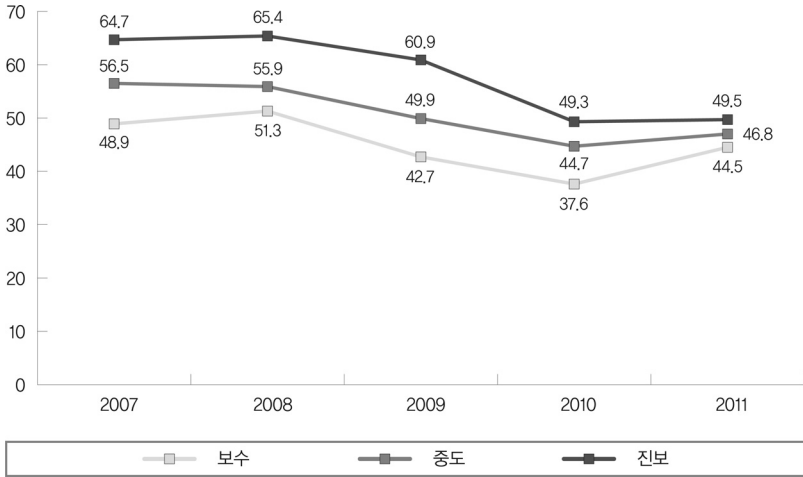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는 불성실한 응답이나 설문조사의 오차를 생각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이다. 즉, 더 이상 남북 간의 체제경쟁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한국 국민은 없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2007년 11.8%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20.7%로 9% 정도가 상승했지만 올해는 약간 떨어진 17.1%를 기록했다. 반대로 ‘적대대상’의 이미지로 북한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의 6.6%에서 올해는 최고치인 16.7%까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북한 이미지의 변화를 보면 대북친밀도나 대북 위협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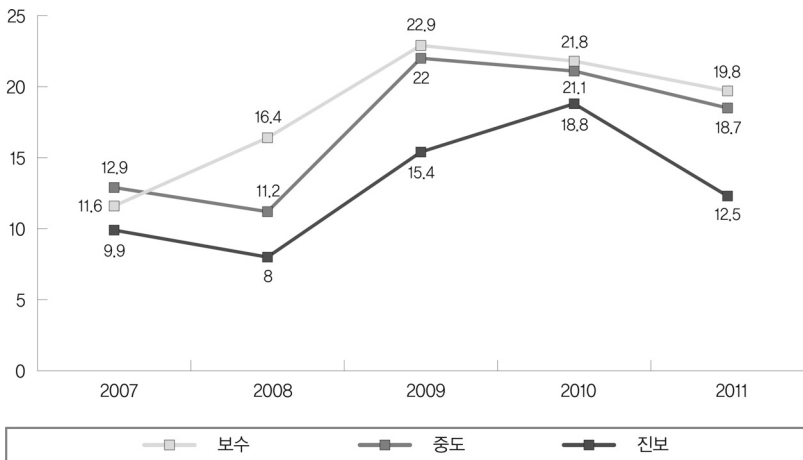
아래 [그림 1-V-1]에서 [그림 1-V-4]까지는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북한의 각 이미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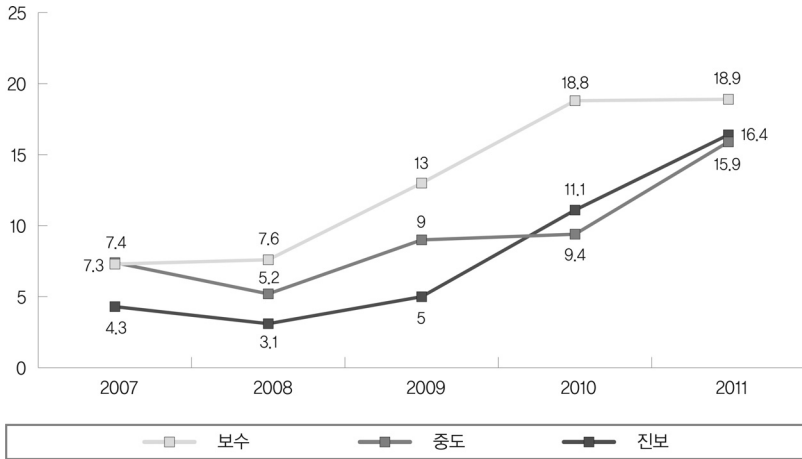
[그림 1-V-1] 지원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1-V-2] 협력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1-V-3] 경계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1-V-4] 적대대상으로의 북한-이념별 분포

[그림 1-V-1]에서 보수적 응답자들은 2007년에 진보 혹은 중도성향 응답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 (29.7%)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보수응답자들의 지원대상 이미지는 급격히 하락, 2011년에는 14.1% 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 응답자들의 지원대상 이미지는 16%~20%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도성향 응답자들의 응답도 2008년과 2009년 사이 한 차례 큰 하락을 보이긴 하였으나 보수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오면 지원대상으로서 북한을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보수, 중도, 진보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서 개인의 이념성향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그림 1-V-2]에서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의 국가 이미지 이념별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도 확실하게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는 이념성향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일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보수에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던 2010년조차도 37.6%의 보수가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북한 이미지 중 보수층에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경계대상’ ([그림 1-V-3]) 이었는데, 이보다 16% 가량 낮은 21.1%에 그쳤을 뿐이다. 오히려 2011년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보수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44.5%에 달했는데, 이 점은 2010년의 결과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순간적인 여론변화였을 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진보나 중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아니며,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보수라고 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보는 것은 아니며, 진보라고 해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V-4]을 보면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악화를 생각할 때 보수층의 대북 적대감이 상승한 것은 쉽게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진보층의 적대대상 이미지도 같이 상승, 2011년 조사에서는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실제로 별로 크지 않다<sup>8</sup>.

8. 실제로 2011년 결과를 놓고 보수와 진보의 북한 이미지를 ‘협력대상’과 ‘적대대상’

북한을 적으로 보는 보수층이 2007년 7.3%에서 2011년 19%로 상승하는 동안, 북한에 적대적인 진보층의 비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16.4%로 상승하였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실시된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북한을 주로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구조는 매우 확고하여서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둘째, 그러나 한편 진보적 응답자들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상승하는 듯, 북한 이미지의 변화 방향은 분명 냉전시절의 남북 적대관계와 유사해지고 있다. 셋째,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져온 하나의 예기치 못한 현상은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진보·중도·보수의 차이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를 맹목적인 반공주의자로 단정 짓거나 진보를 중북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통일외식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이미지의 안정성에 대한 증거는 아래의 [표 1-V-9]와 [표 1-V-10]에서도 발견된다.

---

으로 한정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V-9 북·미 월드컵 대결시 응원하고 싶은 팀**

		북한팀	미국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합계
조사 연도	2007	80.8%	4.0%	6.1%	8.8%	100.0%
	2008	76.5%	7.0%	6.4%	10.0%	100.0%
	2009	68.0%	8.4%	9.8%	13.6%	100.0%
	2010	70.2%	8.6%	9.9%	10.9%	100.0%
	2011	61.6%	12.9%	11.0%	14.4%	100.0%
평균		71.4%	8.2%	8.6%	11.5%	100.0%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가상의 월드컵 게임에서 북한팀과 미국팀이 맞대결할 경우 어느 쪽을 응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포함시켜왔다. [표 1-V-9]에 정리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추이를 보면, 2007년에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80.8%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그 이후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61.6%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4%에서 12.9%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뚜렷한 변화의 방향은 부정할 수 없으나, 여전히 -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에도 -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의 비율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의 다섯 배 가깝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이는 국가 이미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이다.

표 1-V-10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남북관계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합계
조사연도	2007	38.2%	17.6%	43.9%	100.0%
	2008	29.6%	20.1%	49.7%	100.0%
	2009	39.0%	19.0%	41.8%	100.0%
	2010	37.9%	19.1%	42.6%	100.0%
	2011	39.0%	21.0%	39.9%	100.0%
평균		36.8%	19.3%	43.6%	100.0%

위 [표 1-V-10]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르라”는 질문에서 200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해에선 37%~39% 정도의 응답자들이 ‘남북관계개선이 더 우선적’이라고 답했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놀라우리만치 일정하게 그 비율이 17%~20%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미관계 복원을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을 약간의 외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지난 5년 간 이 질문에 대한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5년 간의 주변국 인식 변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고 위협감은 감소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감소하고 위협감은 증가하고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의 증가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 증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하지만 이와 같은 북·중·미에 대한 최근 평가의 상당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그리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분명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양 집단의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제2부  
심층분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I.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 1. 우리사회의 세대와 통일의식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세대의 다양한 명칭들이 생겨났다.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후세대가 구별되기도 하고 4.19, 5.18 등 민주화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민주화세대와 경제성장을 향해 달렸던 산업화세대를 구별하기도 한다. 1990년대부터는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신세대, N세대, X세대, P세대, W세대, R세대, Web 2.0세대 등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88만원세대로 명명되는 세대가 등장했다. 또한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새롭게 결집하는 촛불세대라는 집단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점차 빛바래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단 최근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전쟁과 분단 직후 상황에서 ‘통일’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기도 했지만 산업화 시기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내부의 경제건설과 발전이 통일보다 더 우선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민주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의 산적한 과제들 앞에 국민들은 통일을 깊이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했다. 막연히 통일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는 갖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출생한 현재의 20~30대들에게 통일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지금의 청년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시기를 지나 전지구적 탈냉전, 세계화 앞에서 변화된 가치와 지향을 학습해 왔다. 또한 IMF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부동산·IT 버블, 고학력 취업경쟁 등의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신세대, N세대, P세대, 88만원세대, 촛불세대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계사적으로 포스트모던 시기를 동시대성으로 하는 세대이다. 포스트모던세대의 주요 특성은 비판성, 탈권위주의, 삶의 질 지향, 소비지향, 정치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정리되곤 한다. 이들은 주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그 이전 시기의 세대와는 문화적으로 균열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들 세대는 한국전쟁과 남북한이 분단된 지 20~30년이 지난 후에 출생한 세대들로 통일에 대한 당위적, 감성적 접근이 희석되어 가는 세대이자, 통일 한반도의 주력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특징과 이전 세대와의 인식 차는 통일준비 과정에서 관심 깊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내에서 세대 간 견해차 내지 갈등은 이념, 지역, 계

층갈등을 비롯한 여타의 것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계층 분화가 세대 구분과 맞물려 있고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있어서도 20~30대와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40대 중후반,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 내 중요한 갈등 양상에서 세대의 비중이 간과될 수 없음이 인식되고 있다. 세대간 ‘갈등’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에 ‘경쟁’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세대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갈등은 그 수준과 양상에 따라 사회적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기도 하나 경쟁과 갈등이 균열과 대립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와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의 약화와 국민적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간에 걸쳐 실시한 통일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대간 대북, 통일외식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2. 세대별 통일외식 개요

### 1) ANOVA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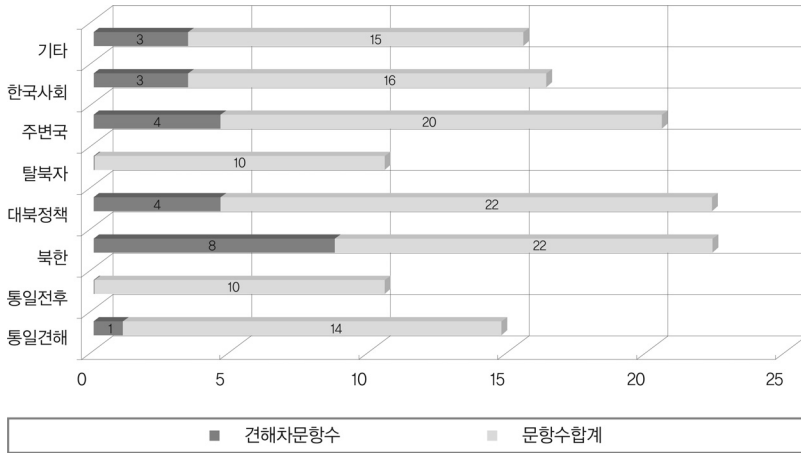
이 연구의 자료는 window용 SPSS/PC+ ver.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대별 통일외식·대북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내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였다.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의견 차이 정도는 F검정(ANOVA)을 통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 내고, 이에 따라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한 2011년도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지난 2007~

2010년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다 세대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에 있어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통일외식 분야별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이 없는 분야는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즉, 세대간 견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이지 않고 일치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2) 2011년 세대간 통일외식 차이 문항

2011년 통일외식조사 총 (기본 인적사항 제외) 104문항 중 23문항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였다. 통일외식 분야별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14문항 중 1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고,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견해에서는 총 10문항 중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총 22문항 가운데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8문항, 대북정책에 관한 문항 22문항 중 4문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문항 중에서는 없었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문항 중 4문항에서, 해방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16문항 중 3문항이, 기타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을 묻는 15문항 중 3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보면 분야별로 세대간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I-1] 2011년도 분야별 견해차 문항수

## 1) 2007~2011년도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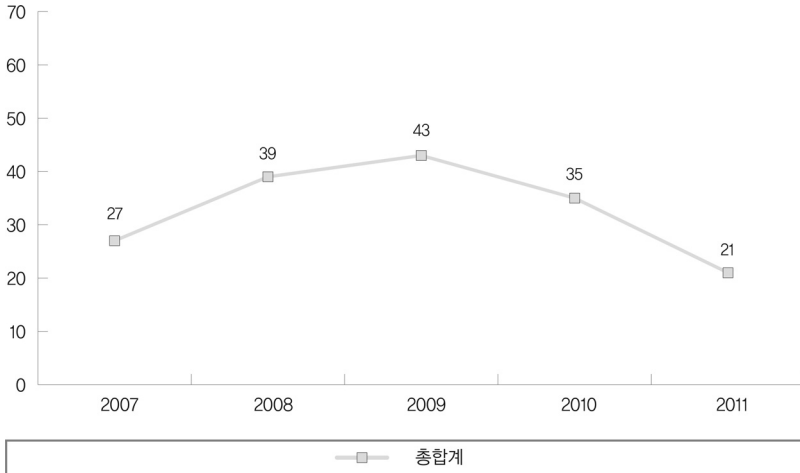
### (1) 2007~2011년 인식차 추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통일인식조사에서 추가·삭제된 문항을 제외하고 5개년 공통문항에 한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를 파악해 보았다. 2007~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통일인식조사 문항에서 공통된 문항은 총 95문항으로 각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를 보면 2007년 27문항, 2008년 39문항, 2009년 43문항, 2010년 35문항, 2011년에는 21문항(전체 23문항)이었다.

표 2-1-1 2007~2011년도 세대별 견해 차 문항

구분	2007~2011 동일 문항 수	2007~2011공통 문항 내 세대별 견해 차 문항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3	3	3	9	4	4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	3	5	0	1	0
<b>북한에 대한 인식</b>	<b>20</b>	<b>7</b>	<b>9</b>	<b>9</b>	<b>11</b>	<b>7</b>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4	0	3	1	3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	10	0	4	3	0	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16	5	5	6	5	4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	5	5	9	8	3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8	4	5	6	3	2
합 계	95	27	39	43	35	21

2007년 27문항에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난 이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서 견해차를 보인 문항수가 10문항 늘어나면서 39문항이 되었다. 2009년에는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수가 43문항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 조사 결과 부터는 35문항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1년도 올해 조사에서는 21문항으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이 지난해 연속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I-2] 2007~2011년도 세대별 견해 차 문항 수 추이

## (2) 2007~2011년 연속(2~5개년간) 의식차 문항

2007년도 통일외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1년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정리해 보면 3~5개년 연속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2개년 연속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24개 문항이나 이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새롭게 문항이 추가된 이래 2년차에 걸쳐 견해차를 보인 문항들이다.

우선 5개년 연속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사회인지도(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19, 5.16, 10월 유신)’ 문항에서였다.

4년차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가능시기(07~1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분야에서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08~11)’,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07~10)’, ‘한국과 주변 주요국(러시아)의 관계(07~10)’,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07~10)’,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07~10)’,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07~10)’에 대한 견해에서였다.

3년차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총 11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09~11)’, ‘대북사안별시급성-㉑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07, 09~10)’,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분야에서 ‘통일의 이익 정도-㉒ 남한(07, 09~10)’,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07, 09~10)’,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분야에서는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08, 10~11)’,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08~10)’,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2009년 신설~2011)-㉓ 미국의 책임(09~11)’,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분야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㉔ 미국(08, 10~11)’,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07~09)’, ‘정치적 성향(09~1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07~09)’에 대한 견해에서다.

2009년 또는 2010년에 신설된 문항 중에서 2년차 동안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분야에서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2009년 신설~2011)-㉕ 북한의 책임, ㉖ 일본의 책임’,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2010년 신설~2011)’,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2010~2011)’에 대한 문항에서였다.

표 2-1-2 2007~2011년도 의식차 문항

연속 연차수	분야	문항	하위문항	ANOVA 분석 건해차 연도
5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7~11
	북한에 대한 인식	-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 사회 인지도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4.19	
			㉡ 5.16	
㉢ 10월유신				
4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7~1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08~11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험적인 국가	07~10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 러시아	07~10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7~10
기타 정치·사회· 경제적 현실 인식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07~10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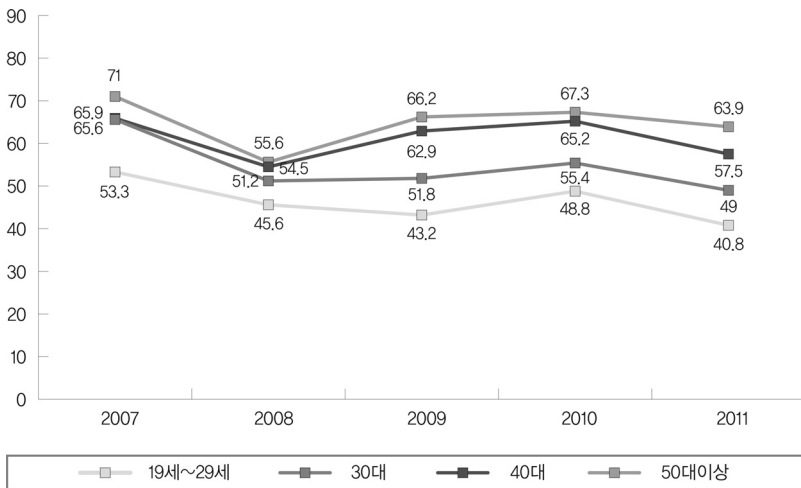
연속 연차수	분야	문항	하위문항	ANOVA 분석 견해차 연도
3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09~11
		대북사안별시급성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7, 09~10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통일의 이익 정도	㉡ 남한	07, 09~10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7, 09~10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	08, 10~11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08~10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2009년 신설~2011)	㉢ 미국의 책임	09~11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미국	08, 10~11
	기타 정치·사회·경제 적 현실 인식	-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07~09
			정치적 성향	09~1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7~09	
2개년 (2009, 2010년 신설 문항에 한함)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2009년 신설~2011)	㉦ 북한의 책임	09, 11
			㉧ 일본의 책임	09, 11
	기타 정치·사회·경제 적 현실 인식	-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 (2010년 신설~2011)	10~11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2011)	10~11

### 3. 2007~2011년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문항 분석

#### 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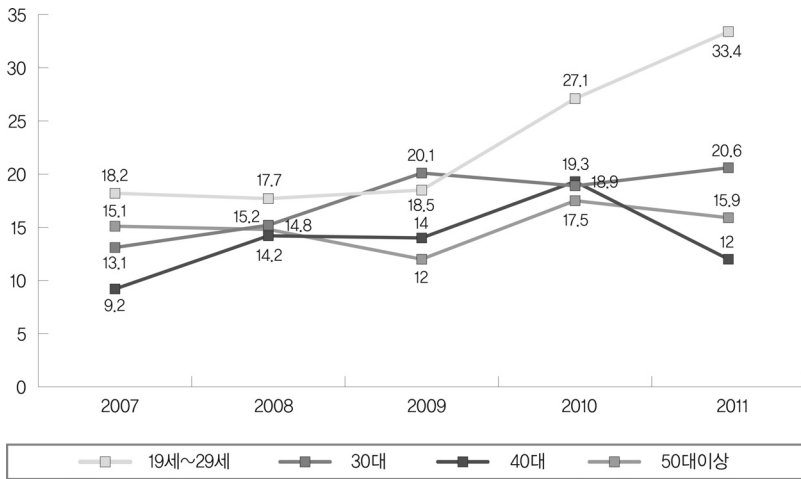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년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대간 견해의 지형은 19~29세 응답자들이 통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약 20% 내외의 견해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통일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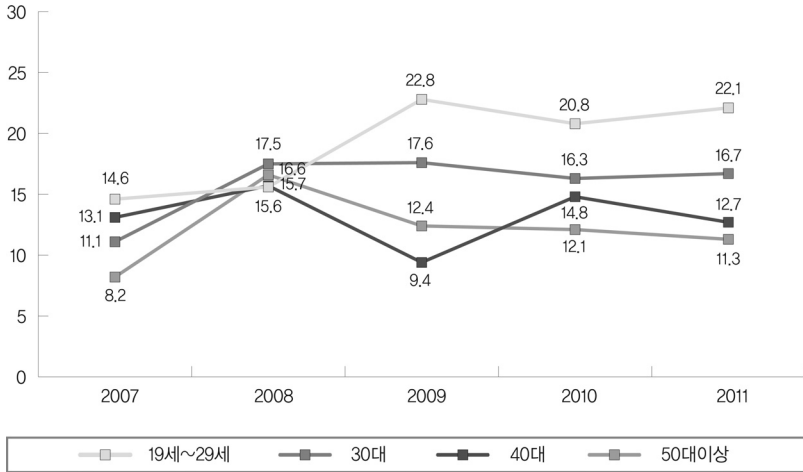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 연령대에 걸쳐 20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에서 세대간 견해차가 비교적 뚜렷이 보인다. 특히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률에서 30대 이상 연령대는 매년 응답률이 소폭

의 상승, 하강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29세 청년층은 2010년, 2011년 조사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응답률이 1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즉, 2007~2009년까지 17~18% 선이었던 응답률이 2010년에 27.1%, 2011년에는 33.4%까지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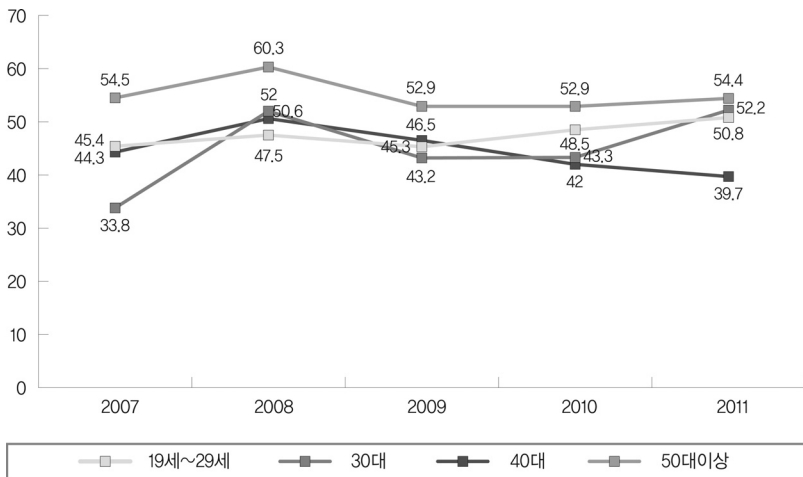
### (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매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순위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에서 19~29세의 견해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08년도를 제외하고 2007, 2009~2011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4)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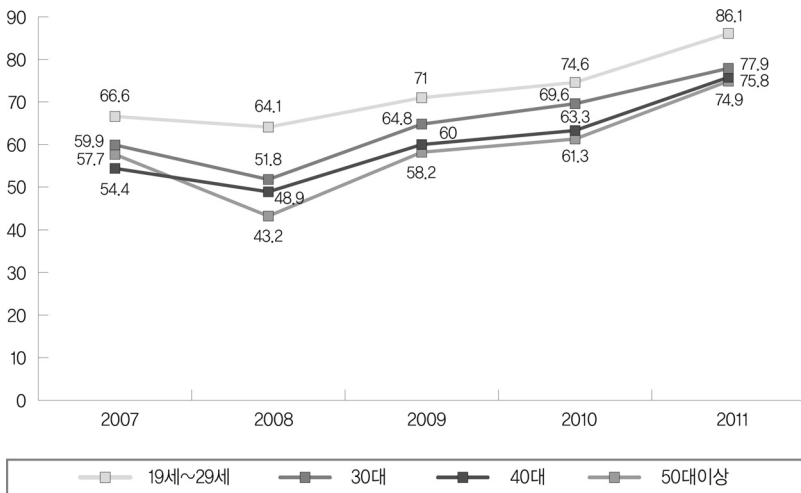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50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연령대에서는 매년 응답률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 2) 북한에 대한 인식

### (1) 북한무력도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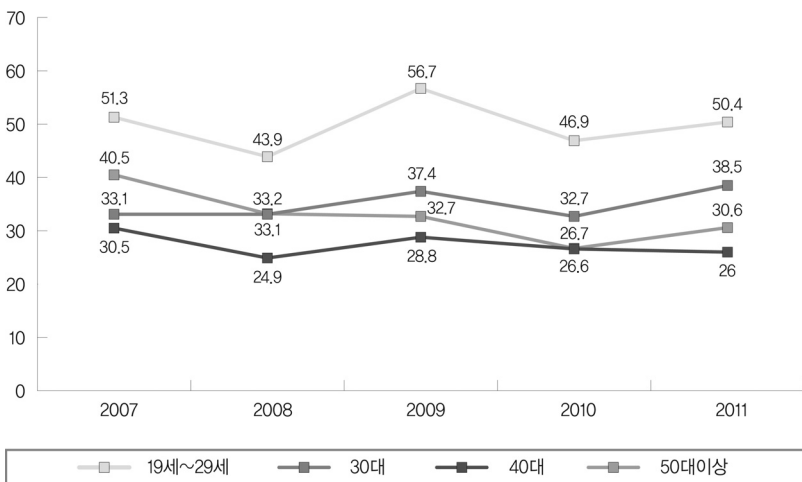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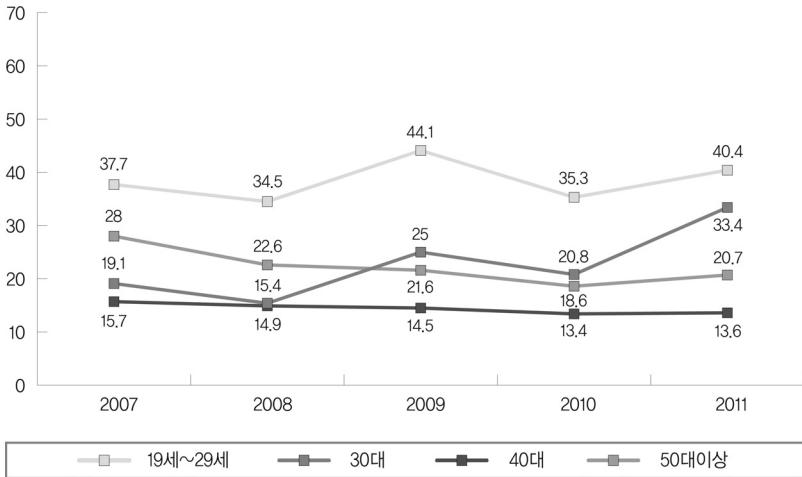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매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세대별로 보면 19~29세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2011년도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군 복무 의무가 있는 20대에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2)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이다.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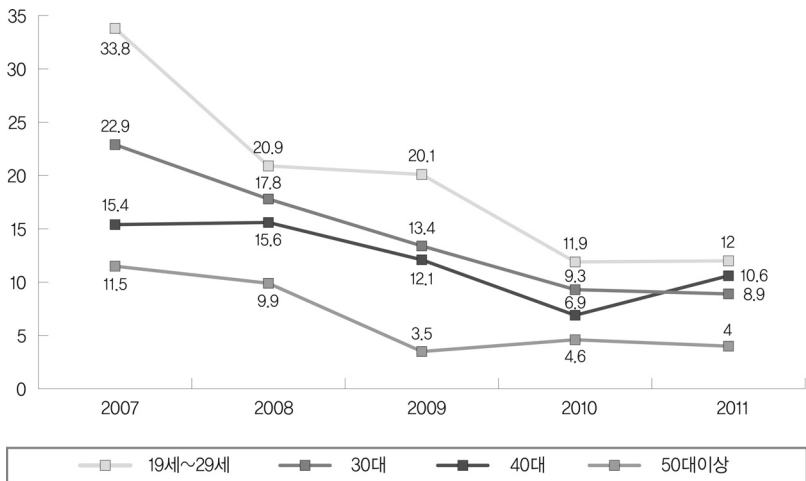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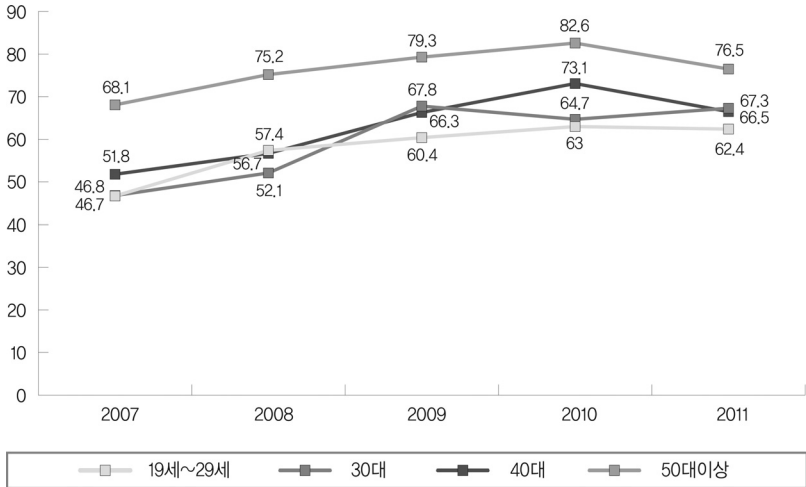
답은 19~29세의 응답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대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에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19~29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 3)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해 매년 미국이 1순위, 북한이 2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이 매년 50대 이상에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에서는 5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는 가깝게 느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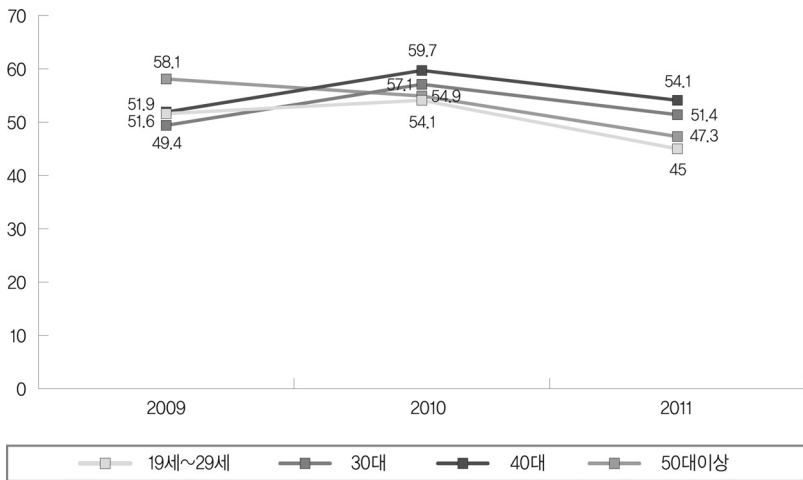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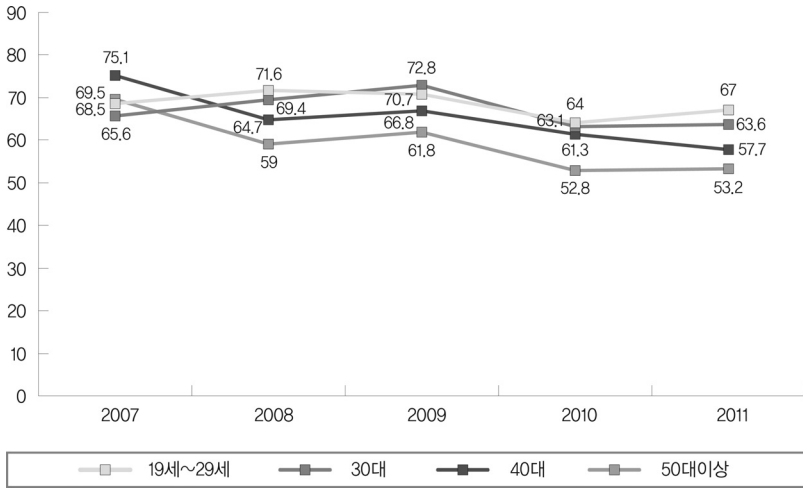
주변국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는 응답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5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서 북한에 대해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상통한다. 또한 가장 위협적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의 태도로 미국이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매년 유지하고 있어 50대 이상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미국을 꼽은 응답자 가운데 19~29세가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 4)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해 2007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07년도

를 제외하고 19~29세, 30대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에서 엇비슷하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동반 유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0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은 50대 이상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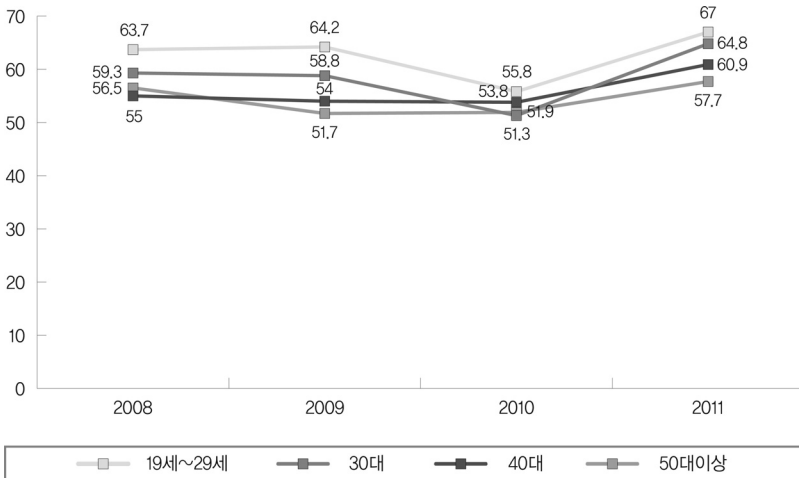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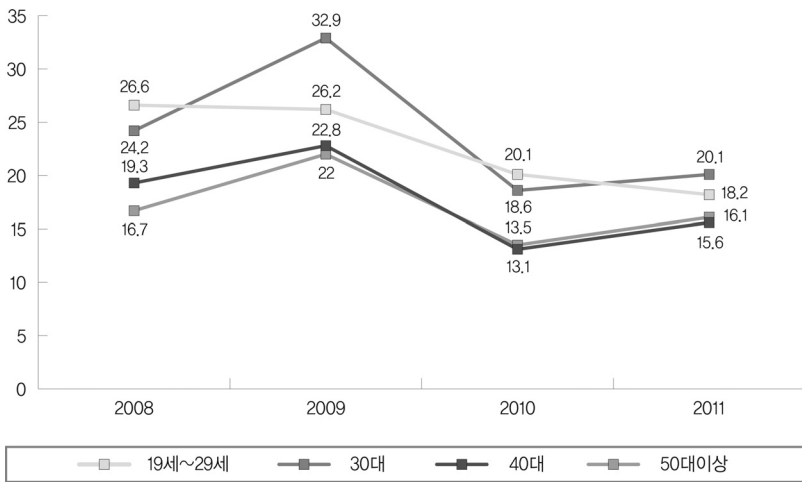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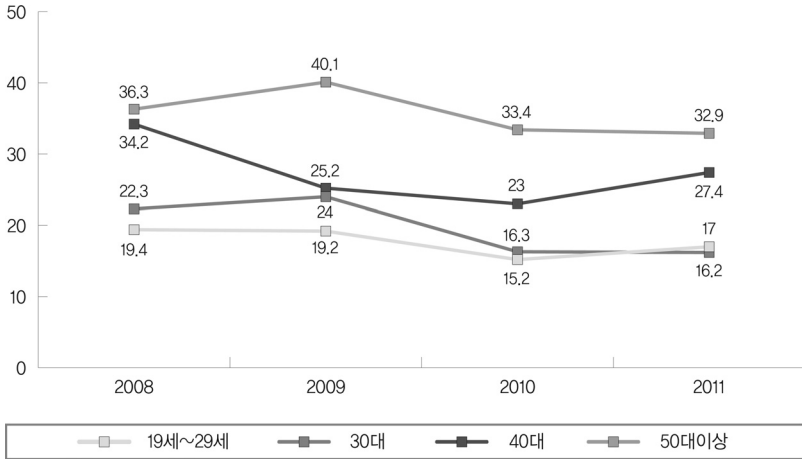
### 5)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는 매년 1위가 ‘관심없다’는 응답이었는데, 세대별로 응답률차가 미미하지만 19~29세 응답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중도’라는 응답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라는 응답에서는 19~29세, 30대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이 40대, 50대의 순으로 보수적이라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면서도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도 2009년에 30대가 32.9%의 응답률을 보인 바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19~29세, 30대의 응답률이 매년 40, 50대 이상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19~29세, 30대 vs. 40, 50대 이상의 응답률 구도를 보이고 있다.





## 4. 세대별 통일의식의 특징

### 1) 19~29세

20대의 통일의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통일에 대한 유보적 입장,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우리사회 내부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현상, 보수와 진보 성향의 혼재 등이다.

첫 번째는, 통일에 대해 가장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대는 2007~2011년 조사결과에서 연속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 가능시기에 있어서도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최근 2년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에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어 여타 연령대 대비 통일에 대해 가장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과 더불어 우리사회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두드러진다. 이런 경향은 2007~2011년 세대별 통일의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정치에 관심없다는 응답도 이들 층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세 번째는 보수와 진보 성향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진보, 보수성향의 틀을 깨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20대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는 문항에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에서 나타나는 의견 표출과 동

시에 보수 성향의 의견도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 중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명박대통령의 직무평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내지 불만족스러움을 가장 많이 드러낸 연령층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보수적 성향을 더불어 표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20대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안보 불안감은 북한에 대해서나 대북지원에 대해서 여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가 현역 입대 대상층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느 연령층보다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보, 경제상의 불안감은 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대남, 대북 인식 전반에 걸친 무관심,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30대

30대의 전반적 특징은 ‘한국인으로서의 낮은 자긍심을 보이는 중도세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치성향에 있어서 중도성향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응답률에 있어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30대는 19~29세와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3) 40대

40대의 주요 특징은 ‘보수화되는 경향과 진보성이 공존’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19~29세, 30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대답한 비율도 20, 30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40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른바 386세대의 정치 성향이 가장 진보적일 것이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견해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대는 북한 및 통일관련 여러 문항에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가장 높고,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4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미국·일본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의 역사적 사건,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구체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40대는 2007~2011년 5개년 간 조사결과 모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50대 이상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연령대에 비해 북한과 우리사회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보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연령층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 4) 50대 이상

50대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정형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보수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 19~29세, 30대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50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고, 통일이 남한에 줄 이익<sup>9)</sup>에

대한 기대치에서도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변국가 중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현재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주변국 중 미국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장 많이 표하고 있다. 2007~2011년 5개년 연속 50대 이상에서 미국을 가깝게 인식하는 비율이 여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시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7~201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29세 응답자들이 북한과 현 정부 모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장 많이 드러낸 것과 비교할 때, 50대 이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현정부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은 여타 연령층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 5. 소결: 통일 준비 방향

이 글에서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통일의식을 2011년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1년 결과 뿐 아니라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간 실시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계열상 세대별 의식의 차가 어느정도 연속선상에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

9- 2007~2011년 전 기간에 걸쳐 50대 이상의 기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다. 2007~2011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의식의 차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컸다는 것과 의미있는 견해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07~2011년도 통일외식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북한사회 인지도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통일의 필요성, 통일가능 시기 등을 비롯해 주변국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세대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4~5개년 연속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간 견해차를 보인 문항들<sup>10</sup>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문항의 내용에 따라 견해차가 고착화되므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가능 시기 예측 등에 있어 세대별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4~5개년 연속 20대의 견해가 여타 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가능 시기에 있어서도 먼 미래로 예측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20대의 인식과 더불어 5개년 연속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에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내 정치·사회적 무관심, 이해도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여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통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10- 총 9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사회인지도(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19, 5.16, 10월 유신)’에 대한 문항에서였다. 이외에도 2~4개년 연속 세대별 견해차를 드러낸 문항들이 대북인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한국전쟁과 분단시기에서 멀어진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외 인식의 틀에서 통일이라는 과제를 재구성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글의 서두에서 현재의 20~30대에 해당되는 포스트모던 세대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정치사회적 무관심’ 등을 들었었다. 이들 세대의 소비지향, 산업화된 대중문화에의 몰입 등은 정치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잃어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안 뿐 아니라 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멀어지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국내외, 북한에 대한 위기 인식을 어느 연령층 보다도 실감하고 있기에 통일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20대가 30대와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응답률이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이들의 위기 인식 속에 형성된 정체성의 한계를 추측하게 한다. 20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어느 연령층보다 많이 느끼고 있으며, 국내 상황에서도 청년실업이라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부딪치고 있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는 가운데서 촛불세대가 되었던 그들은 통일의식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국으로서의 인식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통일로 야기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더욱 경계하게 되며, 이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마냥 키울 수만은 없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또한, 20대는 현실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연령층이기에 연평도, 천안함 사태라는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북한으로 인해 돌발될 위기상황에 가장 민감해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3대세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핵개발을 통해 ‘단번도약’하겠다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는 성장주의 등을 보아왔다. 그렇기에 남

북한 간의 통일은 그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 새로운 세대가 윗세대의 성장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등과 충돌해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갈등의 골을 예견케 할 수 있다. 국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의 벽을 경험하고 있는 20대가 통일이 야기할 경제적 비용 부담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점 또한 통일에 대한 필요성,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20대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통일논의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대중성을 P세대(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 paradigm-shifter)<sup>11</sup>로 명명한 바를 참조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표출이 가능한 통일 논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와 접근성 제고 방안이 중요한 것이다.<sup>12</sup>

두 번째는, 2007~2011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스스로의 정치성향이 ‘중도’라는 응답률이 ‘진보’와 ‘보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표현되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전형적 틀이 깨지고 있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이와 같은 ‘틀 깨기’는 분명하다. 40대는 민주화시기라는 그들 세대를 규정하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지만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실 상황과 혼재되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11. 최근 대두되는 대중성 가운데 하나로 ‘소극적 수용자에서 비판자,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12.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교육 방법 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고 주입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한계이다. 또한 게임, 놀이 등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유형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 제시되어 있기도 하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인지도, 통일교육과 관련한 행사에 대한 무관심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대는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진보의 인식틀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보수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의식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진보, 보수라는 그 간의 전형적 틀에 스스로를 가두기보다 각 세대별로 그들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가중치를 두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찬·반 여부가 나뉘기 보다는 현 시기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대변한다.

세 번째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세대별 세분화된 통일교육과 더불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서의 통일 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 IMF,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주자의 증가와 다문화 수용 요구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세대별 의식과 태도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그렇기에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비전은 비단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로 전승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대간 통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통일정책이 장기적 추진력을 요하는 공공정책임을 고려하면 통일의식과 관련해서 세대 간에 나타나는 의식의 차를 좁히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어느 것보다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대 간의 견해차를 발전적 대안 모색의 가능성으로까지 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대 간에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통일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3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표

구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공통 13 문항)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41	.001	.000	.000	.001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	.000	.000	081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03	.010	.003	.000	-	
	○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 도적 대북지원	-	-	.018	-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 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	.035	-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	-	.033	-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	-	.009	-	-
	○ 대북 사안별 시급성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	.044	-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	-	-	-
		㉢ 군사적 긴장 해소	-	-	-	-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02	-	.047	.001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	-	-	-
		㉥ 북한의 인권 개선(2008년 신설~2011까지)	-	.008	-	-	-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	-	-	-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공통 10 문항)	○ 통일의 이익 정도	㉠ 남한	.005	.004	-	.005	-
		㉡ 자기 자신	-	.004	-	-	-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 빈부격차	-	-	-	-	-
		㉡ 부동산투기	-	-	-	-	-
		㉢ 실업문제	-	.002	-	-	-
		㉣ 범죄문제	-	.017	-	-	-
		㉤ 지역갈등	-	-	-	-	-
	㉥ 이념갈등	.046	-	-	-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029	-	-	-	-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001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북한에 대한 인식 (공통 20문항)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	-	.001	.042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2009~2010)	×	×	-	.018	×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44	-	.003	.045	-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	-	
	○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08)	.010	.000	×	×	×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2007~2008)	-	-	×	×	×	
	○ <b>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b>	<b>.015</b>	<b>.000</b>	<b>.000</b>	<b>.000</b>	<b>.004</b>	
	○ 북한 사회 인지도	㉠ 선군정치	-	-	.001	-	.017
		㉡ 주체사상	.000	.002	.000	.000	.000
		㉢ 천리마운동	.000	.000	.000	.000	.000
		㉣ 고난의 행군	.002	.000	.000	.000	.000
		㉤ 장마당(2009~)	×	×	.000	-	.001
		(2007~2008) 꽃제비	-	.000	×	×	×
		㉥ 아리랑 축전	.001	.000	.000	.000	.000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039	.006	-	-
		㉧ 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적	-	-	-	-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009	.008	-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	-	-	-	-
	○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 선거방식	.048	-	-	.038	-
		㉫ 생활수준	-	-	-	-	-
		㉬ 법률제도	-	-	-	.003	-
㉭ 언어사용		-	-	-	.001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	.039	-	.043	-	
○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033	-	-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	-	-	-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4문항)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	-	.014	-	.022	.038?	
	○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2008년도 신설~2011)	×	-	-	-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	.002	.000	.009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	.003	-	-	-	
	대북문제관련 찬반 - 찬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교류도 해서는 안된다. (2011년)	×	×	×	×	-	
	○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2008년도 신설~2011)	×	-	-	.000	-	
	중국과 북한의 협력에 대한 견해(2011년)	×	×	×	×	-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2009신설~2011)	×	×	-	.002	-
		남북관계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인도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2008)	×	-	-	-	-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2008 신설~2011)	×	.032	.022	-	-
		㉢ 대북 빠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2009신설~2011)	×	×	-	-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2009년신설~2011)	×	×	-	-	-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2009신설~2010까지)	×	×	-	-	-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된다.(2008)	×	-	×	×	×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의 책임(2008)	×	-	×	×	×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2010~2011)	×	×	×	-	-	
	○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약화에 대한 책임 정도(2009년 신설~2011)	㉦ 북한의 책임	×	×	.000	-	.004
㉧ 한국의 책임		×	×	.041	-	-	
㉨ 미국의 책임		×	×	.018	.041	.032	
㉩ 중국의 책임		×	×	-	-	-	
㉪ 일본의 책임	×	×	.001	-	.0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	-	-	.009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2011년 신설)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	×	×	×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2011) 남북한 교류협력과 긴장해소,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 신장,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 자원 마련, 북한 핵종단을 위한 국제 협력, 평화협정 체결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ANOVA)					
		07	08	09	10	11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생각 (10문항)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	-	-	-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내 이웃	-	-	-	-	-
		㉡ 직장 동료	-	-	-	-	-
		㉢ 사업 동업자	-	-	-	-	-
		㉣ 결혼상대자	-	.003	.003	-	-
	○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	.009	.027	-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	.026	.031	-	-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001	-	-	-
		㉢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	-	-	-
		㉣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	-	-	-	-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공통 16문항)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	.000	.000	.000	.018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000	.029	.000	.013	-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	-	-	-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 미국	-	.006	-	.025	.006
		㉡ 일본	.008	-	-	-	-
		㉢ 중국	-	-	-	-	-
		㉣ 러시아	.010	.003	.034	.028	-
	○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미국	.000	-	.000	.041	-
		㉡ 일본	-	.005	-	-	-
		㉢ 중국	-	-	-	-	-
		㉣ 러시아	-	-	-	-	-
	○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미국	-	-	.001	-	.000
		㉡ 일본	.003	-	-	-	-
㉢ 중국		-	-	-	-	-	
㉣ 러시아		-	-	-	-	-	
○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필요 정도 (2008년 신설~2011)	㉠ 미국	-	-	.007	-	.011	
	㉡ 일본	-	-	.006	-	-	
	㉢ 중국	-	-	.043	.000	-	
	㉣ 러시아	-	-	.033	-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	-	.034	-	-		
○ 주변국 비협조시 남북한 통일가능정도 (2007)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ANOVA)					
		07	08	09	10	11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문항)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4.19	.013	.000	.000	.000	.020
		㉡ 5.16	.000	.000	.000	.000	.004
		㉢ 10월유신	.000	.001	.000	.000	.003
		㉣ 광주민주화운동	.038	-	.001	-	-
		㉤ 6월 항쟁(1987년)	-	.001	-	.002	-
	㉥ 남북 정상회담 2007~2008년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2008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2010~11년 남북정상회담	-	-	-	.035	-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00	.000	.000	.000	-	
	19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견해(2007~2008년)	-	-	×	×	×	
	○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 빈부격차	-	-	.004	.022	-
		㉡ 부동산투기	-	-	-	-	-
		㉢ 실업문제	-	.015	.004	-	-
		㉣ 범죄문제(2007~2009)	-	-	-	×	×
		㉤ 지역갈등	-	-	-	-	-
		㉥ 이념갈등	-	-	.013	-	-
㉦ 반미정서(2008~2009)		×	-	.018	×	×	
환경파괴(2010~2011)		×	×	×	.003	-	
표현의 자유제한(2010~2011)		×	×	×	-	-	
종교갈등(2010~2011)		×	×	×	-	-	
반미정서 우려수준 평가(2007)	-	×	×	×	×		
부정부패 (2011년신설)	×	×	×	×	-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공통 8문항)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017	.002	.006	-	-	
	○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2010년 신설~2011)	×	×	×	.000	.000	
	○ 정치적 성향	-	-	.000	.000	.012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	-	-	-	-	
	○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00	.001	.001	-	-	
	○ 2007 대선 시 투표 후보(2010년~2011)	×	×	×	.000	-	
	○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000	.000	.000	.000	-
		항의 시위와 데모(2007~08)	.000	.000	×	×	×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00	.000	.000	.000	-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2009~2010)	×	×	-	.001	-	
	○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2008~2009)	×	.000	.000	×	×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	-	-	-	-	
	○ 한반도 전쟁 가능성	-	.000	.001	-	-	
	○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2011)	×	×	×	.000	.000	
	○ 천안함 사건 해결 적절성 (2010)	×	×	×	-	×	
	○ 천안함 사건 현 정부 대북정책에 원인 있다는 주장 동의 정도(2010)	×	×	×	.012	-	
○ 2007년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2010)	×	×	×	-	×		
○ 지지정당 (2011)	×	×	×	×	-		
○ 차기 대선 주요 쟁점 (2011)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Ⅱ.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 변화

### 1. 2011년 동북아 정세변화와 인식변화

2007년 통일외식조사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남북한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무력충돌 수준으로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으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중국은 문자 그대로 옥일승천의 기세로 미국과 맞먹는 양대 강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일본은 2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엄청난 지진 사태를 겪었고 얼마 전에는 수상이 사임하는 등 전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한국의 경우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로 접어들면서 2012년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 뒤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정도의 방향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들이 주변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축적된 통일외식조사를 심층 활용하여 그 변화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성은 우선 각 나라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을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논의하고 다음 한국인이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로 느끼는 나라는 어디인지를 같은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핀 후, 마지막으로 각 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분포와 변화의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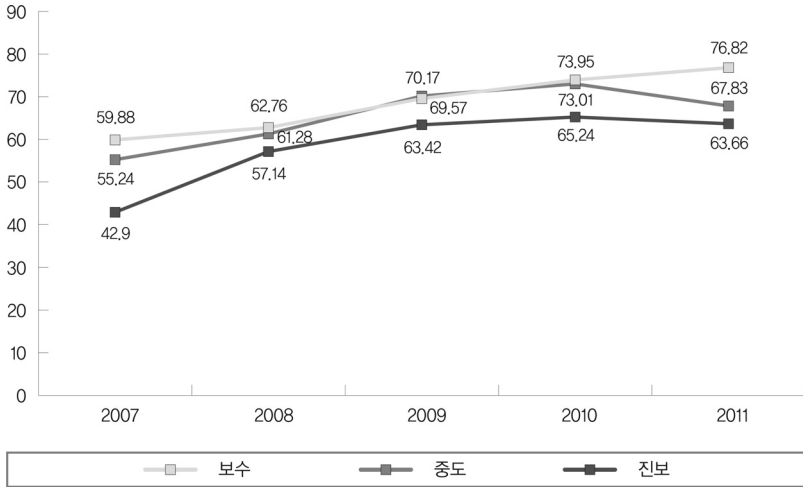
## 2. 대외인식

### 1) 친밀도 심층분석

기초분석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변 4강 국가와 북한에 느끼는 친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아래서는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친밀도 변화를 이념 및 연령별로 심층분석할 것이다.

#### (1) 미국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53%에서 2010년 70.6%까지 상승하였다 (대외인식 기초분석 [표 2-II-1] 참조). 이념별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정리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친밀도는 2010년 70.6%에서 2011년 68.6%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를 응답자의 이념별로 나누어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II-1] 이념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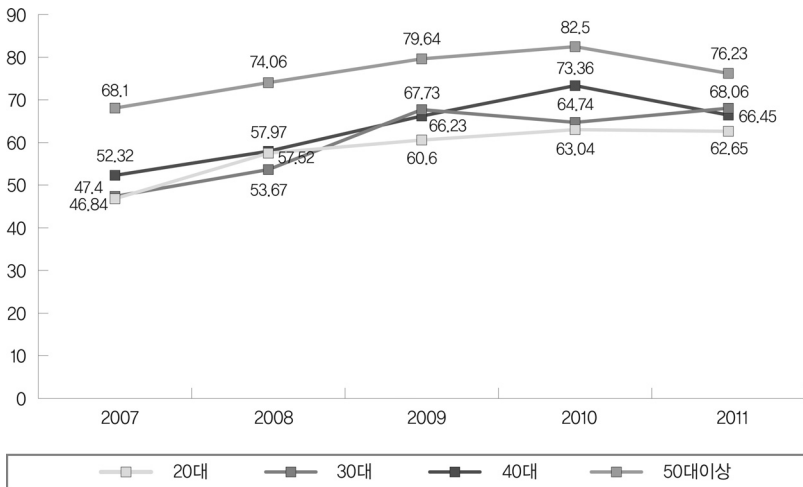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보수, 중도, 진보집단<sup>13</sup>이 모두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진보집단이었다. 보수집단이 59.9%에서 62.9%로 3% 남짓한 변화를 보인 반면 진보집단은 14.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소수자 정치에 우호적인 진보 그룹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세 이념집단이 모두 비슷한 변화율을 보이며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갔다. 특히 이 기간 중도와 보수의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진보 역시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긴 하였으나 진보의 절대 다수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답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13- 통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 이념성향은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이라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비로소 이념집단 간 변화의 양상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보수의 대미친밀도는 2008년 이후 거의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76.8%까지 치솟은 반면, 중도집단의 대미친밀도는 세 집단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0년 73%에서 2011년에는 67.8%를 기록하였다. 진보집단의 대미친밀도 역시 65.2%에서 약간 떨어진 6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대미친밀도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1년에는 응답자의 이념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중도와 보수집단 간 대미친밀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중도와 보수의 시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천안함 사건 발발 직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 정책이 보수층에게 친밀도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한 반면, 전쟁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중도와 진보집단에겐 그 반대 방향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의 영향권 안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이념집단별 대미친밀도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념집단 간 대미친밀도의 차이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진보집단조차도 63.7%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이들을 자동적으로 반미 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보수와 중도, 그리고 진보집단 사이에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며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다.

한편, 대미친밀도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II-2]와 같다.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대미친밀도가 높은 연령집단은 50대 이상 노년층으로, 2010년에는 무려 82.5%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했다. 반면 나이가 젊을수록 대미친밀도가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2011년 현재 대미친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은 20대(62.7%)이며 그 다음은 40대(66.5%)와 30대(6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II-2] 연령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대미친밀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집단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7년 이후 모든 집단의 대미친밀도가 상당 폭으로 상승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하락 현상은 특히 50대 이상 집단(82.5% → 76.2%)과 40대 집단(73.4% → 66.5%)에서 뚜렷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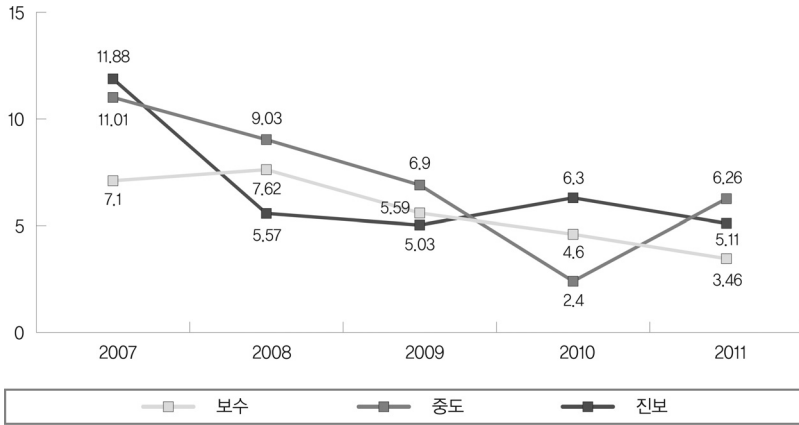
나타났다. 반면 이 시기 20대의 대미 친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었다.

한편, 30대는 유일하게 대미친밀도가 작년에 비해 상승한 연령층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볼 때 30대는 미국에 대해 가장 친밀도가 떨어지는 집단이었는데(47.4%), 2009년 30대의 대미친밀도는 67.7%로 오히려 20대와 40대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이 모두 상승한 2010년에 30대는 약간 하락한 64.7%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 반대로 유일하게 대미친밀도가 상승하여 68.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30대의 대미친밀도는 전반적으로 65%에서 68% 사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대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대미친밀도와 연령층의 교차분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009년까지 대미친밀도는 전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지만 2009년 이후 20대와 30대의 대미 친밀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상당 폭의 상승을, 반대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기간에는 상당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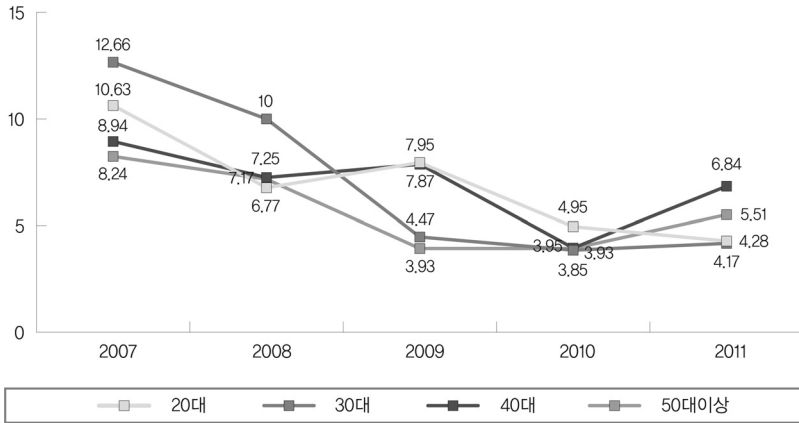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도 설문은 주변 5개 국가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응답자 이념별로 친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II-3] 이념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대중친밀도는 진보, 중도, 보수 세 집단 모두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가장 높은 대중친밀도를 보였던 집단은 진보집단(11.9%)이었고, 그 다음은 중도(11%), 보수(7.1%)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순위는 2008년 바뀌어 진보의 대중친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5.6%), 이는 이 시기 대중친밀도가 낮아질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미국에 대한 진보의 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대중친밀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중친밀도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아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중도집단의 대중친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중도의 대중친밀도는 2009년에 6.9%에서 2010년에는 2.4%로 떨어졌다가, 2011년에는 6.3%로 회복되었다. 이는 아마도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대중친밀도의 변화가 중도 그룹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되지만, 2011년에는 이 하락했던 대중친밀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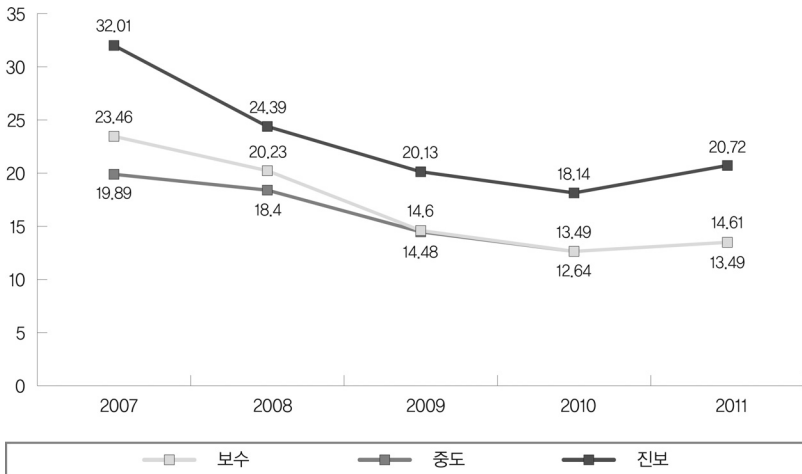
[그림 2-II-4] 연령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위의 [그림 2-II-4]는 연령집단별로 대중친밀도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중 친밀도는 2007년 이래 상당히 하락하였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은 30대로, 이들은 2007년 당시 가장 중국에 친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12.7%), 2011년에 오면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대중친밀도를 보이고 있다(4.2%). 반면 중국에 대해 친밀도가 가장 낮았던 50대 이상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폭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09년 이후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대중친밀감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40대의 대중 친밀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하락하였다(7.9% → 4%), 다음 기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4% → 6.8%). 이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경험을 가진 40대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3) 북한

아래의 그래프는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를 응답자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2007년 대북친밀도의 이념별 분포는 진보가 가장 높고(32%) 그 다음은 예상과 달리 보수성향 응답자였다(23.5%). 그리고 중도의 대북친밀도는 보수집단보다 낮은 19.9%에 그쳤다. 이렇게 대북친밀도에 있어 보수가 중도를 앞서는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되어서 보수의 친밀도는 20.2%인 반면 중도는 이보다 약간 낮은 18.4%를 기록했다.

이렇게 2008년 이전 보수의 대북친밀도가 중도를 앞서는 현상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지금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중도, 보수 사이에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대북친밀도의 분포가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II-5] 이념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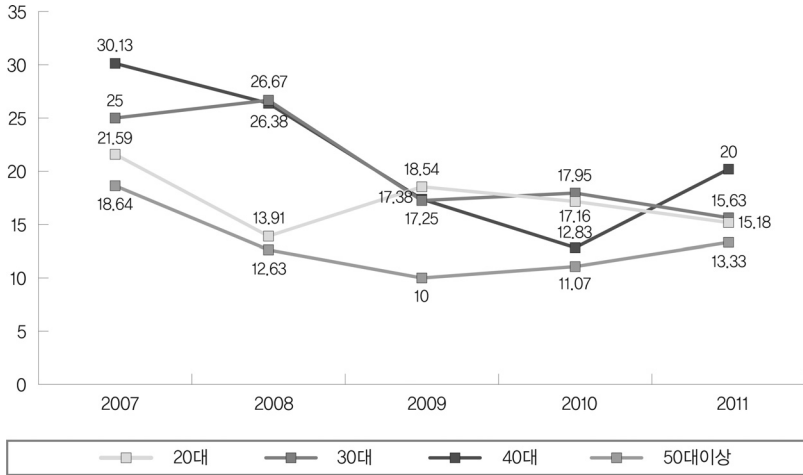
그러나 중도와 보수집단의 대북친밀도는 2009년에 오면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 두 집단에 비교했을 때 진보집단의 대북친밀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중도이념 집단은 대북친밀감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진보집단은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대북친밀감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다른 이념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친밀감의 하락현상과 이념집단 간 차이 역시 과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의 구조상 대북친밀감은 다른 나라(미국 혹은 중국)의 친밀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 순위로 보면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북친밀감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sup>14</sup>는 가장 컸던 2007년에도 8.6%였고 가장 낮았던 2008년에는 4.2%였을 뿐이다. 즉,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sup>15</sup>.

14. 진보집단 대북친밀감 - 보수집단 대북친밀감

15.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9%, 보수는 24.2%, 중도는 48%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총 응답자 6,015명 중에서 진보는 27%, 보수는 25.6%, 중도는 47.4% 로 조사되었다 (무응답 2명 제외).



[그림 2-II-6] 연령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그림 2-II-6]의 그래프는 연령집단별 대북친밀도를 정리한 것이다. 2007년 이후 40대 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대북친밀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7년의 경우 가장 높은 40대의 대북친밀도는 30.1%에 달했으며 다음이 30대로 25%, 20대가 21.6%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18.6%였다. 그 이후 세대별로 각기 다른 부침을 겪었으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대북친밀도는 13.3%에서 15.6% 사이에서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되고 있다.

40대의 대북친밀도 변화는 다른 연령층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후 조사되었던 작년에 40대의 대북친밀도는 12.8%로 20대(17.2%)와 30대(18%) 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 20대와 30대가 15%선으로 약간 하락한 반면 40대는 오히려 7.3%이상 상승한 20.2%의 대북친밀도를 보여서 천안함 이전인 2009년 수준(17.4%) 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80년대의 대학 경험을 가지고 있

는 40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에 40대의 대북친밀감이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적 관심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작년의 천안함 사건에 20대와 30대보다도 40대가 예민한 반응을 보여 대북친밀감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 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2010년과 사뭇 달라진 것에 영향을 받아 40대의 대북친밀감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대북친밀도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대해석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친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40대와 가장 낮은 집단인 50대 이상을 비교해보면 분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북친밀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역시 가장 컸던 2007년에도 11.5%(40대 30.1%, 50대 이상 18.6%)였고 가장 작았던 2010년에는 불과 1.7%(40대 12.8%, 50대 이상 11.1%)였다. 그 차이가 약간 늘어난 2011년에도 40대와 50대 이상 집단의 대북친밀도 차이는 6.9%에 불과하다(40대 20.2%, 50대 이상 13.3%). 따라서 연령집단별 대북친밀도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 집단 간에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변화를 지적하면 20대 집단에서 2011년 대북친밀도(15.1%)가 대일친밀도(16.7%)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일본이 북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지난 5년간의 조사 중에서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현상이다. 20대에서만 이 현상이 두 번째 발생하였는데, 2008년에도 비슷하게 대일친밀감이 대북친밀감을 앞섰던 적이 있다.<sup>16</sup>

<sup>16</sup> 20대의 2008년 대일친밀감은 18.2%, 대북친밀감은 13.8%였다.

이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20대가 민족주의적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본 문화를 어렸을 적부터 접하고 자라온 세대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2) 위협도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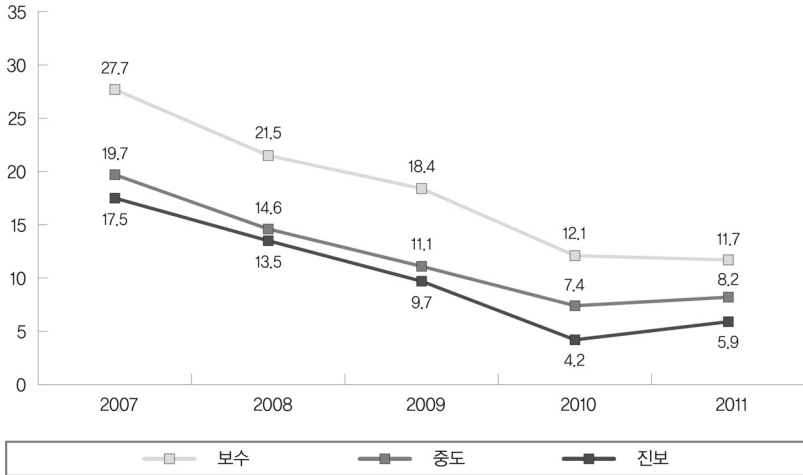
친밀도와 대립되는 위협도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으로 측정되며, 응답자들은 보기로 나열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를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다<sup>17</sup>.

아래에서는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국가별 위협도의 분포를 이념 및 연령별로 분석할 것이다.

### (1) 미국

응답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신의 이념별로 미국을 가장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뽑은 비율을 아래 그래프에서 비교해 보았다. 대미위협도에서는 이념별 차이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집단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는 반면, 그 뒤를 중도와 보수가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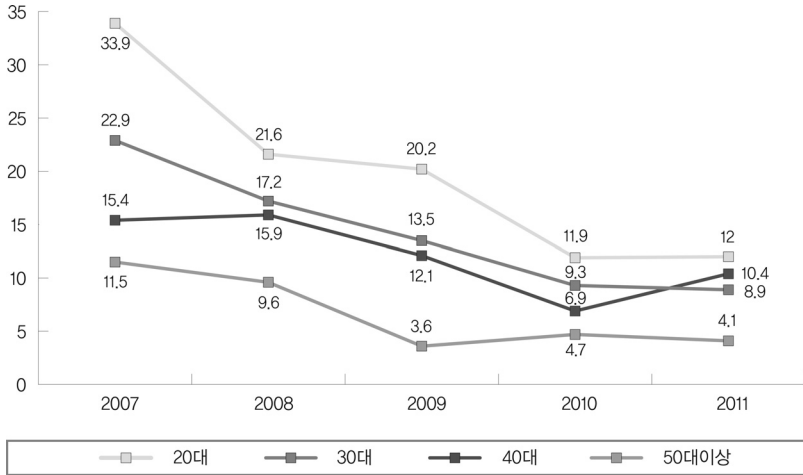
<sup>17</sup> 주변국 위협도의 분포에 대해서는 대외인식 기초분석의 [표 1-V-2] 참조.



[그림 2-II-7] 이념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그러나 보수라고 해서 대미위협도가 낮은 것만은 아니다. 2007년의 경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17.5%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이념집단별 대미위협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07년 진보와 보수의 대미위협도 차이는 10.2%(진보 27.7% - 보수 17.5%)였던 반면, 이후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그 차이가 5.8%(진보 11.7% - 5.9%)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 이념집단 모두 지난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감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던 대미위협도는 작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201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미위협도의 감소 추세는 앞절에서 살펴본 대미친밀도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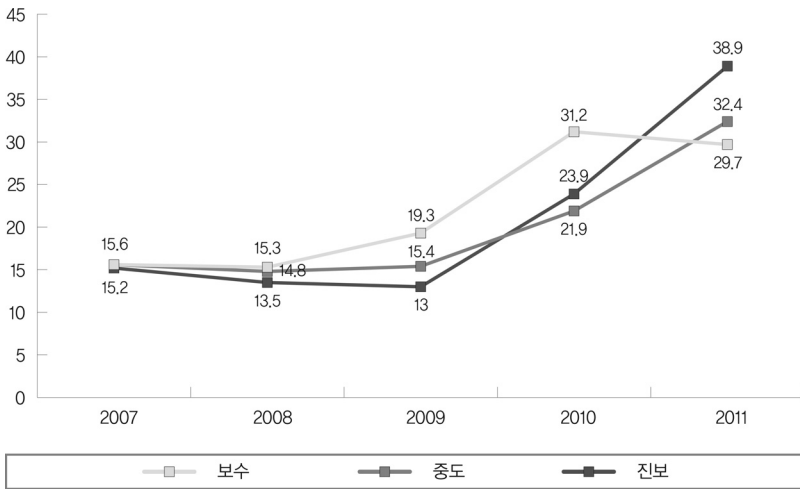
[그림 2-II-8] 연령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위 [그림 2-II-8]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연령대별 대미위협도 변화 추이도 이념별 대미위협도 변화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07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미위협도는 응답자의 나이에 역비례하고 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미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노년층에서는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지난 5년간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7년 20대와 50대 이상층에서 대미위협도의 차이는 22.4%에 달했다(20대 33.9% - 50대 이상 11.5%). 반면 이 두 연령집단간 차이는 2010년 7.3%(20대 11.9% - 50대 이상 4.7%)로 가장 낮았고, 2011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8%(20대 12% - 50대 이상 4.1%)를 유지했다. 즉, 대미위협도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는 아직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대미위협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중국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의 주변국 위협도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을 가져오는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2-II-9] 이념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그림 2-II-9]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통일외식조사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 진보, 중도, 보수 이념집단이 느끼는 대중위협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진보 15.2%, 중도 15.8%, 보수 15.6%).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 악화가 시작되면서 이념 집단별 대중위협도에도 현격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09년에는 보수의 대중위협도는 19.3%, 진보는 13%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마저 급상승하여 23.9%에 달했고, 보수집단의 대중위협도는 31.2% 까지 치솟았다. 흥미로운 것은 2011년에 오면 진보와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진보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보다 무려 15%가 증가한 38.9% 달했는데, 이는 진보의 대북위협도인 37.1%를 뛰어 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진보집단은 중국을 북한보다도 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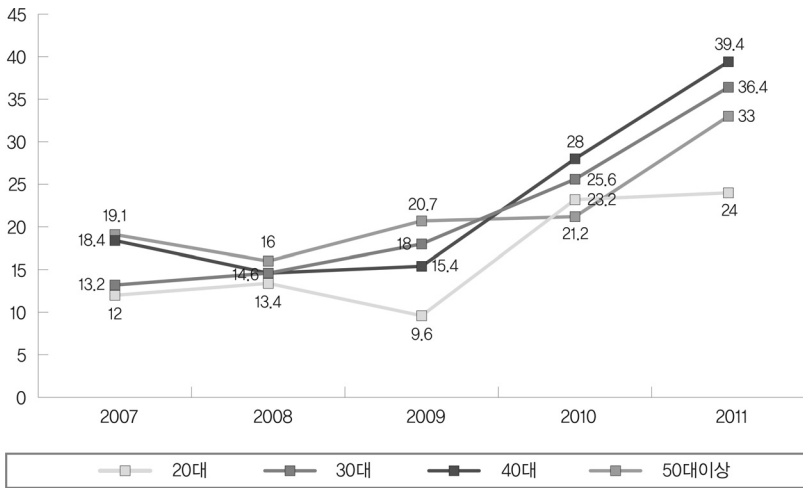
진보집단 뿐만 아니라 2011년 응답자의 48%를 차지하는 중도집단의 대중위협도 또한 작년의 21.9%에서 대폭 상승한 32.4%를 기록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보수집단이 느끼는 대중위협도는 작년보다 약간 낮은 29.7%에 그쳐, 2011년 조사에서는 대중위협도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이념집단의 순서가 진보 > 중도 > 보수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위협도의 이념집단간 역전현상은 진보와 보수가 한반도의 정치를 이해하는 인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7년 이후 보수집단의 대중위협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는 여전히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을 북한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의 대중위협도 상승은 대북위협도 상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대중 위협도가 상승한 만큼 대북위협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2010년과 2011년 사이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북위협도의 정체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경우를 보면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4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문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진보 또한 보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는 북한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지목했고, 대북위협도에서 보수와 진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1년에 진보의 대북위협도와 대

중위협도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면서 중국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보면 이들이 단지 이념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인식의 프레임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II-10] 연령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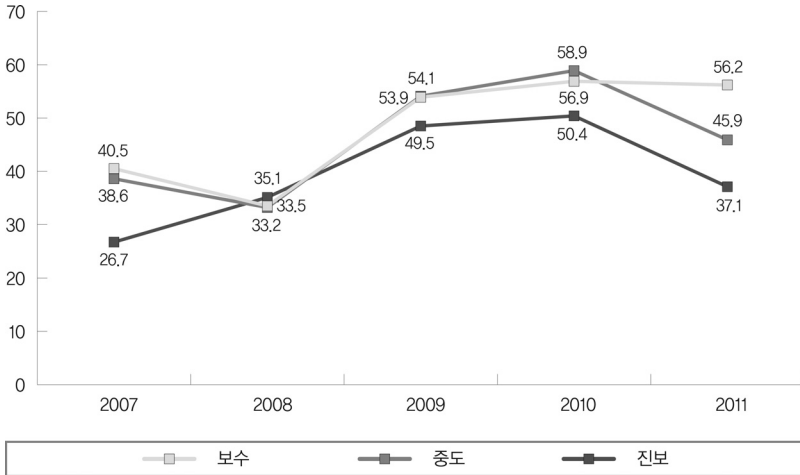
한편, 연령별 대중위협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대중위협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대학 경험을 가진 40대의 대중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와 50대의 대중위협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0대의 대중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이다. 40대의 대중위협도는 거의 40%에 가깝고 30대와 50대도 30%대 중반의 위협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대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24%에 그쳤다. 이는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의 영향을 덜 받는 국제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3) 북한

앞에서 대북친밀도를 이념집단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집단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나 그 차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란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북위협도를 이념집단별로 분석해보면 다른 면이 드러난다.

아래 [그림 2-II-11]에서 대북위협도를 이념집단별로 분류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에 중도와 보수의 대북위협도는 각각 38.6%와 40.5%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진보의 대북위협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26.7%였다. 대신 2007년도 조사에서 진보집단은 미국의 위협도를 27.7%, 일본의 위협도를 28.7%, 그리고 중국의 위협도를 15.2%로 기록하여 한반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을 북한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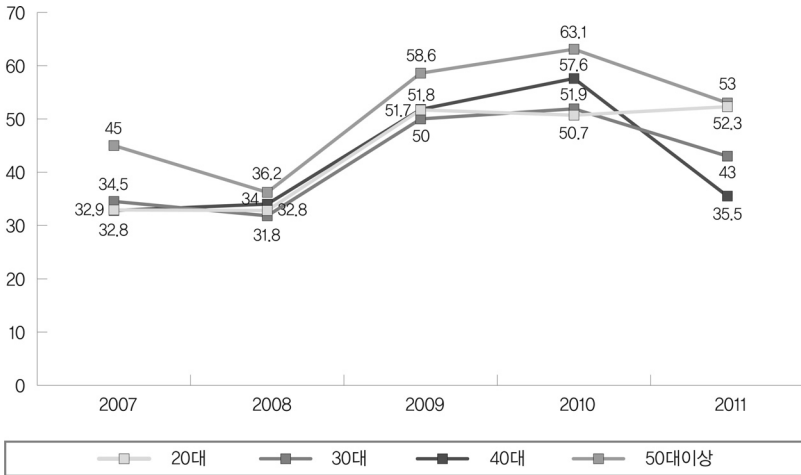
[그림 2-II-11] 이념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필두로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악화에는 진보집단의 대북위협도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사이 진보집단의 대북위협도는 최고 50.4%(2010년)로 치솟았으며, 이는 보수나 중도의 대북위협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는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었다.

그런데 2011년 조사는 이념집단들이 느끼는 대북위협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중도의 대북위협도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진보보다 중도의 변화가 주목할 만 한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중도와 보수의 대북위협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2010년에는 중도의 대북위협도가 오히려 살짝 높기도 했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중도와 보수 사이에서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감

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의 약화 등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북한 문제를 남북 간에 벌어지는 한반도 내부의 일이라기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중도집단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북위협도는 이제 진보집단과 중도집단에 한정해서라면 대중 위협도와 약한 수준에서 역비례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림 2-II-12] 연령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연령별로 본 대북위협도는 지난 5년 간 몇 가지의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7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세대의 대북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의 대북위협도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그 이하 연령층은 비슷한 수준의 대북위협도를 보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와 함께 연령별 대북위협도의 차이는 상당히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09년에 대북위협도가 가장 낮은 30대와 가장 높은 50대 이상의 차이는 각각 4.4%와 8.6% 였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서는 이 세대별 대북위협도 차이가 다시 커지는데, 가장 낮은 20대와 50대의 차이는 12.4%에 달했다.

2011년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연령대별 대북위협도의 특징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매우 큰 폭으로 대북위협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50대 이상세대조차 2010년에 비해 10.1%의 하락을 기록했고, 40대에서는 그 폭이 무려 22.1%에 달했다. 오로지 20대에서만 2010년 50.7%에서 2011년 5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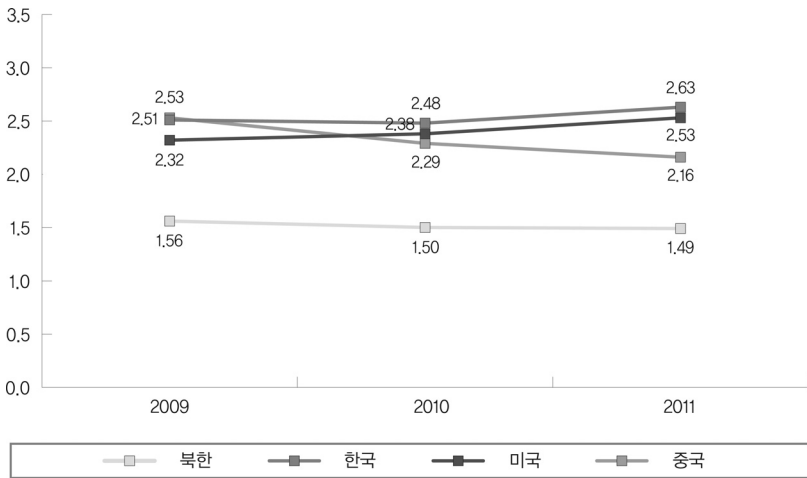
이러한 대북위협도의 하락은 앞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문제 개입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중도 및 진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북한보다도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20대의 대북위협도가 2009년 이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탈정치화 혹은 정치무관심에 기인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 3)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아래 [그림 2-II-13]의 그래프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정도를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sup>18</sup> 여기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8.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아주 크다’ = 1, ‘조금 크다’ = 2, ‘중간’ = 3, ‘별로 크지 않다’ = 4, ‘거의 없다’ = 5로 코딩하였다. 2009년부터 새로 삽입된 설문으로 연도별 분포에 대해서는 대외인식 기초분석의 [표 1-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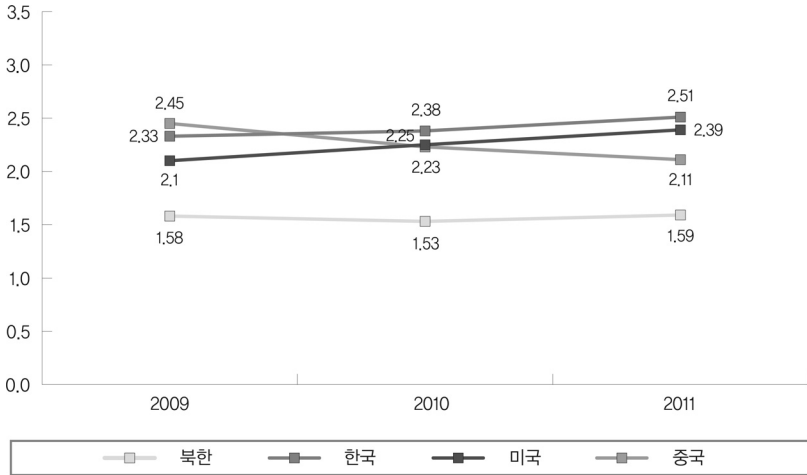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책임 정도는 1.56으로 다른 세 나라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2.51과 2.53을 기록했으며, 미국은 이것보다 약간 책임이 큰 2.32였다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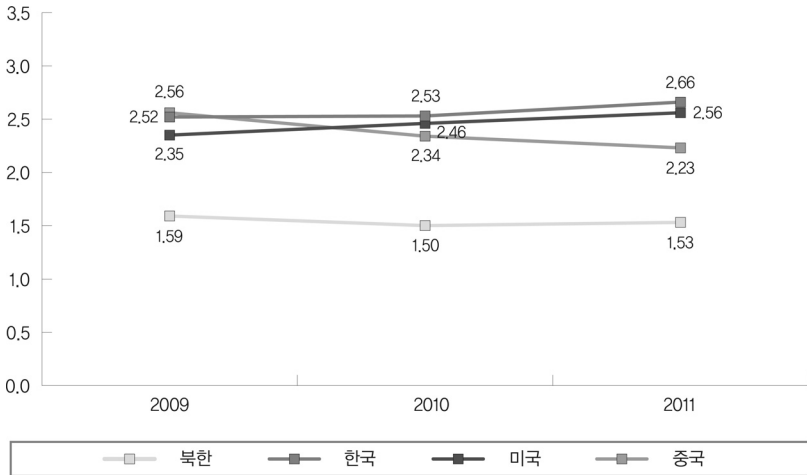
[그림 2-II-13]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비교(2009~2011)

위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완만하게 책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북한은 또한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데, 2009년 중국의 책임도는 2.53이었으나 2010년에는 2.29, 2011년에는 2.16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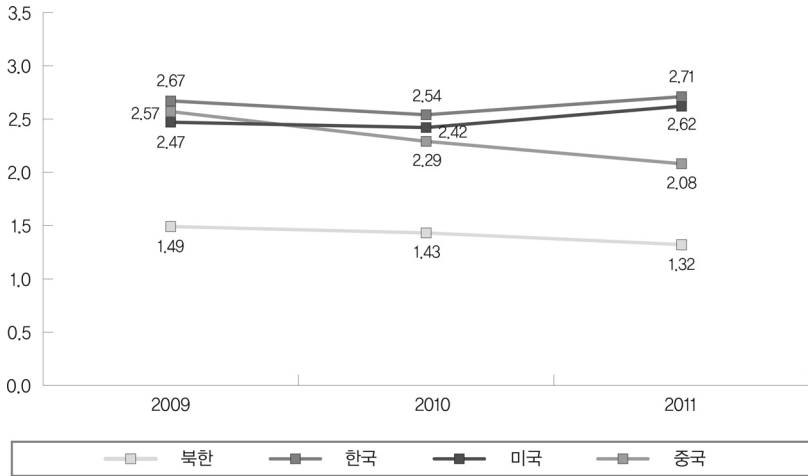
이 각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좀 더 세분화해 보기 위해, 아래 그래프들에서는 이념별로 책임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II-14] 진보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그림 2-II-15] 중도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그림 2-II-16] 보수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우선 진보, 중도, 보수가 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은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변화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 집단 모두 2010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의 중국에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집단이 북한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한국, 미국, 북한의 책임정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책임은 급한 경사를 보이며 낮아지고 있다.

### 3. 소결

대외인식의 기초분석에 이어 심층분석에는 친밀도와 위협도,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심으로 이념별 및 연령별 대외인식 분포가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친밀도 변화에서 진보, 중도, 보수 모두 지난 5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반미주의의 확산이 우려되기도 했던 2008년 촛불 시위를 전후에서 진보의 대미친밀도가 상승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도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하였다. 둘째, 이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모든 이념과 연령 집단에서 중국과 북한 친밀도의 하락이 관찰되었다. 셋째, 중국의 위협도가 2009년 이후에, 특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념집단별로는 진보의 위협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중 위협도가 상승하였고, 20대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 폭이 적은 편이었다. 넷째, 대북 위협도는 2008년 이후 진보, 중도, 보수가 모두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그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보수는 중국보다 북한을, 진보는 북한보다 중국을 더욱 위험한 주변국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보는 시각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 Ⅲ.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

#### 1. 서론

한국 정치에서 북한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었다. 그 기원은 물론 과거 분단과 전쟁 그리고 뒤이어 계속된 냉전과 적대적 대립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민주화와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후, 대북 정책은 한국 사회의 정파적, 이념적 대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한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를 ‘퍼주기’로 비판하고 북한의 호전성을 경계해 왔다. 더욱이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경험하면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보다 큰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에 대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과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대선을 통해 결정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방정책과 대북 유화정책이 추진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북정책은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는 대북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북 정책 역시 선거 무렵 대다수 유권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승리를 노리는 후보는 다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 이슈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며,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적 선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 2. 차기 대선에서의 중요한 쟁점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살펴볼 첫 번째 사항은 차기 대선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북 정책 관련 이슈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끈다면 그만큼 그 이슈의 정치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했다. [표 2-Ⅲ-1]에서 볼 수 있듯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역시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

장과 고용창출'이 제 1 순위에서 67.2%, 1, 2, 3 순위를 합치면 89.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확대/지역균형'은 제 1 순위로는 10% 정도 수준이고, 세 순위를 모두 합하면 54.5%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의 1순위 응답을 합하면, 그 비율은 75.9%에 달한다. 네 명 중 세 명이 경제 관련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으로 1순위만으로는 '복지확대와 지역 균형'보다 높은 10.3%를 나타냈고, 1, 2, 3순위를 다 합해서는 53.2%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가 중요 쟁점이 되리라는 예상의 비율은 제 1순위로는 4%, 1, 2, 3 순위를 합하면 25.4%였다. '사교육문제 해결과 학교개혁'이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정책전환'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2-Ⅲ-1]의 결과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차기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2-Ⅲ-1**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사교육 문제해결과 학교 개혁	환경보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기타/ 모름
제 1 순위만	67.2	9.7	10.3	5.1	3.3	4.0	0.3
1+2+3 순위 합	89.8	54.5	53.2	36.4	32.9	25.4	1.1

그러나 네 명 중 한 명 꼴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교육 수준, 가구소득, 이념성향, 정치적 관심의 정도, 성별, 연령, 그리고 정파적 성향,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대북정책 결정 때 국민의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등 11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III-2]에서 보듯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다.

표 2-III-2 이항 로지스틱 분석: 차기 대선 이슈는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변수	B	Exp(B)
교육	-0.02	0.98
가구소득	0.06 <sup>2</sup>	1.07
이념성향	-0.10	0.91
정치적 관심	-0.20 <sup>2</sup>	0.82
성별	0.18	1.20
연령	0.02 <sup>2</sup>	1.02
한나라당 지지	-0.030	0.74
민주당 지지	-0.50	0.61
지지정당 없음	-0.75 <sup>1</sup>	0.47
대북정책 만족도	-0.02	0.98
정책 국민 의사 반영도	0.09	1.10
상수	-1.06	

-2 Log Likelihood = 1289.7

Nagelkerke R<sup>2</sup> = 0.05

1 - p<0.01; 2 - p<0.05

교육: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재/대졸, 5-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1- 가장 낮음 ..... 12-가장 높음.

이념성향: 1-매우 진보, 2- 약간 진보, 3- 중도, 4-약간 보수, 5-매우 보수

정치적 관심: 1-매우 관심, 2-다소 관심, 3-별로 관심 없다, 4-전혀 관심 없다

성별: 0- 여성, 1 -남성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지지정당 없음: 각각 1, 기타-0

대북정책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대체로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국민의사 반영도: 1- 매우 잘 반영, 2-대체로 잘 반영, 3-대체로 반영 못함, 4-전혀 반영 못함

종속변수: 1-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0- 다른 이슈 (1,2,3 순위를 합한 비율임.)

11개의 독립변수 중 가구소득, 정치적 관심도, 연령, 지지정당 없음의 네 가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에서 다른 이슈에 비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가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관심이 클수록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에 비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힌 이들 가운데서 남북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정파성을 갖는 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대북 관련 이슈의 부상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따라서 [표 2-III-2]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차기 대선에서 남북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예상하는 이들은 정치적 관심이 크고 정파성이 강한 나이 들고 비교적 고소득의 유권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책 태도의 차이가 정파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 2-III-2]에서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차기 대선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정파별 입장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별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24.2%, ‘민주당’이 15.3%였으며 그 이외 정당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 9.1%였다. 이에 비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51.4%로 절반이 넘는다. [표 2-III-3]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중요 선거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재확인시켜 준다. 남북 관련 이슈를 선택한 이들 중 ‘한나라당’ 지지층이 다른 정파 집단에 비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도 2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유

동적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20.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2-III-3 정파별 차기 대선 중요 이슈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기타 이슈	합계 (n)
한나라당	30.2	69.8	100.0(291)
민주당	27.2	72.8	100.0(184)
지지 정당 없음	20.1	79.9	100.0(617)
카이제곱 12.4 p < 0.01			

전체적으로 본다면,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가 현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로 인해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III-2], [표 2-III-3]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다 활동적이고 예민한 유권자’들은 남북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련 이슈는 한동안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잠복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선거와 함께 분출된다면 언제라도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

차기 대선은 언제나 현 정부의 정책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현 정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 유권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유의하여 이번에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쟁점이 되었던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Ⅲ-4]에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떤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크면 반대의 입장, 이보다 작으면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함께 드러났다. ‘개성공단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 강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대한 찬성의 정도가 더 컸다. ‘북한에 빠라를 살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확인되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선 진보적, 전향적 태도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북핵 해결 이전에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한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태도에서도 찬성의 방향으로 평균값이 나왔다. 즉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목할 점은 전향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남쪽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빠라 살포 등 모두 남한 내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핵, 북한 인권, 북한의 사과 등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2-Ⅲ-4]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남한 내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북한의 도발적, 호전적 태도에 대

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선호하지만, 남한이 긴장완화나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III-4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쟁점	평균	표준편차
개성공단 유지해야	2.68	1.01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2.38	1.00
북핵 해결 이전 지원 불가	2.65	1.10
삐라 살포 반대	2.69	1.07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야	2.18	0.90
북한 사과 전 대화, 교류 불가	2.56	1.07

1-매우 찬성, 2-대체로 찬성, 3-그저 그렇다/반반, 4-다소 반대, 5-매우 반대

이런 점은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크면 책임이 크지 않은 것이고 이보다 작은 값이면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표 2-III-5]를 보면,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평균값은 1.49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1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 값도 상대적으로 작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은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2.63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북한’ 다음으로는 ‘중국’이 2.16으로 관계 악화의 책임을 비교적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악화된 남북 관계가 일차적으로는 ‘북한’, 그리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대다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표 2-III-4]에서 북한과 관련

된 정책 항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나타낸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표 2-III-5 남북관계 악화의 각국별 책임 정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평균	표준편차
북한	1.49	0.72
한국	2.63	0.97
미국	2.53	0.95
중국	2.16	0.92
일본	2.79	0.94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분석 결과는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 등 세 항목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분석했다. [표 2-III-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0%에 불과했으며, ‘국민의사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30.3%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정과 방향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도 잘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와 대북정책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0.37( $p < 0.01$ ), 그리고 국민의사 반영도와와의 상관관계는 0.32( $p < 0.01$ )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평가와 이 대통령의 직무 평가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에서 본 [표 2-Ⅲ-4] 가운데 남한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보면 [표 2-Ⅲ-6]에서의 부정적 평가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 즉, 국민들은 북한 관련 이슈와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선별적이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를 바라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만 지속되어 왔다는 데 대해 불만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표 2-Ⅲ-6**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 만족도		국민의사 반영도		MB 직무평가	
만족	40.0	반영	30.3	잘 한다	37.1
불만족	60.0	미반영	69.7	잘 못한다	62.9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 유권자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한나라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 절에서 논의한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등과 정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Ⅲ-7]의 로지스틱 모델에는 12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 만족도, 정책 과정에서 국민 의사 반영도,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의 세 변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나머지 8개 변수는 대북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예상대로 정파별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고, 대북 뼈라 살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달리 개성공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핵 해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방향과는 다른 태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확인되었다. 한국 정치의 주요한 갈등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을 [표 2-III-7]의 결과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표 2-III-7]에서 주목할 대상은 사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뚜렷한 정파성을 가진 이들인 만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대비되는 입장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지하는 정파를 밝히지 않은 이들이 어떤 태도나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보다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흥미롭게도 구체적 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임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온 항목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이들 무당파 집단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시 말해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밝힌 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표 2-III-7 이항 로지스틱 모델: 정파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 정책 평가

	한나라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지지 정당 없음	
	B	Exp(B)	B	Exp(B)	B	Exp(B)
정책만족정도	-0.02	0.98	0.08	1.08	-0.21 <sup>3</sup>	0.82
국민의사반영	-0.46 <sup>1</sup>	0.63	-0.07	0.93	0.21 <sup>3</sup>	1.24
MB 직무평가	1.68 <sup>1</sup>	5.35	-0.91 <sup>1</sup>	0.41	-0.71 <sup>1</sup>	0.49
대북지원확대	0.12	1.13	-0.05	0.95	0.02	1.02
전임 정부 정책 계승	0.00	1.00	-0.04	0.96	0.19 <sup>2</sup>	1.21
남북긴장완화책 책임	-0.01	0.99	0.17	1.18	-0.11	0.90
개성공단 유지	0.23 <sup>2</sup>	1.26	-0.23 <sup>3</sup>	0.80	0.04	1.04
금강산관광 재개	-0.12	0.89	-0.10	0.90	0.05	1.05
핵해결 전 지원 불가	-0.11	0.90	0.17 <sup>1</sup>	1.18	-0.05	0.95
빠라 살포 반대	0.16 <sup>2</sup>	1.17	-0.10	0.90	-0.03	0.97
북한 인권 제기	-0.03	0.97	0.03	1.03	-0.02	0.98
사과 전 교류 불가	-0.16	0.86	0.07	1.07	0.01	1.01
상수	-1.06		-1.04			
	-2Log Likelihood=954.4 Nagelkerke R <sup>2</sup> =0.26		-2Log Likelihood=852.2 Nagelkerke R <sup>2</sup> =0.10		-2Log Likelihood=1396.5 Nagelkerke R <sup>2</sup> =0.05	

1- p<0.01; 2- p<0.05

정책만족도: 1-매우 만족, 2-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국민의사 반영: 1-매우 잘 반영, 2-대체로 잘 반영, 3-별로 잘 반영 못함, 4-전혀 잘 반영 못함.

MB 직무평가: 0-잘못함, 1-잘함

대북지원확대: 1-대폭 확대, 2-조금 확대, 3-현재 유지, 4-조금 축소, 5-대폭 축소

전임정부 정책계승: 1-매우 동의, 2-다소 동의, 3-별로 동의않음, 4-매우 동의않음

남북관계 악화 한국책임: 1-이주크다, 2-조금크다, 3-중간, 4-별로 크지않다, 5-거의없다

개성공단 이하 6항목: 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반반, 4-다소 반대, 5-매우 반대

앞의 [표 2-III-6]에서 살펴본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표 2-III-7]을 통해 보면, 특히 정파적으로 무당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

는 유권자 집단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유권자 집단이 이번 조사에서 50% 이상이나 되었던 만큼 이들의 평가는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후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현상적으로 작년에 비해 천안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작년 조사 결과와 금년 조사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1년 사이에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sup>19</sup>

---

19. 2010년 조사에서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가 비슷한 질문을 던진 다른 조사들과 매우 다르게 나와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즉, 다른 조사들에서는 대개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70% 정도로 조사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정부발표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32.4%로 매우 낮게 나온 것이다. 이 차이는 언론사들과 정부에서 실시한 다른 조사들이 대부분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직접적 질문을 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냉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느냐고 직접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응답자들의 답변에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한 것에 비해 통일의식 조사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것도 이 차이를 발생시킨 원이라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처럼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확실히 태도를 정하지 못한 것 또한 의미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통일의식조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III-8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 신뢰도

	① 전적으로 신뢰한다	② 신뢰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반	④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④+⑤	
2010	6.4%	26.0%	32.4%	31.8%	25.1%	10.8%	35.8%	100.0%
2011	7.1%	26.5%	33.6%	31.3%	26.1%	9.1%	35.1%	100.0%

[표 2-III-8]은 2010년과 2011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2011년 조사 결과는 2010년과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는 그 침몰원인을 두고 국제공조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 이후인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가 명확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졌었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사건의 영향이 반영된 2011년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작년과 거의 똑 같은 비율로 불신과 반반, 신뢰에 대한 응답이 나뉘었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0년(31.8%), 2011년에는 31.3%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35.8%), 2011년에는 35.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근소하기는 하지만 ‘불신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다. ‘신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0년(31.8%), 2011년에는 31.3%로 나타났다.

이념별로 응답을 나눠 살펴봐도 작년과 금년 조사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2-III-9]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신뢰 여부를 이념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0년과 2011년 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조사에서는 진보 중 44.3%가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28.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

면, 보수 중 44.5%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29.3%는 ‘불신’한다고 답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이념 집단에 따라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한 신뢰 여부가 갈렸다.

이번에는 지지 정파별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정도를 살펴본다. [표 2-III-10]는 각 지지 정파별 신뢰도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인데,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작으면 신뢰, 이보다 크면 신뢰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상대로 정파별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분산분석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평균값은 2.66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조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균값은 3.29로 나타나 조사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집단은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이들인데, 이들의 평균값은 3.06으로 신뢰와 불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중립적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보다는 근소하게라도 큰 값이 나와 미약하게나마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사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깊은 골이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II-9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이념성향별 신뢰도 비교

이념	조사연도	신뢰한다	반반	신뢰하지 않는다
진보	2010	29.4	28.2	42.5
	2011	28.7	27.0	44.3
중도	2010	29.2	35.9	34.9
	2011	30.1	36.4	32.8
보수	2010	43.7	28.7	27.6
	2011	44.5	26.2	29.3

표 2-III-10 지지 정파별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한 신뢰 정도

	평균	ANOVA
한나라당	2.66	F = 23.9 p < 0.01
민주당	3.29	
지지 정당 없음	3.06	
전체 평균	2.99	

이상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인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유동적 유권자들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측면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대북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정파적으로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이들 가운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을 선호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어떤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 2-III-11]에 정리했다.

표 2-III-11 차기 정부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

우선순위 대북정책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 협력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신장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	46.6	17.1	14.6	11.5	10.2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 가운데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 협력’이라는 응답이 46.6%로 단연 높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항목의 응답을 합하면 58.1%의 응답자가 긴장완화, 평화 유지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신장’,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등 보수적인 과제에 대한 응답은 31.7%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2-III-4]의 결과는 긴장완화 대 대북강경정책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3 정도로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성은 [표 2-III-12]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두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양극단에 두고 10개의 스케일에서 응답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정하도록 했다. 하나는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협력 대 적극적 대북 압박’에 대한 것이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은 보다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교류협력 대 적극적 대북 압박’은 이보다는 단기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숫자가 클수록 대북 강경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5, 6정도가 중간에 해당한

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평화공존 쪽으로, 그리고 교류협력 쪽으로 선호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4.74, ‘교류협력 대 적극적 압박’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작은 4.3의 평균값이 측정되었다. 결국 [표 2-Ⅲ-11], [표 2-Ⅲ-12]의 응답은 조사된 응답자 전체를 두고 볼 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긴장해소,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2-Ⅲ-12**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평균 (표준편차)
평화공존(1) ----- 흡수통일(10)	4.74 (3.37)
교류협력(1) ----- 적극압박(10)	4.30 (3.49)

그러나 앞의 [표 2-Ⅲ-7]에서 본 대로, 정파별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시각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파별로 나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각 지지 정파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가 [표 2-Ⅲ-13]에 정리되어 있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지지 정파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지지 정당 없음’ 집단에서 평화공존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교류협력 대 적극적 압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 집단은 그 중간 정도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들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큰 값이 나온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도 교류협력의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평균값 역시 5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2-III-13]의 결과는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정파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적극적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III-13** 정당 지지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지지 정당	평균	ANOVA
평화공존(1) 대 흡수통일(10)	한나라당	4.92	F = 2.16 p > 0.01
	민주당	4.76	
	지지 정당 없음	4.60	
교류협력(1) 대 적극적 압박(10)	한나라당	4.64	F = 8.46 p < 0.01
	민주당	3.97	
	지지 정당 없음	4.17	

**표 2-III-14** 정당 지지별 차기정부 대북 최우선 정책

	남북한 긴장해소/ 교류협력	북한의 개방개혁/ 인권신장	적극적 통일정책/ 자원준비	북한 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합계(n)
한나라당	39.9	18.6	12.7	17.5	11.3	100.0 (291)
민주당	54.3	14.7	9.8	13.6	7.6	100.0 (184)
지지정당 없음	47.3	16.4	9.4	13.3	13.6	100.0 (617)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별로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표 2-Ⅲ-14]에서 보듯이, 여기서도 지지 정당별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54.3%가 이것을 차기정부가 최우선시 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 그 비율은 39.9%로 두 정당 지지자들의 비율의 차이는 14.4%에 달했다.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3%로 두 정당 지지자들의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역시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같은 보수적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18.6%로,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7.5%로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 이 두 항목을 합친 36.1%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보수적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응답이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두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각각 39.9%, 11.3%로 이를 합하면 51.2%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긴장해소, 평화 등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교류협력을 우선시한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상대로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그 비율은 61.9%에 달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14.7%, 13.6%로 이를 합하면 28.3%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유권자들의 응답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평화협정 체결' 등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47.3%, 13.6%로 이를 합하면 60.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61.9%,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51.2%였다. 또한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같은 보수적 정책에 대한 무당파 집단의 응답율은 각각 16.4%, 13.3%로 이를 합하면 29.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28.3%,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 이 비율은 36.1%였다.

앞서 지적한 대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볼 때 이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Ⅲ-13]와 [표 2-Ⅲ-14]를 통해 살펴본 대로,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말한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대북 압박보다는 교류 협력을 선호하고 있고, '남북한의 긴장해소'나 '평화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선거 경쟁은 어느 누구보다 이들과 같이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한 부동층(浮動層)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될 것이므로, 이 집단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긴장해소와 평화 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로 보인다.

##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대북·통일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경제 분야였다. 경제성장, 고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창출과 지역불균형 해소였다. 이에 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 본 응답자들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의 속성은 정파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 관심이 큰 유권자들이었다. 대북·통일정책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혹은 정당 간 갈등의 핵심적 소재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교적 낮은 예상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 역시 정파적 지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특히 정파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유권자 층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비판적 평가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적 입장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긴장해소와 평화 유지와 같은 유화적인 태도는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이슈가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의 비율이 낮은 한 가지 이유는 정책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실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미 강한 정파성을 지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밝힌 51.4%의 유동적 유권자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어떤 후보나 정당이 이들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정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천안함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이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방향은 현재와 같은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긴장해소,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집단이 가진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와는 다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표 2-III-4]에서 본대로, 대북 관련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북핵이나 북한 인권처럼 북한이 관계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이 보다 우세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이중적 태도는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교류협력 등을 통한 한반도 내의 긴장해소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어느 하나의 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의 유권자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결 장

2011년도 12월말 시점에서 2012년 한반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착잡하리라 여겨진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할지 많은 것이 엷혀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될 것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및 남한 사회의 일상생활까지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은 분명하다.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염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2012년 정치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든 세력들이 커다란 충격파를 받고 있다.

더구나 2012년은 북한이 늘 ‘강성대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호언해오던 해다. 김일성 주석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김정일 위원장 70세가 되는 해여서 북한으로서는 거대한 경축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다. 내부적으로도 후계체제의 정립을 위한 절차가 2012년의 중요한 대내외적 이벤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은 이런 준비 작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2012년이 남한 사회의 정치의 해라는 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폭과 깊이가 전례 없이 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문제는 늘 남남갈등의 한 요인이자 이념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인데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이 그런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국민의식은 2012년을 내다보는 전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화한 남북관계,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을 겪은 이후의 대북의식, 5.24조치로 특징지어지는 현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경험과 역사의 소산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2012년 미래

를 내다보면서 현실을 조망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전망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에 나타나는 수치를 단순히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변해가며 구성되고 있는 의식의 심층을 분석적으로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무게감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미래로의 열린 전망을 찾아내는 지혜가 더해져야만 의식조사 결과에서 의미있는 교훈과 방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시계열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 간 변화의 경향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11년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질적인 남북한 간 군사충돌을 겪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매우 소원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변화가 집합적인 통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래에서 2011년도 상황에서의 변화, 5년간의 추이, 그리고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 1. 2011년 조사에 나타나는 통일의식의 특징

2009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V형 변화, 양면성, 현실주의, 실용적 유연성, 분절성 등의 특징을 지적한 바 있고 2010년도 의식조사에서는 양면성, 현실주의, 실용적 유연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2011년도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변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각 장에서 분석한 내용들 가운데 특징적인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 (1) 통일논의와 통일의식의 편차

2011년 통일외식조사에서 확인되는 한 가지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감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그 정도는 크지 않지만 2010년 이래 정부의 강력한 통일논의 확산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의외의 결과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0년에 비해 5.4% 포인트 낮아졌고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층이 모두 증가했다. 또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내부적으로 보면 여성의 회의적 시각이 강화되었고 젊은 세대의 비관적 인식이 커진 것이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던 층, 예컨대 지역적으로는 호남권, 이념적으로는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도 통일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이 좀더 소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감이 약화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우선 젊은 세대에게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커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의미있는 수준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안이 통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적다. 젊은 세대들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매우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사고나 행태, 관념에 저항하고 있다. 이들의 의식이 분단에 대한 비판이나 통일 지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통일교육의 부재나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탓만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이 큰 이유가 되었고 여기에 더해 기존의 화석화된 통일논의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다. 어차피 미래의 통일을 짚어줘야 할 세대가 젊은 층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인식의 특성과 지향을 냉정하게 검토할 일이다.

또 하나 의미있는 사실은 정부 주도의 통일논의 확산이 갖는 효과와 한계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대북관련 담론을 주도하고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양면적 효과를 갖는다. 즉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담론이 정치화하거나 편향적인 것으로 오인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당위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서 2010년 이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통일담론의 사회적 확산효과는 꽤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현실과 통일지향 담론 간의 괴리를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국 통일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지지는 논리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홍보하는 것으로 좌우된다기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미래의 전망이 부분적으로나마 실감될 수 있는 조건의 창출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위기의식과 북한 인식의 변화

북한은 같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의 대상이자 미래 통일의 파트너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군사적인 대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대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늘 모순적이거나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로 북한 인식의 틀이 정형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약 60~70% 수준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약 20% 내외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경계나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지난 수 년 간 확인되었다. 적어도 의식상으로는 본다면 북한에 대한 집합적인 인식은 포

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적대적 인식을 지닌 비율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을 이루는 상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011년의 조사결과는 이런 정형화된 모습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지적할 것은 북한의 도발이 초래할 위기에 대한 예민함이 크게 높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리라는 안보불안인식은 2007년 이래 5년간 각각 59.7% → 52.2% → 63.5% → 67.3% → 78.3%로 일관되게 증가했다. 한 사회의 성원들이 바로 이웃한 정치체로부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겪을 것을 염려하는 비율이 70%를 훨씬 넘어섰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선군주의 사상으로 표방되는 군사주의적 전략,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근년에 현저하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동하여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21.8% → 22.3% → 17.4% → 19.3% → 16.7%로 감소해왔고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2007년의 56.6%로부터 2011년의 47.1%로 감소했다. 지원과 협력이라는 범주를 묶었을 때 2007년에는 78.4%에 해당하던 것이 2011년에는 63.8%로 줄어든 것을 보게 된다. 반면 경계대상이라고 본 비율은 2007년의 11.8%에서 2011년에 17.1%로 늘었고 적대대상으로 본다는 비율은 6.6%에서 16.7%로 무려 배 이상 증대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소 다른 질문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대결할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북한을 응원한다는 응답비율도 줄곧 줄어들고 있다. 2007년에 무려 80% 이상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비해 2011년에는 61.7% 만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

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런 변화의 가운데에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놓여 있을 터이다. 실제로 적대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2009년에는 9.1%라는 한자리 수에 머물렀는데 2010년 12.0%, 2011년 16.7%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영향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2011년 말에 겪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한국사회의 대북 인식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내년의 조사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교류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자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악화를 잘못된 의식이나 정책 탓으로 돌리거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간주하기 이전에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상호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세대간격의 심화와 20대의 보수화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이래 2011년까지의 조사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확인되어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식이나 정책지향에서 세대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 및 기대감에 있어서 20대 젊은 층의 회의적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의 인지도에 있어서도 20대는 현저하게 낮아서 관심도가 낮음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이들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의 발로로 해석할 여지도 없진 않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표출되는 젊은 세대의 발언양상을 보면 반드시 이들을 탈정치적 세대라고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스스로가 겪고 있는 취업난,

경쟁심리, 군대문제, 표출문화 등으로 인해 이전 어느 세대와도 다른 자의식과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표출의 양식, 정치적 발언의 형태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와 관련하여 2009년 이래로 ‘20대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1년에도 여전히 이런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인식에서 20대와 50대 이상 층이 유사해지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문항에서 30대 및 40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20대, 50대 이상이 보수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세대변수를 단순히 연령의 고하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30대와 40대에서 각각 52.4%, 52.8%로 높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40.7%, 4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전과 비교하여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여전한데 20대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보수적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2008~2009년에는 20대가 30~40대의 대북인식과 궤를 같이 했으나, 2011년에는 20대의 보수화가 더 진행되어 오히려 50대의 인식과 훨씬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30대와 40대는 각각 38.6%, 41.0%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29.8%, 28.1%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소위 ‘북한효과’에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그들의 감각이 북한식 논리에 거부감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이들 세대는 적어도 사회적 쟁점이나 문화적 현상에 대해 기성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그런 혁신적 태도를

낮익은 이념적 ‘진보’라고 지칭하려 하지도 않아 2011년 조사에서 20대는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탈권위적이고 자율적이며 개성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세대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일시와 자긍심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더 비판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다문화에 대한 관용도도 이들 세대에게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통일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대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차별화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분단이 애초부터 부자연스러운 문제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던 노년세대에 비해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분단은 처음부터 주어진 시대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조건 자체를 달리 규정하는 세대들에게서 분단극복이나 통일지향의 성격이 다를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통일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칠 효과, 그 과정에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확한 규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의식 등이 전혀 새롭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경쟁세대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미래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일상의 삶과 연계되고 훨씬 더 정교한 통일논의와 통일교육이 필요한 시점임을 이번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 (4) 대외인식의 변화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대외인식에서의 일정한 경향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지되고 있는 추세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도가 60~70%

수준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13~15%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크게 볼 때 아직은 집합적 태도의 차원에서 미국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틀이 지속되고 있고 낮은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친근함을 견지하는 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즉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꼽은 응답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07년 조사에서 21.1%였던 것이 2011년에는 불과 8.6%에 그치고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한 호감도의 유지는 세대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비율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2007~2009년 동안 약15%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응답자 비율이 2010년에 25% 가까이로 급증했고 다시 2011년에는 33.6%로 치솟았다. 한 국가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나 의식은 좀처럼 급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여전히 중국이 한국 제1의 경제 파트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중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의 급증은 세대나 이념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는 비율이 2007년에는 36%였으나 2010년에는 55.6%로 급증했고 2011년에는 46%로 다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가 서로 연동하는 모습인데 이 양자의 연관성에 대한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우호적 관계, 최근 북중간 정치경제적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 북한인권문제나 경제제재와 같은 국제적 제재에서 중국이 취한 독자적 행보,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을 전후하여 중국이 보여준 독자적 행보 등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의 미래, 특히 남북관계의 변화를 조망할 때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닌 만큼 이런 조사결과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정밀한 조사를 통해 수 년 간 일관되게 발견되는 집합적인 의식의 추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이원적 대북정책 지지

지난 수 년 간 확인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대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미 2010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주도한 도발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뒤이은 5.24조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6.2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승리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피부로 느낀 한반도의 위협성이 반영된 탓에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북교류를 지지하고 정치적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중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경향은 이번 2011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강경대응 일변도에 동의하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교류협력 정책들을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적 지지도는 매우 높다. 대북정책 가운데 남한 정부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부문일수록 유연함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지만 남한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영역에서는 긴장완화나 교류협력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도 현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매우 엄격한 모습이 보인다. 즉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 정도가 2010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연평도 포격의 효과가 적어도 이 점에 관한 한 크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예상과는 매우 어긋나는 결과다.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북한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 정부의 정책방향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문제는 연관되긴 하지만 원칙상 별개의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단지 대북정책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경향이 2009년에 이어 계속 커지고 있다. 당위적 차원에서는 포용적이지만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그다지 원치 않는 거리두기형 태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들 역시 우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서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수준이 중하위층에 속하는 계층에서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볼 일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탈북이탈주민 문제 역시 의식과 정서 속에 자리잡은 ‘인식의 경계’를 해소하는 일 못지않게 실질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소해가는 일이 중요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의식의 이런 균형성이 아마도 수년간 교착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풀어나갈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위기위식이 높아지고 중국과 북한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강경한 정책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인 전망이 작용한 탓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남북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고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심리가 강하게 존재한다. 이런 특징은 2011년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2. 2012년 전망

마지막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부각될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2011년 7월 조사 시점에서의 응답에 기초해 보면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한 주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절대적으로 1위(응답률 67.2%)로 나타났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은 매우 낮아 1순위 응답자의 경우 불과 4%에 불과했다. 적어도 이 점에서만 본다면 통일의제나 남북관계는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1, 2, 3순위 안에 이 쟁점을 꼽은 비율을 합산하면 29.4%에 해당하여 4명에 1명꼴로 남북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남북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대체로 정치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임이 드러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남북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정치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남북문제를 중요한 정치의제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한데, 대선에서 여전히 이 주제가 중요한 정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원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소위 ‘무정당파’ 그룹의 부상이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비율은 51.4%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정당파는 정치적 관심이 낮거나 응집적인 범주가 아닐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무정당파는 잠재적으로 정치화하고 사회적으로 동원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층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서 새로운 정치적 전환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2년 대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두 변수가 있다. 하나는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지칭되는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요구다. 이미 서울시장에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고 오랜 야당의 중추였던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통합당으로 재편되

었다. 한나라당 역시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에 부딪혀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 조사에서 확인된 무정당파의 정향이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11년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뒤이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이다. 북한변수가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남북관계 변수가 이 조사결과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국민들의 집합적 태도는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방향과 정책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2011년 통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2012년의 정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나은 남북관계의 형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궁극적인 통합의 증진을 가져오기 위한 지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부 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 응답자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분	내용
1) 모집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
2) 표본 크기	1,201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sup>&lt;주1&gt;</sup>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4) 표본오차 <sup>&lt;주2&gt;</sup>	± 2.8% (95% 신뢰수준)

<주1> 2011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16개시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  
표본추출은 해당 층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조사 실시

<주2> 【별첨1.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표본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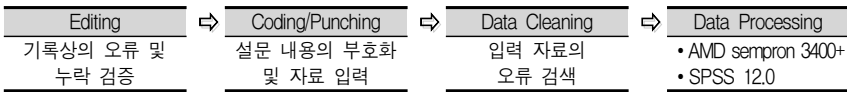
지역	구분	총 합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전국	총계	259	288	307	255	91	1,200
	남자	134	148	157	126	45	610
	여자	125	140	150	129	46	590
서울특별시	남자	29	33	30	26	10	128
	여자	29	32	30	28	10	129
경기도	남자	10	10	10	10	4	44
	여자	9	9	11	11	4	44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6	2	30
	여자	6	7	8	7	2	30
강원도	남자	8	8	9	7	2	34
	여자	7	8	9	7	2	33
대전광역시	남자	4	4	4	3	1	16
	여자	4	4	4	3	1	16
충청북도	남자	4	4	5	4	1	18
	여자	4	4	5	4	1	18
충청남도	남자	3	3	4	3	1	14
	여자	3	3	4	3	1	14
광주광역시	남자	31	37	40	28	9	145
	여자	29	36	37	27	9	138
전라북도	남자	4	4	5	4	1	18
	여자	3	4	4	4	2	17
전라남도	남자	4	4	5	4	1	18
	여자	4	4	4	4	1	17
대구광역시	남자	5	6	6	5	2	24
	여자	5	5	5	5	2	22
경상북도	남자	5	5	5	5	2	22
	여자	4	4	5	5	2	20
부산광역시	남자	4	5	6	5	2	22
	여자	4	4	5	5	2	20
울산광역시	남자	7	7	8	7	3	32
	여자	6	6	7	7	3	29
경상남도	남자	8	9	10	8	3	38
	여자	7	9	10	8	3	37
제주도	남자	1	2	2	1	1	7
	여자	1	1	2	1	1	6

2. 조사방법 및 기간

구분	내용
1) 조사 방법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1년 7월 26일~8월 15일 (20일간)

3.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AMD sempron 3400+ 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 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1,201	100.0
■ 성별	남자	611	50.9
	여자	590	49.1
■ 연령별	19~29세	259	21.6
	30대	290	24.1
	40대	306	25.5
	50대이상	346	28.8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4
	고졸	510	42.5
	대재이상	565	47.0
	무름 / 무응답	14	1.1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4
	자영업	335	27.9
	블루칼라	247	20.6
	화이트칼라	252	21.0
	전업주부	211	17.6
	무직 / 기타	140	11.6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7.2
	200~299만원	287	23.9
	300~399만원	384	31.9
	400만원이상	311	25.9
	무름 / 무응답	13	1.1
■ 지역별	수도권	606	50.5
	충청권	117	9.7
	호남권	116	9.7
	영남권	314	26.1
	강원	35	2.9
	제주	13	1.1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7.5
	중·소도시	541	45.1
	읍 / 면	90	7.5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7.9
	중도	578	48.1
	보수적	289	24.0
	무름 / 무응답	13	1.1
■ 종교별	불교	258	21.5
	기독교	263	21.9
	천주교	114	9.5
	기타	7	0.6
	종교없음	546	45.5
	무름 / 무응답	13	1.1

2. 결과집계표

표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하다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전체	(1201)	28.7	25.0	53.7	25.0	16.8	4.5	21.3	100.0
■ 성별									
남자	(611)	35.5	25.3	60.7	19.5	15.7	4.0	19.7	100.0
여자	(590)	21.7	24.7	46.4	30.7	18.0	5.0	23.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2.1	18.6	40.8	26.7	27.5	5.0	32.6	100.0
30대	(290)	24.3	24.8	49.0	32.2	13.4	5.3	18.7	100.0
40대	(306)	33.3	24.2	57.5	24.2	13.4	4.9	18.3	100.0
50대이상	(346)	33.3	30.6	63.9	18.3	14.8	3.0	17.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4.0	34.3	68.3	16.1	11.6	4.0	15.6	100.0
고졸	(510)	25.1	25.7	50.8	25.4	17.8	6.0	23.8	100.0
대제이상	(565)	30.9	22.6	53.5	26.3	17.2	3.0	20.2	100.0
무응답	(14)	26.4	22.9	49.2	29.0	7.3	14.4	21.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3.2	30.7	93.9	6.1	.0	.0	.0	100.0
자영업	(335)	30.4	26.2	56.6	22.1	15.8	5.6	21.4	100.0
블루칼라	(247)	26.1	22.9	49.0	24.6	21.1	5.3	26.4	100.0
화이트칼라	(252)	31.0	23.5	54.5	26.1	15.8	3.6	19.4	100.0
전업주부	(211)	24.5	26.3	50.8	31.6	12.8	4.9	17.7	100.0
무직 / 기타	(140)	27.4	25.8	53.3	22.9	21.6	2.2	23.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0.5	27.0	57.5	18.9	17.3	6.3	23.6	100.0
200~299만원	(287)	30.5	22.7	53.2	24.3	17.5	5.0	22.4	100.0
300~399만원	(384)	24.7	30.7	55.4	25.3	15.4	3.9	19.3	100.0
400만원이상	(311)	30.9	19.5	50.4	29.5	17.1	3.0	20.1	100.0
무응답	(13)	23.8	7.9	31.7	17.0	31.7	19.6	51.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2.9	21.9	54.8	26.7	14.7	3.8	18.5	100.0
충청권	(117)	33.3	26.9	60.3	20.5	17.1	2.1	19.2	100.0
호남권	(116)	42.5	16.1	58.6	24.1	9.5	7.8	17.2	100.0
영남권	(314)	14.7	32.2	46.9	23.6	24.9	4.6	29.5	100.0
강원	(35)	14.3	34.3	48.6	31.4	11.4	8.6	20.0	100.0
제주	(13)	46.2	30.8	76.9	7.7	.0	15.4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8.6	26.6	55.2	23.4	17.0	4.4	21.4	100.0
중·소도시	(541)	28.8	22.8	51.6	26.0	17.6	4.8	22.4	100.0
읍 / 면	(90)	28.9	27.8	56.7	28.8	11.1	3.3	14.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4.5	25.8	60.3	20.0	17.1	2.7	19.8	100.0
중도	(578)	25.1	24.1	49.2	29.7	16.0	5.2	21.1	100.0
보수적	(289)	29.2	25.9	55.0	21.5	18.3	5.2	23.5	100.0
■ 종교									
불교	(258)	28.2	27.0	55.3	24.8	16.2	3.7	19.9	100.0
기독교	(263)	35.2	22.4	57.6	22.9	15.6	4.0	19.6	100.0
천주교	(114)	31.4	25.2	56.6	22.4	14.9	6.1	21.0	100.0
기타	(7)	28.1	15.8	43.9	28.1	28.1	.0	28.1	100.0
종교없음	(546)	24.8	25.5	50.4	26.6	18.0	5.0	23.0	100.0
무응답	(13)	46.6	15.3	62.0	23.2	14.9	.0	14.9	100.0

표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 전체	(1201)	66.9	15.3	9.6	8.2	100.0
■ 성별						
남자	(611)	68.3	13.4	11.8	6.6	100.0
여자	(590)	65.6	17.3	7.3	9.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8.9	22.1	8.2	10.8	100.0
30대	(290)	68.4	16.7	5.9	9.0	100.0
40대	(306)	71.2	12.7	10.3	5.7	100.0
50대이상	(346)	68.0	11.3	13.1	7.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6.0	12.5	14.9	6.7	100.0
고졸	(510)	63.3	17.9	8.4	10.4	100.0
대재이상	(565)	70.5	13.7	9.5	6.3	100.0
무름 / 무응답	(14)	62.7	7.1	15.5	14.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5.3	.0	28.6	6.1	100.0
자영업	(335)	70.3	13.4	10.3	6.0	100.0
블루칼라	(247)	59.7	19.3	8.9	12.1	100.0
화이트칼라	(252)	72.4	14.7	7.4	5.6	100.0
전업주부	(211)	62.3	17.5	9.3	10.9	100.0
무직 / 기타	(140)	69.1	12.3	11.6	7.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9.4	17.4	13.6	9.7	100.0
200~299만원	(287)	63.5	18.5	9.1	9.0	100.0
300~399만원	(384)	69.2	14.7	8.7	7.5	100.0
400만원이상	(311)	73.5	11.3	8.7	6.5	100.0
무름 / 무응답	(13)	40.5	23.8	8.1	27.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1.5	14.3	9.1	5.1	100.0
충청권	(117)	77.4	9.4	7.7	5.6	100.0
호남권	(116)	64.9	8.6	15.2	11.2	100.0
영남권	(314)	54.8	22.6	10.0	12.7	100.0
강원	(35)	71.4	11.4	2.9	14.3	100.0
제주	(13)	61.5	7.7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8.8	16.8	8.1	6.4	100.0
중·소도시	(541)	64.3	14.6	11.7	9.4	100.0
읍 / 면	(90)	71.2	10.0	6.7	12.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5.7	16.2	11.6	6.5	100.0
중도	(578)	68.8	14.7	8.0	8.4	100.0
보수적	(289)	64.6	15.3	10.5	9.6	100.0
■ 종교						
불교	(258)	63.4	13.7	11.9	11.0	100.0
기독교	(263)	63.4	16.8	12.8	6.9	100.0
천주교	(114)	81.0	8.7	5.2	5.1	100.0
기타	(7)	86.0	14.0	.0	.0	100.0
종교없음	(546)	66.9	16.8	7.9	8.4	100.0
무름 / 무응답	(13)	77.1	7.5	15.4	.0	100.0

표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계
		%	%	%	%	%	%	%
■ 전체	(1201)	2.5	16.3	26.1	14.0	19.8	21.3	100.0
■ 성별								
남자	(611)	3.1	18.4	28.8	14.2	18.8	16.7	100.0
여자	(590)	1.9	14.1	23.3	13.8	20.9	26.1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5	14.3	18.6	11.3	33.4	20.9	100.0
30대	(290)	1.0	13.2	25.1	15.7	20.6	24.3	100.0
40대	(306)	2.9	18.4	30.4	17.0	12.0	19.2	100.0
50대이상	(346)	4.0	18.4	28.8	12.0	15.9	20.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4	17.1	22.7	9.6	17.7	28.6	100.0
고졸	(510)	2.7	15.7	27.7	13.2	16.1	24.6	100.0
대재이상	(565)	1.9	16.9	25.4	15.5	23.5	16.8	100.0
무름 / 무응답	(14)	.0	7.3	22.4	21.7	21.9	26.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24.5	48.9	12.3	.0	8.2	100.0
자영업	(335)	3.3	16.4	29.3	13.9	16.9	20.2	100.0
블루칼라	(247)	2.8	15.0	25.4	13.9	19.5	23.4	100.0
화이트칼라	(252)	2.4	18.0	25.3	16.0	24.1	14.3	100.0
전업주부	(211)	1.4	13.3	25.5	14.2	15.7	29.9	100.0
무직 / 기타	(140)	1.4	18.7	19.4	10.8	28.1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4	20.6	21.3	11.2	20.3	23.3	100.0
200~299만원	(287)	2.4	16.7	25.4	12.7	15.2	27.7	100.0
300~399만원	(384)	2.6	14.5	26.4	16.3	19.9	20.3	100.0
400만원이상	(311)	1.9	14.9	30.0	15.0	24.0	14.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3.8	16.0	.0	7.9	52.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4	18.1	26.3	13.2	21.2	17.8	100.0
충청권	(117)	.9	13.7	23.9	20.1	17.9	23.5	100.0
호남권	(116)	2.6	19.8	26.7	11.2	18.1	21.6	100.0
영남권	(314)	1.3	13.7	27.1	14.2	16.3	27.4	100.0
강원	(35)	2.9	11.4	20.0	8.6	42.9	14.3	100.0
제주	(13)	.0	.0	23.1	30.8	7.7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5	14.5	27.4	16.1	18.2	21.4	100.0
중·소도시	(541)	2.7	18.4	24.5	11.6	21.9	20.9	100.0
읍 / 면	(90)	1.1	14.5	27.8	15.6	17.7	23.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5	20.3	27.4	15.5	14.1	19.2	100.0
중도	(578)	1.7	14.2	25.3	14.3	22.1	22.5	100.0
보수적	(289)	2.8	15.9	26.3	11.8	21.9	21.4	100.0
■ 종교								
불교	(258)	3.1	18.2	28.7	14.2	14.0	22.0	100.0
기독교	(263)	3.0	17.5	25.0	13.9	20.2	20.4	100.0
천주교	(114)	7.0	11.1	33.1	13.1	21.8	13.9	100.0
기타	(7)	.0	.0	14.0	28.1	.0	57.9	100.0
종교없음	(546)	.9	15.7	24.5	14.2	22.3	22.3	100.0
무름 / 무응답	(13)	7.8	30.7	7.6	7.5	15.1	31.2	100.0

표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1)	10.2	40.6	50.7	37.1	12.1	49.3	100.0
■ 성별								
남자	(611)	11.5	40.5	52.1	35.1	12.8	47.9	100.0
여자	(590)	8.8	40.6	49.4	39.3	11.4	50.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2	39.5	45.6	38.8	15.5	54.4	100.0
30대	(290)	10.4	37.8	48.2	40.4	11.4	51.8	100.0
40대	(306)	12.7	43.9	56.7	30.6	12.8	43.3	100.0
50대이상	(346)	10.7	40.7	51.4	39.0	9.6	48.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7.2	40.9	48.1	40.4	11.6	51.9	100.0
고졸	(510)	10.3	39.4	49.8	36.9	13.3	50.2	100.0
대재이상	(565)	10.9	41.4	52.3	36.5	11.2	47.7	100.0
무름 / 무응답	(14)	.0	44.5	44.5	48.3	7.1	55.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42.8	48.9	38.8	12.3	51.1	100.0
자영업	(335)	12.8	39.2	52.0	35.2	12.8	48.0	100.0
블루칼라	(247)	8.5	37.8	46.3	39.1	14.7	53.7	100.0
화이트칼라	(252)	12.6	44.7	57.2	34.0	8.8	42.8	100.0
전업주부	(211)	8.0	42.0	50.0	38.6	11.4	50.0	100.0
무직 / 기타	(140)	6.4	38.8	45.2	41.7	13.0	54.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1.7	38.9	50.5	35.3	14.2	49.5	100.0
200~299만원	(287)	10.4	37.1	47.5	39.9	12.6	52.5	100.0
300~399만원	(384)	8.3	42.4	50.7	37.1	12.2	49.3	100.0
400만원이상	(311)	11.8	42.3	54.1	36.3	9.6	45.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8.1	48.1	27.8	24.1	51.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2.1	40.6	52.7	35.6	11.7	47.3	100.0
충청권	(117)	12.8	45.7	58.5	33.8	7.7	41.5	100.0
호남권	(116)	17.2	44.5	61.8	31.3	6.9	38.2	100.0
영남권	(314)	3.2	39.8	43.0	42.5	14.5	57.0	100.0
강원	(35)	5.7	20.0	25.7	54.3	20.0	74.3	100.0
제주	(13)	15.4	30.8	46.2	15.4	38.5	53.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0.1	42.3	52.4	36.5	11.1	47.6	100.0
중·소도시	(541)	10.5	37.7	48.2	38.7	13.1	51.8	100.0
읍 / 면	(90)	8.9	46.6	55.5	32.3	12.2	44.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6.9	41.2	58.2	32.2	9.7	41.8	100.0
중도	(578)	8.4	41.3	49.7	37.7	12.6	50.3	100.0
보수적	(289)	5.9	38.3	44.2	41.8	13.9	55.8	100.0
■ 종교								
불교	(258)	10.8	41.2	52.0	37.5	10.5	48.0	100.0
기독교	(263)	14.4	39.0	53.5	35.6	11.0	46.5	100.0
천주교	(114)	12.1	47.7	59.8	28.7	11.5	40.2	100.0
기타	(7)	.0	43.9	43.9	42.1	14.0	56.1	100.0
종교없음	(546)	7.8	39.3	47.1	39.0	13.8	52.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5.7	45.7	54.3	.0	54.3	100.0

표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15.4	49.5	64.8	27.5	7.6	35.1	.1	100.0
■ 성별									
남자	(611)	16.8	48.5	65.3	27.0	7.7	34.7	.0	100.0
여자	(590)	13.9	50.5	64.4	28.0	7.5	35.5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4.3	43.1	57.4	32.6	10.1	42.6	.0	100.0
30대	(290)	14.5	50.6	65.1	26.7	7.9	34.6	.3	100.0
40대	(306)	19.5	52.7	72.3	21.5	6.3	27.7	.0	100.0
50대이상	(346)	13.3	50.4	63.7	29.7	6.6	36.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5	53.6	63.1	29.7	7.1	36.9	.0	100.0
고졸	(510)	13.2	48.0	61.2	29.6	9.2	38.8	.0	100.0
대재이상	(565)	18.9	49.7	68.6	25.0	6.2	31.2	.2	100.0
무름 / 무응답	(14)	.0	58.7	58.7	34.1	7.1	41.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8.2	36.8	55.0	45.0	.0	45.0	.0	100.0
자영업	(335)	17.2	52.4	69.5	23.6	6.9	30.5	.0	100.0
블루칼라	(247)	11.4	47.0	58.4	32.7	8.8	41.6	.0	100.0
화이트칼라	(252)	20.1	50.5	70.6	23.1	6.0	29.1	.4	100.0
전업주부	(211)	11.1	50.2	61.3	29.2	9.5	38.7	.0	100.0
무직 / 기타	(140)	15.7	45.3	61.0	30.9	8.0	39.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7	48.4	62.1	27.8	10.1	37.9	.0	100.0
200~299만원	(287)	14.3	48.7	63.0	29.4	7.6	37.0	.0	100.0
300~399만원	(384)	14.4	49.1	63.4	28.5	7.9	36.3	.2	100.0
400만원이상	(311)	18.7	52.3	71.0	23.5	5.5	29.0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27.5	43.5	48.4	8.1	56.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7.3	48.9	66.2	25.6	8.1	33.7	.2	100.0
충청권	(117)	18.8	54.3	73.1	21.8	5.1	26.9	.0	100.0
호남권	(116)	21.6	47.1	68.7	28.7	2.6	31.3	.0	100.0
영남권	(314)	9.5	50.0	59.5	31.9	8.6	40.5	.0	100.0
강원	(35)	5.7	40.0	45.7	42.9	11.4	54.3	.0	100.0
제주	(13)	7.7	69.2	76.9	7.7	15.4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4.7	50.2	64.9	27.7	7.2	35.0	.2	100.0
중·소도시	(541)	16.8	47.7	64.5	27.2	8.3	35.5	.0	100.0
읍 / 면	(90)	11.1	55.5	66.6	27.8	5.6	33.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4.1	44.2	68.3	24.5	7.2	31.7	.0	100.0
중도	(578)	13.5	50.7	64.2	28.2	7.5	35.7	.2	100.0
보수적	(289)	9.0	53.2	62.2	29.5	8.3	37.8	.0	100.0
■ 종교									
불교	(258)	12.4	50.2	62.6	28.9	8.5	37.4	.0	100.0
기독교	(263)	19.1	48.3	67.5	25.7	6.5	32.2	.4	100.0
천주교	(114)	20.0	54.7	74.8	15.5	9.7	25.2	.0	100.0
기타	(7)	.0	57.9	57.9	42.1	.0	42.1	.0	100.0
종교없음	(546)	13.8	48.7	62.5	29.9	7.5	37.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30.5	38.3	68.8	31.2	.0	31.2	.0	100.0

표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14.1	47.5	61.5	30.4	7.9	38.3	.2	100.0
■ 성별									
남자	(611)	15.3	46.0	61.3	29.4	9.3	38.7	.0	100.0
여자	(590)	12.8	49.0	61.8	31.4	6.5	37.9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3.1	45.3	58.4	33.8	7.8	41.6	.0	100.0
30대	(290)	13.2	45.9	59.2	32.9	7.3	40.2	.6	100.0
40대	(306)	17.5	52.8	70.3	21.5	8.2	29.7	.0	100.0
50대이상	(346)	12.4	45.7	58.1	33.7	8.2	41.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9	46.7	56.5	30.1	13.3	43.5	.0	100.0
고졸	(510)	12.1	47.7	59.8	32.6	7.4	40.0	.2	100.0
대재이상	(565)	16.9	47.3	64.2	28.5	7.2	35.7	.2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51.4	58.7	34.1	7.1	41.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3	53.0	65.3	34.7	.0	34.7	.0	100.0
자영업	(335)	13.2	47.4	60.6	31.0	8.4	39.4	.0	100.0
블루칼라	(247)	14.0	47.3	61.4	27.8	10.4	38.2	.4	100.0
화이트칼라	(252)	13.7	48.1	61.8	32.6	5.2	37.8	.4	100.0
전업주부	(211)	13.4	48.0	61.3	30.2	8.5	38.7	.0	100.0
무직 / 기타	(140)	17.9	45.3	63.2	29.5	7.2	36.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6	46.5	60.1	26.5	13.4	39.9	.0	100.0
200~299만원	(287)	14.2	48.0	62.2	31.5	6.3	37.8	.0	100.0
300~399만원	(384)	13.9	46.1	60.1	31.6	7.8	39.4	.5	100.0
400만원이상	(311)	14.3	49.5	63.7	30.4	5.8	36.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7	43.5	59.2	32.7	8.1	40.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6.7	45.4	62.0	29.5	8.1	37.7	.3	100.0
충청권	(117)	16.2	55.6	71.8	22.2	6.0	28.2	.0	100.0
호남권	(116)	23.3	54.6	77.9	20.4	1.7	22.1	.0	100.0
영남권	(314)	6.0	44.9	50.9	38.5	10.7	49.1	.0	100.0
강원	(35)	5.7	48.6	54.3	40.0	5.7	45.7	.0	100.0
제주	(13)	7.7	69.2	76.9	15.4	7.7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3.2	48.5	61.7	30.8	7.2	38.0	.3	100.0
중·소도시	(541)	15.3	45.6	60.9	30.2	8.9	39.1	.0	100.0
읍 / 면	(90)	12.2	52.2	64.4	28.9	6.7	3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1.8	47.0	68.8	23.9	7.4	31.2	.0	100.0
중도	(578)	11.5	48.0	59.5	33.4	6.7	40.2	.3	100.0
보수적	(289)	10.3	46.9	57.2	32.0	10.8	42.8	.0	100.0
■ 종교									
불교	(258)	12.2	45.7	57.9	34.7	7.3	42.1	.0	100.0
기독교	(263)	18.1	46.0	64.0	29.4	6.2	35.6	.4	100.0
천주교	(114)	17.5	47.8	65.2	24.2	10.5	34.8	.0	100.0
기타	(7)	.0	57.9	57.9	14.0	28.1	42.1	.0	100.0
종교없음	(546)	12.6	49.1	61.7	30.2	8.2	38.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7.8	38.1	45.9	39.3	7.5	46.8	7.3	100.0

표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
■ 전체	(1201)	23.3	48.0	71.3	22.4	6.1	28.5	.2	100.0
■ 성별									
남자	(611)	26.8	44.7	71.6	21.4	7.1	28.4	.0	100.0
여자	(590)	19.7	51.4	71.1	23.5	5.1	28.6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0.5	48.7	69.3	23.8	7.0	30.7	.0	100.0
30대	(290)	23.8	43.4	67.2	24.8	7.3	32.1	.6	100.0
40대	(306)	27.9	50.9	78.8	16.6	4.6	21.2	.0	100.0
50대이상	(346)	20.9	48.8	69.7	24.5	5.8	30.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1.9	51.1	73.1	23.4	3.6	26.9	.0	100.0
고졸	(510)	19.1	49.6	68.6	23.8	7.4	31.2	.2	100.0
대재이상	(565)	27.8	45.6	73.4	21.1	5.4	26.5	.2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66.1	73.4	19.5	7.1	26.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9.1	30.7	89.8	10.2	.0	10.2	.0	100.0
자영업	(335)	21.6	50.5	72.0	23.2	4.8	28.0	.0	100.0
블루칼라	(247)	20.2	46.2	66.4	25.0	8.2	33.2	.4	100.0
화이트칼라	(252)	32.3	43.9	76.2	17.8	5.6	23.4	.4	100.0
전업주부	(211)	16.4	52.0	68.4	25.0	6.6	31.6	.0	100.0
무직 / 기타	(140)	23.0	48.8	71.8	21.7	6.5	28.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4.7	42.2	66.9	22.4	10.7	33.1	.0	100.0
200~299만원	(287)	19.4	49.6	69.0	25.5	5.6	31.0	.0	100.0
300~399만원	(384)	22.9	49.3	72.3	21.8	5.5	27.2	.5	100.0
400만원이상	(311)	26.8	49.3	76.1	19.7	4.2	23.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7	36.3	52.0	39.8	8.1	48.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6.3	45.2	71.4	22.0	6.3	28.3	.3	100.0
충청권	(117)	27.4	52.6	79.9	15.8	4.3	20.1	.0	100.0
호남권	(116)	33.3	45.4	78.7	14.4	6.9	21.3	.0	100.0
영남권	(314)	13.8	52.2	65.9	28.2	5.8	34.1	.0	100.0
강원	(35)	8.6	60.0	68.6	22.9	8.6	31.4	.0	100.0
제주	(13)	30.8	30.8	61.5	30.8	7.7	38.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0.5	51.1	71.6	22.4	5.7	28.0	.3	100.0
중·소도시	(541)	26.8	43.7	70.5	22.5	7.0	29.5	.0	100.0
읍 / 면	(90)	20.0	54.4	74.4	22.3	3.3	2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2.0	44.4	76.3	18.9	4.8	23.7	.0	100.0
중도	(578)	20.5	49.2	69.7	23.4	6.6	30.0	.3	100.0
보수적	(289)	18.9	50.0	68.9	24.5	6.7	31.1	.0	100.0
■ 종교									
불교	(258)	24.7	48.2	72.8	22.1	5.0	27.2	.0	100.0
기독교	(263)	25.9	44.6	70.5	23.4	5.7	29.1	.4	100.0
천주교	(114)	28.7	49.4	78.1	14.0	7.9	21.9	.0	100.0
기타	(7)	.0	71.9	71.9	28.1	.0	28.1	.0	100.0
종교없음	(546)	20.6	49.6	70.2	23.2	6.6	29.8	.0	100.0
무름 / 무응답	(13)	22.5	23.2	45.7	47.0	.0	47.0	7.3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㉗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전체	(1201)	16.9	50.8	67.7	28.3	3.9	32.2	.1	100.0
■ 성별									
남자	(611)	20.4	47.6	68.0	26.2	5.8	32.0	.0	100.0
여자	(590)	13.2	54.2	67.4	30.4	2.0	32.5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0.5	54.3	64.7	31.0	4.3	35.3	.0	100.0
30대	(290)	15.2	53.7	69.0	26.5	4.2	30.7	.3	100.0
40대	(306)	21.8	50.9	72.7	23.1	4.2	27.3	.0	100.0
50대이상	(346)	18.7	45.7	64.4	32.4	3.2	35.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1.3	45.3	66.6	28.8	4.6	33.4	.0	100.0
고졸	(510)	14.3	51.5	65.8	30.7	3.5	34.2	.0	100.0
대재이상	(565)	18.4	51.3	69.7	26.0	4.1	30.1	.2	100.0
무름 / 무응답	(14)	12.2	51.9	64.0	28.8	7.1	36.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7.1	30.7	87.7	12.3	.0	12.3	.0	100.0
자영업	(335)	17.3	49.2	66.5	28.4	5.0	33.5	.0	100.0
블루칼라	(247)	15.2	48.9	64.1	28.9	7.0	35.9	.0	100.0
화이트칼라	(252)	18.1	55.8	73.9	23.3	2.4	25.7	.4	100.0
전업주부	(211)	16.0	48.3	64.3	34.3	1.4	35.7	.0	100.0
무직 / 기타	(140)	12.9	55.4	68.3	28.7	3.0	31.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1.1	39.1	60.2	33.9	5.9	39.8	.0	100.0
200~299만원	(287)	17.0	55.8	72.8	23.0	4.2	27.2	.0	100.0
300~399만원	(384)	12.6	56.6	69.2	27.9	2.6	30.6	.2	100.0
400만원이상	(311)	19.2	47.4	66.5	29.3	4.2	33.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40.5	56.5	43.5	.0	43.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7.7	48.7	66.4	29.0	4.4	33.5	.2	100.0
충청권	(117)	14.5	57.7	72.2	24.4	3.4	27.8	.0	100.0
호남권	(116)	35.6	43.1	78.7	17.8	3.4	21.3	.0	100.0
영남권	(314)	10.2	54.7	64.9	31.2	3.9	35.1	.0	100.0
강원	(35)	2.9	60.0	62.9	37.1	.0	37.1	.0	100.0
제주	(13)	30.8	38.5	69.2	30.8	.0	30.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4.8	51.1	65.9	30.4	3.6	33.9	.2	100.0
중·소도시	(541)	19.6	49.8	69.4	26.4	4.2	30.6	.0	100.0
읍 / 면	(90)	13.4	55.5	68.8	26.7	4.5	31.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2.8	52.1	74.9	23.0	2.1	25.1	.0	100.0
중도	(578)	13.6	53.4	67.0	28.3	4.5	32.8	.2	100.0
보수적	(289)	16.5	44.1	60.6	34.4	4.9	39.4	.0	100.0
■ 종교									
불교	(258)	19.3	52.1	71.4	27.4	1.2	28.6	.0	100.0
기독교	(263)	21.2	48.5	69.7	26.2	3.8	30.0	.4	100.0
천주교	(114)	19.0	47.9	66.9	27.8	5.3	33.1	.0	100.0
기타	(7)	14.0	43.9	57.9	42.1	.0	42.1	.0	100.0
종교없음	(546)	13.3	52.3	65.6	29.4	5.0	34.4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4	37.8	53.2	38.0	8.8	46.8	.0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1)	35.4	44.0	79.4	16.8	3.6	20.3	.2	100.0
■ 성별									
남자	(611)	39.0	42.4	81.4	14.2	4.2	18.5	.2	100.0
여자	(590)	31.8	45.7	77.4	19.4	2.9	22.2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4.9	39.9	74.8	19.4	5.4	24.8	.4	100.0
30대	(290)	36.9	41.4	78.3	18.0	3.4	21.4	.3	100.0
40대	(306)	36.9	49.8	86.7	10.4	2.9	13.3	.0	100.0
50대이상	(346)	33.3	44.1	77.4	19.4	2.9	22.3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1.3	44.4	75.7	19.9	3.5	23.4	.9	100.0
고졸	(510)	30.8	47.8	78.6	16.5	4.9	21.4	.0	100.0
대재이상	(565)	41.0	39.9	81.0	16.2	2.5	18.7	.3	100.0
무름 / 무응답	(14)	12.2	65.9	78.1	21.9	.0	21.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3	12.3	81.6	18.4	.0	18.4	.0	100.0
자영업	(335)	35.2	46.8	82.0	15.7	2.1	17.7	.3	100.0
블루칼라	(247)	33.9	43.4	77.3	16.7	6.0	22.7	.0	100.0
화이트칼라	(252)	37.8	46.4	84.2	12.3	3.2	15.5	.4	100.0
전업주부	(211)	27.9	43.8	71.8	25.0	3.2	28.2	.0	100.0
무직 / 기타	(140)	41.9	38.1	80.0	15.0	4.3	19.3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3.9	39.1	73.0	19.8	6.7	26.6	.5	100.0
200~299만원	(287)	36.1	46.6	82.8	13.8	3.5	17.2	.0	100.0
300~399만원	(384)	31.4	50.5	81.9	15.0	2.9	17.9	.2	100.0
400만원이상	(311)	40.2	37.5	77.7	19.4	2.6	21.9	.3	100.0
무름 / 무응답	(13)	47.7	28.8	76.4	23.6	.0	23.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6.0	43.3	79.3	16.7	3.4	20.2	.5	100.0
충청권	(117)	30.8	44.4	75.2	20.5	4.3	24.8	.0	100.0
호남권	(116)	47.7	33.6	81.3	16.1	2.6	18.7	.0	100.0
영남권	(314)	30.5	48.7	79.2	16.7	4.1	20.8	.0	100.0
강원	(35)	34.3	51.4	85.7	11.4	2.9	14.3	.0	100.0
제주	(13)	61.5	30.8	92.3	7.7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5.5	44.1	79.7	17.7	2.3	20.0	.3	100.0
중·소도시	(541)	37.7	42.7	80.4	14.3	5.1	19.4	.2	100.0
읍 / 면	(90)	21.1	51.2	72.3	25.5	2.2	2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2.3	42.1	84.5	12.8	2.4	15.2	.3	100.0
중도	(578)	30.8	46.2	77.1	19.0	3.8	22.8	.2	100.0
보수적	(289)	36.6	41.7	78.3	16.9	4.4	21.3	.4	100.0
■ 종교									
불교	(258)	34.6	46.4	81.0	16.3	2.7	19.0	.0	100.0
기독교	(263)	43.8	39.6	83.4	13.9	1.9	15.8	.8	100.0
천주교	(114)	35.7	40.8	76.5	17.4	5.2	22.6	.9	100.0
기타	(7)	28.1	29.8	57.9	42.1	.0	42.1	.0	100.0
종교없음	(546)	31.5	45.8	77.4	18.1	4.5	22.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46.9	45.6	92.5	7.5	.0	7.5	.0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1)	42.7	40.5	83.2	13.1	3.7	16.7	.1	100.0
■ 성별									
남자	(611)	48.2	36.7	84.9	11.2	3.8	15.1	.0	100.0
여자	(590)	36.9	44.5	81.4	14.9	3.5	18.4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7.8	35.2	82.9	12.8	4.3	17.1	.0	100.0
30대	(290)	40.6	40.8	81.4	14.1	4.2	18.3	.3	100.0
40대	(306)	42.8	43.6	86.4	10.7	2.9	13.6	.0	100.0
50대이상	(346)	40.5	41.7	82.1	14.5	3.4	17.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7.3	33.8	81.1	13.6	5.3	18.9	.0	100.0
고졸	(510)	38.1	43.0	81.1	14.1	4.8	18.9	.0	100.0
대재이상	(565)	46.2	39.2	85.5	12.0	2.4	14.4	.2	100.0
무름 / 무응답	(14)	26.6	58.7	85.4	14.6	.0	14.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75.5	18.4	93.9	6.1	.0	6.1	.0	100.0
자영업	(335)	37.9	44.6	82.5	13.7	3.8	17.5	.0	100.0
블루칼라	(247)	42.9	40.1	83.0	11.2	5.8	17.0	.0	100.0
화이트칼라	(252)	47.4	38.4	85.7	10.3	3.6	13.9	.4	100.0
전업주부	(211)	35.6	41.6	77.2	19.5	3.2	22.8	.0	100.0
무직 / 기타	(140)	51.9	36.6	88.5	10.8	.7	11.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6.5	34.4	81.0	13.1	5.9	19.0	.0	100.0
200~299만원	(287)	42.3	42.8	85.1	11.8	3.1	14.9	.0	100.0
300~399만원	(384)	38.7	44.2	82.9	13.7	3.1	16.8	.2	100.0
400만원이상	(311)	45.7	38.2	83.9	12.6	3.5	16.1	.0	100.0
무름 / 무응답	(13)	31.7	36.6	68.3	31.7	.0	31.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0.2	40.3	80.5	15.8	3.6	19.4	.2	100.0
충청권	(117)	41.9	47.4	89.3	8.1	2.6	10.7	.0	100.0
호남권	(116)	56.3	26.7	83.0	14.4	2.6	17.0	.0	100.0
영남권	(314)	41.6	43.1	84.7	10.5	4.8	15.3	.0	100.0
강원	(35)	45.7	45.7	91.4	5.7	2.9	8.6	.0	100.0
제주	(13)	61.5	38.5	100.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1.5	40.3	81.8	14.6	3.3	18.0	.2	100.0
중·소도시	(541)	44.3	39.4	83.7	12.3	4.0	16.3	.0	100.0
읍 / 면	(90)	40.1	48.8	88.9	7.8	3.3	11.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8.6	35.3	83.8	12.3	3.9	16.2	.0	100.0
중도	(578)	39.6	43.1	82.7	13.7	3.4	17.1	.2	100.0
보수적	(289)	41.9	41.6	83.4	12.7	3.9	16.6	.0	100.0
■ 종교									
불교	(258)	46.4	40.9	87.3	10.4	2.3	12.7	.0	100.0
기독교	(263)	43.5	41.7	85.2	11.1	3.3	14.4	.4	100.0
천주교	(114)	40.8	38.3	79.1	15.7	5.2	20.9	.0	100.0
기타	(7)	56.1	29.8	86.0	14.0	.0	14.0	.0	100.0
종교없음	(546)	41.2	40.1	81.3	14.5	4.3	18.7	.0	100.0
무름 / 무응답	(13)	22.9	53.5	76.4	23.6	.0	23.6	.0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전체	(1201)	5.3	18.8	24.1	48.0	27.9	75.9	.1	100.0
■ 성별									
남자	(611)	6.4	15.5	21.8	44.4	33.8	78.2	.0	100.0
여자	(590)	4.2	22.2	26.4	51.7	21.8	73.4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4	22.0	27.4	44.6	28.0	72.6	.0	100.0
30대	(290)	5.5	20.0	25.5	45.2	29.0	74.2	.3	100.0
40대	(306)	7.8	18.2	25.9	52.4	21.7	74.1	.0	100.0
50대이상	(346)	2.9	15.8	18.7	48.9	32.4	81.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5	18.7	23.3	44.7	32.0	76.7	.0	100.0
고졸	(510)	5.5	19.9	25.3	44.2	30.5	74.7	.0	100.0
대재이상	(565)	5.5	18.2	23.6	51.2	25.0	76.2	.2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0	80.5	19.5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18.2	24.4	24.5	51.1	75.6	.0	100.0
자영업	(335)	3.3	14.0	17.2	53.1	29.6	82.8	.0	100.0
블루칼라	(247)	9.2	18.9	28.1	42.1	29.9	71.9	.0	100.0
화이트칼라	(252)	4.8	17.7	22.5	49.9	27.3	77.2	.4	100.0
전업주부	(211)	4.2	24.2	28.5	48.5	23.1	71.5	.0	100.0
무직 / 기타	(140)	5.8	23.7	29.5	44.5	26.0	70.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8	21.2	26.0	42.8	31.2	74.0	.0	100.0
200~299만원	(287)	6.2	17.7	24.0	45.6	30.4	76.0	.0	100.0
300~399만원	(384)	5.7	18.4	24.1	50.2	25.4	75.6	.2	100.0
400만원이상	(311)	4.2	18.0	22.1	51.3	26.6	77.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31.7	39.6	35.9	24.5	60.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1	18.0	22.1	50.1	27.7	77.8	.2	100.0
충청권	(117)	6.8	20.5	27.4	48.7	23.9	72.6	.0	100.0
호남권	(116)	12.1	19.0	31.0	47.1	21.8	69.0	.0	100.0
영남권	(314)	5.1	20.5	25.6	43.8	30.6	74.4	.0	100.0
강원	(35)	2.9	17.1	20.0	45.7	34.3	80.0	.0	100.0
제주	(13)	.0	.0	.0	53.8	46.2	100.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7	20.4	26.2	46.8	26.8	73.7	.2	100.0
중·소도시	(541)	5.0	18.4	23.4	49.7	26.8	76.6	.0	100.0
읍 / 면	(90)	4.5	10.0	14.5	44.5	41.0	85.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7.5	22.8	30.3	45.5	24.2	69.7	.0	100.0
중도	(578)	4.8	17.7	22.6	49.9	27.4	77.3	.2	100.0
보수적	(289)	3.8	16.1	19.8	47.0	33.2	80.2	.0	100.0
■ 종교									
불교	(258)	6.9	20.6	27.5	43.7	28.7	72.5	.0	100.0
기독교	(263)	3.4	20.0	23.4	47.1	29.2	76.2	.4	100.0
천주교	(114)	3.5	19.1	22.6	55.6	21.8	77.4	.0	100.0
기타	(7)	14.0	.0	14.0	57.9	28.1	86.0	.0	100.0
종교없음	(546)	5.5	17.0	22.5	48.7	28.8	77.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6	38.1	54.6	45.4	.0	45.4	.0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전체	(1201)	28.2	47.6	75.8	20.8	3.3	24.1	.1	100.0
■ 성별									
남자	(611)	31.4	43.4	74.8	21.3	3.7	25.1	.2	100.0
여자	(590)	25.0	52.0	76.9	20.2	2.9	23.1	.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6.3	50.4	76.7	19.1	3.9	22.9	.4	100.0
30대	(290)	26.3	48.4	74.7	20.5	4.8	25.3	.0	100.0
40대	(306)	29.9	49.0	78.9	18.2	2.9	21.1	.0	100.0
50대이상	(346)	29.8	43.6	73.5	24.5	2.0	26.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8.9	44.5	73.4	24.0	2.6	26.6	.0	100.0
고졸	(510)	27.2	47.5	74.7	21.2	4.1	25.3	.0	100.0
대재이상	(565)	29.4	48.0	77.4	19.6	2.8	22.4	.2	100.0
무름 / 무응답	(14)	12.0	58.7	70.7	29.3	.0	29.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3	18.4	87.7	12.3	.0	12.3	.0	100.0
자영업	(335)	28.8	47.9	76.8	20.8	2.4	23.2	.0	100.0
블루칼라	(247)	31.0	43.5	74.6	19.8	5.6	25.4	.0	100.0
화이트칼라	(252)	24.1	50.2	74.3	21.4	4.4	25.7	.0	100.0
전업주부	(211)	22.1	48.7	70.8	26.8	2.4	29.2	.0	100.0
무직 / 기타	(140)	33.8	51.0	84.9	13.0	1.4	14.4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6.0	39.1	75.1	21.5	3.4	24.9	.0	100.0
200~299만원	(287)	26.5	48.4	75.0	20.2	4.8	25.0	.0	100.0
300~399만원	(384)	23.9	52.8	76.7	20.7	2.3	23.0	.3	100.0
400만원이상	(311)	29.4	46.4	75.9	21.0	3.2	24.1	.0	100.0
무름 / 무응답	(13)	39.6	40.5	80.1	19.9	.0	19.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9.1	45.1	74.2	22.2	3.4	25.6	.2	100.0
충청권	(117)	19.7	63.7	83.3	12.4	4.3	16.7	.0	100.0
호남권	(116)	40.8	43.1	83.9	14.4	1.7	16.1	.0	100.0
영남권	(314)	23.3	50.7	74.0	22.9	3.2	26.0	.0	100.0
강원	(35)	28.6	34.3	62.9	31.4	5.7	37.1	.0	100.0
제주	(13)	69.2	23.1	92.3	7.7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7.3	47.2	74.5	22.9	2.6	25.5	.0	100.0
중·소도시	(541)	30.9	47.2	78.2	17.8	3.9	21.6	.2	100.0
읍 / 면	(90)	17.8	52.3	70.1	25.5	4.5	29.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9.8	45.4	75.2	20.0	4.5	24.5	.3	100.0
중도	(578)	26.0	49.0	75.0	23.0	2.1	25.0	.0	100.0
보수적	(289)	30.9	47.4	78.3	17.2	4.5	21.7	.0	100.0
■ 종교									
불교	(258)	30.4	50.2	80.6	15.6	3.8	19.4	.0	100.0
기독교	(263)	31.3	40.6	71.9	25.8	2.3	28.1	.0	100.0
천주교	(114)	28.6	51.3	79.9	17.5	2.6	20.1	.0	100.0
기타	(7)	14.0	42.1	56.1	43.9	.0	43.9	.0	100.0
종교없음	(546)	25.6	49.3	74.9	21.1	3.8	25.0	.2	100.0
무름 / 무응답	(13)	37.8	38.3	76.1	23.9	.0	23.9	.0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전체	(1201)	38.1	41.9	80.0	17.0	2.9	19.9	.1	100.0
■ 성별									
남자	(611)	38.9	40.5	79.5	16.6	3.9	20.5	.0	100.0
여자	(590)	37.2	43.4	80.6	17.4	1.9	19.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1.9	38.8	80.7	15.5	3.9	19.3	.0	100.0
30대	(290)	40.9	37.0	78.0	19.3	2.4	21.7	.3	100.0
40대	(306)	37.7	45.1	82.9	14.2	2.9	17.1	.0	100.0
50대이상	(346)	33.1	45.6	78.7	18.7	2.6	21.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7.0	44.6	71.6	23.1	5.3	28.4	.0	100.0
고졸	(510)	35.2	42.6	77.8	18.9	3.3	22.2	.0	100.0
대재이상	(565)	43.1	40.2	83.4	14.5	1.9	16.5	.2	100.0
무름 / 무응답	(14)	26.4	66.5	92.9	.0	7.1	7.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3	24.5	93.9	6.1	.0	6.1	.0	100.0
자영업	(335)	38.8	42.8	81.6	16.4	2.1	18.4	.0	100.0
블루칼라	(247)	34.6	42.1	76.7	18.1	5.2	23.3	.0	100.0
화이트칼라	(252)	39.8	42.1	81.8	15.0	2.8	17.8	.4	100.0
전업주부	(211)	31.1	43.9	75.0	22.2	2.8	25.0	.0	100.0
무직 / 기타	(140)	46.1	38.7	84.8	13.7	1.4	15.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7.4	35.9	73.3	20.0	6.7	26.7	.0	100.0
200~299만원	(287)	38.6	41.3	79.9	17.3	2.8	20.1	.0	100.0
300~399만원	(384)	34.9	45.5	80.4	18.1	1.3	19.4	.2	100.0
400만원이상	(311)	40.9	43.2	84.1	13.3	2.6	15.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63.7	16.7	80.4	19.6	.0	19.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1.0	38.5	79.6	17.0	3.3	20.3	.2	100.0
충청권	(117)	32.5	56.8	89.3	7.3	3.4	10.7	.0	100.0
호남권	(116)	44.3	40.5	84.8	12.6	2.6	15.2	.0	100.0
영남권	(314)	30.3	45.1	75.5	22.3	2.2	24.5	.0	100.0
강원	(35)	34.3	42.9	77.1	20.0	2.9	22.9	.0	100.0
제주	(13)	92.3	.0	92.3	7.7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7.0	43.8	80.8	17.8	1.2	19.0	.2	100.0
중·소도시	(541)	40.3	39.9	80.2	14.8	5.0	19.8	.0	100.0
읍 / 면	(90)	31.2	42.3	73.4	25.5	1.1	26.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4.5	38.7	83.2	14.4	2.4	16.8	.0	100.0
중도	(578)	34.0	43.4	77.4	19.7	2.8	22.5	.2	100.0
보수적	(289)	38.8	42.7	81.5	14.7	3.8	18.5	.0	100.0
■ 종교									
불교	(258)	37.2	42.1	79.3	18.0	2.7	20.7	.0	100.0
기독교	(263)	41.7	38.3	80.0	17.8	1.9	19.7	.4	100.0
천주교	(114)	41.7	45.2	86.9	10.5	2.6	13.1	.0	100.0
기타	(7)	29.8	42.1	71.9	28.1	.0	28.1	.0	100.0
종교없음	(546)	35.9	43.1	78.9	17.4	3.6	21.1	.0	100.0
무름 / 무응답	(13)	45.4	38.3	83.7	16.3	.0	16.3	.0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201)	41.6	27.3	17.6	7.2	4.9	1.1	.3	100.0
■ 성별									
남자	(611)	41.5	27.2	19.0	5.3	6.0	1.0	.0	100.0
여자	(590)	41.8	27.3	16.2	9.1	3.7	1.2	.7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9.5	34.9	22.8	8.1	3.1	.8	.8	100.0
30대	(290)	39.5	27.1	19.3	8.2	4.9	1.0	.0	100.0
40대	(306)	41.1	26.0	18.2	6.6	6.2	1.3	.7	100.0
50대이상	(346)	52.9	22.9	11.8	6.2	5.0	1.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7.9	20.6	6.2	8.0	7.4	.0	.0	100.0
고졸	(510)	45.8	25.6	15.8	7.1	4.4	1.2	.2	100.0
대재이상	(565)	34.5	29.9	21.5	7.3	4.9	1.2	.5	100.0
무름 / 무응답	(14)	48.3	36.6	15.1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87.9	6.1	6.0	.0	.0	.0	.0	100.0
자영업	(335)	41.7	29.6	18.8	4.1	3.8	1.8	.3	100.0
블루칼라	(247)	41.3	28.3	12.1	9.3	7.0	2.0	.0	100.0
화이트칼라	(252)	37.5	25.7	23.6	5.9	7.3	.0	.0	100.0
전업주부	(211)	49.3	24.1	10.4	11.4	3.3	.9	.5	100.0
무직 / 기타	(140)	32.5	30.1	25.8	7.9	2.2	.0	1.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9.8	19.7	10.3	11.5	5.4	2.9	.5	100.0
200~299만원	(287)	44.8	28.1	15.5	6.9	4.7	.0	.0	100.0
300~399만원	(384)	42.6	26.0	18.1	7.5	4.2	1.0	.5	100.0
400만원이상	(311)	31.3	33.0	24.1	4.5	5.8	1.0	.3	100.0
무름 / 무응답	(13)	60.2	32.0	7.9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3.8	30.7	19.9	8.6	4.6	2.0	.5	100.0
충청권	(117)	53.0	29.1	9.4	5.1	3.4	.0	.0	100.0
호남권	(116)	48.3	26.7	16.4	3.4	4.3	.9	.0	100.0
영남권	(314)	51.0	20.0	16.8	6.3	5.9	.0	.0	100.0
강원	(35)	40.0	31.4	14.3	8.6	5.7	.0	.0	100.0
제주	(13)	23.1	23.1	23.1	15.4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4.6	24.7	17.2	8.5	3.8	1.0	.2	100.0
중·소도시	(541)	38.6	29.0	18.8	5.7	6.1	1.3	.6	100.0
읍 / 면	(90)	41.0	33.4	13.4	7.8	4.5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0.0	26.7	18.5	8.5	5.1	1.2	.0	100.0
중도	(578)	40.8	27.0	18.6	7.1	4.9	.9	.7	100.0
보수적	(289)	45.1	28.6	14.6	5.9	4.5	1.4	.0	100.0
■ 종교									
불교	(258)	51.3	23.3	13.3	6.3	4.6	.8	.4	100.0
기독교	(263)	39.8	28.1	15.8	7.1	8.0	1.1	.0	100.0
천주교	(114)	38.2	24.3	20.9	9.6	5.2	.9	.9	100.0
기타	(7)	57.9	.0	42.1	.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38.4	29.5	19.6	7.4	3.4	1.3	.4	100.0
무름 / 무응답	(13)	39.1	38.3	15.1	.0	7.5	.0	.0	100.0

표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전체	(1201)	14.1	36.6	50.7	38.5	10.8	49.3	100.0
■ 성별								
남자	(611)	18.9	37.4	56.3	33.8	9.8	43.7	100.0
여자	(590)	9.1	35.7	44.8	43.3	11.9	55.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2.1	37.1	49.2	39.2	11.5	50.8	100.0
30대	(290)	12.7	35.1	47.8	40.9	11.3	52.2	100.0
40대	(306)	18.1	42.2	60.3	30.8	8.8	39.7	100.0
50대이상	(346)	13.2	32.4	45.6	42.7	11.6	5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9	25.1	34.9	51.5	13.6	65.1	100.0
고졸	(510)	11.4	38.4	49.8	36.9	13.3	50.2	100.0
대재이상	(565)	17.6	36.8	54.4	37.6	7.9	45.6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51.4	58.7	26.8	14.4	4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3	40.7	53.0	40.9	6.1	47.0	100.0
자영업	(335)	15.3	36.7	52.0	36.4	11.6	48.0	100.0
블루칼라	(247)	11.8	36.8	48.6	38.1	13.3	51.4	100.0
화이트칼라	(252)	18.4	38.5	56.9	34.8	8.3	43.1	100.0
전업주부	(211)	10.0	32.1	42.1	46.4	11.5	57.9	100.0
무직 / 기타	(140)	13.8	38.8	52.6	38.9	8.6	4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2	28.6	41.8	42.8	15.4	58.2	100.0
200~299만원	(287)	16.1	39.8	55.9	33.7	10.4	44.1	100.0
300~399만원	(384)	11.4	36.5	47.9	42.5	9.6	52.1	100.0
400만원이상	(311)	16.8	39.8	56.6	34.7	8.7	43.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5.7	15.7	48.0	36.3	84.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9.0	35.4	54.3	35.7	10.0	45.7	100.0
충청권	(117)	7.7	41.0	48.7	41.5	9.8	51.3	100.0
호남권	(116)	18.1	30.7	48.9	39.9	11.2	51.1	100.0
영남권	(314)	7.5	40.5	48.0	41.5	10.6	52.0	100.0
강원	(35)	.0	25.7	25.7	48.6	25.7	74.3	100.0
제주	(13)	7.7	38.5	46.2	30.8	23.1	53.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5.4	38.3	53.7	35.8	10.6	46.3	100.0
중·소도시	(541)	13.8	34.0	47.8	41.5	10.7	52.2	100.0
읍 / 면	(90)	7.8	41.2	49.0	37.7	13.4	5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8.4	37.1	55.5	34.7	9.8	44.5	100.0
중도	(578)	12.2	34.3	46.5	42.6	10.9	53.5	100.0
보수적	(289)	12.9	40.5	53.4	34.8	11.8	46.6	100.0
■ 종교								
불교	(258)	11.2	35.8	46.9	41.7	11.4	53.1	100.0
기독교	(263)	16.9	37.2	54.1	36.9	9.0	45.9	100.0
천주교	(114)	14.8	38.4	53.2	34.7	12.1	46.8	100.0
기타	(7)	15.8	28.1	43.9	42.1	14.0	56.1	100.0
종교없음	(546)	13.7	36.0	49.7	39.1	11.2	50.3	100.0
무름 / 무응답	(13)	23.9	53.2	77.1	15.6	7.3	22.9	100.0

표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전체	(1201)	5.6	22.2	27.8	49.9	22.2	72.2	100.0
■ 성별								
남자	(611)	7.5	26.7	34.2	46.1	19.7	65.8	100.0
여자	(590)	3.6	17.7	21.2	53.9	24.9	78.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5	19.4	22.9	50.8	26.3	77.1	100.0
30대	(290)	6.2	21.3	27.5	51.2	21.3	72.5	100.0
40대	(306)	7.7	26.9	34.6	46.8	18.6	65.4	100.0
50대이상	(346)	4.6	21.1	25.7	51.0	23.3	74.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8	18.0	20.8	48.1	31.2	79.2	100.0
고졸	(510)	5.1	23.1	28.3	48.5	23.2	71.7	100.0
대재이상	(565)	6.6	22.0	28.6	52.3	19.1	71.4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5.9	35.9	21.9	42.2	64.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24.4	30.5	36.8	32.7	69.5	100.0
자영업	(335)	3.2	23.4	26.7	50.3	23.1	73.3	100.0
블루칼라	(247)	8.5	22.9	31.5	43.9	24.6	68.5	100.0
화이트칼라	(252)	7.8	22.3	30.1	52.4	17.4	69.9	100.0
전업주부	(211)	3.9	16.9	20.7	55.7	23.6	79.3	100.0
무직 / 기타	(140)	4.3	25.9	30.2	48.2	21.5	69.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4	20.9	25.3	44.1	30.6	74.7	100.0
200~299만원	(287)	9.1	23.3	32.4	44.0	23.6	67.6	100.0
300~399만원	(384)	2.8	22.3	25.1	56.3	18.6	74.9	100.0
400만원이상	(311)	6.4	23.0	29.4	51.2	19.4	70.6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0	7.9	56.8	35.3	92.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9	22.7	29.6	50.7	19.6	70.4	100.0
충청권	(117)	.9	28.2	29.1	51.7	19.2	70.9	100.0
호남권	(116)	10.3	16.4	26.7	47.1	26.1	73.3	100.0
영남권	(314)	2.6	21.1	23.7	51.3	24.9	76.3	100.0
강원	(35)	11.4	25.7	37.1	25.7	37.1	62.9	100.0
제주	(13)	.0	15.4	15.4	53.8	30.8	84.6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9	23.1	28.0	53.4	18.6	72.0	100.0
중·소도시	(541)	6.3	22.1	28.4	47.2	24.4	71.6	100.0
읍 / 면	(90)	5.6	17.8	23.4	44.4	32.3	76.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0.4	26.7	37.2	44.9	17.9	62.8	100.0
중도	(578)	4.5	17.3	21.8	53.2	25.0	78.2	100.0
보수적	(289)	2.0	26.9	28.9	49.3	21.8	71.1	100.0
■ 종교								
불교	(258)	5.4	23.2	28.6	49.4	22.0	71.4	100.0
기독교	(263)	8.7	24.3	33.0	46.3	20.7	67.0	100.0
천주교	(114)	6.1	19.2	25.3	55.7	19.1	74.7	100.0
기타	(7)	14.0	15.8	29.8	70.2	.0	70.2	100.0
종교없음	(546)	3.5	21.3	24.8	50.9	24.3	75.2	100.0
무름 / 무응답	(13)	24.1	30.1	54.2	30.9	14.9	45.8	100.0

표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 전체	(1201)	3.6	9.5	13.1	16.1	35.2	35.4	70.6	.1	100.0
■ 성별										
남자	(611)	4.4	10.3	14.7	17.3	32.2	35.7	67.9	.1	100.0
여자	(590)	2.8	8.8	11.5	14.9	38.3	35.1	73.4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2	5.4	9.7	19.8	32.5	38.1	70.5	.0	100.0
30대	(290)	2.0	10.0	12.0	14.1	34.8	39.1	73.9	.0	100.0
40대	(306)	4.7	10.9	15.6	16.6	33.8	34.0	67.8	.0	100.0
50대이상	(346)	3.5	11.0	14.5	14.7	38.9	31.4	70.3	.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5	7.1	11.6	15.1	33.7	38.6	72.4	.9	100.0
고졸	(510)	4.2	10.2	14.4	15.1	37.4	33.0	70.3	.1	100.0
대재이상	(565)	3.0	9.3	12.3	17.1	33.4	37.3	70.6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4.4	14.4	22.9	40.8	21.9	62.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2.1	12.1	18.4	47.0	18.4	65.4	4.1	100.0
자영업	(335)	2.8	10.8	13.6	14.6	37.4	34.5	71.8	.0	100.0
블루칼라	(247)	6.5	7.5	14.0	16.2	31.9	37.9	69.8	.0	100.0
화이트칼라	(252)	4.0	10.6	14.5	14.3	35.6	35.6	71.2	.0	100.0
전업주부	(211)	2.3	10.0	12.3	14.1	38.6	34.5	73.1	.5	100.0
무직 / 기타	(140)	2.1	7.2	9.3	26.0	28.6	36.0	64.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8.8	7.7	16.4	14.4	28.0	40.6	68.6	.5	100.0
200~299만원	(287)	3.1	13.5	16.6	15.1	39.0	29.3	68.3	.0	100.0
300~399만원	(384)	1.6	8.5	10.2	15.3	38.7	35.6	74.3	.2	100.0
400만원이상	(311)	3.2	8.7	11.9	19.0	33.2	36.0	69.2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23.8	7.9	68.3	76.2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1	11.3	16.4	19.0	29.8	34.7	64.5	.0	100.0
충청권	(117)	3.4	6.8	10.3	11.1	40.2	38.5	78.6	.0	100.0
호남권	(116)	1.7	7.8	9.5	19.8	38.2	31.9	70.1	.6	100.0
영남권	(314)	1.0	7.0	8.0	12.3	42.3	37.5	79.7	.0	100.0
강원	(35)	5.7	20.0	25.7	5.7	37.1	28.6	65.7	2.9	100.0
제주	(13)	7.7	.0	7.7	15.4	38.5	38.5	76.9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6	8.6	12.1	17.4	37.8	32.7	70.5	.0	100.0
중·소도시	(541)	3.5	10.6	14.1	15.7	31.7	38.4	70.1	.1	100.0
읍 / 면	(90)	4.5	8.9	13.4	11.1	40.1	34.4	74.4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6	13.0	16.5	16.7	30.3	36.4	66.7	.0	100.0
중도	(578)	3.1	8.3	11.4	15.3	38.0	35.0	73.0	.3	100.0
보수적	(289)	4.6	8.0	12.6	17.2	35.2	35.0	70.2	.0	100.0
■ 종교										
불교	(258)	3.4	11.5	14.9	14.0	36.9	34.1	71.0	.0	100.0
기독교	(263)	5.4	9.9	15.3	16.3	32.4	36.0	68.4	.0	100.0
천주교	(114)	3.4	5.2	8.6	15.6	39.1	35.8	74.9	.9	100.0
기타	(7)	15.8	.0	15.8	14.0	14.0	56.1	70.2	.0	100.0
종교없음	(546)	2.8	9.5	12.3	16.9	35.7	35.1	70.7	.1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6	7.6	30.1	15.3	47.0	62.3	.0	100.0

표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 전체	(1201)	4.2	13.2	17.3	20.8	33.2	28.6	61.8	.1	100.0
■ 성별										
남자	(611)	6.0	12.0	18.0	20.0	31.5	30.4	62.0	.0	100.0
여자	(590)	2.2	14.4	16.6	21.6	34.9	26.7	61.6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7	12.0	14.8	20.1	34.1	31.0	65.1	.0	100.0
30대	(290)	4.1	11.3	15.4	21.4	34.8	28.5	63.3	.0	100.0
40대	(306)	4.3	15.0	19.3	17.9	35.9	26.9	62.8	.0	100.0
50대이상	(346)	5.2	14.0	19.2	23.3	28.8	28.4	57.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3	9.8	16.1	25.5	28.1	29.4	57.5	.9	100.0
고졸	(510)	3.6	14.4	17.9	21.1	33.5	27.5	61.0	.0	100.0
대재이상	(565)	4.4	12.8	17.1	19.4	34.0	29.5	63.5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4.2	14.2	29.0	27.7	29.1	56.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2.1	12.1	18.4	45.0	24.5	69.5	.0	100.0
자영업	(335)	4.8	12.6	17.5	20.3	33.3	28.9	62.2	.0	100.0
블루칼라	(247)	6.0	12.3	18.3	16.4	32.7	32.6	65.3	.0	100.0
화이트칼라	(252)	3.1	16.2	19.3	22.2	31.9	26.6	58.5	.0	100.0
전업주부	(211)	2.8	14.6	17.4	25.1	32.4	24.7	57.0	.5	100.0
무직 / 기타	(140)	3.6	8.6	12.3	20.9	35.9	30.9	66.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3	15.2	21.5	21.1	23.9	33.0	56.9	.5	100.0
200~299만원	(287)	4.9	11.0	15.9	22.3	32.3	29.4	61.8	.0	100.0
300~399만원	(384)	2.1	13.8	15.9	21.5	37.2	25.4	62.6	.0	100.0
400만원이상	(311)	4.8	12.9	17.7	18.5	34.8	28.9	63.8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5.7	15.7	16.0	40.8	27.5	68.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4	14.1	20.6	20.0	31.2	28.2	59.4	.0	100.0
충청권	(117)	2.6	15.4	17.9	16.7	29.1	36.3	65.4	.0	100.0
호남권	(116)	.0	7.8	7.8	24.1	36.2	31.9	68.1	.0	100.0
영남권	(314)	1.6	11.3	12.9	21.6	38.1	27.4	65.5	.0	100.0
강원	(35)	8.6	22.9	31.4	22.9	25.7	17.1	42.9	2.9	100.0
제주	(13)	.0	15.4	15.4	38.5	38.5	7.7	46.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9	16.2	20.1	21.9	34.3	23.7	58.0	.0	100.0
중·소도시	(541)	4.4	11.4	15.8	19.0	31.6	33.6	65.2	.0	100.0
읍 / 면	(90)	4.5	4.5	8.9	24.5	35.6	29.9	65.5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3	15.2	20.6	20.0	27.4	32.0	59.5	.0	100.0
중도	(578)	3.6	12.0	15.6	20.7	36.5	27.0	63.5	.2	100.0
보수적	(289)	3.8	13.2	17.1	21.9	33.1	27.9	61.0	.0	100.0
■ 종교										
불교	(258)	5.4	10.0	15.4	21.0	34.4	29.1	63.5	.0	100.0
기독교	(263)	5.8	15.3	21.0	17.5	34.2	27.3	61.5	.0	100.0
천주교	(114)	3.5	18.3	21.8	14.8	35.7	26.9	62.6	.9	100.0
기타	(7)	.0	15.8	15.8	14.0	28.1	42.1	70.2	.0	100.0
종교없음	(546)	3.1	12.7	15.8	23.2	32.1	28.9	61.0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6	7.6	37.9	15.1	39.4	54.6	.0	100.0

표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1201)	5.0	20.5	25.5	13.5	30.9	30.0	60.8	2	100.0
■ 전체		%	%	%	%	%	%	%	%	%
■ 성별										
남자	(611)	6.1	20.7	26.8	12.6	29.2	31.3	60.6	.0	100.0
여자	(590)	3.8	20.2	24.0	14.6	32.5	28.5	61.1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3	19.8	24.1	19.4	28.7	27.9	56.5	.0	100.0
30대	(290)	6.1	19.3	25.4	12.9	33.3	28.4	61.7	.0	100.0
40대	(306)	5.2	21.9	27.1	12.3	29.6	30.9	60.6	.0	100.0
50대이상	(346)	4.3	20.7	25.1	10.8	31.6	32.0	63.6	.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7	12.9	15.6	13.4	30.7	39.4	70.1	.9	100.0
고졸	(510)	4.3	18.8	23.1	12.7	32.4	31.7	64.1	.0	100.0
대재이상	(565)	6.1	23.5	29.6	14.3	29.4	26.5	55.9	2	100.0
무름 / 무응답	(14)	.0	21.5	21.5	14.6	34.8	29.1	63.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10.2	16.4	18.4	53.0	12.3	65.3	.0	100.0
자영업	(335)	3.5	20.7	24.3	6.9	37.3	31.6	68.9	.0	100.0
블루칼라	(247)	7.2	17.7	25.0	11.6	25.8	37.2	63.0	.4	100.0
화이트칼라	(252)	4.3	21.8	26.1	16.6	28.4	28.9	57.3	.0	100.0
전업주부	(211)	4.3	20.8	25.1	18.0	29.8	26.6	56.4	.5	100.0
무직 / 기타	(140)	6.5	23.0	29.5	20.2	28.0	22.3	50.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9	16.7	22.5	12.7	29.0	34.8	63.8	1.0	100.0
200~299만원	(287)	6.6	21.2	27.8	16.0	25.8	30.4	56.3	.0	100.0
300~399만원	(384)	3.1	22.4	25.5	11.7	33.5	29.2	62.7	.0	100.0
400만원이상	(311)	5.4	20.8	26.2	14.1	33.4	26.3	59.7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15.7	33.0	51.3	84.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6	22.6	29.1	13.2	31.1	26.5	57.5	2	100.0
충청권	(117)	1.7	24.4	26.1	20.5	20.5	32.9	53.4	.0	100.0
호남권	(116)	5.2	17.8	23.0	19.0	33.0	25.0	58.0	.0	100.0
영남권	(314)	2.2	14.3	16.6	10.8	34.4	38.2	72.7	.0	100.0
강원	(35)	11.4	34.3	45.7	8.6	22.9	20.0	42.9	2.9	100.0
제주	(13)	7.7	23.1	30.8	.0	30.8	38.5	69.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0	20.3	24.3	14.5	32.6	28.4	61.0	2	100.0
중·소도시	(541)	6.1	21.8	27.9	13.5	28.8	29.8	58.6	.0	100.0
읍 / 면	(90)	4.5	13.4	17.8	7.8	32.3	41.0	73.3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1	24.9	30.0	15.8	27.5	26.7	54.2	.0	100.0
중도	(578)	4.7	18.2	22.9	13.1	33.9	29.8	63.7	.3	100.0
보수적	(289)	5.5	19.9	25.4	11.8	28.7	34.1	62.8	.0	100.0
■ 종교										
불교	(258)	5.0	19.4	24.4	13.1	33.4	29.1	62.5	.0	100.0
기독교	(263)	4.5	22.0	26.5	13.3	28.5	31.4	59.8	.4	100.0
천주교	(114)	6.2	34.0	40.1	13.1	24.3	21.6	45.9	.9	100.0
기타	(7)	.0	28.1	28.1	29.8	28.1	14.0	42.1	.0	100.0
종교없음	(546)	4.9	17.1	22.0	13.4	32.8	31.8	64.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30.3	37.8	30.5	7.6	24.1	31.7	.0	100.0

표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 전체	(1201)	1.7	5.2	6.9	17.9	42.6	32.5	75.1	.1	100.0
■ 성별										
남자	(611)	1.8	5.6	7.3	18.7	41.3	32.7	73.9	.0	100.0
여자	(590)	1.6	4.9	6.5	17.1	43.9	32.3	76.2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	6.6	7.0	16.3	40.7	36.0	76.7	.0	100.0
30대	(290)	2.0	3.5	5.6	18.8	43.8	31.8	75.7	.0	100.0
40대	(306)	3.3	5.8	9.1	16.5	44.3	30.1	74.4	.0	100.0
50대이상	(346)	.9	5.2	6.1	19.7	41.5	32.5	73.9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8	3.6	6.3	15.2	39.8	37.8	77.6	.9	100.0
고졸	(510)	1.8	5.1	6.9	16.2	44.1	32.7	76.8	.0	100.0
대재이상	(565)	1.4	5.8	7.2	19.6	41.9	31.4	73.3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0	36.8	34.1	29.1	63.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0	.0	24.5	46.9	28.6	75.5	.0	100.0
자영업	(335)	2.1	3.9	6.1	18.7	44.7	30.6	75.2	.0	100.0
블루칼라	(247)	2.8	4.8	7.7	19.3	37.8	35.2	73.0	.0	100.0
화이트칼라	(252)	.8	6.6	7.4	17.8	40.9	33.9	74.8	.0	100.0
전업주부	(211)	1.9	5.2	7.1	17.1	42.9	32.5	75.3	.5	100.0
무직 / 기타	(140)	.0	7.2	7.2	14.4	48.2	30.2	78.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0	6.8	9.7	15.0	37.5	37.3	74.8	.5	100.0
200~299만원	(287)	1.7	6.2	7.9	19.9	42.2	29.9	72.1	.0	100.0
300~399만원	(384)	1.3	4.4	5.7	17.6	44.4	32.3	76.7	.0	100.0
400만원이상	(311)	1.3	4.6	5.9	18.2	44.2	31.7	75.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23.6	40.1	36.3	76.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3	5.9	8.2	19.7	43.2	28.9	72.1	.0	100.0
충청권	(117)	.0	3.4	3.4	18.8	42.3	35.5	77.8	.0	100.0
호남권	(116)	.9	6.0	6.9	21.6	34.8	36.8	71.6	.0	100.0
영남권	(314)	.6	4.5	5.1	13.7	44.0	37.1	81.1	.0	100.0
강원	(35)	5.7	5.7	11.4	11.4	45.7	28.6	74.3	2.9	100.0
제주	(13)	7.7	.0	7.7	15.4	46.2	30.8	76.9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6	4.8	6.4	17.4	45.5	30.7	76.2	.0	100.0
중·소도시	(541)	1.9	5.9	7.7	18.9	39.7	33.7	73.4	.0	100.0
읍 / 면	(90)	1.1	4.5	5.6	15.6	41.2	36.6	77.7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1	7.5	9.5	21.1	39.3	30.1	69.4	.0	100.0
중도	(578)	1.2	4.1	5.4	17.6	43.9	32.9	76.8	.2	100.0
보수적	(289)	2.1	4.8	7.0	14.9	43.8	34.3	78.2	.0	100.0
■ 종교										
불교	(258)	1.5	6.1	7.6	16.9	43.7	31.8	75.5	.0	100.0
기독교	(263)	2.0	6.5	8.5	20.8	36.4	34.2	70.7	.0	100.0
천주교	(114)	1.7	7.0	8.7	20.0	41.0	29.5	70.5	.9	100.0
기타	(7)	.0	.0	.0	14.0	57.9	28.1	86.0	.0	100.0
종교없음	(546)	1.7	3.8	5.5	16.6	45.1	32.9	77.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5	7.5	22.7	45.5	24.4	69.8	.0	100.0

표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 전체	(1201)	2.3	7.6	10.0	22.1	36.4	31.4	67.8	.1	100.0
■ 성별										
남자	(611)	3.2	7.5	10.7	22.9	34.9	31.4	66.4	.0	100.0
여자	(590)	1.4	7.8	9.2	21.4	37.9	31.4	69.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	5.4	7.0	20.2	34.8	38.0	72.8	.0	100.0
30대	(290)	1.7	6.2	7.9	24.3	36.5	31.2	67.7	.0	100.0
40대	(306)	3.9	8.1	12.0	21.5	37.1	29.4	66.5	.0	100.0
50대이상	(346)	2.0	10.1	12.1	22.3	36.8	28.5	65.3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8	7.1	9.9	24.8	35.2	29.2	64.4	.9	100.0
고졸	(510)	1.6	9.2	10.8	21.1	37.3	30.8	68.1	.0	100.0
대재이상	(565)	3.0	6.5	9.5	22.0	35.9	32.6	68.5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0	44.1	34.1	21.8	55.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6.1	6.1	24.4	53.1	16.4	69.5	.0	100.0
자영업	(335)	1.5	8.7	10.2	23.3	37.7	28.8	66.5	.0	100.0
블루칼라	(247)	3.6	6.4	10.0	25.8	30.3	33.9	64.2	.0	100.0
화이트칼라	(252)	3.6	7.9	11.5	23.2	33.9	31.4	65.3	.0	100.0
전업주부	(211)	1.4	9.9	11.3	17.8	43.0	27.4	70.4	.5	100.0
무직 / 기타	(140)	1.4	3.6	5.0	17.3	36.6	41.1	77.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9	6.7	10.7	23.2	33.0	32.7	65.7	.5	100.0
200~299만원	(287)	1.8	7.6	9.3	26.7	33.7	30.3	64.0	.0	100.0
300~399만원	(384)	2.3	8.3	10.6	20.8	38.0	30.6	68.6	.0	100.0
400만원이상	(311)	1.9	7.8	9.7	18.9	39.0	32.4	71.4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23.8	39.8	36.3	76.2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8	8.2	12.0	23.6	35.6	28.8	64.5	.0	100.0
충청권	(117)	.9	6.8	7.7	17.1	37.2	38.0	75.2	.0	100.0
호남권	(116)	1.7	10.3	12.1	19.0	37.4	31.6	69.0	.0	100.0
영남권	(314)	.6	4.5	5.2	21.7	37.4	35.8	73.1	.0	100.0
강원	(35)	.0	20.0	20.0	25.7	31.4	20.0	51.4	2.9	100.0
제주	(13)	.0	7.7	7.7	30.8	46.2	15.4	61.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9	7.2	9.1	22.2	38.2	30.5	68.7	.0	100.0
중·소도시	(541)	2.9	8.4	11.4	21.9	33.8	32.8	66.7	.0	100.0
읍 / 면	(90)	1.1	5.6	6.7	23.4	40.1	28.8	68.8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0	8.9	11.9	28.1	31.0	28.9	60.0	.0	100.0
중도	(578)	1.6	7.0	8.6	19.0	41.2	31.0	72.2	.2	100.0
보수적	(289)	3.1	7.3	10.4	21.5	33.0	35.1	68.1	.0	100.0
■ 종교										
불교	(258)	3.4	7.7	11.1	22.6	36.1	30.2	66.3	.0	100.0
기독교	(263)	3.1	11.6	14.6	25.3	31.0	29.0	60.1	.0	100.0
천주교	(114)	1.7	6.1	7.8	16.5	41.8	33.0	74.8	.9	100.0
기타	(7)	.0	14.0	14.0	14.0	29.8	42.1	71.9	.0	100.0
종교없음	(546)	1.7	6.0	7.7	21.5	38.4	32.5	70.8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5	7.5	30.1	22.9	39.5	62.4	.0	100.0

표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 전체	(1201)	4.3	9.2	13.5	16.3	36.6	33.5	70.1	.2	100.0
■ 성별										
남자	(611)	6.2	11.2	17.4	14.7	34.9	32.8	67.7	.2	100.0
여자	(590)	2.4	7.1	9.5	17.8	38.3	34.1	72.5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3	6.2	10.5	15.5	34.0	39.9	74.0	.0	100.0
30대	(290)	4.1	11.0	15.1	18.0	33.5	33.4	66.9	.0	100.0
40대	(306)	5.5	11.0	16.5	12.6	38.9	31.6	70.5	.3	100.0
50대이상	(346)	3.4	8.4	11.8	18.5	39.0	30.3	69.4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7	6.2	7.9	20.6	35.1	35.5	70.6	.9	100.0
고졸	(510)	3.3	7.9	11.2	16.8	39.8	32.0	71.8	.2	100.0
대재이상	(565)	5.8	11.0	16.8	14.8	33.7	34.7	68.4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7.3	7.3	22.4	48.3	21.9	70.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0	6.1	12.3	63.2	18.4	81.6	.0	100.0
자영업	(335)	3.2	10.7	14.0	16.5	37.7	31.8	69.5	.0	100.0
블루칼라	(247)	4.9	11.6	16.5	14.4	32.4	36.7	69.1	.0	100.0
화이트칼라	(252)	7.1	8.3	15.4	12.9	35.5	35.8	71.3	.4	100.0
전업주부	(211)	1.4	7.6	9.0	21.6	40.8	28.1	68.9	.5	100.0
무직 / 기타	(140)	5.0	6.4	11.5	17.3	33.7	37.6	71.3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8	5.8	12.6	17.9	29.6	39.5	69.0	.5	100.0
200~299만원	(287)	4.9	8.9	13.8	17.4	36.6	31.8	68.5	.3	100.0
300~399만원	(384)	3.3	9.9	13.2	14.5	39.2	33.1	72.3	.0	100.0
400만원이상	(311)	3.5	10.9	14.4	17.0	37.2	31.3	68.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9	7.9	.0	55.5	36.6	92.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2	11.6	16.8	17.5	34.1	31.6	65.6	.0	100.0
충청권	(117)	1.7	10.3	12.0	12.0	36.3	39.7	76.1	.0	100.0
호남권	(116)	11.2	7.8	19.0	12.1	35.3	33.6	69.0	.0	100.0
영남권	(314)	1.0	3.9	4.9	17.8	40.0	37.0	77.0	.3	100.0
강원	(35)	2.9	17.1	20.0	8.6	48.6	20.0	68.6	2.9	100.0
제주	(13)	7.7	7.7	15.4	15.4	53.8	15.4	69.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2	9.3	12.4	16.4	39.2	32.0	71.1	.0	100.0
중·소도시	(541)	5.1	9.9	15.1	15.6	35.0	34.2	69.1	.2	100.0
읍 / 면	(90)	6.7	4.5	11.1	18.9	30.0	38.8	68.8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8	10.4	17.3	17.4	34.2	30.8	65.0	.3	100.0
중도	(578)	3.1	8.9	12.0	14.7	40.3	32.7	73.1	.2	100.0
보수적	(289)	3.8	8.3	12.1	18.0	31.9	38.0	69.9	.0	100.0
■ 종교										
불교	(258)	4.6	9.9	14.5	14.8	39.2	31.1	70.3	.4	100.0
기독교	(263)	5.7	12.3	18.0	17.1	30.7	34.3	65.0	.0	100.0
천주교	(114)	3.5	9.6	13.0	14.0	39.1	33.0	72.1	.9	100.0
기타	(7)	14.0	14.0	28.1	15.8	28.1	28.1	56.1	.0	100.0
종교없음	(546)	3.7	6.9	10.6	17.1	37.9	34.4	72.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2.9	22.9	14.7	30.5	31.9	62.4	.0	100.0

표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01)	19.7	25.1	55.3	100.0
■ 성별					
남자	(611)	19.1	21.9	59.0	100.0
여자	(590)	20.3	28.4	51.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9.0	29.4	51.6	100.0
30대	(290)	15.1	30.9	54.0	100.0
40대	(306)	22.8	21.7	55.4	100.0
50대이상	(346)	21.2	19.8	59.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6.1	15.4	58.6	100.0
고졸	(510)	18.3	24.3	57.4	100.0
대재이상	(565)	19.1	28.0	53.0	100.0
무름 / 무응답	(14)	44.1	14.6	4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8.2	6.1	75.6	100.0
자영업	(335)	20.4	21.0	58.5	100.0
블루칼라	(247)	16.8	25.2	58.0	100.0
화이트칼라	(252)	19.0	29.8	51.2	100.0
전업주부	(211)	24.8	25.0	50.2	100.0
무직 / 기타	(140)	16.5	28.1	5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7.4	24.2	58.3	100.0
200~299만원	(287)	21.2	24.8	54.0	100.0
300~399만원	(384)	17.9	26.4	55.7	100.0
400만원이상	(311)	22.1	24.8	53.1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7.9	76.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8.1	25.6	56.3	100.0
충청권	(117)	24.8	26.5	48.7	100.0
호남권	(116)	24.7	24.1	51.1	100.0
영남권	(314)	18.8	25.1	56.1	100.0
강원	(35)	20.0	17.1	62.9	100.0
제주	(13)	23.1	15.4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8.5	25.4	56.0	100.0
중·소도시	(541)	18.6	24.8	56.6	100.0
읍 / 면	(90)	33.4	24.5	42.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3.2	28.4	48.4	100.0
중도	(578)	17.6	26.3	56.2	100.0
보수적	(289)	19.8	18.7	61.4	100.0
■ 종교					
불교	(258)	21.1	23.6	55.4	100.0
기독교	(263)	20.9	26.0	53.1	100.0
천주교	(114)	19.2	27.7	53.1	100.0
기타	(7)	28.1	29.8	42.1	100.0
종교없음	(546)	18.7	24.5	56.8	100.0
무름 / 무응답	(13)	7.8	31.6	60.6	100.0

표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북한의 민주주의가	통일과 민주주의는	계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	%
■ 전체	(1201)	37.5	29.6	33.0	100.0
■ 성별					
남자	(611)	38.8	27.5	33.7	100.0
여자	(590)	36.0	31.7	32.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1.8	39.5	28.7	100.0
30대	(290)	39.7	30.0	30.3	100.0
40대	(306)	40.4	24.9	34.7	100.0
50대이상	(346)	37.2	26.0	36.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9.2	25.3	35.5	100.0
고졸	(510)	34.0	31.5	34.5	100.0
대재이상	(565)	39.7	29.1	31.2	100.0
무름 / 무응답	(14)	56.3	14.6	29.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3.2	12.3	24.5	100.0
자영업	(335)	37.2	25.7	37.1	100.0
블루칼라	(247)	34.6	33.9	31.5	100.0
화이트칼라	(252)	44.8	29.5	25.8	100.0
전업주부	(211)	34.3	27.0	38.7	100.0
무직 / 기타	(140)	31.7	37.3	3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4.9	30.6	34.5	100.0
200~299만원	(287)	35.3	33.2	31.5	100.0
300~399만원	(384)	37.6	28.9	33.5	100.0
400만원이상	(311)	40.9	26.3	32.9	100.0
무름 / 무응답	(13)	39.6	32.7	27.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9.0	28.9	32.1	100.0
충청권	(117)	29.9	39.3	30.8	100.0
호남권	(116)	36.2	26.7	37.1	100.0
영남권	(314)	36.8	29.0	34.2	100.0
강원	(35)	42.9	31.4	25.7	100.0
제주	(13)	46.2	7.7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5.6	27.3	37.1	100.0
중·소도시	(541)	38.4	31.3	30.2	100.0
읍 / 면	(90)	43.4	33.4	23.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8.9	36.5	24.7	100.0
중도	(578)	37.9	27.9	34.2	100.0
보수적	(289)	34.9	25.0	40.1	100.0
■ 종교					
불교	(258)	35.2	31.0	33.9	100.0
기독교	(263)	41.8	29.4	28.9	100.0
천주교	(114)	40.8	28.8	30.4	100.0
기타	(7)	42.1	42.1	15.8	100.0
종교없음	(546)	36.0	28.6	35.4	100.0
무름 / 무응답	(13)	24.4	45.6	30.0	100.0

표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 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1)	49.0	35.4	12.3	3.2	.1	100.0
■ 성별							
남자	(611)	48.7	35.4	12.7	3.2	.0	100.0
여자	(590)	49.3	35.4	11.9	3.2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5.5	30.9	11.6	1.9	.0	100.0
30대	(290)	51.1	34.6	11.6	2.4	.3	100.0
40대	(306)	45.4	38.0	14.3	2.3	.0	100.0
50대이상	(346)	45.5	37.2	11.6	5.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9.8	32.8	7.2	10.1	.0	100.0
고졸	(510)	48.5	35.3	13.6	2.3	.2	100.0
대재이상	(565)	49.4	36.0	11.9	2.7	.0	100.0
무름 / 무응답	(14)	44.5	33.7	21.8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49.1	44.8	6.1	.0	.0	100.0
자영업	(335)	43.6	38.7	15.3	2.4	.0	100.0
블루칼라	(247)	51.5	31.6	11.7	4.8	.4	100.0
화이트칼라	(252)	51.9	34.2	11.8	2.1	.0	100.0
전업주부	(211)	49.2	37.5	9.5	3.9	.0	100.0
무직 / 기타	(140)	51.9	32.2	12.3	3.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6.9	36.2	12.1	4.8	.0	100.0
200~299만원	(287)	55.1	29.8	11.5	3.7	.0	100.0
300~399만원	(384)	47.2	38.5	11.2	2.8	.2	100.0
400만원이상	(311)	45.5	37.0	15.1	2.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84.0	16.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6.2	36.9	13.3	3.5	.2	100.0
충청권	(117)	46.2	42.7	7.7	3.4	.0	100.0
호남권	(116)	36.8	47.7	12.9	2.6	.0	100.0
영남권	(314)	58.2	28.2	10.6	3.0	.0	100.0
강원	(35)	60.0	14.3	25.7	.0	.0	100.0
제주	(13)	61.5	23.1	7.7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9.8	35.3	11.2	3.6	.2	100.0
중·소도시	(541)	45.6	36.7	14.6	3.2	.0	100.0
읍 / 면	(90)	64.4	28.9	5.6	1.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6.2	40.0	10.7	3.1	.0	100.0
중도	(578)	49.2	34.4	12.9	3.3	.2	100.0
보수적	(289)	51.8	32.1	13.0	3.1	.0	100.0
■ 종교							
불교	(258)	46.6	37.6	12.3	3.5	.0	100.0
기독교	(263)	48.7	33.4	13.4	4.5	.0	100.0
천주교	(114)	47.9	40.0	10.4	1.7	.0	100.0
기타	(7)	28.1	56.1	15.8	.0	.0	100.0
종교없음	(546)	51.6	33.7	12.1	2.7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3	53.4	15.2	8.8	7.3	100.0

표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01)	16.7	47.0	2.3	17.2	16.8	100.0
■ 성별							
남자	(611)	15.6	46.2	2.3	16.2	19.6	100.0
여자	(590)	17.9	47.7	2.4	18.2	13.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3.9	40.7	1.9	17.4	26.0	100.0
30대	(290)	16.0	52.4	2.4	13.6	15.6	100.0
40대	(306)	17.9	52.8	1.6	16.3	11.3	100.0
50대 이상	(346)	18.5	41.9	3.2	20.8	15.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0.5	34.7	1.9	27.1	15.8	100.0
고졸	(510)	18.5	46.3	3.5	17.2	14.5	100.0
대재 이상	(565)	14.7	50.3	1.4	15.2	18.5	100.0
무름 / 무응답	(14)	7.1	37.1	.0	19.5	36.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8.6	42.8	6.1	16.4	6.1	100.0
자영업	(335)	18.4	47.4	1.5	16.1	16.5	100.0
블루칼라	(247)	17.6	46.7	2.8	15.3	17.6	100.0
화이트칼라	(252)	14.3	52.9	1.5	15.4	15.8	100.0
전업주부	(211)	15.7	44.7	4.3	22.0	13.4	100.0
무직 / 기타	(140)	15.7	39.6	1.4	19.4	23.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9.9	40.6	3.4	19.4	16.7	100.0
200~299만원	(287)	15.8	44.7	3.5	20.5	15.5	100.0
300~399만원	(384)	16.2	50.6	2.1	16.2	14.9	100.0
400만원이상	(311)	15.8	50.5	1.0	13.9	18.9	100.0
무름 / 무응답	(13)	23.6	8.1	.0	16.0	52.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6.9	48.2	2.3	15.0	17.6	100.0
충청권	(117)	12.0	55.1	2.6	17.1	13.2	100.0
호남권	(116)	20.4	50.0	1.7	14.9	12.9	100.0
영남권	(314)	17.9	38.9	2.2	23.1	17.9	100.0
강원	(35)	14.3	60.0	5.7	8.6	11.4	100.0
제주	(13)	.0	46.2	.0	23.1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9.3	46.5	1.4	17.1	15.7	100.0
중·소도시	(541)	14.9	49.2	3.3	15.4	17.2	100.0
읍 / 면	(90)	11.1	36.7	2.2	28.8	2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9.3	49.5	2.4	12.5	16.4	100.0
중도	(578)	16.6	46.8	2.1	18.7	15.9	100.0
보수적	(289)	14.1	44.5	2.8	19.8	18.9	100.0
■ 종교							
불교	(258)	17.4	45.6	3.0	20.1	13.8	100.0
기독교	(263)	21.1	46.2	3.5	14.4	14.9	100.0
천주교	(114)	22.7	51.2	1.7	8.7	15.7	100.0
기타	(7)	.0	42.1	.0	57.9	.0	100.0
종교없음	(546)	13.7	47.0	1.5	18.5	19.3	100.0
무름 / 무응답	(13)	.0	53.5	7.5	15.3	23.7	100.0

표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	%
■ 전체	(1201)	3.4	30.9	34.3	48.9	16.8	65.7	100.0
■ 성별								
남자	(611)	5.0	31.6	36.7	46.7	16.6	63.3	100.0
여자	(590)	1.7	30.2	31.8	51.2	17.0	68.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1	26.7	29.8	51.9	18.3	70.2	100.0
30대	(290)	3.4	35.2	38.6	46.0	15.4	61.4	100.0
40대	(306)	4.1	36.9	41.0	43.9	15.1	59.0	100.0
50대이상	(346)	2.9	25.2	28.1	53.6	18.3	7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6	14.2	17.9	57.8	24.4	82.1	100.0
고졸	(510)	2.9	30.2	33.1	48.8	18.1	66.9	100.0
대재이상	(565)	3.8	35.3	39.1	47.1	13.8	60.9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4.4	14.4	56.4	29.3	85.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18.2	24.4	65.4	10.2	75.6	100.0
자영업	(335)	3.0	28.8	31.8	49.3	19.0	68.2	100.0
블루칼라	(247)	4.4	31.0	35.4	47.3	17.3	64.6	100.0
화이트칼라	(252)	4.7	37.8	42.5	45.2	12.4	57.5	100.0
전업주부	(211)	.9	32.7	33.7	51.1	15.2	66.3	100.0
무직 / 기타	(140)	3.6	22.3	25.9	52.4	21.7	74.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9	31.9	34.9	48.4	16.8	65.1	100.0
200~299만원	(287)	4.8	28.6	33.4	49.6	17.0	66.6	100.0
300~399만원	(384)	2.6	30.7	33.3	48.7	18.0	66.7	100.0
400만원이상	(311)	3.5	32.6	36.1	49.8	14.1	63.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1.7	31.7	27.8	40.5	68.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1	35.5	40.6	43.7	15.7	59.4	100.0
충청권	(117)	.9	40.2	41.0	47.0	12.0	59.0	100.0
호남권	(116)	3.4	36.2	39.7	45.1	15.2	60.3	100.0
영남권	(314)	1.6	18.5	20.0	59.7	20.2	80.0	100.0
강원	(35)	.0	17.1	17.1	62.9	20.0	82.9	100.0
제주	(13)	.0	23.1	23.1	46.2	30.8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3	29.6	33.0	48.9	18.1	67.0	100.0
중·소도시	(541)	3.9	33.1	37.0	47.4	15.6	63.0	100.0
읍 / 면	(90)	1.1	25.6	26.7	57.7	15.6	7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3	41.3	46.6	40.2	13.1	53.4	100.0
중도	(578)	3.3	29.8	33.1	50.3	16.6	66.9	100.0
보수적	(289)	1.4	21.1	22.5	56.2	21.3	77.5	100.0
■ 종교								
불교	(258)	4.9	28.6	33.5	51.6	14.9	66.5	100.0
기독교	(263)	4.6	36.8	41.4	43.1	15.6	58.6	100.0
천주교	(114)	1.7	35.6	37.3	43.4	19.2	62.7	100.0
기타	(7)	.0	29.8	29.8	42.1	28.1	70.2	100.0
종교없음	(546)	2.4	27.9	30.3	52.2	17.6	69.7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45.8	53.4	30.5	16.1	46.6	100.0

표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	별로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2.5	18.2	20.7	50.9	28.4	79.3	100.0
■ 성별								
남자	(611)	3.1	18.7	21.8	46.2	32.0	78.2	100.0
여자	(590)	1.9	17.7	19.5	55.8	24.7	80.5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2	14.0	15.1	56.9	27.9	84.9	100.0
30대	(290)	1.3	20.9	22.3	47.9	29.8	77.7	100.0
40대	(306)	2.6	21.9	24.5	47.5	28.0	75.5	100.0
50대이상	(346)	4.4	15.7	20.2	51.8	28.0	79.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5	16.4	21.9	51.9	26.2	78.1	100.0
고졸	(510)	1.8	21.6	23.3	48.1	28.6	76.7	100.0
대재이상	(565)	2.6	15.9	18.6	53.2	28.2	81.4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0	50.5	49.5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24.5	24.5	55.0	20.4	75.5	100.0
자영업	(335)	3.3	18.1	21.5	47.7	30.8	78.5	100.0
블루칼라	(247)	4.0	20.3	24.4	47.7	28.0	75.6	100.0
화이트칼라	(252)	2.0	18.9	20.8	50.7	28.5	79.2	100.0
전업주부	(211)	1.4	18.9	20.2	53.3	26.5	79.8	100.0
무직 / 기타	(140)	.8	11.5	12.3	60.3	27.4	87.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0	18.9	22.9	48.4	28.7	77.1	100.0
200~299만원	(287)	3.8	20.8	24.6	47.4	28.0	75.4	100.0
300~399만원	(384)	1.3	17.8	19.1	53.0	27.9	80.9	100.0
400만원이상	(311)	1.6	16.0	17.6	53.2	29.1	82.4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11.8	19.6	47.7	32.7	8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1	19.1	23.3	52.0	24.8	76.7	100.0
충청권	(117)	.0	15.0	15.0	56.8	28.2	85.0	100.0
호남권	(116)	2.6	26.7	29.3	49.7	21.0	70.7	100.0
영남권	(314)	.6	15.9	16.6	48.0	35.4	83.4	100.0
강원	(35)	.0	11.4	11.4	42.9	45.7	88.6	100.0
제주	(13)	.0	.0	.0	46.2	53.8	100.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6	18.3	20.9	50.2	28.9	79.1	100.0
중·소도시	(541)	2.6	18.9	21.5	50.2	28.2	78.5	100.0
읍 / 면	(90)	1.1	13.4	14.5	58.8	26.7	85.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4	22.8	26.2	47.4	26.5	73.8	100.0
중도	(578)	1.7	18.4	20.1	53.3	26.6	79.9	100.0
보수적	(289)	3.1	12.4	15.6	50.2	34.3	84.4	100.0
■ 종교								
불교	(258)	3.1	22.2	25.3	47.5	27.2	74.7	100.0
기독교	(263)	4.3	19.3	23.6	47.0	29.4	76.4	100.0
천주교	(114)	1.7	18.2	19.9	55.6	24.5	80.1	100.0
기타	(7)	.0	43.9	43.9	28.1	28.1	56.1	100.0
종교없음	(546)	1.1	15.5	16.6	53.8	29.7	83.4	100.0
무름 / 무응답	(13)	23.9	15.3	39.2	45.5	15.3	60.8	100.0

표16.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 전체	(1201)	7.6	37.3	45.0	38.1	17.0	55.0	100.0
■ 성별								
남자	(611)	8.1	37.0	45.0	36.7	18.3	55.0	100.0
여자	(590)	7.2	37.7	44.9	39.4	15.7	55.1	100.0
■ 연령별								
19~29세	(259)	7.4	35.6	43.0	38.3	18.6	57.0	100.0
30대	(290)	9.0	36.9	45.9	41.0	13.1	54.1	100.0
40대	(306)	10.6	38.5	49.1	33.3	17.6	50.9	100.0
50대이상	(346)	4.1	37.9	42.0	39.6	18.4	58.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3	33.0	39.3	40.5	20.2	60.7	100.0
고졸	(510)	7.8	37.1	44.8	38.2	16.9	55.2	100.0
대재이상	(565)	8.0	38.4	46.4	37.5	16.1	53.6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5.9	35.9	36.6	27.5	64.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3	36.8	49.1	40.7	10.2	50.9	100.0
자영업	(335)	7.4	36.2	43.6	39.2	17.1	56.4	100.0
블루칼라	(247)	8.2	37.0	45.2	33.9	20.9	54.8	100.0
화이트칼라	(252)	7.9	38.4	46.3	37.5	16.2	53.7	100.0
전업주부	(211)	5.5	38.7	44.2	41.0	14.8	55.8	100.0
무직 / 기타	(140)	9.4	36.6	46.0	38.8	15.2	54.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9.3	39.0	48.4	33.1	18.6	51.6	100.0
200~299만원	(287)	8.0	39.0	47.0	38.5	14.4	53.0	100.0
300~399만원	(384)	7.7	35.0	42.7	40.6	16.7	57.3	100.0
400만원이상	(311)	6.4	38.0	44.4	37.6	18.0	55.6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3.8	23.8	43.8	32.4	76.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9	37.2	45.0	38.9	16.0	55.0	100.0
충청권	(117)	5.1	45.3	50.4	40.2	9.4	49.6	100.0
호남권	(116)	10.3	44.8	55.2	35.6	9.2	44.8	100.0
영남권	(314)	7.3	33.1	40.5	36.3	23.3	59.5	100.0
강원	(35)	2.9	34.3	37.1	37.1	25.7	62.9	100.0
제주	(13)	15.4	15.4	30.8	46.2	23.1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2	38.4	44.6	37.9	17.5	55.4	100.0
중·소도시	(541)	9.5	36.7	46.2	38.1	15.7	53.8	100.0
읍 / 면	(90)	5.6	34.4	39.9	38.9	21.1	60.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0.4	41.2	51.6	33.9	14.6	48.4	100.0
중도	(578)	6.2	38.4	44.6	39.0	16.3	55.4	100.0
보수적	(289)	7.3	30.6	37.9	41.0	21.1	62.1	100.0
■ 종교								
불교	(258)	9.6	40.5	50.1	32.2	17.7	49.9	100.0
기독교	(263)	8.3	38.0	46.2	39.0	14.7	53.8	100.0
천주교	(114)	6.8	40.9	47.7	35.6	16.7	52.3	100.0
기타	(7)	15.8	42.1	57.9	28.1	14.0	42.1	100.0
종교없음	(546)	6.5	34.3	40.8	41.2	18.0	59.2	100.0
무름 / 무응답	(13)	8.8	53.4	62.2	30.5	7.3	37.8	100.0

표17.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	%			
■ 전체	(1201)	28.3	50.0	78.3	18.1	3.6	21.7	.1	100.0
■ 성별									
남자	(611)	28.0	48.7	76.7	18.8	4.3	23.1	.2	100.0
여자	(590)	28.6	51.2	79.9	17.3	2.9	20.1	.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1.2	44.9	86.1	10.8	3.1	13.9	.0	100.0
30대	(290)	31.2	46.7	77.9	19.4	2.7	22.1	.0	100.0
40대	(306)	23.7	52.1	75.8	20.3	3.5	23.9	.3	100.0
50대이상	(346)	20.3	54.6	74.9	20.4	4.7	25.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9.9	52.7	72.5	21.8	5.7	27.5	.0	100.0
고졸	(510)	24.4	51.3	75.7	18.9	5.2	24.1	.2	100.0
대재이상	(565)	33.9	47.6	81.5	16.7	1.8	18.5	.0	100.0
무름 / 무응답	(14)	13.1	72.3	85.4	14.6	.0	14.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6.4	34.6	50.9	36.8	12.3	49.1	.0	100.0
자영업	(335)	23.6	54.3	77.9	19.7	2.1	21.8	.3	100.0
블루칼라	(247)	29.6	48.2	77.8	17.4	4.8	22.2	.0	100.0
화이트칼라	(252)	31.1	47.9	79.0	18.5	2.5	21.0	.0	100.0
전업주부	(211)	25.3	51.4	76.7	19.1	4.2	23.3	.0	100.0
무직 / 기타	(140)	38.2	45.9	84.2	10.7	5.1	15.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3.5	41.8	75.4	18.9	5.8	24.6	.0	100.0
200~299만원	(287)	24.0	54.6	78.7	18.1	2.9	21.0	.3	100.0
300~399만원	(384)	25.3	51.3	76.7	20.2	3.1	23.3	.0	100.0
400만원이상	(311)	32.0	49.7	81.7	14.8	3.5	18.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39.6	40.5	80.1	19.9	.0	19.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3.7	50.3	83.9	13.6	2.3	15.9	.2	100.0
충청권	(117)	26.5	54.3	80.8	18.4	.9	19.2	.0	100.0
호남권	(116)	25.6	46.0	71.6	22.4	6.0	28.4	.0	100.0
영남권	(314)	19.2	52.1	71.2	24.5	4.2	28.8	.0	100.0
강원	(35)	31.4	31.4	62.9	14.3	22.9	37.1	.0	100.0
제주	(13)	30.8	30.8	61.5	38.5	.0	38.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5.1	52.3	77.4	20.5	2.2	22.6	.0	100.0
중·소도시	(541)	31.7	47.3	79.1	15.2	5.5	20.7	.2	100.0
읍 / 면	(90)	27.8	51.0	78.9	20.0	1.1	21.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0.6	45.4	75.9	17.8	6.3	24.1	.0	100.0
중도	(578)	26.3	53.1	79.4	17.8	2.6	20.4	.2	100.0
보수적	(289)	29.7	49.0	78.7	18.9	2.4	21.3	.0	100.0
■ 종교									
불교	(258)	21.8	51.0	72.8	24.1	3.1	27.2	.0	100.0
기독교	(263)	35.1	48.1	83.2	14.1	2.7	16.8	.0	100.0
천주교	(114)	35.8	44.3	80.1	14.8	5.1	19.9	.0	100.0
기타	(7)	29.8	70.2	100.0	.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26.4	51.2	77.7	18.3	3.9	22.2	.2	100.0
무름 / 무응답	(13)	30.3	53.2	83.4	7.8	8.8	16.6	.0	100.0

표18-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5.5	19.7	33.6	41.2	100.0
■ 성별						
남자	(611)	9.8	25.8	34.1	30.4	100.0
여자	(590)	1.2	13.3	33.0	52.5	100.0
■ 연령별						
19~29세	(259)	9.0	17.9	30.5	42.6	100.0
30대	(290)	4.0	20.7	29.9	45.4	100.0
40대	(306)	5.4	21.5	37.4	35.6	100.0
50대이상	(346)	4.3	18.5	35.4	41.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7	11.5	30.8	56.0	100.0
고졸	(510)	3.2	17.9	33.9	45.1	100.0
대재이상	(565)	8.4	23.2	33.4	35.0	100.0
무름 / 무응답	(14)	7.1	6.9	50.9	35.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24.5	36.6	38.8	100.0
자영업	(335)	3.3	21.7	37.7	37.4	100.0
블루칼라	(247)	6.4	22.6	28.5	42.5	100.0
화이트칼라	(252)	8.6	19.3	35.8	36.3	100.0
전업주부	(211)	.9	11.3	33.1	54.6	100.0
무직 / 기타	(140)	11.5	22.4	28.8	37.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2	15.8	26.8	51.2	100.0
200~299만원	(287)	4.9	18.9	37.0	39.2	100.0
300~399만원	(384)	5.1	19.1	35.2	40.5	100.0
400만원이상	(311)	6.1	23.7	32.5	37.6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16.0	39.6	36.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4	22.2	29.0	40.4	100.0
충청권	(117)	2.6	9.4	45.7	42.3	100.0
호남권	(116)	5.2	20.7	27.6	46.6	100.0
영남권	(314)	1.9	18.1	41.3	38.8	100.0
강원	(35)	2.9	22.9	25.7	48.6	100.0
제주	(13)	.0	15.4	23.1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8	20.9	34.4	38.9	100.0
중·소도시	(541)	5.8	19.3	32.6	42.3	100.0
읍 / 면	(90)	2.2	14.5	33.4	49.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9.3	24.8	33.8	32.2	100.0
중도	(578)	3.1	17.5	33.9	45.6	100.0
보수적	(289)	6.1	18.2	32.7	43.0	100.0
■ 종교						
불교	(258)	3.5	23.3	32.5	40.7	100.0
기독교	(263)	6.4	20.2	35.8	37.6	100.0
천주교	(114)	6.9	15.6	30.4	47.1	100.0
기타	(7)	.0	.0	57.9	42.1	100.0
종교없음	(546)	6.0	18.6	33.5	41.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0.2	23.6	46.1	100.0

표18-2. 북한 사회 인지도 - ④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10.2	32.2	40.8	16.8	100.0
■ 성별						
남자	(611)	14.7	35.3	38.4	11.6	100.0
여자	(590)	5.6	29.0	43.2	22.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1.3	28.7	38.4	21.6	100.0
30대	(290)	10.2	33.0	37.5	19.4	100.0
40대	(306)	12.6	39.0	38.9	9.4	100.0
50대 이상	(346)	7.3	28.2	46.9	17.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5	16.9	52.4	27.2	100.0
고졸	(510)	6.3	31.9	43.6	18.3	100.0
대재이상	(565)	15.2	35.9	35.7	13.2	100.0
무름 / 무응답	(14)	7.1	21.5	48.5	22.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36.6	38.8	24.5	100.0
자영업	(335)	10.7	34.8	40.5	14.0	100.0
블루칼라	(247)	10.1	31.4	40.1	18.4	100.0
화이트칼라	(252)	13.8	35.4	37.4	13.5	100.0
전업주부	(211)	2.8	28.2	47.5	21.5	100.0
무직 / 기타	(140)	15.1	27.3	39.0	18.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8	25.2	41.2	25.7	100.0
200~299만원	(287)	8.4	31.7	44.9	15.1	100.0
300~399만원	(384)	10.9	30.6	43.0	15.5	100.0
400만원이상	(311)	12.1	40.1	34.3	13.5	100.0
무름 / 무응답	(13)	23.6	16.0	32.0	28.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2.8	33.9	37.4	15.9	100.0
충청권	(117)	9.4	33.3	45.7	11.5	100.0
호남권	(116)	12.1	26.7	37.9	23.3	100.0
영남권	(314)	4.9	32.0	45.1	18.0	100.0
강원	(35)	8.6	25.7	48.6	17.1	100.0
제주	(13)	15.4	15.4	53.8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0.2	36.7	37.9	15.2	100.0
중·소도시	(541)	10.7	30.2	40.8	18.3	100.0
읍 / 면	(90)	7.8	15.6	58.8	1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8.2	34.5	34.8	12.5	100.0
중도	(578)	5.5	30.8	44.5	19.3	100.0
보수적	(289)	10.3	32.5	40.4	16.8	100.0
■ 종교						
불교	(258)	8.1	36.4	41.2	14.2	100.0
기독교	(263)	14.0	33.1	42.8	10.1	100.0
천주교	(114)	11.3	33.1	33.9	21.7	100.0
기타	(7)	14.0	14.0	57.9	14.0	100.0
종교없음	(546)	9.2	29.7	41.2	19.9	100.0
무름 / 무응답	(13)	7.5	38.0	23.9	30.5	100.0

표18-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7.6	28.2	38.0	26.2	100.0
■ 성별						
남자	(611)	9.0	33.7	35.8	21.5	100.0
여자	(590)	6.1	22.4	40.4	31.1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9	19.8	34.0	40.4	100.0
30대	(290)	3.8	25.3	37.5	33.4	100.0
40대	(306)	11.7	37.5	37.2	13.6	100.0
50대이상	(346)	8.5	28.6	42.2	2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6	19.8	44.3	33.3	100.0
고졸	(510)	5.3	26.5	41.3	26.9	100.0
대재이상	(565)	10.8	32.0	33.1	24.1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69.8	3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42.9	32.7	24.4	100.0
자영업	(335)	10.4	30.9	42.4	16.3	100.0
블루칼라	(247)	5.7	26.3	35.8	32.2	100.0
화이트칼라	(252)	6.3	33.4	35.1	25.2	100.0
전업주부	(211)	6.6	21.6	40.4	31.3	100.0
무직 / 기타	(140)	8.7	23.6	33.7	33.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4	22.6	34.1	37.9	100.0
200~299만원	(287)	8.0	25.1	41.5	25.4	100.0
300~399만원	(384)	8.0	27.7	39.5	24.9	100.0
400만원이상	(311)	8.1	35.8	35.3	20.9	100.0
무름 / 무응답	(13)	8.1	15.7	48.1	28.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4	29.2	34.5	27.9	100.0
충청권	(117)	7.7	29.1	42.3	20.9	100.0
호남권	(116)	6.9	21.6	38.2	33.3	100.0
영남권	(314)	5.5	29.4	42.3	22.8	100.0
강원	(35)	11.4	25.7	42.9	20.0	100.0
제주	(13)	15.4	7.7	46.2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6	29.5	38.7	24.2	100.0
중·소도시	(541)	7.9	28.3	36.5	27.4	100.0
읍 / 면	(90)	5.6	18.9	43.3	3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1.4	31.1	35.7	21.8	100.0
중도	(578)	5.0	25.9	41.1	28.0	100.0
보수적	(289)	8.2	29.3	34.6	27.9	100.0
■ 종교						
불교	(258)	7.7	35.2	37.0	20.1	100.0
기독교	(263)	10.2	28.5	38.6	22.6	100.0
천주교	(114)	11.4	25.3	37.3	26.0	100.0
기타	(7)	.0	14.0	56.1	29.8	100.0
종교없음	(546)	5.7	25.4	38.1	30.7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0.3	39.0	30.7	100.0

표18-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5.5	18.4	35.8	40.3	100.0
■ 성별						
남자	(611)	7.2	22.0	37.0	33.8	100.0
여자	(590)	3.8	14.6	34.4	47.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1	10.1	32.9	51.9	100.0
30대	(290)	2.7	16.5	34.6	46.2	100.0
40대	(306)	7.2	26.5	36.6	29.8	100.0
50대 이상	(346)	6.7	19.0	38.1	36.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	17.1	35.0	46.1	100.0
고졸	(510)	4.5	17.8	36.7	40.9	100.0
대재이상	(565)	7.3	19.5	34.9	38.2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40.8	59.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8.4	51.1	30.5	100.0
자영업	(335)	7.1	21.1	38.6	33.2	100.0
블루칼라	(247)	6.2	19.1	35.2	39.5	100.0
화이트칼라	(252)	4.8	20.7	33.1	41.5	100.0
전업주부	(211)	2.4	15.1	35.2	47.4	100.0
무직 / 기타	(140)	7.2	11.4	33.9	4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9	10.6	34.5	48.1	100.0
200~299만원	(287)	5.3	18.2	37.7	38.8	100.0
300~399만원	(384)	5.2	18.0	36.6	40.3	100.0
400만원이상	(311)	5.5	24.6	34.0	35.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9	31.7	6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1	21.5	33.6	37.8	100.0
충청권	(117)	3.4	15.4	41.0	40.2	100.0
호남권	(116)	5.2	12.9	31.3	50.6	100.0
영남권	(314)	3.0	16.4	39.4	41.3	100.0
강원	(35)	8.6	11.4	40.0	40.0	100.0
제주	(13)	7.7	15.4	30.8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7	20.3	32.9	41.2	100.0
중·소도시	(541)	5.7	17.6	39.8	37.0	100.0
읍 / 면	(90)	3.3	11.1	30.0	55.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9.7	24.2	34.0	32.1	100.0
중도	(578)	3.0	15.9	35.6	45.6	100.0
보수적	(289)	5.8	16.6	38.2	39.4	100.0
■ 종교						
불교	(258)	4.7	22.1	33.7	39.5	100.0
기독교	(263)	6.8	23.1	37.4	32.7	100.0
천주교	(114)	7.0	21.8	27.0	44.3	100.0
기타	(7)	.0	14.0	57.9	28.1	100.0
종교없음	(546)	5.2	13.8	37.1	44.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5.1	54.2	30.7	100.0

표18-5.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1)	2.7	10.2	26.2	60.8	.1	100.0
■ 성별							
남자	(611)	3.3	12.4	28.9	55.4	.0	100.0
여자	(590)	2.0	7.9	23.4	66.5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3	4.2	24.8	68.6	.0	100.0
30대	(290)	1.0	6.9	25.1	66.6	.3	100.0
40대	(306)	3.2	13.3	28.9	54.6	.0	100.0
50대이상	(346)	3.9	14.7	25.8	55.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	10.6	18.9	68.7	.0	100.0
고졸	(510)	1.8	9.1	29.0	59.9	.2	100.0
대재이상	(565)	3.7	11.4	24.7	60.2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0	43.3	56.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0	24.4	75.6	.0	100.0
자영업	(335)	2.7	13.1	29.8	54.4	.0	100.0
블루칼라	(247)	3.7	9.4	27.9	59.0	.0	100.0
화이트칼라	(252)	2.7	12.1	22.3	62.8	.0	100.0
전업주부	(211)	.9	8.5	21.8	68.3	.5	100.0
무직 / 기타	(140)	3.6	5.0	28.8	62.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1	9.6	23.7	63.6	.0	100.0
200~299만원	(287)	3.5	9.7	30.1	56.6	.0	100.0
300~399만원	(384)	2.0	9.8	25.8	62.4	.0	100.0
400만원이상	(311)	2.5	11.6	25.6	60.0	.3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9	7.9	84.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1	11.9	26.5	57.4	.2	100.0
충청권	(117)	2.6	3.4	23.9	70.1	.0	100.0
호남권	(116)	.9	4.3	14.7	80.2	.0	100.0
영남권	(314)	1.1	11.3	31.7	56.0	.0	100.0
강원	(35)	.0	14.3	20.0	65.7	.0	100.0
제주	(13)	.0	7.7	23.1	69.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0	12.0	23.0	62.0	.0	100.0
중·소도시	(541)	2.8	8.9	29.4	58.7	.2	100.0
읍 / 면	(90)	.0	6.7	27.7	6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9	12.2	29.6	53.0	.3	100.0
중도	(578)	1.0	8.7	23.8	66.5	.0	100.0
보수적	(289)	3.4	11.0	27.2	58.4	.0	100.0
■ 종교							
불교	(258)	1.9	14.9	23.8	59.3	.0	100.0
기독교	(263)	3.8	10.3	27.0	58.9	.0	100.0
천주교	(114)	2.6	10.4	16.5	69.6	.9	100.0
기타	(7)	.0	.0	71.9	28.1	.0	100.0
종교없음	(546)	2.6	8.0	28.2	61.2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5	38.8	53.7	.0	100.0

표18-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5.5	18.7	40.2	35.6	100.0
■ 성별						
남자	(611)	6.9	21.1	39.2	32.9	100.0
여자	(590)	4.1	16.2	41.3	38.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7	11.3	33.7	50.4	100.0
30대	(290)	3.4	17.5	40.6	38.5	100.0
40대	(306)	7.8	24.3	41.9	26.0	100.0
50대 이상	(346)	5.9	20.2	43.3	3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5	18.9	33.5	44.1	100.0
고졸	(510)	3.9	16.9	44.2	35.0	100.0
대재이상	(565)	7.3	20.6	38.0	34.1	100.0
무름 / 무응답	(14)	7.1	7.1	36.1	49.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6.1	67.3	20.4	100.0
자영업	(335)	5.0	21.4	40.3	33.3	100.0
블루칼라	(247)	7.0	19.9	37.4	35.7	100.0
화이트칼라	(252)	6.8	18.9	40.7	33.6	100.0
전업주부	(211)	3.3	17.0	40.6	39.2	100.0
무직 / 기타	(140)	5.0	13.7	40.3	4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8.3	13.1	38.6	40.0	100.0
200~299만원	(287)	5.6	16.8	37.1	40.6	100.0
300~399만원	(384)	4.4	19.1	43.7	32.8	100.0
400만원이상	(311)	5.1	23.8	39.2	31.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6.0	55.5	28.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7	23.5	37.0	32.8	100.0
충청권	(117)	1.7	12.8	45.3	40.2	100.0
호남권	(116)	10.3	11.2	36.2	42.2	100.0
영남권	(314)	2.7	14.6	46.8	35.9	100.0
강원	(35)	8.6	17.1	31.4	42.9	100.0
제주	(13)	.0	15.4	46.2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0	20.2	41.4	32.4	100.0
중·소도시	(541)	5.2	18.1	41.2	35.5	100.0
읍 / 면	(90)	4.5	12.2	26.6	5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5	21.7	38.9	31.0	100.0
중도	(578)	2.8	18.7	41.1	37.5	100.0
보수적	(289)	7.6	15.3	40.0	37.2	100.0
■ 종교						
불교	(258)	5.8	21.4	41.4	31.4	100.0
기독교	(263)	7.6	21.7	38.9	31.8	100.0
천주교	(114)	6.1	21.7	30.4	41.8	100.0
기타	(7)	14.0	.0	57.9	28.1	100.0
종교없음	(546)	4.1	15.5	42.3	38.2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22.7	31.4	38.3	100.0

표19-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1)	4.3	95.7	100.0
■ 성별				
남자	(611)	6.4	93.6	100.0
여자	(590)	2.0	98.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7	95.3	100.0
30대	(290)	.7	99.3	100.0
40대	(306)	4.2	95.8	100.0
50대이상	(346)	7.1	9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6	94.4	100.0
고졸	(510)	3.0	97.0	100.0
대재이상	(565)	5.3	94.7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8.4	81.6	100.0
자영업	(335)	4.8	95.2	100.0
블루칼라	(247)	2.4	97.6	100.0
화이트칼라	(252)	4.7	95.3	100.0
전업주부	(211)	2.0	98.0	100.0
무직 / 기타	(140)	7.3	92.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4	94.6	100.0
200~299만원	(287)	2.9	97.1	100.0
300~399만원	(384)	3.6	96.4	100.0
400만원이상	(311)	5.8	94.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4	95.6	100.0
충청권	(117)	6.0	94.0	100.0
호남권	(116)	5.2	94.8	100.0
영남권	(314)	2.5	97.5	100.0
강원	(35)	8.6	91.4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3	96.7	100.0
중·소도시	(541)	4.9	95.1	100.0
읍 / 면	(90)	6.7	9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1	93.9	100.0
중도	(578)	2.6	97.4	100.0
보수적	(289)	5.5	94.5	100.0
■ 종교				
불교	(258)	3.4	96.6	100.0
기독교	(263)	3.9	96.1	100.0
천주교	(114)	7.1	92.9	100.0
기타	(7)	.0	100.0	100.0
종교없음	(546)	4.2	95.8	100.0
무름 / 무응답	(13)	8.8	91.2	100.0

표19-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1)		16.2		83.8		100.0
■ 성별							
남자	(611)		17.2		82.8		100.0
여자	(590)		15.2		84.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5.2		84.8		100.0
30대	(290)		12.8		87.2		100.0
40대	(306)		18.7		81.3		100.0
50대이상	(346)		17.5		8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9.0		81.0		100.0
고졸	(510)		14.1		85.9		100.0
대재이상	(565)		17.8		82.2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92.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1		87.9		100.0
자영업	(335)		17.2		82.8		100.0
블루칼라	(247)		15.0		85.0		100.0
화이트칼라	(252)		19.4		80.6		100.0
전업주부	(211)		12.2		87.8		100.0
무직 / 기타	(140)		16.7		83.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1.3		78.7		100.0
200~299만원	(287)		12.0		88.0		100.0
300~399만원	(384)		13.2		86.8		100.0
400만원이상	(311)		19.8		80.2		100.0
무름 / 무응답	(13)		31.7		68.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9.0		81.0		100.0
충청권	(117)		17.9		82.1		100.0
호남권	(116)		14.7		85.3		100.0
영남권	(314)		9.4		90.6		100.0
강원	(35)		28.6		71.4		100.0
제주	(13)		15.4		84.6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2.7		87.3		100.0
중·소도시	(541)		21.2		78.8		100.0
읍 / 면	(90)		8.9		9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0.5		79.5		100.0
중도	(578)		13.5		86.5		100.0
보수적	(289)		16.8		83.2		100.0
■ 종교							
불교	(258)		16.5		83.5		100.0
기독교	(263)		20.9		79.1		100.0
천주교	(114)		18.4		81.6		100.0
기타	(7)		.0		100.0		100.0
종교없음	(546)		13.0		87.0		100.0
무름 / 무응답	(13)		38.8		61.2		100.0

표19-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1)	31.5		68.5		100.0
■ 성별						
남자	(611)	32.9		67.1		100.0
여자	(590)	30.1		69.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4.1		65.9		100.0
30대	(290)	31.0		69.0		100.0
40대	(306)	34.3		65.7		100.0
50대이상	(346)	27.5		7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7.1		72.9		100.0
고졸	(510)	28.2		71.8		100.0
대재이상	(565)	36.0		64.0		100.0
무름 / 무응답	(14)	4.9		95.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8.5		71.5		100.0
자영업	(335)	29.6		70.4		100.0
블루칼라	(247)	32.7		67.3		100.0
화이트칼라	(252)	32.2		67.8		100.0
전업주부	(211)	27.7		72.3		100.0
무직 / 기타	(140)	38.9		6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9.4		70.6		100.0
200~299만원	(287)	32.4		67.6		100.0
300~399만원	(384)	31.0		69.0		100.0
400만원이상	(311)	33.0		67.0		100.0
무름 / 무응답	(13)	23.6		76.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0.5		69.5		100.0
충청권	(117)	20.5		79.5		100.0
호남권	(116)	34.2		65.8		100.0
영남권	(314)	36.9		63.1		100.0
강원	(35)	28.6		71.4		100.0
제주	(13)	30.8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1.1		68.9		100.0
중·소도시	(541)	32.8		67.2		100.0
읍 / 면	(90)	26.7		7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9.7		60.3		100.0
중도	(578)	25.9		74.1		100.0
보수적	(289)	33.4		66.6		100.0
■ 종교						
불교	(258)	32.2		67.8		100.0
기독교	(263)	33.2		66.8		100.0
천주교	(114)	35.7		64.3		100.0
기타	(7)	42.1		57.9		100.0
종교없음	(546)	29.2		70.8		100.0
무름 / 무응답	(13)	38.6		61.4		100.0

표19-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1)		2.0		98.0		100.0
■ 성별							
남자	(611)		2.7		97.3		100.0
여자	(590)		1.2		98.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1		96.9		100.0
30대	(290)		1.7		98.3		100.0
40대	(306)		1.3		98.7		100.0
50대이상	(346)		1.9		9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0		99.0		100.0
고졸	(510)		1.4		98.6		100.0
대재이상	(565)		2.7		97.3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00.0		100.0
자영업	(335)		1.5		98.5		100.0
블루칼라	(247)		1.8		98.2		100.0
화이트칼라	(252)		2.4		97.6		100.0
전업주부	(211)		1.4		98.6		100.0
무직 / 기타	(140)		3.7		96.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0		95.0		100.0
200~299만원	(287)		1.8		98.2		100.0
300~399만원	(384)		.8		99.2		100.0
400만원이상	(311)		1.3		98.7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92.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4		97.6		100.0
충청권	(117)		.9		99.1		100.0
호남권	(116)		1.7		98.3		100.0
영남권	(314)		2.0		98.0		100.0
강원	(35)		.0		100.0		100.0
제주	(13)		.0		100.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5		98.5		100.0
중·소도시	(541)		2.6		97.4		100.0
읍 / 면	(90)		1.1		98.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1		95.9		100.0
중도	(578)		1.4		98.6		100.0
보수적	(289)		.7		99.3		100.0
■ 종교							
불교	(258)		2.3		97.7		100.0
기독교	(263)		2.3		97.7		100.0
천주교	(114)		2.6		97.4		100.0
기타	(7)		.0		100.0		100.0
종교없음	(546)		1.2		98.8		100.0
무름 / 무응답	(13)		16.4		83.6		100.0

표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 전체	(1201)	73.9	20.0	93.9	4.7	1.5	6.1	100.0
■ 성별								
남자	(611)	75.3	18.3	93.6	4.3	2.1	6.4	100.0
여자	(590)	72.4	21.7	94.1	5.0	8	5.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7.8	24.0	91.9	5.4	2.7	8.1	100.0
30대	(290)	76.1	19.4	95.5	3.2	1.3	4.5	100.0
40대	(306)	76.5	17.9	94.5	4.6	1.0	5.5	100.0
50대이상	(346)	74.2	19.2	93.4	5.4	1.1	6.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71.5	19.9	91.4	7.7	.9	8.6	100.0
고졸	(510)	70.4	22.7	93.1	4.5	2.3	6.9	100.0
대재이상	(565)	77.7	17.3	95.0	4.1	.9	5.0	100.0
무름 / 무응답	(14)	63.7	29.0	92.7	7.3	.0	7.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87.7	12.3	100.0	.0	.0	.0	100.0
자영업	(335)	79.9	16.5	96.4	2.1	1.5	3.6	100.0
블루칼라	(247)	67.7	24.3	91.9	5.3	2.8	8.1	100.0
화이트칼라	(252)	77.6	18.9	96.5	2.8	.8	3.5	100.0
전업주부	(211)	66.3	23.6	90.0	9.5	.5	10.0	100.0
무직 / 기타	(140)	73.4	18.0	91.4	6.4	2.2	8.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3.2	18.1	91.2	6.4	2.4	8.8	100.0
200~299만원	(287)	70.6	22.7	93.2	5.4	1.4	6.8	100.0
300~399만원	(384)	74.1	19.6	93.8	5.2	1.0	6.2	100.0
400만원이상	(311)	76.7	19.4	96.1	2.3	1.6	3.9	100.0
무름 / 무응답	(13)	84.0	16.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9.1	14.7	93.8	3.9	2.3	6.2	100.0
충청권	(117)	74.4	21.4	95.7	3.4	.9	4.3	100.0
호남권	(116)	75.0	20.7	95.7	4.3	.0	4.3	100.0
영남권	(314)	62.0	29.9	91.9	7.1	1.0	8.1	100.0
강원	(35)	80.0	17.1	97.1	2.9	.0	2.9	100.0
제주	(13)	84.6	15.4	100.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1.4	22.1	93.6	5.2	1.2	6.4	100.0
중·소도시	(541)	76.9	17.5	94.4	3.5	2.0	5.6	100.0
읍 / 면	(90)	71.1	21.1	92.2	7.8	.0	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74.3	19.1	93.4	5.4	1.2	6.6	100.0
중도	(578)	71.2	22.2	93.4	4.9	1.7	6.6	100.0
보수적	(289)	78.8	16.5	95.3	3.3	1.4	4.7	100.0
■ 종교								
불교	(258)	65.3	25.7	91.0	6.7	2.3	9.0	100.0
기독교	(263)	77.2	18.0	95.2	3.3	1.5	4.8	100.0
천주교	(114)	82.6	12.2	94.8	2.6	2.6	5.2	100.0
기타	(7)	86.0	14.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74.3	20.2	94.5	4.6	.9	5.5	100.0
무름 / 무응답	(13)	77.1	7.3	84.4	15.6	.0	15.6	100.0

표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1)	83.4	13.2	96.6	2.3	1.1	3.4	100.0
■ 성별								
남자	(611)	83.6	12.6	96.2	2.5	1.3	3.8	100.0
여자	(590)	83.1	13.9	97.0	2.2	.8	3.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79.9	14.3	94.2	3.5	2.3	5.8	100.0
30대	(290)	85.2	11.7	96.9	2.1	1.0	3.1	100.0
40대	(306)	86.3	11.8	98.1	1.3	.6	1.9	100.0
50대이상	(346)	81.9	15.0	96.8	2.6	.6	3.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79.0	14.8	93.8	4.4	1.8	6.2	100.0
고졸	(510)	80.4	16.4	96.9	2.0	1.2	3.1	100.0
대재이상	(565)	87.2	9.6	96.8	2.3	.9	3.2	100.0
무름 / 무응답	(14)	71.0	29.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00.0	.0	100.0	.0	.0	.0	100.0
자영업	(335)	87.1	11.0	98.1	1.3	.6	1.9	100.0
블루칼라	(247)	78.0	16.3	94.4	3.6	2.0	5.6	100.0
화이트칼라	(252)	87.1	10.2	97.3	2.0	.7	2.7	100.0
전업주부	(211)	77.8	18.0	95.8	3.3	.9	4.2	100.0
무직 / 기타	(140)	83.5	12.9	96.4	2.2	1.4	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9.8	13.9	93.8	3.3	2.9	6.2	100.0
200~299만원	(287)	81.1	14.8	95.8	3.5	.7	4.2	100.0
300~399만원	(384)	84.0	13.5	97.4	1.8	.7	2.6	100.0
400만원이상	(311)	86.7	11.3	98.0	1.4	.6	2.0	100.0
무름 / 무응답	(13)	92.1	7.9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6.4	10.0	96.4	2.0	1.6	3.6	100.0
충청권	(117)	82.1	17.1	99.1	.9	.0	.9	100.0
호남권	(116)	84.8	14.4	99.1	.9	.0	.9	100.0
영남권	(314)	76.9	18.0	94.9	4.2	.9	5.1	100.0
강원	(35)	82.9	14.3	97.1	2.9	.0	2.9	100.0
제주	(13)	100.0	.0	100.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81.2	15.1	96.3	2.7	1.0	3.7	100.0
중·소도시	(541)	85.5	11.6	97.1	1.7	1.3	2.9	100.0
읍 / 면	(90)	84.4	11.1	95.5	4.5	.0	4.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1.3	14.3	95.6	3.6	.9	4.4	100.0
중도	(578)	83.2	13.4	96.7	1.9	1.4	3.3	100.0
보수적	(289)	86.0	11.6	97.6	1.7	.6	2.4	100.0
■ 종교								
불교	(258)	78.5	17.2	95.7	3.6	.7	4.3	100.0
기독교	(263)	85.5	11.5	97.0	1.9	1.1	3.0	100.0
천주교	(114)	87.8	7.8	95.6	2.6	1.7	4.4	100.0
기타	(7)	100.0	.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83.4	13.5	96.9	2.0	1.1	3.1	100.0
무름 / 무응답	(13)	84.9	15.1	100.0	.0	.0	.0	100.0

표20-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역사인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 전체	(1201)	52.0	36.3	88.3	10.2	1.3	11.6	.1	100.0
■ 성별									
남자	(611)	50.3	37.7	88.0	10.4	1.6	12.0	.0	100.0
여자	(590)	53.8	34.8	88.7	10.1	1.0	11.2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6.6	38.0	84.6	12.0	3.5	15.4	.0	100.0
30대	(290)	55.8	32.1	87.8	11.1	.7	11.8	.3	100.0
40대	(306)	55.9	35.6	91.5	7.1	1.3	8.5	.0	100.0
50대이상	(346)	49.5	39.3	88.7	11.0	.3	11.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5.7	42.7	88.5	10.7	.9	11.5	.0	100.0
고졸	(510)	48.8	38.8	87.6	10.2	2.0	12.2	.2	100.0
대재이상	(565)	55.9	32.8	88.7	10.4	.9	11.3	.0	100.0
무름 / 무응답	(14)	63.9	36.1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1.1	42.8	93.9	6.1	.0	6.1	.0	100.0
자영업	(335)	56.0	34.9	90.9	8.2	.9	9.1	.0	100.0
블루칼라	(247)	50.5	35.3	85.9	11.7	2.4	14.1	.0	100.0
화이트칼라	(252)	52.2	36.4	88.6	11.0	.4	11.4	.0	100.0
전업주부	(211)	48.3	40.8	89.1	10.0	.5	10.4	.5	100.0
무직 / 기타	(140)	50.5	33.8	84.3	12.1	3.6	15.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4.8	33.1	87.9	9.7	2.4	12.1	.0	100.0
200~299만원	(287)	45.9	39.4	85.3	13.0	1.7	14.7	.0	100.0
300~399만원	(384)	52.6	38.6	91.2	8.0	.8	8.8	.0	100.0
400만원이상	(311)	54.2	33.6	87.8	11.0	1.0	11.9	.3	100.0
무름 / 무응답	(13)	76.4	15.7	92.1	7.9	.0	7.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7.3	33.8	91.1	7.0	1.7	8.7	.2	100.0
충청권	(117)	57.7	37.2	94.9	4.3	.9	5.1	.0	100.0
호남권	(116)	55.5	35.9	91.4	8.6	.0	8.6	.0	100.0
영남권	(314)	38.7	41.4	80.1	18.3	1.6	19.9	.0	100.0
강원	(35)	45.7	34.3	80.0	20.0	.0	20.0	.0	100.0
제주	(13)	61.5	30.8	92.3	7.7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6.3	39.4	85.7	12.7	1.6	14.3	.0	100.0
중·소도시	(541)	57.1	33.3	90.4	8.1	1.3	9.4	.2	100.0
읍 / 면	(90)	57.7	34.5	92.2	7.8	.0	7.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2.7	35.4	88.1	11.0	.6	11.6	.3	100.0
중도	(578)	51.5	36.0	87.5	10.7	1.7	12.5	.0	100.0
보수적	(289)	52.2	38.0	90.2	8.4	1.4	9.8	.0	100.0
■ 종교									
불교	(258)	45.1	38.2	83.3	15.1	1.5	16.7	.0	100.0
기독교	(263)	60.2	31.4	91.6	7.2	1.2	8.4	.0	100.0
천주교	(114)	51.2	33.9	85.1	12.2	1.7	14.0	.9	100.0
기타	(7)	28.1	56.1	84.2	.0	15.8	15.8	.0	100.0
종교없음	(546)	51.6	38.2	89.7	9.2	1.1	10.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61.9	30.5	92.5	7.5	.0	7.5	.0	100.0

표2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01)	41.5	49.2	90.7	8.0	1.1	9.1	.2	100.0
■ 성별									
남자	(611)	37.1	51.8	88.9	9.4	1.3	10.7	.3	100.0
여자	(590)	46.1	46.4	92.6	6.6	.9	7.4	.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9.2	47.2	86.4	11.7	1.9	13.6	.0	100.0
30대	(290)	40.6	51.9	92.5	6.8	.7	7.5	.0	100.0
40대	(306)	42.0	50.2	92.2	7.1	.7	7.8	.0	100.0
50대이상	(346)	43.7	47.5	91.2	7.1	1.1	8.3	.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3.6	46.9	90.6	5.0	2.6	7.7	1.8	100.0
고졸	(510)	42.7	47.1	89.8	8.6	1.6	10.2	.0	100.0
대재이상	(565)	40.1	51.5	91.5	8.1	.3	8.5	.0	100.0
무름 / 무응답	(14)	41.0	51.7	92.7	7.3	.0	7.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0.9	42.9	93.9	.0	.0	.0	6.1	100.0
자영업	(335)	44.1	48.8	93.0	5.8	1.2	7.0	.0	100.0
블루칼라	(247)	39.9	49.2	89.1	8.9	1.6	10.5	.4	100.0
화이트칼라	(252)	39.9	49.4	89.4	10.3	.4	10.6	.0	100.0
전업주부	(211)	41.3	50.2	91.5	7.6	.9	8.5	.0	100.0
무직 / 기타	(140)	40.4	48.8	89.2	9.4	1.4	10.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5.9	44.1	90.0	6.2	2.9	9.0	1.0	100.0
200~299만원	(287)	42.8	46.4	89.3	10.4	.3	10.7	.0	100.0
300~399만원	(384)	39.2	52.5	91.6	7.5	.8	8.4	.0	100.0
400만원이상	(311)	39.3	51.7	91.0	8.0	1.0	9.0	.0	100.0
무름 / 무응답	(13)	68.6	31.4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3.1	47.3	90.4	7.6	1.8	9.4	.2	100.0
충청권	(117)	43.2	51.7	94.9	5.1	.0	5.1	.0	100.0
호남권	(116)	43.4	50.9	94.3	4.9	.0	4.9	.9	100.0
영남권	(314)	37.2	51.7	88.9	10.5	.6	11.1	.0	100.0
강원	(35)	28.6	60.0	88.6	11.4	.0	11.4	.0	100.0
제주	(13)	76.9	7.7	84.6	15.4	.0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9.7	50.1	89.8	8.8	1.2	10.0	.2	100.0
중·소도시	(541)	42.2	49.2	91.4	7.3	1.1	8.4	.2	100.0
읍 / 면	(90)	48.8	43.4	92.2	7.8	.0	7.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9.0	50.6	89.5	9.6	.6	10.2	.3	100.0
중도	(578)	41.3	48.9	90.2	8.2	1.4	9.6	.2	100.0
보수적	(289)	45.0	48.1	93.1	5.9	1.1	6.9	.0	100.0
■ 종교									
불교	(258)	39.3	49.9	89.2	9.6	.8	10.4	.4	100.0
기독교	(263)	45.3	45.6	90.9	8.4	.8	9.1	.0	100.0
천주교	(114)	50.4	39.1	89.5	7.8	2.6	10.5	.0	100.0
기타	(7)	42.1	42.1	84.2	.0	15.8	15.8	.0	100.0
종교없음	(546)	38.8	52.7	91.5	7.4	.9	8.3	.2	100.0
무름 / 무응답	(13)	46.8	53.2	100.0	.0	.0	.0	.0	100.0

표2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	%
■ 전체	(1201)	43.7	44.6	88.3	10.0	1.6	11.6	.1	100.0
■ 성별									
남자	(611)	41.7	44.8	86.4	11.3	2.3	13.6	.0	100.0
여자	(590)	45.7	44.5	90.2	8.8	.9	9.6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8.3	47.7	86.0	10.9	3.1	14.0	.0	100.0
30대	(290)	41.1	46.9	88.0	11.0	1.0	12.0	.0	100.0
40대	(306)	43.0	45.1	88.0	10.3	1.7	12.0	.0	100.0
50대이상	(346)	50.5	40.0	90.5	8.4	.9	9.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2.0	39.9	92.0	7.1	.9	8.0	.0	100.0
고졸	(510)	45.9	41.9	87.9	9.4	2.6	11.9	.2	100.0
대재이상	(565)	39.7	48.0	87.6	11.5	.9	12.4	.0	100.0
무름 / 무응답	(14)	55.5	44.5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3.2	36.8	100.0	.0	.0	.0	.0	100.0
자영업	(335)	45.6	43.9	89.6	8.9	1.5	10.4	.0	100.0
블루칼라	(247)	42.9	44.6	87.5	10.1	2.4	12.5	.0	100.0
화이트칼라	(252)	40.3	46.4	86.6	11.8	1.6	13.4	.0	100.0
전업주부	(211)	47.2	42.4	89.6	9.5	.5	9.9	.5	100.0
무직 / 기타	(140)	38.9	47.4	86.3	11.5	2.2	13.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1.1	42.6	93.7	4.4	1.9	6.3	.0	100.0
200~299만원	(287)	42.0	43.5	85.4	13.5	1.0	14.6	.0	100.0
300~399만원	(384)	44.9	42.6	87.5	9.8	2.4	12.2	.3	100.0
400만원이상	(311)	38.1	50.0	88.1	10.9	1.0	11.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60.4	31.7	92.1	7.9	.0	7.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6.2	43.0	89.2	8.2	2.5	10.7	.2	100.0
충청권	(117)	50.4	44.4	94.9	4.3	.9	5.1	.0	100.0
호남권	(116)	39.1	50.6	89.7	10.3	.0	10.3	.0	100.0
영남권	(314)	39.6	45.3	85.0	14.1	1.0	15.0	.0	100.0
강원	(35)	25.7	48.6	74.3	25.7	.0	25.7	.0	100.0
제주	(13)	53.8	38.5	92.3	7.7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2.5	43.4	86.0	11.9	1.9	13.9	.2	100.0
중·소도시	(541)	44.4	45.5	89.9	8.8	1.3	10.1	.0	100.0
읍 / 면	(90)	46.6	46.7	93.3	5.6	1.1	6.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9.8	45.6	85.4	12.8	1.8	14.6	.0	100.0
중도	(578)	44.9	43.9	88.8	9.5	1.5	11.1	.2	100.0
보수적	(289)	45.7	45.0	90.6	7.9	1.4	9.4	.0	100.0
■ 종교									
불교	(258)	43.7	41.1	84.8	13.6	1.5	15.2	.0	100.0
기독교	(263)	41.5	49.3	90.9	7.6	1.5	9.1	.0	100.0
천주교	(114)	48.7	37.4	86.1	12.2	1.7	13.9	.0	100.0
기타	(7)	42.1	42.1	84.2	.0	15.8	15.8	.0	100.0
종교없음	(546)	43.6	45.5	89.1	9.3	1.5	10.7	.2	100.0
무름 / 무응답	(13)	47.0	45.4	92.4	7.6	.0	7.6	.0	100.0

표2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01)	71.6	21.9	93.6	4.9	1.3	6.3	.2	100.0
■ 성별									
남자	(611)	70.6	22.0	92.6	5.6	1.8	7.4	.0	100.0
여자	(590)	72.7	21.9	94.6	4.2	.9	5.1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9.4	23.2	92.6	5.8	1.5	7.4	.0	100.0
30대	(290)	73.7	21.0	94.8	3.9	1.0	4.9	.3	100.0
40대	(306)	74.3	19.2	93.5	4.8	1.7	6.5	.0	100.0
50대이상	(346)	69.2	24.2	93.4	5.2	1.2	6.4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72.6	22.9	95.5	3.6	.9	4.5	.0	100.0
고졸	(510)	69.5	22.7	92.1	5.3	2.4	7.7	.2	100.0
대재이상	(565)	73.4	21.1	94.5	4.8	.5	5.3	.2	100.0
무름 / 무응답	(14)	71.2	21.7	92.9	7.1	.0	7.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87.7	12.3	100.0	.0	.0	.0	.0	100.0
자영업	(335)	71.1	21.9	93.0	5.1	1.8	7.0	.0	100.0
블루칼라	(247)	70.5	21.4	91.9	6.5	1.6	8.1	.0	100.0
화이트칼라	(252)	73.2	19.3	92.5	5.9	1.2	7.1	.4	100.0
전업주부	(211)	70.3	24.5	94.8	3.8	.9	4.7	.5	100.0
무직 / 기타	(140)	72.1	25.1	97.2	2.1	.7	2.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4.9	16.9	91.7	5.4	2.4	7.8	.5	100.0
200~299만원	(287)	67.1	24.2	91.3	7.6	1.0	8.7	.0	100.0
300~399만원	(384)	70.4	23.3	93.8	4.9	1.1	6.0	.3	100.0
400만원이상	(311)	74.3	22.1	96.4	2.3	1.3	3.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92.1	7.9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5.1	18.7	93.7	4.1	2.0	6.1	.2	100.0
충청권	(117)	74.4	23.1	97.4	2.6	.0	2.6	.0	100.0
호남권	(116)	82.2	16.1	98.3	.9	.9	1.7	.0	100.0
영남권	(314)	59.9	30.1	90.1	9.3	.3	9.6	.3	100.0
강원	(35)	68.6	25.7	94.3	2.9	2.9	5.7	.0	100.0
제주	(13)	84.6	7.7	92.3	.0	7.7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9.5	23.0	92.4	6.5	.9	7.4	.2	100.0
중·소도시	(541)	72.9	21.6	94.5	3.3	2.0	5.3	.2	100.0
읍 / 면	(90)	77.7	17.8	95.5	4.5	.0	4.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71.2	20.8	92.0	6.3	1.8	8.0	.0	100.0
중도	(578)	71.0	22.6	93.6	4.9	1.4	6.3	.2	100.0
보수적	(289)	73.5	22.0	95.5	3.4	.7	4.2	.3	100.0
■ 종교									
불교	(258)	66.0	25.1	91.1	7.8	1.1	8.9	.0	100.0
기독교	(263)	76.0	17.9	93.9	4.2	1.5	5.7	.4	100.0
천주교	(114)	73.8	18.3	92.1	6.1	1.7	7.9	.0	100.0
기타	(7)	70.2	14.0	84.2	.0	15.8	15.8	.0	100.0
종교없음	(546)	72.0	22.9	94.9	3.8	1.1	4.9	.2	100.0
무름 / 무응답	(13)	62.0	38.0	100.0	.0	.0	.0	.0	100.0

표2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1)	35.3	45.4	80.7	16.9	2.4	19.3	100.0
■ 성별								
남자	(611)	33.4	44.8	78.2	18.0	3.8	21.8	100.0
여자	(590)	37.3	45.9	83.3	15.7	1.0	16.7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4.1	44.2	78.3	19.8	1.9	21.7	100.0
30대	(290)	32.6	44.7	77.3	21.0	1.7	22.7	100.0
40대	(306)	32.2	48.6	80.8	15.5	3.6	19.2	100.0
50대이상	(346)	41.4	43.9	85.2	12.4	2.4	1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9.9	41.2	81.1	13.3	5.6	18.9	100.0
고졸	(510)	35.0	46.4	81.4	16.4	2.2	18.6	100.0
대재이상	(565)	35.3	44.6	79.8	18.1	2.1	20.2	100.0
무름 / 무응답	(14)	13.1	72.3	85.4	14.6	.0	14.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8.6	46.9	75.5	18.4	6.1	24.5	100.0
자영업	(335)	34.5	48.2	82.7	13.7	3.6	17.3	100.0
블루칼라	(247)	36.5	41.7	78.2	19.8	2.0	21.8	100.0
화이트칼라	(252)	31.1	49.8	80.8	15.9	3.3	19.2	100.0
전업주부	(211)	38.7	44.4	83.1	16.4	.5	16.9	100.0
무직 / 기타	(140)	38.8	38.1	76.9	21.7	1.4	23.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4.2	38.4	82.6	15.4	1.9	17.4	100.0
200~299만원	(287)	34.2	49.6	83.8	14.7	1.5	16.2	100.0
300~399만원	(384)	31.2	46.3	77.5	20.2	2.4	22.5	100.0
400만원이상	(311)	34.8	45.3	80.0	16.2	3.8	20.0	100.0
무름 / 무응답	(13)	56.2	35.9	92.1	7.9	.0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8.5	45.4	84.0	13.9	2.1	16.0	100.0
충청권	(117)	29.9	41.0	70.9	26.5	2.6	29.1	100.0
호남권	(116)	35.1	42.5	77.6	18.1	4.3	22.4	100.0
영남권	(314)	30.6	50.4	81.0	16.7	2.3	19.0	100.0
강원	(35)	40.0	25.7	65.7	31.4	2.9	34.3	100.0
제주	(13)	38.5	38.5	76.9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7.2	46.0	83.2	14.6	2.2	16.8	100.0
중·소도시	(541)	35.5	42.2	77.8	19.3	2.9	22.2	100.0
읍 / 면	(90)	22.3	59.9	82.2	16.7	1.1	1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4.1	41.5	75.6	20.3	4.1	24.4	100.0
중도	(578)	33.3	46.0	79.4	18.9	1.8	20.6	100.0
보수적	(289)	40.7	48.5	89.3	8.9	1.8	10.7	100.0
■ 종교								
불교	(258)	36.6	45.7	82.2	15.9	1.9	17.8	100.0
기독교	(263)	43.2	40.8	84.0	12.5	3.4	16.0	100.0
천주교	(114)	40.1	45.1	85.2	13.0	1.7	14.8	100.0
기타	(7)	43.9	56.1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29.8	47.5	77.3	20.5	2.2	22.7	100.0
무름 / 무응답	(13)	38.9	38.3	77.1	15.3	7.5	22.9	100.0

표2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51.2	32.0	83.2	8.3	5.2	13.4	3.3	100.0
■ 성별									
남자	(611)	51.9	31.0	82.9	8.4	5.6	14.0	3.1	100.0
여자	(590)	50.4	33.1	83.5	8.2	4.7	12.9	3.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4.6	30.6	75.2	8.9	9.4	18.3	6.5	100.0
30대	(290)	56.3	28.9	85.2	8.7	3.7	12.4	2.4	100.0
40대	(306)	53.5	33.2	86.7	6.1	4.2	10.3	3.0	100.0
50대이상	(346)	49.8	34.7	84.5	9.3	4.0	13.4	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8.7	32.0	80.7	9.3	7.1	16.4	2.9	100.0
고졸	(510)	51.7	32.3	84.0	8.0	4.9	12.9	3.1	100.0
대재이상	(565)	50.9	32.2	83.2	8.2	5.0	13.1	3.7	100.0
무름 / 무응답	(14)	64.3	14.4	78.7	14.2	7.1	21.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3	24.5	93.9	.0	.0	.0	6.1	100.0
자영업	(335)	51.4	33.9	85.3	7.2	4.5	11.7	3.0	100.0
블루칼라	(247)	52.6	30.0	82.7	8.4	6.9	15.3	2.1	100.0
화이트칼라	(252)	51.5	33.1	84.6	7.9	3.6	11.5	3.9	100.0
전업주부	(211)	49.8	34.3	84.1	9.2	3.8	13.0	2.9	100.0
무직 / 기타	(140)	47.5	26.5	74.1	10.8	9.4	20.2	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0.0	26.8	76.7	12.1	7.3	19.3	3.9	100.0
200~299만원	(287)	49.4	34.0	83.4	6.9	5.9	12.8	3.9	100.0
300~399만원	(384)	54.4	32.6	87.0	8.0	3.4	11.5	1.5	100.0
400만원이상	(311)	49.8	33.0	82.8	7.5	5.1	12.7	4.5	100.0
무름 / 무응답	(13)	48.4	32.0	80.4	3.9	7.9	11.8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9.9	31.0	80.9	8.3	5.6	13.9	5.1	100.0
충청권	(117)	56.0	35.0	91.0	3.8	4.3	8.1	.9	100.0
호남권	(116)	54.3	29.3	83.6	7.8	6.0	13.8	2.6	100.0
영남권	(314)	50.6	33.0	83.6	10.3	4.5	14.8	1.6	100.0
강원	(35)	54.3	40.0	94.3	5.7	.0	5.7	.0	100.0
제주	(13)	46.2	30.8	76.9	7.7	15.4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4.8	29.6	84.4	7.5	4.9	12.4	3.2	100.0
중·소도시	(541)	49.5	32.3	81.8	9.2	5.0	14.1	4.1	100.0
읍 / 면	(90)	38.9	45.5	84.4	7.8	7.8	1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8.4	33.4	81.8	7.4	8.1	15.5	2.7	100.0
중도	(578)	51.4	32.0	83.4	9.0	3.3	12.3	4.3	100.0
보수적	(289)	54.0	30.5	84.5	7.9	5.5	13.4	2.1	100.0
■ 종교									
불교	(258)	51.4	33.3	84.7	9.5	3.5	13.0	2.3	100.0
기독교	(263)	56.9	27.0	84.0	6.9	5.7	12.6	3.4	100.0
천주교	(114)	50.5	34.8	85.3	4.3	6.9	11.2	3.5	100.0
기타	(7)	43.9	.0	43.9	14.0	42.1	56.1	.0	100.0
종교없음	(546)	49.3	33.3	82.6	8.9	5.0	13.9	3.5	100.0
무름 / 무응답	(13)	22.5	45.6	68.0	15.6	.0	15.6	16.4	100.0

표23. 현재 대복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복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	%	%	%	%	%	%	%
■ 전체	(1201)	5.5	16.7	22.3	38.0	24.6	15.2	39.8	100.0
■ 성별									
남자	(611)	6.5	20.3	26.8	34.7	22.9	15.6	38.5	100.0
여자	(590)	4.6	13.0	17.6	41.3	26.3	14.8	41.1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6	13.1	17.8	32.8	29.6	19.8	49.4	100.0
30대	(290)	4.7	14.3	19.0	42.8	23.8	14.4	38.2	100.0
40대	(306)	8.5	19.4	27.9	38.2	20.7	13.2	33.9	100.0
50대이상	(346)	4.3	19.0	23.3	37.6	24.9	14.2	39.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6	17.2	19.8	35.5	25.3	19.4	44.7	100.0
고졸	(510)	4.3	14.5	18.8	39.0	26.1	16.1	42.2	100.0
대재이상	(565)	7.4	18.7	26.1	37.3	22.8	13.9	36.6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2.2	12.2	50.3	37.5	.0	37.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40.9	47.0	28.5	18.4	6.1	24.5	100.0
자영업	(335)	4.8	15.6	20.4	40.3	23.7	15.5	39.3	100.0
블루칼라	(247)	4.8	14.6	19.4	34.6	27.6	18.4	46.0	100.0
화이트칼라	(252)	6.3	24.0	30.3	34.0	24.7	11.1	35.8	100.0
전업주부	(211)	5.6	14.3	19.9	43.3	23.3	13.5	36.8	100.0
무직 / 기타	(140)	7.2	10.8	17.9	38.7	23.8	19.5	43.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3	16.4	20.7	33.3	25.3	20.7	46.0	100.0
200~299만원	(287)	4.5	17.1	21.6	41.8	21.6	15.0	36.6	100.0
300~399만원	(384)	6.7	15.8	22.5	39.6	25.1	12.9	37.9	100.0
400만원이상	(311)	6.1	18.2	24.2	35.9	26.5	13.4	39.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9	7.9	31.4	17.0	43.8	60.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0	16.8	22.9	39.0	22.7	15.4	38.1	100.0
충청권	(117)	9.4	23.9	33.3	29.5	25.6	11.5	37.2	100.0
호남권	(116)	11.2	23.0	34.2	37.6	18.7	9.5	28.2	100.0
영남권	(314)	1.3	12.1	13.4	41.3	29.2	16.1	45.3	100.0
강원	(35)	5.7	5.7	11.4	25.7	34.3	28.6	62.9	100.0
제주	(13)	.0	30.8	30.8	23.1	15.4	30.8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8	16.1	21.8	41.5	24.5	12.1	36.7	100.0
중·소도시	(541)	4.6	17.2	21.8	34.9	25.2	18.1	43.4	100.0
읍 / 면	(90)	10.0	17.8	27.8	34.4	21.1	16.7	3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1.6	21.7	33.3	32.2	21.4	13.1	34.5	100.0
중도	(578)	3.3	15.6	18.8	40.5	25.7	14.9	40.6	100.0
보수적	(289)	3.1	13.2	16.4	39.5	26.0	18.1	44.2	100.0
■ 종교									
불교	(258)	5.8	17.2	23.0	37.4	27.9	11.7	39.6	100.0
기독교	(263)	9.0	17.8	26.8	33.5	23.6	16.1	39.7	100.0
천주교	(114)	6.0	21.7	27.7	40.7	15.7	15.9	31.6	100.0
기타	(7)	29.8	14.0	43.9	.0	14.0	42.1	56.1	100.0
종교없음	(546)	3.5	14.6	18.1	40.5	25.3	16.1	41.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1.4	31.4	30.5	30.7	7.3	38.1	100.0

표23-1.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현대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타	계
		%	%	%	%	%	%
■ 전체	(478)	49.6	18.9	17.9	11.2	2.3	100.0
■ 성별							
남자	(235)	46.5	20.2	20.9	9.8	2.6	100.0
여자	(242)	52.7	17.6	15.1	12.6	2.0	100.0
■ 연령별							
19~29세	(128)	44.0	15.9	21.3	15.6	3.2	100.0
30대	(111)	54.2	16.6	17.6	6.3	5.3	100.0
40대	(104)	52.2	21.0	14.3	11.5	1.0	100.0
50대이상	(135)	49.3	22.1	17.7	10.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50)	69.5	17.3	8.0	5.2	.0	100.0
고졸	(215)	48.2	16.4	20.6	14.0	.9	100.0
대재이상	(207)	47.0	20.9	17.5	10.2	4.4	100.0
무름 / 무응답	(5)	22.0	58.5	19.5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4)	25.0	25.0	50.0	.0	.0	100.0
자영업	(131)	45.1	23.9	20.4	9.1	1.5	100.0
블루칼라	(114)	49.6	16.0	16.0	15.0	3.5	100.0
화이트칼라	(90)	48.1	20.0	19.7	8.8	3.3	100.0
전업주부	(78)	57.8	17.4	12.2	12.6	.0	100.0
무직 / 기타	(61)	53.1	13.4	18.6	11.5	3.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95)	54.6	20.0	14.9	8.5	2.1	100.0
200~299만원	(105)	50.4	22.1	14.3	11.4	1.8	100.0
300~399만원	(146)	49.4	20.0	18.2	11.0	1.4	100.0
400만원이상	(124)	47.7	14.5	22.5	11.3	4.0	100.0
무름 / 무응답	(8)	12.9	13.4	26.8	46.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231)	45.7	21.4	18.6	11.8	2.6	100.0
충청권	(44)	46.0	34.5	16.1	3.4	.0	100.0
호남권	(33)	51.0	3.1	21.4	18.4	6.1	100.0
영남권	(142)	55.4	14.6	15.2	12.7	2.1	100.0
강원	(22)	50.0	13.6	31.8	4.5	.0	100.0
제주	(6)	83.3	16.7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209)	50.9	17.5	14.6	14.1	2.8	100.0
중·소도시	(235)	45.9	19.9	22.6	9.9	1.7	100.0
읍 / 면	(34)	67.6	20.6	5.9	2.9	2.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115)	48.5	12.8	28.1	8.8	1.8	100.0
중도	(235)	51.2	19.0	13.2	14.5	2.1	100.0
보수적	(127)	47.7	24.3	17.4	7.5	3.1	100.0
■ 종교							
불교	(102)	46.4	21.8	16.5	12.4	2.9	100.0
기독교	(104)	48.4	21.7	16.5	12.4	1.0	100.0
천주교	(36)	64.0	16.5	16.7	2.8	.0	100.0
기타	(4)	75.0	25.0	.0	.0	.0	100.0
종교없음	(226)	49.1	17.0	18.8	12.0	3.1	100.0
무름 / 무응답	(5)	39.8	.0	60.2	.0	.0	100.0

표24.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전체	(1201)	6.7	36.7	43.4	43.6	12.7	56.4	.3	100.0
■ 성별									
남자	(611)	8.4	39.1	47.5	39.4	12.9	52.3	.2	100.0
여자	(590)	4.9	34.2	39.1	48.0	12.6	60.5	.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7.7	32.1	39.8	44.6	14.8	59.4	.8	100.0
30대	(290)	5.4	37.1	42.6	44.8	12.6	57.4	.0	100.0
40대	(306)	7.8	38.5	46.3	40.6	12.7	53.3	.4	100.0
50대이상	(346)	6.1	38.0	44.1	44.5	11.3	55.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5	39.0	44.5	41.1	14.4	55.5	.0	100.0
고졸	(510)	5.3	34.2	39.5	45.9	14.4	60.3	.2	100.0
대재이상	(565)	8.4	38.3	46.6	42.3	10.7	53.0	.4	100.0
무름 / 무응답	(14)	.0	43.5	43.5	33.9	22.7	56.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3	36.8	49.1	50.9	.0	50.9	.0	100.0
자영업	(335)	5.7	35.7	41.4	46.5	12.1	58.6	.0	100.0
블루칼라	(247)	8.1	34.6	42.7	40.6	15.9	56.4	.9	100.0
화이트칼라	(252)	10.1	38.1	48.3	42.5	8.8	51.3	.4	100.0
전업주부	(211)	3.8	36.6	40.4	45.9	13.7	59.6	.0	100.0
무직 / 기타	(140)	4.3	40.1	44.4	39.7	15.9	55.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8.8	31.6	40.3	39.8	19.3	59.2	.5	100.0
200~299만원	(287)	6.3	43.5	49.8	39.0	11.2	50.2	.0	100.0
300~399만원	(384)	5.9	36.3	42.2	47.3	10.5	57.8	.0	100.0
400만원이상	(311)	7.0	34.4	41.4	46.2	11.6	57.9	.7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1.7	31.7	32.4	35.9	68.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5	37.4	44.9	43.2	11.4	54.6	.5	100.0
충청권	(117)	8.5	36.8	45.3	48.3	6.4	54.7	.0	100.0
호남권	(116)	9.5	40.5	50.0	35.3	14.7	50.0	.0	100.0
영남권	(314)	4.1	37.2	41.3	45.1	13.6	58.7	.0	100.0
강원	(35)	.0	14.3	14.3	57.1	28.6	85.7	.0	100.0
제주	(13)	7.7	15.4	23.1	23.1	53.8	76.9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3	38.3	44.6	42.9	12.3	55.2	.2	100.0
중·소도시	(541)	6.6	35.3	41.9	45.0	12.7	57.7	.4	100.0
읍 / 면	(90)	10.0	34.5	44.5	39.9	15.6	55.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3	43.8	52.1	38.2	9.4	47.6	.3	100.0
중도	(578)	7.1	34.5	41.6	45.1	12.9	58.0	.4	100.0
보수적	(289)	4.1	32.7	36.8	46.9	16.3	63.2	.0	100.0
■ 종교									
불교	(258)	7.6	35.2	42.8	44.9	12.3	57.2	.0	100.0
기독교	(263)	9.5	37.5	47.1	40.4	12.1	52.5	.4	100.0
천주교	(114)	3.5	44.2	47.7	39.2	12.1	51.3	1.0	100.0
기타	(7)	14.0	14.0	28.1	43.9	28.1	71.9	.0	100.0
종교없음	(546)	5.5	36.2	41.7	44.9	13.3	58.2	.2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15.1	22.7	70.0	7.3	77.3	.0	100.0

표25.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전체	(1201)	13.3	51.6	65.0	30.3	4.7	35.0	100.0
■ 성별								
남자	(611)	15.1	53.0	68.0	26.8	5.1	32.0	100.0
여자	(590)	11.5	50.2	61.8	33.9	4.4	38.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9.3	52.7	62.0	29.9	8.2	38.0	100.0
30대	(290)	13.2	53.3	66.5	30.0	3.5	33.5	100.0
40대	(306)	18.4	51.6	70.1	25.7	4.2	29.9	100.0
50대이상	(346)	12.0	49.4	61.4	35.0	3.6	38.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3.7	45.3	58.9	35.1	5.9	41.1	100.0
고졸	(510)	9.0	52.2	61.2	33.7	5.1	38.8	100.0
대재이상	(565)	17.5	52.4	69.9	26.2	3.9	30.1	100.0
무름 / 무응답	(14)	.0	50.5	50.5	35.0	14.4	49.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4.4	59.3	83.6	16.4	.0	16.4	100.0
자영업	(335)	15.2	47.8	62.9	31.1	5.9	37.1	100.0
블루칼라	(247)	9.2	52.6	61.7	32.6	5.6	38.3	100.0
화이트칼라	(252)	18.5	51.9	70.4	26.8	2.8	29.6	100.0
전업주부	(211)	10.0	50.3	60.3	36.4	3.3	39.7	100.0
무직 / 기타	(140)	10.7	59.7	70.5	23.0	6.5	29.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4.7	41.8	56.5	36.3	7.2	43.5	100.0
200~299만원	(287)	12.1	51.7	63.8	30.6	5.6	36.2	100.0
300~399만원	(384)	13.2	53.1	66.3	30.3	3.4	33.7	100.0
400만원이상	(311)	14.0	56.7	70.7	25.1	4.2	29.3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40.5	48.4	51.6	.0	51.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7.0	49.4	66.4	27.9	5.7	33.6	100.0
충청권	(117)	12.0	52.1	64.1	34.2	1.7	35.9	100.0
호남권	(116)	19.0	54.0	73.0	24.4	2.6	27.0	100.0
영남권	(314)	5.7	57.0	62.7	33.1	4.2	37.3	100.0
강원	(35)	5.7	34.3	40.0	51.4	8.6	60.0	100.0
제주	(13)	7.7	46.2	53.8	38.5	7.7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1.6	50.9	62.5	33.1	4.4	37.5	100.0
중·소도시	(541)	14.8	52.8	67.6	26.7	5.7	32.4	100.0
읍 / 면	(90)	15.6	48.8	64.4	34.5	1.1	3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0.5	50.2	70.7	25.1	4.2	29.3	100.0
중도	(578)	10.3	56.0	66.4	30.4	3.3	33.6	100.0
보수적	(289)	11.1	44.5	55.5	36.2	8.3	44.5	100.0
■ 종교								
불교	(258)	12.0	51.0	62.9	33.6	3.5	37.1	100.0
기독교	(263)	19.0	50.1	69.0	27.3	3.7	31.0	100.0
천주교	(114)	16.5	49.6	66.1	26.0	7.9	33.9	100.0
기타	(7)	.0	42.1	42.1	29.8	28.1	57.9	100.0
종교없음	(546)	10.8	53.1	63.9	31.1	5.0	36.1	100.0
무름 / 무응답	(13)	15.1	54.3	69.5	30.5	.0	30.5	100.0

표26.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 전체	(1201)	3.4	36.7	40.2	46.6	13.2	59.8	100.0
■ 성별								
남자	(611)	4.5	37.4	41.9	43.2	14.9	58.1	100.0
여자	(590)	2.4	36.1	38.4	50.2	11.4	61.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1	29.9	33.0	50.2	16.8	67.0	100.0
30대	(290)	1.4	35.0	36.4	51.8	11.8	63.6	100.0
40대	(306)	2.2	40.0	42.3	41.1	16.6	57.7	100.0
50대이상	(346)	6.4	40.4	46.8	44.6	8.6	53.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4	40.8	46.2	43.3	10.5	53.8	100.0
고졸	(510)	3.8	40.6	44.4	44.8	10.8	55.6	100.0
대재이상	(565)	2.8	32.6	35.4	48.6	16.0	64.6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0.2	30.2	62.7	7.1	69.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24.5	24.5	53.0	22.5	75.5	100.0
자영업	(335)	5.1	39.3	44.4	42.3	13.3	55.6	100.0
블루칼라	(247)	3.2	39.5	42.7	46.2	11.0	57.3	100.0
화이트칼라	(252)	3.1	33.2	36.4	48.3	15.4	63.6	100.0
전업주부	(211)	1.9	37.9	39.8	50.7	9.5	60.2	100.0
무직 / 기타	(140)	3.0	31.7	34.7	47.9	17.4	6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9	37.0	40.9	44.9	14.2	59.1	100.0
200~299만원	(287)	2.5	38.3	40.8	49.1	10.1	59.2	100.0
300~399만원	(384)	2.8	34.9	37.7	49.0	13.3	62.3	100.0
400만원이상	(311)	4.2	37.2	41.4	43.5	15.1	58.6	100.0
무름 / 무응답	(13)	15.7	43.8	59.5	24.5	16.0	40.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7	38.8	43.5	42.2	14.3	56.5	100.0
충청권	(117)	.9	17.5	18.4	64.5	17.1	81.6	100.0
호남권	(116)	.9	23.3	24.1	57.2	18.7	75.9	100.0
영남권	(314)	1.9	46.6	48.5	43.2	8.3	51.5	100.0
강원	(35)	11.4	31.4	42.9	54.3	2.9	57.1	100.0
제주	(13)	7.7	7.7	15.4	61.5	23.1	84.6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8	36.1	39.0	47.6	13.5	61.0	100.0
중·소도시	(541)	4.1	38.8	42.9	44.0	13.1	57.1	100.0
읍 / 면	(90)	3.3	27.8	31.2	56.6	12.2	68.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2	30.8	35.9	44.5	19.6	64.1	100.0
중도	(578)	2.4	36.6	39.0	49.7	11.2	61.0	100.0
보수적	(289)	3.4	43.9	47.3	42.9	9.8	52.7	100.0
■ 종교								
불교	(258)	4.2	37.2	41.4	46.8	11.8	58.6	100.0
기독교	(263)	5.3	35.0	40.4	48.3	11.3	59.6	100.0
천주교	(114)	2.6	28.6	31.2	53.1	15.7	68.8	100.0
기타	(7)	.0	28.1	28.1	28.1	43.9	71.9	100.0
종교없음	(546)	2.2	38.8	41.0	45.0	14.0	59.0	100.0
무름 / 무응답	(13)	8.8	53.4	62.1	30.3	7.5	37.9	100.0

표27.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 전체	(1201)	1.7	28.7	30.4	55.7	13.6	69.4	.3	100.0
■ 성별									
남자	(611)	2.4	29.0	31.5	53.4	15.0	68.4	.2	100.0
여자	(590)	.8	28.4	29.2	58.2	12.2	70.4	.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5	23.3	24.9	58.9	16.2	75.1	.0	100.0
30대	(290)	.7	26.6	27.3	60.6	12.1	72.7	.0	100.0
40대	(306)	1.6	26.1	27.8	55.2	16.7	71.9	.3	100.0
50대이상	(346)	2.6	36.8	39.4	49.7	10.3	60.0	.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6	37.9	40.5	49.6	8.9	58.5	1.0	100.0
고졸	(510)	1.4	30.1	31.5	54.6	13.7	68.3	.2	100.0
대재이상	(565)	1.6	25.9	27.5	57.7	14.6	72.3	.2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15.5	22.9	70.0	7.1	77.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8.4	18.4	65.3	16.4	81.6	.0	100.0
자영업	(335)	2.4	28.9	31.3	53.8	14.6	68.4	.3	100.0
블루칼라	(247)	1.6	26.1	27.7	58.8	13.0	71.9	.4	100.0
화이트칼라	(252)	2.4	30.1	32.4	53.0	14.6	67.6	.0	100.0
전업주부	(211)	.5	31.9	32.4	55.2	11.9	67.0	.5	100.0
무직 / 기타	(140)	.7	26.7	27.5	59.6	12.9	72.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9	32.8	34.7	47.0	17.3	64.3	1.0	100.0
200~299만원	(287)	2.1	28.4	30.5	57.7	11.7	69.5	.0	100.0
300~399만원	(384)	1.6	26.9	28.4	59.2	12.1	71.3	.3	100.0
400만원이상	(311)	1.3	27.3	28.5	56.7	14.7	71.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60.4	60.4	23.8	15.7	39.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0	29.4	31.4	55.6	12.6	68.3	.4	100.0
충청권	(117)	.0	18.4	18.4	61.1	19.7	80.8	.9	100.0
호남권	(116)	2.6	14.7	17.2	57.2	25.6	82.8	.0	100.0
영남권	(314)	1.3	35.7	37.0	53.6	9.4	63.0	.0	100.0
강원	(35)	2.9	37.1	40.0	57.1	2.9	60.0	.0	100.0
제주	(13)	.0	23.1	23.1	46.2	30.8	76.9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	26.8	27.5	57.7	14.6	72.3	.2	100.0
중·소도시	(541)	2.7	30.7	33.4	53.7	12.5	66.2	.4	100.0
읍 / 면	(90)	1.1	28.9	30.0	55.5	14.5	70.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3	26.1	29.4	52.4	18.2	70.6	.0	100.0
중도	(578)	.9	28.5	29.3	57.4	12.9	70.3	.3	100.0
보수적	(289)	1.4	32.2	33.6	56.3	9.8	66.0	.4	100.0
■ 종교									
불교	(258)	1.1	31.3	32.4	53.3	14.2	67.6	.0	100.0
기독교	(263)	3.4	30.9	34.3	54.0	11.0	65.0	.8	100.0
천주교	(114)	1.7	26.9	28.7	53.7	17.6	71.3	.0	100.0
기타	(7)	.0	14.0	14.0	56.1	29.8	86.0	.0	100.0
종교없음	(546)	1.1	27.0	28.0	58.2	13.5	71.8	.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1.6	31.6	53.3	15.1	68.4	.0	100.0

표28.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전체	(1201)	14.6	42.7	57.4	26.3	3.3	29.6	13.1	100.0
■ 성별									
남자	(611)	18.6	43.5	62.1	24.1	2.9	27.1	10.8	100.0
여자	(590)	10.5	41.9	52.4	28.5	3.7	32.2	15.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0.1	41.5	51.6	27.9	6.6	34.5	14.0	100.0
30대	(290)	12.3	41.8	54.1	28.0	1.7	29.7	16.1	100.0
40대	(306)	21.5	40.2	61.6	26.0	3.3	29.3	9.0	100.0
50대이상	(346)	13.9	46.7	60.6	23.8	2.3	26.1	13.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7	40.3	59.0	28.4	.9	29.3	11.6	100.0
고졸	(510)	10.2	42.6	52.8	27.0	3.5	30.5	16.7	100.0
대재이상	(565)	17.6	43.2	60.8	25.5	3.7	29.2	10.0	100.0
무름 / 무응답	(14)	22.9	48.1	70.9	14.4	.0	14.4	14.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49.1	44.8	93.9	.0	.0	.0	6.1	100.0
자영업	(335)	15.2	43.5	58.7	24.2	2.7	26.9	14.5	100.0
블루칼라	(247)	13.5	36.7	50.2	32.5	4.8	37.3	12.5	100.0
화이트칼라	(252)	18.4	45.1	63.5	23.1	2.4	25.5	11.1	100.0
전업주부	(211)	9.5	42.5	52.0	29.9	2.4	32.3	15.8	100.0
무직 / 기타	(140)	12.3	47.4	59.7	23.6	5.7	29.4	10.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6	36.9	50.5	30.7	4.9	35.5	14.0	100.0
200~299만원	(287)	12.3	42.5	54.8	29.2	2.8	32.0	13.2	100.0
300~399만원	(384)	13.2	46.6	59.7	24.4	2.9	27.3	13.0	100.0
400만원이상	(311)	19.2	43.2	62.4	22.6	3.5	26.1	11.6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16.0	32.0	35.3	.0	35.3	32.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4.6	41.7	56.3	23.9	3.8	27.7	16.0	100.0
충청권	(117)	12.8	41.0	53.8	26.1	3.4	29.5	16.7	100.0
호남권	(116)	25.9	41.7	67.5	15.2	5.2	20.4	12.1	100.0
영남권	(314)	11.6	45.9	57.5	35.2	1.9	37.1	5.4	100.0
강원	(35)	11.4	48.6	60.0	28.6	.0	28.6	11.4	100.0
제주	(13)	15.4	23.1	38.5	15.4	7.7	23.1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2.5	44.5	57.1	27.3	3.2	30.5	12.4	100.0
중·소도시	(541)	16.2	40.9	57.1	24.9	3.7	28.6	14.4	100.0
읍 / 면	(90)	18.9	42.1	61.1	27.8	2.2	30.0	8.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2.0	46.7	68.7	20.2	3.9	24.0	7.2	100.0
중도	(578)	11.4	41.3	52.7	28.1	2.6	30.7	16.6	100.0
보수적	(289)	12.5	41.0	53.5	29.6	4.2	33.8	12.8	100.0
■ 종교									
불교	(258)	15.4	46.1	61.6	28.4	3.4	31.9	6.6	100.0
기독교	(263)	15.9	39.9	55.8	23.8	4.9	28.8	15.4	100.0
천주교	(114)	15.7	45.3	61.0	20.6	6.2	26.7	12.3	100.0
기타	(7)	14.0	14.0	28.1	42.1	15.8	57.9	14.0	100.0
종교없음	(546)	13.4	42.9	56.4	27.7	1.8	29.5	14.2	100.0
무름 / 무응답	(13)	15.1	15.4	30.5	15.1	.0	15.1	54.3	100.0

표29-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전체	(1201)	10.4	35.7	46.1	33.8	15.4	4.6	20.1	100.0
■ 성별									
남자	(611)	13.7	36.6	50.3	28.5	15.4	5.8	21.2	100.0
여자	(590)	7.1	34.8	41.8	39.3	15.5	3.4	18.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9	27.9	29.9	45.7	17.8	6.6	24.4	100.0
30대	(290)	10.6	36.7	47.2	32.7	15.2	4.8	20.0	100.0
40대	(306)	15.9	37.7	53.6	28.3	14.2	3.9	18.1	100.0
50대이상	(346)	11.9	38.9	50.8	30.7	15.0	3.5	18.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6.6	33.4	50.0	30.2	17.0	2.8	19.8	100.0
고졸	(510)	8.0	36.5	44.5	34.6	15.9	4.9	20.9	100.0
대재이상	(565)	11.6	35.5	47.1	33.9	14.3	4.6	18.9	100.0
무름 / 무응답	(14)	4.9	28.6	33.4	29.3	29.1	8.2	37.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38.7	30.7	69.3	12.3	18.4	.0	18.4	100.0
자영업	(335)	11.4	34.2	45.6	32.4	16.1	5.8	21.9	100.0
블루칼라	(247)	11.2	35.9	47.1	32.0	14.4	6.5	20.8	100.0
화이트칼라	(252)	11.7	39.7	51.4	31.6	13.9	3.2	17.0	100.0
전업주부	(211)	8.9	36.6	45.5	37.1	15.6	1.9	17.5	100.0
무직 / 기타	(140)	3.6	30.8	34.4	41.9	18.0	5.7	2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2.0	32.5	44.4	32.4	15.9	7.3	23.2	100.0
200~299만원	(287)	9.3	35.7	45.1	34.7	17.3	2.9	20.2	100.0
300~399만원	(384)	8.7	38.1	46.8	34.6	16.0	2.6	18.6	100.0
400만원이상	(311)	12.6	34.2	46.8	33.4	13.0	6.8	19.8	100.0
무름 / 무응답	(13)	11.8	48.7	60.4	23.8	7.9	7.9	15.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2.3	33.8	46.1	35.0	13.8	5.1	19.0	100.0
충청권	(117)	7.3	41.9	49.1	28.6	17.9	4.3	22.2	100.0
호남권	(116)	24.4	32.8	57.2	30.2	9.2	3.4	12.6	100.0
영남권	(314)	4.5	37.2	41.7	33.4	21.0	3.9	24.9	100.0
강원	(35)	.0	40.0	40.0	42.9	8.6	8.6	17.1	100.0
제주	(13)	.0	46.2	46.2	46.2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0.1	36.1	46.2	33.5	16.5	3.7	20.2	100.0
중·소도시	(541)	11.3	35.8	47.1	34.7	12.8	5.4	18.2	100.0
읍 / 면	(90)	7.8	32.3	40.1	30.0	24.3	5.6	29.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6.0	40.5	56.5	28.3	11.0	4.2	15.2	100.0
중도	(578)	8.3	33.6	41.9	38.2	16.3	3.6	19.9	100.0
보수적	(289)	8.4	34.2	42.6	31.4	19.0	7.1	26.0	100.0
■ 종교									
불교	(258)	14.4	39.3	53.7	25.6	17.5	3.2	20.7	100.0
기독교	(263)	13.5	33.4	46.9	32.5	16.4	4.2	20.6	100.0
천주교	(114)	10.5	43.5	54.0	27.0	9.5	9.6	19.0	100.0
기타	(7)	29.8	14.0	43.9	42.1	14.0	.0	14.0	100.0
종교없음	(546)	7.1	33.5	40.6	39.5	15.3	4.6	19.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5.6	45.6	39.0	15.3	.0	15.3	100.0

표29-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④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전체	(1201)	18.0	43.4	61.4	25.1	10.2	3.3	13.5	100.0
■ 성별									
남자	(611)	20.8	40.3	61.2	23.2	10.5	5.2	15.7	100.0
여자	(590)	15.1	46.6	61.6	27.1	9.9	1.3	11.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7	41.8	58.4	29.2	9.3	3.1	12.4	100.0
30대	(290)	15.2	46.6	61.8	25.7	9.0	3.6	12.6	100.0
40대	(306)	22.0	41.6	63.7	23.9	8.8	3.6	12.4	100.0
50대이상	(346)	17.8	43.4	61.2	22.6	13.1	3.0	16.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3.3	42.9	66.2	19.6	12.4	1.8	14.2	100.0
고졸	(510)	14.7	43.4	58.1	27.7	10.5	3.8	14.3	100.0
대재이상	(565)	20.3	43.3	63.6	24.0	9.4	3.1	12.5	100.0
무름 / 무응답	(14)	4.9	51.9	56.7	21.5	14.4	7.3	21.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44.8	30.7	75.5	12.3	12.3	.0	12.3	100.0
자영업	(335)	17.3	39.8	57.2	25.9	12.1	4.8	17.0	100.0
블루칼라	(247)	22.0	40.7	62.7	22.9	9.3	5.1	14.4	100.0
화이트칼라	(252)	16.1	47.1	63.2	24.5	10.6	1.6	12.2	100.0
전업주부	(211)	14.1	46.5	60.7	29.9	8.0	1.4	9.4	100.0
무직 / 기타	(140)	18.7	46.6	65.3	22.5	9.4	2.8	12.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7.8	41.3	59.1	21.7	14.1	5.1	19.2	100.0
200~299만원	(287)	18.8	38.5	57.3	25.1	14.5	3.2	17.7	100.0
300~399만원	(384)	15.2	47.0	62.2	28.1	7.6	2.1	9.7	100.0
400만원이상	(311)	20.7	44.5	65.1	24.1	7.0	3.8	10.8	100.0
무름 / 무응답	(13)	24.5	51.9	76.4	15.7	7.9	.0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9.9	40.3	60.1	27.5	8.9	3.4	12.4	100.0
충청권	(117)	9.4	52.6	62.0	22.6	12.0	3.4	15.4	100.0
호남권	(116)	41.7	40.5	82.2	12.6	4.3	.9	5.2	100.0
영남권	(314)	10.0	45.4	55.4	26.7	14.1	3.8	17.9	100.0
강원	(35)	5.7	60.0	65.7	22.9	5.7	5.7	11.4	100.0
제주	(13)	23.1	38.5	61.5	15.4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6.5	47.1	63.6	22.5	10.3	3.6	13.9	100.0
중·소도시	(541)	20.1	40.2	60.4	26.9	9.8	2.9	12.7	100.0
읍 / 면	(90)	14.5	38.9	53.4	31.0	12.2	3.3	1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6.5	45.6	72.1	18.5	7.2	2.2	9.4	100.0
중도	(578)	14.5	44.0	58.5	29.5	9.9	2.0	12.0	100.0
보수적	(289)	15.2	39.6	54.8	23.9	14.1	7.1	21.2	100.0
■ 종교									
불교	(258)	19.0	46.8	65.9	20.0	11.8	2.3	14.1	100.0
기독교	(263)	20.0	40.3	60.3	28.1	8.2	3.4	11.6	100.0
천주교	(114)	23.6	44.2	67.8	21.7	5.4	5.2	10.5	100.0
기타	(7)	29.8	42.1	71.9	.0	28.1	.0	28.1	100.0
종교없음	(546)	15.5	43.0	58.5	26.8	11.5	3.2	14.7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45.6	53.2	39.2	.0	7.6	7.6	100.0

표29-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전체	(1201)	17.2	28.3	45.5	31.5	18.4	4.6	23.0	100.0
■ 성별									
남자	(611)	18.1	28.2	46.4	29.6	18.0	6.0	24.1	100.0
여자	(590)	16.3	28.4	44.6	33.5	18.7	3.1	21.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8.3	23.7	42.0	36.0	18.5	3.5	22.0	100.0
30대	(290)	17.3	24.6	41.9	36.1	18.2	3.7	22.0	100.0
40대	(306)	16.9	30.9	47.9	28.0	17.2	6.9	24.1	100.0
50대이상	(346)	16.6	32.5	49.1	27.4	19.4	4.1	2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7.4	26.1	43.6	30.3	24.4	1.8	26.1	100.0
고졸	(510)	17.9	32.9	50.8	30.4	15.0	3.8	18.8	100.0
대재이상	(565)	16.4	24.5	41.0	33.0	20.0	6.0	26.0	100.0
무름 / 무응답	(14)	21.8	29.9	51.7	21.5	26.8	.0	26.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30.5	30.5	28.6	34.7	6.1	40.9	100.0
자영업	(335)	19.0	29.6	48.6	29.9	18.2	3.3	21.5	100.0
블루칼라	(247)	22.9	28.2	51.1	26.8	15.9	6.2	22.1	100.0
화이트칼라	(252)	12.3	25.3	37.6	38.0	16.5	7.9	24.4	100.0
전업주부	(211)	13.4	32.2	45.7	32.4	19.0	2.9	21.9	100.0
무직 / 기타	(140)	19.5	24.5	44.0	31.0	23.6	1.4	25.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9.3	25.8	45.1	29.2	20.2	5.5	25.7	100.0
200~299만원	(287)	17.0	26.3	43.4	33.9	18.2	4.5	22.7	100.0
300~399만원	(384)	12.7	33.3	46.1	31.1	18.9	3.9	22.8	100.0
400만원이상	(311)	20.8	25.7	46.5	31.0	17.3	5.1	22.4	100.0
무름 / 무응답	(13)	35.9	24.5	60.4	39.6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0.0	28.9	48.9	30.9	15.6	4.6	20.3	100.0
충청권	(117)	16.7	22.2	38.9	26.1	26.5	8.5	35.0	100.0
호남권	(116)	6.9	18.1	25.0	29.6	35.1	10.3	45.4	100.0
영남권	(314)	15.6	33.4	49.0	33.6	15.9	1.4	17.3	100.0
강원	(35)	20.0	22.9	42.9	51.4	5.7	.0	5.7	100.0
제주	(13)	15.4	38.5	53.8	23.1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6.3	27.2	43.5	32.5	20.2	3.8	24.0	100.0
중·소도시	(541)	18.5	29.9	48.4	30.2	15.6	5.9	21.4	100.0
읍 / 면	(90)	15.6	25.5	41.0	33.4	23.4	2.2	2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7.1	25.4	42.5	27.8	20.4	9.3	29.7	100.0
중도	(578)	16.3	28.2	44.6	36.3	16.5	2.6	19.1	100.0
보수적	(289)	19.1	31.8	50.9	26.2	19.8	3.1	22.9	100.0
■ 종교									
불교	(258)	19.5	33.1	52.6	26.8	15.9	4.7	20.6	100.0
기독교	(263)	18.5	22.9	41.4	33.4	18.4	6.8	25.2	100.0
천주교	(114)	18.4	25.2	43.6	29.5	21.7	5.2	26.9	100.0
기타	(7)	28.1	14.0	42.1	14.0	14.0	29.8	43.9	100.0
종교없음	(546)	15.5	29.6	45.1	32.6	19.1	3.1	22.3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2.4	22.4	69.8	7.8	.0	7.8	100.0

표29-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전체	(1201)	14.2	29.0	43.2	36.1	14.8	5.8	20.6	.1	100.0
■ 성별										
남자	(611)	14.1	28.2	42.4	31.7	17.4	8.6	26.0	.0	100.0
여자	(590)	14.3	29.7	44.1	40.6	12.2	2.9	15.1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1.2	29.8	41.0	39.9	11.7	7.4	19.1	.0	100.0
30대	(290)	14.2	27.3	41.5	40.6	15.2	2.7	18.0	.0	100.0
40대	(306)	18.5	25.2	43.7	33.9	17.2	4.9	22.0	.4	100.0
50대이상	(346)	12.7	33.2	45.9	31.4	14.8	7.9	22.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4.2	35.8	50.0	32.6	14.7	2.8	17.4	.0	100.0
고졸	(510)	14.2	31.7	45.9	34.8	14.1	4.9	19.0	.2	100.0
대재이상	(565)	14.6	25.2	39.8	38.2	15.2	6.8	22.0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27.5	27.5	21.5	29.3	21.8	51.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3	50.9	63.2	12.3	12.3	12.3	24.5	.0	100.0
자영업	(335)	11.6	27.6	39.2	32.7	21.2	6.6	27.9	.3	100.0
블루칼라	(247)	19.7	28.0	47.7	32.8	12.5	7.0	19.5	.0	100.0
화이트칼라	(252)	15.6	27.9	43.5	39.9	11.4	5.1	16.5	.0	100.0
전업주부	(211)	13.2	33.6	46.8	41.1	10.2	1.9	12.1	.0	100.0
무직 / 기타	(140)	10.0	26.6	36.6	38.2	17.3	7.9	25.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7.9	28.1	46.0	32.7	12.4	8.9	21.3	.0	100.0
200~299만원	(287)	14.1	30.1	44.3	35.8	16.4	3.5	19.9	.0	100.0
300~399만원	(384)	13.2	31.5	44.7	36.3	14.3	4.4	18.7	.3	100.0
400만원이상	(311)	13.7	25.0	38.8	38.4	16.4	6.4	22.8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6.3	36.3	31.7	.0	32.0	32.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6.5	22.8	39.3	38.0	15.4	7.1	22.5	.2	100.0
충청권	(117)	11.1	28.6	39.7	34.2	21.8	4.3	26.1	.0	100.0
호남권	(116)	17.2	35.6	52.9	25.6	12.9	8.6	21.6	.0	100.0
영남권	(314)	10.7	40.5	51.3	33.8	12.9	2.0	14.9	.0	100.0
강원	(35)	5.7	17.1	22.9	62.9	8.6	5.7	14.3	.0	100.0
제주	(13)	15.4	15.4	30.8	38.5	7.7	23.1	30.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3.4	27.6	41.1	36.6	16.4	5.7	22.1	.2	100.0
중·소도시	(541)	15.6	29.1	44.7	35.4	13.2	6.7	19.9	.0	100.0
읍 / 면	(90)	11.1	36.6	47.7	36.7	14.5	1.1	15.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2.3	26.1	48.5	32.2	14.2	5.2	19.4	.0	100.0
중도	(578)	10.5	33.1	43.6	39.5	13.4	3.5	16.9	.0	100.0
보수적	(289)	12.3	23.9	36.3	33.7	18.5	11.1	29.6	.4	100.0
■ 종교										
불교	(258)	14.6	31.4	46.0	31.0	17.2	5.8	23.0	.0	100.0
기독교	(263)	15.5	23.1	38.5	36.0	16.3	8.8	25.1	.4	100.0
천주교	(114)	19.3	26.0	45.3	34.8	14.7	5.2	19.8	.0	100.0
기타	(7)	28.1	42.1	70.2	14.0	.0	15.8	15.8	.0	100.0
종교없음	(546)	12.2	31.1	43.3	38.8	13.4	4.5	17.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4	30.3	45.6	46.8	7.5	.0	7.5	.0	100.0

표29-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 전체	(1201)	25.1	38.6	63.8	30.1	5.0	1.0	6.0	2	100.0
■ 성별										
남자	(611)	26.1	39.8	65.8	27.8	5.1	1.3	6.4	.0	100.0
여자	(590)	24.2	37.4	61.6	32.5	4.8	.7	5.5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6.0	34.8	60.8	30.6	7.0	1.2	8.1	.4	100.0
30대	(290)	27.8	34.6	62.3	33.3	2.7	1.4	4.1	.3	100.0
40대	(306)	26.1	40.7	66.8	28.7	3.9	.7	4.5	.0	100.0
50대이상	(346)	21.4	43.1	64.5	28.3	6.3	.9	7.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3.4	42.9	56.3	37.8	5.9	.0	5.9	.0	100.0
고졸	(510)	22.1	41.0	63.1	31.4	4.1	1.4	5.5	.0	100.0
대재이상	(565)	30.4	35.2	65.6	27.5	5.7	.9	6.5	.3	100.0
무름 / 무응답	(14)	14.6	58.6	73.2	26.8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30.7	28.5	59.1	28.6	6.1	6.1	12.3	.0	100.0
자영업	(335)	24.9	42.9	67.8	27.7	4.2	.3	4.5	.0	100.0
블루칼라	(247)	27.4	35.9	63.3	31.1	3.2	2.4	5.6	.0	100.0
화이트칼라	(252)	26.7	37.7	64.3	30.9	4.0	.4	4.4	.4	100.0
전업주부	(211)	18.1	36.9	55.1	38.0	5.5	1.0	6.5	.4	100.0
무직 / 기타	(140)	28.8	38.7	67.5	21.0	10.8	.7	11.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9.2	35.2	64.4	30.8	2.7	2.0	4.7	.0	100.0
200~299만원	(287)	24.3	39.6	64.0	31.5	3.8	.7	4.5	.0	100.0
300~399만원	(384)	20.7	42.3	63.1	31.7	4.4	.3	4.7	.5	100.0
400만원이상	(311)	28.0	35.2	63.2	27.2	8.0	1.6	9.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39.8	43.5	83.3	8.8	7.9	.0	7.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9.8	33.8	63.6	29.9	5.7	.5	6.2	.3	100.0
충청권	(117)	15.4	50.0	65.4	28.6	2.6	3.4	6.0	.0	100.0
호남권	(116)	17.2	51.1	68.4	21.3	7.8	2.6	10.3	.0	100.0
영남권	(314)	22.4	37.4	59.7	35.5	4.1	.6	4.8	.0	100.0
강원	(35)	22.9	45.7	68.6	31.4	.0	.0	.0	.0	100.0
제주	(13)	38.5	61.5	100.0	.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4.8	37.9	62.7	32.1	4.7	.4	5.0	.2	100.0
중·소도시	(541)	27.1	38.4	65.5	27.7	4.8	1.9	6.7	.2	100.0
읍 / 면	(90)	15.6	44.5	60.1	32.1	7.8	.0	7.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9.6	38.1	67.7	26.2	4.2	1.5	5.7	.3	100.0
중도	(578)	21.5	38.8	60.3	33.1	5.8	.5	6.3	.2	100.0
보수적	(289)	27.2	38.8	66.0	28.5	4.1	1.4	5.5	.0	100.0
■ 종교										
불교	(258)	24.7	38.3	63.0	30.4	5.8	.8	6.6	.0	100.0
기독교	(263)	29.9	37.3	67.2	25.3	6.0	1.1	7.1	.4	100.0
천주교	(114)	26.1	47.2	73.3	19.8	5.2	1.7	6.9	.0	100.0
기타	(7)	28.1	29.8	57.9	14.0	28.1	.0	28.1	.0	100.0
종교없음	(546)	23.0	37.8	60.8	34.4	3.7	.9	4.6	.2	100.0
무름 / 무응답	(13)	15.2	38.1	53.2	39.2	7.5	.0	7.5	.0	100.0

표29-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 전체	(1201)	17.3	32.6	49.9	31.3	14.1	4.6	18.7	.1	100.0
■ 성별										
남자	(611)	17.9	33.2	51.1	29.0	14.2	5.7	19.9	.0	100.0
여자	(590)	16.6	32.1	48.7	33.7	14.0	3.4	17.4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7.0	27.5	44.6	33.0	16.6	5.4	22.1	.4	100.0
30대	(290)	16.7	30.2	46.8	36.0	13.4	3.8	17.1	.0	100.0
40대	(306)	15.8	34.9	50.7	28.7	13.1	7.5	20.6	.0	100.0
50대이상	(346)	19.2	36.6	55.8	28.5	13.7	2.0	15.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8	34.3	53.1	28.7	15.6	2.6	18.3	.0	100.0
고졸	(510)	18.9	35.4	54.3	29.5	13.5	2.8	16.2	.0	100.0
대재이상	(565)	15.4	29.6	44.9	33.8	14.4	6.7	21.1	.2	100.0
무름 / 무응답	(14)	21.8	44.1	65.9	21.9	12.2	.0	12.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36.6	36.6	28.6	28.6	6.1	34.7	.0	100.0
자영업	(335)	18.2	32.7	50.9	32.1	13.1	3.9	17.0	.0	100.0
블루칼라	(247)	20.8	33.6	54.4	26.9	14.6	4.0	18.7	.0	100.0
화이트칼라	(252)	15.8	30.0	45.7	32.6	13.7	7.5	21.2	.4	100.0
전업주부	(211)	15.2	36.4	51.6	32.4	13.2	2.8	16.1	.0	100.0
무직 / 기타	(140)	16.5	29.5	46.0	33.8	15.8	4.3	20.1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2.4	28.0	50.4	32.0	14.2	3.4	17.6	.0	100.0
200~299만원	(287)	15.8	34.4	50.2	33.4	12.9	3.5	16.4	.0	100.0
300~399만원	(384)	15.8	32.3	48.1	30.8	16.7	4.2	20.9	.3	100.0
400만원이상	(311)	17.1	33.7	50.8	30.1	12.1	7.0	19.2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7	52.9	68.6	23.6	7.9	.0	7.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9.3	33.5	52.8	30.7	12.5	3.8	16.3	.2	100.0
충청권	(117)	16.2	30.3	46.6	26.1	19.7	7.7	27.4	.0	100.0
호남권	(116)	9.5	21.3	30.7	33.3	22.1	13.8	35.9	.0	100.0
영남권	(314)	16.7	35.9	52.6	33.5	12.3	1.6	13.9	.0	100.0
강원	(35)	17.1	34.3	51.4	31.4	14.3	2.9	17.1	.0	100.0
제주	(13)	15.4	30.8	46.2	38.5	7.7	7.7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6.0	30.5	46.5	32.8	17.2	3.5	20.7	.0	100.0
중·소도시	(541)	18.8	34.4	53.3	30.6	10.4	5.5	15.9	.2	100.0
읍 / 면	(90)	15.6	35.6	51.2	26.6	16.7	5.6	2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3.9	31.0	44.9	28.2	17.4	9.2	26.6	.3	100.0
중도	(578)	15.8	35.2	51.0	33.2	12.7	3.1	15.8	.0	100.0
보수적	(289)	24.2	29.4	53.6	31.3	13.0	2.1	15.1	.0	100.0
■ 종교										
불교	(258)	20.5	34.1	54.6	24.9	14.7	5.8	20.5	.0	100.0
기독교	(263)	19.2	31.6	50.8	29.8	14.1	5.0	19.0	.4	100.0
천주교	(114)	10.4	32.1	42.5	36.6	13.9	7.0	20.9	.0	100.0
기타	(7)	28.1	14.0	42.1	14.0	14.0	29.8	43.9	.0	100.0
종교없음	(546)	16.5	33.4	49.9	33.3	13.6	3.1	16.7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3	7.3	69.8	22.9	.0	22.9	.0	100.0

표3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전체	(1201)	63.2	25.7	88.9	10.3	6	2	.7	.1	100.0
■ 성별										
남자	(611)	63.4	26.0	89.5	9.7	5	3	.8	.0	100.0
여자	(590)	62.9	25.3	88.2	11.0	7	0	.7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9.0	26.7	85.7	13.9	0	4	.4	.0	100.0
30대	(290)	58.5	27.4	86.0	11.7	1.7	3	2.0	.3	100.0
40대	(306)	60.9	27.3	88.2	11.2	.6	0	.6	.0	100.0
50대이상	(346)	72.2	22.0	94.2	5.8	0	0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9.6	25.0	94.6	5.4	0	0	.0	.0	100.0
고졸	(510)	65.3	23.9	89.2	9.9	.6	2	.7	.2	100.0
대재이상	(565)	60.0	27.1	87.1	12.0	.7	2	.9	.0	100.0
무름 / 무응답	(14)	62.7	37.3	100.0	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3.2	30.7	93.9	6.1	0	0	.0	.0	100.0
자영업	(335)	69.9	22.4	92.3	7.4	.3	0	.3	.0	100.0
블루칼라	(247)	60.9	25.9	86.8	11.6	1.2	4	1.6	.0	100.0
화이트칼라	(252)	60.3	27.9	88.2	11.4	4	0	.4	.0	100.0
전업주부	(211)	60.9	27.0	87.8	10.8	.9	0	.9	.5	100.0
무직 / 기타	(140)	59.8	26.6	86.4	12.9	0	7	.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5.2	25.2	90.4	8.2	.5	1.0	1.4	.0	100.0
200~299만원	(287)	58.4	28.2	86.6	12.4	1.0	0	1.0	.0	100.0
300~399만원	(384)	63.0	26.1	89.1	10.4	.5	0	.5	.0	100.0
400만원이상	(311)	65.2	23.9	89.1	10.2	.3	0	.3	.3	100.0
무름 / 무응답	(13)	92.1	7.9	100.0	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6.3	22.7	89.0	10.2	.5	2	.7	.2	100.0
충청권	(117)	60.7	30.8	91.5	6.8	1.7	0	1.7	.0	100.0
호남권	(116)	50.0	34.5	84.5	14.7	.9	0	.9	.0	100.0
영남권	(314)	59.9	27.9	87.8	11.6	.3	3	.6	.0	100.0
강원	(35)	82.9	14.3	97.1	2.9	0	0	.0	.0	100.0
제주	(13)	84.6	15.4	100.0	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2.1	26.3	88.4	11.3	.2	2	.3	.0	100.0
중·소도시	(541)	62.8	25.9	88.8	9.8	1.1	2	1.3	.2	100.0
읍 / 면	(90)	72.2	20.0	92.2	7.8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6.6	30.3	86.9	12.5	.3	0	.3	.3	100.0
중도	(578)	61.6	25.8	87.4	11.4	.9	.3	1.2	.0	100.0
보수적	(289)	74.0	20.1	94.1	5.6	.3	0	.3	.0	100.0
■ 종교										
불교	(258)	62.4	26.8	89.1	10.5	.4	0	.4	.0	100.0
기독교	(263)	68.8	20.2	89.0	10.3	.8	0	.8	.0	100.0
천주교	(114)	63.7	24.2	87.9	10.4	0	.9	.9	.9	100.0
기타	(7)	71.9	14.0	86.0	14.0	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62.1	27.8	89.9	9.2	.7	.2	.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5.7	45.7	54.3	0	0	.0	.0	100.0

표3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1)	10.4	37.3	47.7	34.6	13.7	3.9	17.6	100.0
■ 성별									
남자	(611)	11.8	37.3	49.1	31.3	14.4	5.1	19.6	100.0
여자	(590)	9.0	37.3	46.3	38.1	12.9	2.7	15.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8.9	33.3	42.2	40.3	9.7	7.7	17.5	100.0
30대	(290)	10.2	39.6	49.8	37.8	9.7	2.7	12.4	100.0
40대	(306)	13.8	37.0	50.8	35.1	12.5	1.7	14.1	100.0
50대이상	(346)	8.7	38.7	47.4	27.4	21.1	4.1	2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9	49.8	59.6	26.2	12.4	1.8	14.2	100.0
고졸	(510)	9.3	34.3	43.6	36.6	16.3	3.5	19.9	100.0
대재이상	(565)	11.5	37.5	48.9	35.1	11.4	4.7	16.0	100.0
무름 / 무응답	(14)	12.2	43.5	55.6	14.6	22.4	7.3	29.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0.3	55.2	75.5	6.1	18.4	.0	18.4	100.0
자영업	(335)	11.5	33.4	44.9	33.3	17.9	3.9	21.9	100.0
블루칼라	(247)	9.8	32.0	41.8	40.3	12.1	5.7	17.9	100.0
화이트칼라	(252)	11.4	42.6	54.0	33.2	10.0	2.8	12.8	100.0
전업주부	(211)	7.6	44.9	52.5	33.8	12.3	1.4	13.7	100.0
무직 / 기타	(140)	10.1	33.0	43.2	35.2	14.5	7.1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2.9	42.4	55.4	27.7	12.5	4.5	17.0	100.0
200~299만원	(287)	8.7	35.7	44.5	38.1	15.7	1.7	17.4	100.0
300~399만원	(384)	10.8	36.4	47.3	36.7	12.1	3.9	16.0	100.0
400만원이상	(311)	9.8	37.1	46.9	33.7	13.9	5.5	19.4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23.6	31.4	29.0	31.7	7.9	39.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5	32.5	41.0	38.2	15.6	5.1	20.8	100.0
충청권	(117)	19.7	43.2	62.8	20.9	12.8	3.4	16.2	100.0
호남권	(116)	22.7	47.4	70.1	23.9	5.2	.9	6.0	100.0
영남권	(314)	5.5	41.6	47.1	37.0	13.9	2.0	15.9	100.0
강원	(35)	11.4	25.7	37.1	37.1	11.4	14.3	25.7	100.0
제주	(13)	23.1	46.2	69.2	23.1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9.5	38.3	47.8	34.7	14.0	3.6	17.5	100.0
중·소도시	(541)	10.7	34.4	45.1	35.7	14.6	4.6	19.2	100.0
읍 / 면	(90)	14.5	48.8	63.3	27.8	6.7	2.2	8.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5.5	35.8	51.3	33.5	11.6	3.7	15.2	100.0
중도	(578)	7.7	38.7	46.4	36.9	13.2	3.4	16.6	100.0
보수적	(289)	9.9	36.3	46.2	31.3	17.2	5.3	22.5	100.0
■ 종교									
불교	(258)	10.0	39.6	49.6	31.1	15.4	3.9	19.3	100.0
기독교	(263)	13.5	32.6	46.1	37.2	12.9	3.8	16.8	100.0
천주교	(114)	7.8	41.8	49.6	32.8	13.2	4.4	17.6	100.0
기타	(7)	.0	56.1	56.1	14.0	14.0	15.8	29.8	100.0
종교없음	(546)	10.0	37.5	47.5	34.9	13.7	3.9	17.6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0.7	30.7	69.3	.0	.0	.0	100.0

표3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	조금 크다 %	%	중간 %	별로 크지 않다 %	거의 없다 %	%	%
■ 전체	(1201)	13.8	35.7	49.5	36.7	11.0	2.7	13.7	100.0
■ 성별									
남자	(611)	13.7	35.2	48.9	35.8	11.2	4.2	15.3	100.0
여자	(590)	13.8	36.3	50.2	37.8	10.8	1.2	12.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0.1	34.8	45.0	39.1	10.5	5.4	15.9	100.0
30대	(290)	12.8	38.6	51.4	39.3	8.0	1.4	9.3	100.0
40대	(306)	19.4	34.7	54.1	35.6	9.2	1.0	10.2	100.0
50대이상	(346)	12.4	34.9	47.3	33.8	15.6	3.3	18.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6.8	39.1	56.0	32.4	9.8	1.9	11.7	100.0
고졸	(510)	13.6	34.6	48.2	36.8	12.8	2.2	15.0	100.0
대재이상	(565)	13.2	36.5	49.7	37.2	9.7	3.4	13.1	100.0
무름 / 무응답	(14)	19.3	21.9	41.3	51.7	7.1	.0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6.4	36.8	63.2	30.7	6.1	.0	6.1	100.0
자영업	(335)	13.0	36.7	49.7	37.0	10.5	2.8	13.3	100.0
블루칼라	(247)	12.0	32.6	44.6	38.7	11.0	5.8	16.8	100.0
화이트칼라	(252)	15.0	34.9	49.9	38.2	9.5	2.4	11.8	100.0
전업주부	(211)	14.8	39.1	53.9	33.3	12.8	.0	12.8	100.0
무직 / 기타	(140)	13.7	35.3	49.0	35.9	13.0	2.1	15.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7.7	34.7	52.4	35.4	8.6	3.6	12.2	100.0
200~299만원	(287)	11.7	37.8	49.5	40.3	9.5	.7	10.2	100.0
300~399만원	(384)	15.3	37.7	53.0	32.9	12.5	1.6	14.1	100.0
400만원이상	(311)	11.7	33.0	44.8	38.8	11.2	5.2	16.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5.7	15.7	45.0	31.4	7.9	39.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0.1	31.7	41.8	41.7	12.6	3.8	16.5	100.0
충청권	(117)	14.5	36.8	51.3	38.5	6.8	3.4	10.3	100.0
호남권	(116)	27.0	42.0	69.0	24.1	5.2	1.7	6.9	100.0
영남권	(314)	14.7	41.5	56.2	31.4	11.3	1.1	12.4	100.0
강원	(35)	25.7	34.3	60.0	28.6	11.4	.0	11.4	100.0
제주	(13)	7.7	23.1	30.8	53.8	15.4	.0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2.4	37.5	50.0	35.5	11.5	3.1	14.6	100.0
중·소도시	(541)	15.3	32.8	48.1	37.4	12.0	2.6	14.6	100.0
읍 / 면	(90)	13.2	42.3	55.5	41.2	2.2	1.1	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0.1	34.6	54.7	33.4	9.7	2.2	11.9	100.0
중도	(578)	11.4	35.3	46.7	40.4	11.2	1.7	12.9	100.0
보수적	(289)	11.3	38.0	49.2	33.3	12.2	5.3	17.5	100.0
■ 종교									
불교	(258)	13.8	37.9	51.7	33.3	12.6	2.3	15.0	100.0
기독교	(263)	13.4	32.6	46.0	38.4	11.4	4.3	15.6	100.0
천주교	(114)	13.9	34.1	48.0	43.3	7.0	1.7	8.7	100.0
기타	(7)	28.1	28.1	56.1	28.1	.0	15.8	15.8	100.0
종교없음	(546)	13.9	37.3	51.2	35.4	11.1	2.2	13.4	100.0
무름 / 무응답	(13)	7.5	7.8	15.3	77.1	7.5	.0	7.5	100.0

표3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1)	26.4	39.0	65.5	27.5	6.1	.9	7.0	100.0
■ 성별									
남자	(611)	26.9	41.2	68.1	26.1	4.6	1.2	5.8	100.0
여자	(590)	25.9	36.9	62.8	28.9	7.6	.7	8.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8.4	30.5	59.0	31.8	7.7	1.5	9.3	100.0
30대	(290)	26.3	39.6	65.9	29.0	4.4	.7	5.1	100.0
40대	(306)	28.6	39.7	68.3	25.6	5.0	1.0	6.0	100.0
50대이상	(346)	23.1	44.4	67.4	24.8	7.2	.6	7.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7.4	46.1	73.4	20.2	5.3	1.0	6.3	100.0
고졸	(510)	24.7	39.8	64.5	27.6	6.9	1.0	7.9	100.0
대재이상	(565)	28.0	37.0	64.9	28.5	5.7	.9	6.6	100.0
무름 / 무응답	(14)	19.5	37.5	57.0	43.0	.0	.0	.0	100.0
■ 직업별									
농/축산업	(16)	26.4	61.3	87.7	12.3	.0	.0	.0	100.0
자영업	(335)	24.6	41.6	66.2	26.6	6.0	1.3	7.2	100.0
블루칼라	(247)	25.6	37.5	63.1	31.5	3.8	1.6	5.4	100.0
화이트칼라	(252)	30.5	36.8	67.3	26.0	5.9	.8	6.7	100.0
전업주부	(211)	25.1	38.0	63.1	27.4	9.5	.0	9.5	100.0
무직 / 기타	(140)	26.8	38.7	65.5	27.3	6.5	.7	7.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9.8	39.0	68.8	23.9	5.8	1.5	7.3	100.0
200~299만원	(287)	27.2	34.5	61.7	32.6	5.0	.7	5.7	100.0
300~399만원	(384)	23.8	42.1	65.9	26.8	6.8	.5	7.3	100.0
400만원이상	(311)	27.1	38.9	66.0	26.2	6.5	1.3	7.7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52.3	68.3	23.8	7.9	.0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5.4	38.8	64.2	28.4	6.3	1.2	7.4	100.0
충청권	(117)	16.2	40.6	56.8	36.3	5.1	1.7	6.8	100.0
호남권	(116)	32.8	43.1	75.9	21.6	1.7	.9	2.6	100.0
영남권	(314)	29.1	37.1	66.2	25.7	7.7	.3	8.1	100.0
강원	(35)	37.1	40.0	77.1	17.1	5.7	.0	5.7	100.0
제주	(13)	15.4	46.2	61.5	30.8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5.9	39.2	65.1	27.0	6.7	1.2	8.0	100.0
중·소도시	(541)	27.6	37.7	65.3	27.8	6.3	.6	6.9	100.0
읍 / 면	(90)	22.3	46.6	68.8	28.9	1.1	1.1	2.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0.7	34.2	64.9	29.1	5.7	.3	6.0	100.0
중도	(578)	22.6	40.0	62.6	30.2	6.4	.9	7.2	100.0
보수적	(289)	29.0	42.8	71.9	20.3	6.0	1.8	7.8	100.0
■ 종교									
불교	(258)	25.6	46.5	72.1	20.1	7.4	.4	7.8	100.0
기독교	(263)	32.0	31.8	63.7	28.6	6.1	1.6	7.7	100.0
천주교	(114)	19.1	43.6	62.7	31.3	5.2	.9	6.1	100.0
기타	(7)	28.1	42.1	70.2	14.0	.0	15.8	15.8	100.0
종교없음	(546)	26.1	38.8	64.8	28.7	5.7	.7	6.4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7.8	15.4	77.1	7.5	.0	7.5	100.0

표30-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1)	8.9	26.3	35.2	46.4	14.1	4.4	18.5	100.0
■ 성별									
남자	(611)	9.3	25.3	34.6	43.4	15.7	6.3	21.9	100.0
여자	(590)	8.4	27.3	35.7	49.4	12.5	2.4	14.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0.1	17.1	27.2	49.2	16.6	7.0	23.6	100.0
30대	(290)	6.5	27.8	34.3	52.7	9.9	3.2	13.0	100.0
40대	(306)	13.2	28.6	41.8	41.4	12.5	4.3	16.7	100.0
50대이상	(346)	6.2	29.8	35.9	43.4	17.2	3.5	2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1.5	33.7	45.2	39.9	12.1	2.8	14.9	100.0
고졸	(510)	7.7	26.1	33.8	46.7	15.9	3.6	19.5	100.0
대재이상	(565)	9.5	25.1	34.6	46.9	13.0	5.5	18.5	100.0
무름 / 무응답	(14)	4.9	21.8	26.6	66.3	7.1	.0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6.4	36.8	63.2	24.5	12.3	.0	12.3	100.0
자영업	(335)	8.6	25.5	34.1	45.9	14.8	5.2	20.0	100.0
블루칼라	(247)	8.0	25.1	33.1	47.0	14.7	5.3	19.9	100.0
화이트칼라	(252)	9.9	27.7	37.6	43.9	13.4	5.1	18.5	100.0
전업주부	(211)	9.4	27.1	36.5	50.3	12.7	.5	13.2	100.0
무직 / 기타	(140)	6.5	25.3	31.8	47.4	15.0	5.8	20.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4.8	28.5	43.3	37.4	14.0	5.4	19.4	100.0
200~299만원	(287)	9.3	21.9	31.2	52.4	12.6	3.8	16.4	100.0
300~399만원	(384)	7.2	28.4	35.5	44.9	16.3	3.2	19.6	100.0
400만원이상	(311)	7.0	26.7	33.7	48.6	12.2	5.5	17.7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6.0	16.0	47.7	28.5	7.9	3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0	25.6	32.6	47.6	14.8	5.0	19.7	100.0
충청권	(117)	6.0	23.1	29.1	52.6	13.2	5.1	18.4	100.0
호남권	(116)	17.5	29.0	46.6	40.5	8.6	4.3	12.9	100.0
영남권	(314)	10.4	27.3	37.7	43.6	15.4	3.3	18.7	100.0
강원	(35)	8.6	37.1	45.7	45.7	5.7	2.9	8.6	100.0
제주	(13)	7.7	7.7	15.4	53.8	30.8	.0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0	25.9	32.9	49.4	13.6	4.1	17.7	100.0
중·소도시	(541)	10.9	24.5	35.4	43.4	16.2	5.0	21.2	100.0
읍 / 면	(90)	8.9	38.8	47.7	45.6	4.5	2.2	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2.5	24.9	37.4	43.1	14.9	4.6	19.5	100.0
중도	(578)	7.2	27.7	34.8	48.3	13.1	3.8	16.9	100.0
보수적	(289)	8.2	25.0	33.2	46.5	15.1	5.3	20.4	100.0
■ 종교									
불교	(258)	7.7	30.5	38.3	42.8	16.1	2.8	18.9	100.0
기독교	(263)	9.3	22.4	31.7	47.2	14.1	6.9	21.0	100.0
천주교	(114)	6.9	32.3	39.2	47.8	7.8	5.2	13.0	100.0
기타	(7)	.0	28.1	28.1	56.1	.0	15.8	15.8	100.0
종교없음	(546)	10.0	24.9	34.9	46.7	14.8	3.7	18.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3.2	23.2	69.3	7.5	.0	7.5	100.0

표3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	
■ 전체	(1201)	3.8	37.1	40.9	52.0	6.9	58.9	2	100.0
■ 성별									
남자	(611)	3.4	40.5	44.0	47.7	8.1	55.7	.3	100.0
여자	(590)	4.2	33.5	37.7	56.5	5.7	62.2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5	28.0	31.5	57.7	10.9	68.5	.0	100.0
30대	(290)	3.0	38.4	41.4	50.1	8.5	58.6	.0	100.0
40대	(306)	4.8	37.2	42.0	53.8	4.2	58.0	.0	100.0
50대이상	(346)	3.8	42.7	46.5	47.8	4.9	52.7	.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5	34.0	38.5	57.1	3.6	60.6	.9	100.0
고졸	(510)	4.5	36.1	40.5	51.7	7.6	59.3	2	100.0
대재이상	(565)	3.2	38.5	41.6	51.3	6.9	58.2	.2	100.0
무름 / 무응답	(14)	.0	42.4	42.4	50.3	7.3	57.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53.0	59.1	40.9	.0	40.9	.0	100.0
자영업	(335)	3.3	46.5	49.8	43.9	5.7	49.7	.6	100.0
블루칼라	(247)	4.8	34.7	39.6	50.8	9.3	60.1	.4	100.0
화이트칼라	(252)	3.5	33.6	37.1	54.2	8.7	62.9	.0	100.0
전업주부	(211)	4.2	28.5	32.7	62.3	4.9	67.3	.0	100.0
무직 / 기타	(140)	3.0	36.0	39.0	55.3	5.7	61.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8	33.6	37.4	52.9	8.7	61.6	1.0	100.0
200~299만원	(287)	2.8	38.2	40.9	51.3	7.7	59.1	.0	100.0
300~399만원	(384)	5.2	34.4	39.6	54.3	5.9	60.2	.3	100.0
400만원이상	(311)	3.2	41.5	44.7	48.9	6.4	55.3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9.8	39.8	60.2	.0	60.2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2	40.1	45.3	47.8	6.4	54.2	.5	100.0
충청권	(117)	2.6	50.0	52.6	44.0	3.4	47.4	.0	100.0
호남권	(116)	4.3	35.9	40.2	54.6	5.2	59.8	.0	100.0
영남권	(314)	1.2	27.1	28.4	62.5	9.2	71.6	.0	100.0
강원	(35)	2.9	28.6	31.4	57.1	11.4	68.6	.0	100.0
제주	(13)	7.7	53.8	61.5	30.8	7.7	38.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3	38.3	41.5	50.4	7.8	58.3	.2	100.0
중·소도시	(541)	4.6	37.4	42.0	51.6	6.1	57.7	.4	100.0
읍 / 면	(90)	2.2	27.8	30.0	64.4	5.6	70.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1	41.9	50.0	42.6	7.0	49.7	.3	100.0
중도	(578)	1.9	35.4	37.2	56.7	5.9	62.6	.2	100.0
보수적	(289)	2.7	34.9	37.6	53.4	8.7	62.1	.3	100.0
■ 종교									
불교	(258)	4.2	36.8	41.0	49.7	8.5	58.2	.7	100.0
기독교	(263)	4.5	42.3	46.8	46.3	6.8	53.2	.0	100.0
천주교	(114)	5.3	33.8	39.1	55.7	4.3	60.0	.9	100.0
기타	(7)	.0	42.1	42.1	57.9	.0	57.9	.0	100.0
종교없음	(546)	2.7	34.9	37.6	55.5	6.9	62.4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1	53.4	69.5	30.5	.0	30.5	.0	100.0

표32-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거림	다소 거림	①+②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전체	(1201)	1.4	14.0	15.4	39.9	34.6	10.1	44.7	100.0
■ 성별									
남자	(611)	1.5	13.0	14.4	37.1	37.3	11.1	48.4	100.0
여자	(590)	1.4	15.1	16.5	42.7	31.8	9.0	40.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5	12.5	14.0	46.4	30.3	9.3	39.6	100.0
30대	(290)	1.4	12.1	13.5	44.9	34.1	7.5	41.6	100.0
40대	(306)	1.0	14.9	15.8	39.2	34.5	10.5	45.0	100.0
50대이상	(346)	1.7	16.1	17.8	31.4	38.3	12.4	5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7	16.7	18.4	35.1	34.7	11.9	46.5	100.0
고졸	(510)	2.0	15.7	17.7	35.5	34.7	12.1	46.8	100.0
대재이상	(565)	.7	11.8	12.5	45.3	34.2	7.9	42.2	100.0
무림 / 무응답	(14)	7.3	21.7	29.0	19.1	44.8	7.1	5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6.1	6.1	32.5	30.7	30.7	61.3	100.0
자영업	(335)	.9	11.3	12.1	34.6	40.8	12.5	53.3	100.0
블루칼라	(247)	3.2	15.7	18.8	40.4	29.8	10.9	40.7	100.0
화이트칼라	(252)	1.2	13.4	14.6	43.1	35.3	7.1	42.4	100.0
전업주부	(211)	1.4	19.2	20.6	44.2	29.5	5.7	35.2	100.0
무직 / 기타	(140)	.0	12.2	12.2	40.2	35.3	12.3	47.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9	16.8	19.7	39.1	26.1	15.0	41.2	100.0
200~299만원	(287)	1.4	13.5	14.8	42.0	34.0	9.2	43.1	100.0
300~399만원	(384)	1.0	15.0	16.1	39.8	36.3	7.8	44.1	100.0
400만원이상	(311)	1.0	12.1	13.0	39.0	37.9	10.1	48.0	100.0
무림 / 무응답	(13)	.0	.0	.0	28.5	55.5	16.0	71.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3	12.3	13.6	41.7	35.2	9.5	44.7	100.0
충청권	(117)	2.6	12.8	15.4	29.5	42.3	12.8	55.1	100.0
호남권	(116)	.9	16.4	17.2	35.3	33.6	13.8	47.4	100.0
영남권	(314)	1.6	17.9	19.5	40.0	32.4	8.1	40.4	100.0
강원	(35)	.0	11.4	11.4	60.0	20.0	8.6	28.6	100.0
제주	(13)	.0	.0	.0	30.8	38.5	30.8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2	12.8	14.0	42.0	35.7	8.2	43.9	100.0
중·소도시	(541)	1.7	15.7	17.3	38.3	32.3	12.0	44.3	100.0
읍 / 면	(90)	1.1	12.2	13.4	35.5	41.2	10.0	51.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	15.5	16.1	35.5	37.1	11.3	48.4	100.0
중도	(578)	1.4	12.8	14.1	42.3	33.9	9.6	43.6	100.0
보수적	(289)	2.4	14.9	17.3	40.2	33.0	9.5	42.5	100.0
■ 종교									
불교	(258)	1.9	15.1	17.0	38.9	34.4	9.7	44.1	100.0
기독교	(263)	1.5	17.9	19.4	36.9	31.6	12.1	43.7	100.0
천주교	(114)	.0	7.9	7.9	42.5	40.1	9.6	49.7	100.0
기타	(7)	.0	.0	.0	28.1	57.9	14.0	71.9	100.0
종교없음	(546)	1.5	13.5	14.9	41.5	34.2	9.4	43.6	100.0
무림 / 무응답	(13)	.0	.0	.0	38.1	53.2	8.8	61.9	100.0

표32-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
■ 전체	(1201)	2.9	13.3	16.2	39.1	33.7	11.1	44.7	100.0
■ 성별									
남자	(611)	2.8	11.6	14.4	36.9	35.8	12.9	48.7	100.0
여자	(590)	3.0	15.0	18.0	41.4	31.4	9.1	40.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7	11.9	14.6	45.4	29.5	10.4	40.0	100.0
30대	(290)	2.7	11.9	14.7	42.3	34.8	8.2	43.0	100.0
40대	(306)	2.0	13.5	15.5	37.4	36.0	11.1	47.2	100.0
50대이상	(346)	4.0	15.1	19.2	33.3	33.7	13.8	47.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7	21.7	24.4	32.7	29.3	13.6	42.9	100.0
고졸	(510)	4.1	13.9	18.0	37.9	32.6	11.5	44.1	100.0
대재이상	(565)	1.8	10.8	12.5	42.0	35.2	10.2	45.4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21.7	29.0	19.1	44.8	7.1	5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6.1	6.1	32.5	36.8	24.5	61.3	100.0
자영업	(335)	1.2	11.7	12.8	33.3	38.1	15.8	53.8	100.0
블루칼라	(247)	5.2	13.4	18.6	42.4	28.9	10.1	39.0	100.0
화이트칼라	(252)	2.4	12.7	15.1	39.5	36.7	8.7	45.4	100.0
전업주부	(211)	5.2	19.0	24.1	43.9	26.3	5.7	32.0	100.0
무직 / 기타	(140)	.7	10.0	10.7	40.3	36.7	12.3	49.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4	16.8	20.2	39.2	27.5	13.1	40.6	100.0
200~299만원	(287)	2.4	12.9	15.4	41.5	31.9	11.2	43.2	100.0
300~399만원	(384)	3.6	13.8	17.5	35.8	38.7	8.1	46.8	100.0
400만원이상	(311)	2.3	11.0	13.2	41.1	32.6	13.0	45.6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36.3	47.7	16.0	63.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5	11.0	13.5	41.5	33.7	11.3	45.0	100.0
충청권	(117)	2.6	9.4	12.0	32.1	43.2	12.8	56.0	100.0
호남권	(116)	.9	15.5	16.4	36.2	35.3	12.1	47.4	100.0
영남권	(314)	5.1	18.9	24.0	37.8	29.5	8.7	38.2	100.0
강원	(35)	.0	11.4	11.4	48.6	31.4	8.6	40.0	100.0
제주	(13)	.0	.0	.0	23.1	38.5	38.5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9	13.0	16.9	40.0	34.1	8.9	43.1	100.0
중·소도시	(541)	2.2	13.7	15.9	38.2	33.0	12.9	45.9	100.0
읍 / 면	(90)	1.1	12.2	13.4	38.8	34.5	13.4	4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0	14.1	17.1	36.1	34.6	12.2	46.8	100.0
중도	(578)	2.1	12.6	14.7	40.9	33.6	10.9	44.5	100.0
보수적	(289)	4.5	13.6	18.1	39.1	32.6	10.2	42.8	100.0
■ 종교									
불교	(258)	3.5	15.3	18.8	37.6	32.0	11.6	43.6	100.0
기독교	(263)	2.7	14.4	17.0	38.2	32.3	12.5	44.8	100.0
천주교	(114)	1.7	6.1	7.8	38.1	42.8	11.3	54.1	100.0
기타	(7)	.0	28.1	28.1	14.0	43.9	14.0	57.9	100.0
종교없음	(546)	3.1	13.2	16.3	41.2	32.4	10.1	42.5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3	7.3	22.9	61.0	8.8	69.7	100.0

표32-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	
■ 전체	(1201)	11.2	25.2	36.4	34.3	22.4	6.6	29.0	2	100.0
■ 성별										
남자	(611)	10.7	22.1	32.8	33.5	25.1	8.4	33.5	.2	100.0
여자	(590)	11.7	28.4	40.1	35.2	19.6	4.8	24.3	.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1.9	22.9	34.8	36.4	20.6	8.2	28.8	.0	100.0
30대	(290)	11.6	23.1	34.7	38.0	22.8	4.2	26.9	.3	100.0
40대	(306)	9.2	25.1	34.3	34.1	25.2	6.2	31.3	.3	100.0
50대이상	(346)	12.0	28.8	40.9	30.0	21.0	7.9	28.9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6.3	26.2	42.4	33.8	14.6	9.1	23.7	.0	100.0
고졸	(510)	12.3	28.2	40.5	28.6	23.5	7.1	30.7	.2	100.0
대재이상	(565)	9.1	22.3	31.4	39.7	22.9	5.6	28.6	.3	100.0
무름 / 무응답	(14)	14.6	27.5	42.1	28.8	21.9	7.1	29.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32.5	32.5	18.4	42.9	6.1	49.1	.0	100.0
자영업	(335)	6.5	26.5	33.0	32.9	25.3	8.4	33.8	.3	100.0
블루칼라	(247)	16.7	28.0	44.8	32.2	16.9	5.7	22.6	.4	100.0
화이트칼라	(252)	9.5	21.7	31.2	39.1	24.6	5.1	29.7	.0	100.0
전업주부	(211)	17.3	26.8	44.1	36.0	17.1	2.3	19.5	.4	100.0
무직 / 기타	(140)	7.9	20.1	28.0	32.2	26.7	13.1	39.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5.9	25.3	41.3	38.0	12.5	7.7	20.3	.5	100.0
200~299만원	(287)	10.2	25.7	35.9	32.5	26.3	5.4	31.6	.0	100.0
300~399만원	(384)	13.1	22.8	35.9	31.9	26.3	5.5	31.8	.5	100.0
400만원이상	(311)	7.0	27.8	34.8	36.3	20.5	8.3	28.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23.8	23.8	44.5	23.6	8.1	31.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0.4	23.3	33.7	37.8	22.1	6.0	28.0	.5	100.0
충청권	(117)	8.5	24.8	33.3	25.6	34.2	6.8	41.0	.0	100.0
호남권	(116)	7.8	27.0	34.8	33.3	26.7	5.2	31.9	.0	100.0
영남권	(314)	15.1	28.7	43.8	29.6	18.9	7.7	26.6	.0	100.0
강원	(35)	5.7	31.4	37.1	48.6	8.6	5.7	14.3	.0	100.0
제주	(13)	23.1	.0	23.1	38.5	15.4	23.1	38.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1.5	24.8	36.3	34.6	23.0	5.7	28.7	.3	100.0
중·소도시	(541)	11.4	25.0	36.4	33.9	21.8	7.8	29.6	.2	100.0
읍 / 면	(90)	7.8	28.9	36.7	35.5	22.3	5.6	27.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0.7	22.7	33.4	33.3	26.7	6.6	33.3	.0	100.0
중도	(578)	11.0	24.1	35.1	35.9	22.1	6.6	28.7	.3	100.0
보수적	(289)	12.1	30.3	42.4	32.6	18.0	6.6	24.7	.3	100.0
■ 종교										
불교	(258)	12.1	24.3	36.4	32.7	22.0	8.9	30.9	.0	100.0
기독교	(263)	10.8	25.2	36.0	34.7	21.7	7.2	28.9	.4	100.0
천주교	(114)	7.8	25.2	33.0	35.5	25.4	6.1	31.5	.0	100.0
기타	(7)	14.0	28.1	42.1	.0	43.9	14.0	57.9	.0	100.0
종교없음	(546)	11.9	25.5	37.4	35.1	22.0	5.2	27.2	.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0.5	30.5	37.9	22.9	8.8	31.7	.0	100.0

표32-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 전체	(1201)	22.7	28.0	50.7	26.7	16.0	6.6	22.6	100.0
■ 성별									
남자	(611)	17.8	22.1	39.9	29.9	19.7	10.5	30.2	100.0
여자	(590)	27.7	34.2	61.9	23.4	12.2	2.5	14.7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7.3	29.2	56.5	27.5	9.0	7.0	16.0	100.0
30대	(290)	23.1	28.2	51.3	27.9	17.7	3.1	20.8	100.0
40대	(306)	20.9	24.5	45.5	29.6	17.2	7.8	25.0	100.0
50대이상	(346)	20.4	30.1	50.5	22.6	18.9	8.1	26.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5.5	25.7	51.2	22.4	16.5	9.9	26.5	100.0
고졸	(510)	23.7	28.4	52.2	24.2	17.2	6.5	23.7	100.0
대재이상	(565)	20.8	28.3	49.1	30.0	14.8	6.1	20.9	100.0
무름 / 무응답	(14)	36.4	22.6	59.0	21.5	19.5	.0	19.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8.4	18.4	34.6	16.4	30.7	47.0	100.0
자영업	(335)	16.1	27.6	43.7	25.5	22.6	8.2	30.8	100.0
블루칼라	(247)	26.2	25.8	52.0	26.6	14.9	6.5	21.4	100.0
화이트칼라	(252)	22.9	25.4	48.2	31.1	16.3	4.3	20.6	100.0
전업주부	(211)	31.3	31.8	63.1	22.1	12.8	1.9	14.7	100.0
무직 / 기타	(140)	21.5	33.1	54.6	28.0	6.5	11.0	1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5.7	25.4	51.1	27.2	13.4	8.2	21.7	100.0
200~299만원	(287)	21.4	26.9	48.3	29.8	15.5	6.4	21.9	100.0
300~399만원	(384)	25.3	27.6	52.9	24.6	17.3	5.2	22.5	100.0
400만원이상	(311)	19.2	29.7	48.9	26.9	16.9	7.3	24.2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68.3	76.2	8.1	7.9	7.9	15.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9.8	27.2	47.0	27.4	18.2	7.4	25.6	100.0
충청권	(117)	29.1	25.2	54.3	21.8	19.7	4.3	23.9	100.0
호남권	(116)	19.0	36.2	55.2	21.8	12.6	10.3	23.0	100.0
영남권	(314)	28.1	28.4	56.5	26.1	12.8	4.5	17.4	100.0
강원	(35)	17.1	22.9	40.0	48.6	5.7	5.7	11.4	100.0
제주	(13)	15.4	23.1	38.5	38.5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6.1	27.1	53.2	24.2	17.2	5.4	22.6	100.0
중·소도시	(541)	18.8	28.5	47.3	29.3	15.8	7.6	23.4	100.0
읍 / 면	(90)	24.5	31.0	55.5	26.7	10.0	7.8	1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0.1	28.2	48.3	25.3	18.7	7.7	26.4	100.0
중도	(578)	22.1	27.8	49.9	28.2	16.6	5.3	22.0	100.0
보수적	(289)	26.8	28.3	55.1	25.5	11.6	7.7	19.3	100.0
■ 종교									
불교	(258)	23.9	27.8	51.7	23.6	16.2	8.5	24.7	100.0
기독교	(263)	22.9	28.4	51.3	27.3	14.8	6.7	21.4	100.0
천주교	(114)	23.5	28.6	52.1	26.2	16.5	5.2	21.7	100.0
기타	(7)	28.1	14.0	42.1	.0	28.1	29.8	57.9	100.0
종교없음	(546)	21.7	28.5	50.2	28.3	15.9	5.6	21.5	100.0
무름 / 무응답	(13)	22.9	7.5	30.5	30.3	30.5	8.8	39.3	100.0

표33.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계
		%	%	%	%
■ 전체	(1201)	47.5	43.6	8.8	100.0
■ 성별					
남자	(611)	51.7	40.6	7.7	100.0
여자	(590)	43.3	46.8	9.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3.4	49.2	7.3	100.0
30대	(290)	44.7	46.3	9.0	100.0
40대	(306)	52.7	39.7	7.5	100.0
50대이상	(346)	48.4	40.7	1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7.3	52.2	10.5	100.0
고졸	(510)	44.6	42.7	12.8	100.0
대재이상	(565)	52.5	42.7	4.7	100.0
무름 / 무응답	(14)	36.8	48.8	14.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77.5	22.5	.0	100.0
자영업	(335)	50.9	39.6	9.6	100.0
블루칼라	(247)	47.5	44.5	8.0	100.0
화이트칼라	(252)	46.5	46.4	7.1	100.0
전업주부	(211)	40.8	44.5	14.7	100.0
무직 / 기타	(140)	48.3	48.2	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1.2	43.3	15.5	100.0
200~299만원	(287)	45.2	45.6	9.3	100.0
300~399만원	(384)	47.0	47.2	5.8	100.0
400만원이상	(311)	55.3	37.3	7.4	100.0
무름 / 무응답	(13)	31.4	52.9	15.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1.9	39.8	8.3	100.0
충청권	(117)	44.4	47.9	7.7	100.0
호남권	(116)	48.6	42.0	9.5	100.0
영남권	(314)	37.6	51.8	10.6	100.0
강원	(35)	68.6	28.6	2.9	100.0
제주	(13)	46.2	46.2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7.0	44.7	8.4	100.0
중·소도시	(541)	49.2	41.3	9.5	100.0
읍 / 면	(90)	41.2	51.0	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2.4	40.4	7.2	100.0
중도	(578)	48.4	42.6	9.0	100.0
보수적	(289)	40.1	49.5	10.4	100.0
■ 종교					
불교	(258)	44.8	43.6	11.6	100.0
기독교	(263)	53.1	38.8	8.1	100.0
천주교	(114)	60.0	33.9	6.1	100.0
기타	(7)	29.8	70.2	.0	100.0
종교없음	(546)	43.3	48.3	8.4	100.0
무름 / 무응답	(13)	69.5	15.6	14.9	100.0

표34-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㉞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전체	(1201)	8.3	52.3	60.6	35.6	3.8	39.4	100.0
■ 성별								
남자	(611)	9.5	53.8	63.3	32.5	4.2	36.7	100.0
여자	(590)	7.1	50.8	57.9	38.8	3.3	42.1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2	53.9	60.1	34.9	5.0	39.9	100.0
30대	(290)	6.8	51.4	58.2	39.8	2.0	41.8	100.0
40대	(306)	13.0	53.4	66.5	28.3	5.2	33.5	100.0
50대이상	(346)	7.0	50.9	57.9	39.1	3.1	4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3	49.3	55.6	39.4	5.0	44.4	100.0
고졸	(510)	6.6	48.7	55.3	39.2	5.5	44.7	100.0
대재이상	(565)	10.4	56.6	67.0	31.3	1.8	33.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7.1	37.1	48.5	14.4	62.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59.1	59.1	34.7	6.1	40.9	100.0
자영업	(335)	8.8	52.6	61.4	34.7	3.9	38.6	100.0
블루칼라	(247)	9.8	48.9	58.7	36.5	4.8	41.3	100.0
화이트칼라	(252)	11.0	54.4	65.5	30.6	4.0	34.5	100.0
전업주부	(211)	3.4	49.8	53.2	44.1	2.7	46.8	100.0
무직 / 기타	(140)	7.9	56.7	64.6	32.5	2.9	35.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9	49.3	57.2	34.8	8.0	42.8	100.0
200~299만원	(287)	7.3	50.2	57.5	38.3	4.2	42.5	100.0
300~399만원	(384)	7.5	54.3	61.8	35.6	2.6	38.2	100.0
400만원이상	(311)	10.1	53.8	64.0	33.8	2.2	36.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7	51.6	68.3	31.7	.0	31.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0.8	54.4	65.2	30.1	4.7	34.8	100.0
충청권	(117)	6.8	46.6	53.4	45.7	.9	46.6	100.0
호남권	(116)	9.5	46.3	55.7	42.5	1.7	44.3	100.0
영남권	(314)	4.6	53.2	57.8	38.4	3.8	42.2	100.0
강원	(35)	.0	45.7	45.7	51.4	2.9	54.3	100.0
제주	(13)	7.7	53.8	61.5	30.8	7.7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6	55.1	61.8	34.1	4.1	38.2	100.0
중·소도시	(541)	10.3	50.5	60.8	36.1	3.1	39.2	100.0
읍 / 면	(90)	6.7	45.5	52.2	42.3	5.6	4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2.0	56.5	68.6	28.8	2.7	31.4	100.0
중도	(578)	7.0	51.0	58.0	38.3	3.7	42.0	100.0
보수적	(289)	6.5	50.1	56.7	38.2	5.2	43.3	100.0
■ 종교								
불교	(258)	8.1	54.7	62.8	31.8	5.4	37.2	100.0
기독교	(263)	12.0	51.3	63.4	34.1	2.5	36.6	100.0
천주교	(114)	14.8	50.3	65.1	33.1	1.7	34.9	100.0
기타	(7)	.0	43.9	43.9	42.1	14.0	56.1	100.0
종교없음	(546)	5.5	51.8	57.3	38.6	4.0	42.7	100.0
무름 / 무응답	(13)	.0	68.3	68.3	31.7	.0	31.7	100.0

표34-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④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 %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전체	(1201)	9.8	49.9	59.7	35.1	5.3	40.3	100.0
■ 성별								
남자	(611)	11.1	54.0	65.1	29.5	5.4	34.9	100.0
여자	(590)	8.5	45.6	54.1	40.8	5.1	45.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9.7	50.4	60.2	32.5	7.3	39.8	100.0
30대	(290)	9.8	50.1	59.9	33.8	6.3	40.1	100.0
40대	(306)	13.4	46.8	60.3	34.6	5.2	39.7	100.0
50대이상	(346)	6.7	51.9	58.7	38.4	2.9	41.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5	45.9	49.4	45.3	5.3	50.6	100.0
고졸	(510)	8.3	46.8	55.1	38.4	6.5	44.9	100.0
대재이상	(565)	12.7	53.8	66.5	29.6	3.9	33.5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5.9	35.9	49.7	14.4	64.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1	42.9	55.0	45.0	.0	45.0	100.0
자영업	(335)	8.7	55.8	64.4	32.0	3.6	35.6	100.0
블루칼라	(247)	12.2	42.1	54.3	38.4	7.2	45.7	100.0
화이트칼라	(252)	10.2	53.2	63.4	30.3	6.3	36.6	100.0
전업주부	(211)	5.7	44.0	49.6	44.9	5.4	50.4	100.0
무직 / 기타	(140)	13.7	53.1	66.8	28.9	4.3	33.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8.8	44.5	53.3	36.6	10.1	46.7	100.0
200~299만원	(287)	8.7	46.9	55.6	39.9	4.5	44.4	100.0
300~399만원	(384)	7.5	53.5	61.0	34.2	4.8	39.0	100.0
400만원이상	(311)	13.7	52.8	66.5	29.9	3.5	33.5	100.0
무름 / 무응답	(13)	23.8	24.5	48.4	51.6	.0	51.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2.3	52.2	64.5	30.6	4.9	35.5	100.0
충청권	(117)	9.4	62.8	72.2	26.1	1.7	27.8	100.0
호남권	(116)	11.2	50.0	61.2	34.5	4.3	38.8	100.0
영남권	(314)	3.9	41.8	45.7	47.8	6.5	54.3	100.0
강원	(35)	20.0	31.4	51.4	34.3	14.3	48.6	100.0
제주	(13)	.0	69.2	69.2	23.1	7.7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6	50.6	58.2	36.2	5.7	41.8	100.0
중·소도시	(541)	12.7	50.2	62.9	32.5	4.6	37.1	100.0
읍 / 면	(90)	6.7	43.4	50.1	43.3	6.7	49.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5.6	51.1	66.7	28.4	4.9	33.3	100.0
중도	(578)	6.5	51.0	57.5	37.8	4.6	42.5	100.0
보수적	(289)	9.7	46.3	55.9	37.2	6.8	44.1	100.0
■ 종교								
불교	(258)	9.2	49.6	58.8	36.2	5.0	41.2	100.0
기독교	(263)	13.7	50.7	64.4	33.0	2.7	35.6	100.0
천주교	(114)	12.1	62.6	74.8	24.3	.9	25.2	100.0
기타	(7)	29.8	42.1	71.9	28.1	.0	28.1	100.0
종교없음	(546)	7.6	46.6	54.2	38.1	7.7	45.8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68.5	76.1	23.9	.0	23.9	100.0

표34-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전체	(1201)	2.1	19.7	21.8	58.6	19.6	78.2	100.0
■ 성별								
남자	(611)	2.6	16.9	19.5	56.9	23.6	80.5	100.0
여자	(590)	1.7	22.5	24.2	60.3	15.5	75.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3	20.6	22.9	55.8	21.3	77.1	100.0
30대	(290)	2.7	17.5	20.2	59.5	20.2	79.8	100.0
40대	(306)	2.0	16.8	18.7	59.1	22.2	81.3	100.0
50대이상	(346)	1.7	23.3	25.1	59.4	15.5	74.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6	21.8	25.4	57.8	16.8	74.6	100.0
고졸	(510)	2.5	21.7	24.2	56.3	19.5	75.8	100.0
대재이상	(565)	1.6	17.7	19.3	60.5	20.3	80.7	100.0
무름 / 무응답	(14)	.0	7.3	7.3	70.7	21.9	92.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8.4	18.4	50.9	30.7	81.6	100.0
자영업	(335)	1.5	17.2	18.7	59.5	21.9	81.3	100.0
블루칼라	(247)	2.4	20.7	23.1	55.1	21.8	76.9	100.0
화이트칼라	(252)	3.2	17.8	21.0	60.5	18.5	79.0	100.0
전업주부	(211)	1.8	27.3	29.1	59.2	11.6	70.9	100.0
무직 / 기타	(140)	2.1	15.7	17.9	59.1	23.0	8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9	25.7	29.5	54.1	16.4	70.5	100.0
200~299만원	(287)	1.0	18.7	19.8	59.9	20.3	80.2	100.0
300~399만원	(384)	2.3	18.8	21.1	58.5	20.4	78.9	100.0
400만원이상	(311)	1.9	17.1	19.0	60.7	20.3	81.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1.7	31.7	52.6	15.7	68.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8	19.5	21.3	59.1	19.6	78.7	100.0
충청권	(117)	1.7	14.5	16.2	65.8	17.9	83.8	100.0
호남권	(116)	4.3	12.6	17.0	65.8	17.2	83.0	100.0
영남권	(314)	2.5	24.5	27.1	52.6	20.3	72.9	100.0
강원	(35)	.0	22.9	22.9	60.0	17.1	77.1	100.0
제주	(13)	.0	7.7	7.7	46.2	46.2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7	17.6	19.4	63.1	17.6	80.6	100.0
중·소도시	(541)	2.6	20.8	23.4	54.5	22.1	76.6	100.0
읍 / 면	(90)	2.2	25.5	27.7	54.5	17.8	7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6	21.2	24.8	54.2	21.0	75.2	100.0
중도	(578)	1.2	17.1	18.3	62.2	19.5	81.7	100.0
보수적	(289)	2.4	22.9	25.3	56.4	18.3	74.7	100.0
■ 종교								
불교	(258)	3.0	22.5	25.6	56.0	18.5	74.4	100.0
기독교	(263)	2.7	20.9	23.6	56.1	20.3	76.4	100.0
천주교	(114)	1.7	9.5	11.2	60.0	28.9	88.8	100.0
기타	(7)	.0	.0	.0	84.2	15.8	100.0	100.0
종교없음	(546)	1.6	19.5	21.1	60.8	18.0	78.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5.3	45.3	39.6	15.1	54.7	100.0

표34-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전체	(1201)	13.7	54.8	68.5	27.5	3.9	31.4	.1	100.0
■ 성별									
남자	(611)	15.0	54.3	69.3	26.3	4.4	30.7	.0	100.0
여자	(590)	12.4	55.3	67.7	28.7	3.4	32.1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4	50.7	67.0	27.2	5.4	32.6	.4	100.0
30대	(290)	14.8	53.5	68.3	27.6	4.1	31.7	.0	100.0
40대	(306)	13.9	57.0	70.9	25.5	3.6	29.1	.0	100.0
50대이상	(346)	10.7	57.1	67.8	29.3	2.9	32.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2.4	50.9	63.3	34.0	2.7	36.7	.0	100.0
고졸	(510)	13.6	54.9	68.5	26.8	4.7	31.5	.0	100.0
대재이상	(565)	14.1	55.0	69.1	27.2	3.5	30.7	.2	100.0
무름 / 무응답	(14)	14.4	78.2	92.7	7.3	.0	7.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36.6	38.8	75.5	24.5	.0	24.5	.0	100.0
자영업	(335)	11.2	59.2	70.5	26.2	3.3	29.5	.0	100.0
블루칼라	(247)	14.5	50.7	65.3	28.3	6.0	34.3	.4	100.0
화이트칼라	(252)	13.5	54.2	67.7	27.7	4.7	32.3	.0	100.0
전업주부	(211)	10.5	56.6	67.1	31.5	1.4	32.9	.0	100.0
무직 / 기타	(140)	20.9	51.7	72.6	23.1	4.3	27.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5	49.4	62.9	30.9	5.8	36.7	.5	100.0
200~299만원	(287)	12.1	56.2	68.4	29.9	1.7	31.6	.0	100.0
300~399만원	(384)	13.9	54.9	68.9	27.2	3.9	31.1	.0	100.0
400만원이상	(311)	15.0	56.1	71.1	24.1	4.8	28.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0	75.9	91.9	8.1	.0	8.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2.1	57.6	69.7	26.1	4.3	30.3	.0	100.0
충청권	(117)	9.4	56.0	65.4	31.2	3.4	34.6	.0	100.0
호남권	(116)	14.7	44.3	58.9	35.1	5.2	40.2	.9	100.0
영남권	(314)	20.2	51.5	71.8	26.1	2.2	28.2	.0	100.0
강원	(35)	.0	62.9	62.9	31.4	5.7	37.1	.0	100.0
제주	(13)	.0	69.2	69.2	15.4	15.4	30.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3.2	55.3	68.5	29.1	2.3	31.3	.2	100.0
중·소도시	(541)	15.6	53.9	69.5	24.5	6.0	30.5	.0	100.0
읍 / 면	(90)	5.6	57.7	63.3	35.6	1.1	36.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6.2	54.5	70.7	26.0	3.3	29.3	.0	100.0
중도	(578)	10.4	56.2	66.5	29.3	3.9	33.3	.2	100.0
보수적	(289)	17.6	52.5	70.1	25.4	4.5	29.9	.0	100.0
■ 종교									
불교	(258)	14.7	54.2	68.9	26.2	4.9	31.1	.0	100.0
기독교	(263)	9.5	56.7	66.2	27.3	6.1	33.4	.4	100.0
천주교	(114)	16.4	58.3	74.7	22.7	2.6	25.3	.0	100.0
기타	(7)	.0	56.1	56.1	28.1	15.8	43.9	.0	100.0
종교없음	(546)	15.1	53.3	68.4	29.1	2.5	31.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7.6	61.0	68.6	31.4	.0	31.4	.0	100.0

표3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계
		%	%	%	%	%	%	%
■ 전체	(1201)	68.7	9.2	15.8	5.2	.7	.3	100.0
■ 성별								
남자	(611)	72.4	8.3	13.5	4.7	1.0	.2	100.0
여자	(590)	64.9	10.1	18.3	5.7	.5	.5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2.4	16.6	15.1	4.3	1.2	.4	100.0
30대	(290)	67.3	11.6	15.3	4.1	.7	1.0	100.0
40대	(306)	66.5	5.3	20.1	6.8	1.3	.0	100.0
50대이상	(346)	76.5	4.9	13.1	5.4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76.5	3.6	15.5	4.5	.0	.0	100.0
고졸	(510)	67.3	9.0	16.6	6.0	.8	.4	100.0
대재이상	(565)	68.4	10.3	15.3	4.7	.9	.4	100.0
무름 / 무응답	(14)	70.9	14.6	14.4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5	.0	24.4	6.1	.0	.0	100.0
자영업	(335)	79.2	4.9	11.0	4.1	.6	.3	100.0
블루칼라	(247)	65.7	10.2	17.3	5.2	.8	.8	100.0
화이트칼라	(252)	64.1	8.7	18.2	7.5	1.2	.4	100.0
전업주부	(211)	63.7	10.3	19.0	6.6	.4	.0	100.0
무직 / 기타	(140)	64.7	17.9	15.1	1.4	.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0.9	7.2	16.1	5.3	.0	.5	100.0
200~299만원	(287)	67.8	11.8	15.9	3.5	.7	.3	100.0
300~399만원	(384)	68.6	8.6	16.0	5.7	.8	.3	100.0
400만원이상	(311)	67.6	9.1	15.7	6.0	1.3	.3	100.0
무름 / 무응답	(13)	84.0	.0	7.9	8.1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3.2	7.1	13.4	5.2	.7	.5	100.0
충청권	(117)	60.3	7.7	24.4	6.0	1.7	.0	100.0
호남권	(116)	51.7	11.2	29.3	6.9	.0	.9	100.0
영남권	(314)	69.2	13.7	12.3	3.8	1.0	.0	100.0
강원	(35)	71.4	5.7	11.4	11.4	.0	.0	100.0
제주	(13)	69.2	.0	30.8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8.1	10.9	15.8	4.2	.9	.2	100.0
중·소도시	(541)	68.7	7.4	17.1	5.7	.7	.4	100.0
읍 / 면	(90)	72.2	8.9	8.9	8.9	.0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3.7	9.3	20.5	5.0	1.2	.3	100.0
중도	(578)	67.6	10.7	14.5	6.2	.7	.3	100.0
보수적	(289)	76.8	5.9	13.2	3.5	.3	.3	100.0
■ 종교								
불교	(258)	71.8	7.4	14.6	5.8	.4	.0	100.0
기독교	(263)	69.6	8.0	14.4	6.1	1.1	.8	100.0
천주교	(114)	66.0	7.8	20.1	6.1	.0	.0	100.0
기타	(7)	71.9	.0	28.1	.0	.0	.0	100.0
종교없음	(546)	67.5	11.0	15.7	4.5	.9	.4	100.0
무름 / 무응답	(13)	61.9	7.8	30.3	.0	.0	.0	100.0

표3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 전체	(1201)	8.6	11.7	46.0	33.3	.3	100.0
■ 성별							
남자	(611)	7.9	10.4	46.5	35.0	.2	100.0
여자	(590)	9.3	13.1	45.5	31.6	.5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2.0	10.8	52.4	24.0	.8	100.0
30대	(290)	8.9	11.6	43.0	36.1	.3	100.0
40대	(306)	10.6	14.7	35.6	39.2	.0	100.0
50대 이상	(346)	4.0	9.9	52.9	32.8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6	11.1	51.9	33.4	.0	100.0
고졸	(510)	8.6	13.3	44.3	33.4	.4	100.0
대재 이상	(565)	9.8	10.6	45.7	33.6	.4	100.0
무름 / 무응답	(14)	.0	7.1	70.9	21.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0	59.3	34.6	.0	100.0
자영업	(335)	4.8	12.9	46.9	35.1	.3	100.0
블루칼라	(247)	8.2	11.8	47.3	32.4	.4	100.0
화이트칼라	(252)	11.1	11.2	40.7	36.6	.4	100.0
전업주부	(211)	9.5	11.6	47.2	31.7	.0	100.0
무직 / 기타	(140)	12.9	11.5	47.5	27.4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9.1	11.1	49.9	29.3	.5	100.0
200~299만원	(287)	9.2	11.7	48.2	31.0	.0	100.0
300~399만원	(384)	8.1	13.9	42.2	35.6	.3	100.0
400만원 이상	(311)	8.4	10.0	44.8	36.2	.7	100.0
무름 / 무응답	(13)	8.1	.0	76.2	15.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4	9.1	48.5	34.8	.2	100.0
충청권	(117)	14.5	14.5	46.6	23.5	.9	100.0
호남권	(116)	15.5	16.4	33.9	34.2	.0	100.0
영남권	(314)	5.8	13.9	48.9	30.7	.6	100.0
강원	(35)	8.6	8.6	25.7	57.1	.0	100.0
제주	(13)	15.4	23.1	15.4	46.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9.5	12.1	46.1	31.9	.4	100.0
중·소도시	(541)	8.3	10.5	47.2	33.6	.4	100.0
읍 / 면	(90)	4.5	16.7	37.7	41.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1.7	12.1	37.0	38.9	.3	100.0
중도	(578)	8.1	13.2	46.0	32.1	.5	100.0
보수적	(289)	6.0	8.3	56.4	29.4	.0	100.0
■ 종교							
불교	(258)	7.0	12.9	47.3	32.0	.8	100.0
기독교	(263)	8.0	11.0	44.3	36.3	.4	100.0
천주교	(114)	11.4	13.9	38.5	36.3	.0	100.0
기타	(7)	14.0	14.0	57.9	14.0	.0	100.0
종교없음	(546)	8.6	10.6	48.2	32.4	.2	100.0
무름 / 무응답	(13)	23.1	30.7	22.2	24.0	.0	100.0

표37.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	계
		%	%	%	%	%	%
■ 전체	(1201)	61.6	12.9	11.0	14.4	2	100.0
■ 성별							
남자	(611)	60.9	14.0	11.7	13.2	.2	100.0
여자	(590)	62.2	11.8	10.3	15.6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9.2	15.1	10.8	24.5	.4	100.0
30대	(290)	65.2	8.7	11.3	14.8	.0	100.0
40대	(306)	71.6	9.7	10.6	7.8	.3	100.0
50대이상	(346)	58.8	17.5	11.3	12.4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1.3	18.0	8.9	11.8	.0	100.0
고졸	(510)	61.5	15.5	9.5	13.2	.2	100.0
대재이상	(565)	61.5	9.6	12.7	16.0	.2	100.0
무름 / 무응답	(14)	64.1	7.3	14.4	14.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77.5	.0	18.4	4.1	.0	100.0
자영업	(335)	62.1	14.0	13.2	10.1	.6	100.0
블루칼라	(247)	64.8	9.0	11.6	14.7	.0	100.0
화이트칼라	(252)	62.6	13.4	10.6	13.4	.0	100.0
전업주부	(211)	62.8	15.5	6.9	14.7	.0	100.0
무직 / 기타	(140)	48.9	13.7	10.7	26.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7.3	16.5	11.5	14.7	.0	100.0
200~299만원	(287)	64.2	13.3	8.9	13.2	.3	100.0
300~399만원	(384)	62.6	12.8	10.2	14.2	.3	100.0
400만원이상	(311)	62.1	9.6	13.8	14.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23.8	27.5	8.1	40.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1.3	13.5	11.9	13.1	.2	100.0
충청권	(117)	64.5	15.8	10.3	9.4	.0	100.0
호남권	(116)	69.5	7.5	4.3	18.7	.0	100.0
영남권	(314)	56.2	13.8	12.4	17.6	.0	100.0
강원	(35)	77.1	.0	8.6	14.3	.0	100.0
제주	(13)	61.5	15.4	7.7	7.7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0.6	12.2	12.1	14.9	.2	100.0
중·소도시	(541)	63.4	13.7	8.7	14.2	.0	100.0
읍 / 면	(90)	56.6	12.2	17.8	12.2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9.2	11.1	8.6	10.8	.3	100.0
중도	(578)	61.5	10.0	11.9	16.4	.2	100.0
보수적	(289)	52.8	20.6	11.9	14.6	.0	100.0
■ 종교							
불교	(258)	63.7	10.6	11.3	14.0	.4	100.0
기독교	(263)	60.4	14.2	11.4	14.1	.0	100.0
천주교	(114)	68.8	10.5	9.5	10.4	.9	100.0
기타	(7)	84.2	.0	15.8	.0	.0	100.0
종교없음	(546)	59.5	13.7	10.8	16.0	.0	100.0
무름 / 무응답	(13)	53.0	24.4	14.9	7.8	.0	100.0

표38-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체	(1201)	75.0	14.2	9.8	1.1	100.0
■ 성별						
남자	(611)	76.2	14.6	8.4	.8	100.0
여자	(590)	73.8	13.7	11.2	1.4	100.0
■ 연령별						
19~29세	(259)	74.5	14.7	9.7	1.1	100.0
30대	(290)	75.2	14.6	9.9	.3	100.0
40대	(306)	68.2	15.0	14.8	1.9	100.0
50대이상	(346)	81.3	12.6	5.3	.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81.3	11.5	5.4	1.8	100.0
고졸	(510)	73.4	15.4	10.0	1.2	100.0
대재이상	(565)	74.9	13.9	10.4	.7	100.0
무름 / 무응답	(14)	85.6	.0	7.3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75.6	6.1	12.1	6.1	100.0
자영업	(335)	75.8	13.2	9.8	1.2	100.0
블루칼라	(247)	70.3	18.3	10.6	.8	100.0
화이트칼라	(252)	78.9	11.1	9.5	.4	100.0
전업주부	(211)	73.7	15.8	9.0	1.4	100.0
무직 / 기타	(140)	76.3	12.9	9.4	1.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5.2	15.2	7.2	2.4	100.0
200~299만원	(287)	71.7	17.1	10.6	.7	100.0
300~399만원	(384)	75.6	11.9	11.4	1.0	100.0
400만원이상	(311)	76.6	13.8	9.0	.6	100.0
무름 / 무응답	(13)	92.1	7.9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5.3	14.0	9.7	1.0	100.0
충청권	(117)	70.9	12.8	15.4	.9	100.0
호남권	(116)	68.4	15.2	12.9	3.4	100.0
영남권	(314)	77.8	15.1	6.5	.6	100.0
강원	(35)	74.3	14.3	11.4	.0	100.0
제주	(13)	92.3	.0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4.4	15.0	9.5	1.0	100.0
중·소도시	(541)	77.0	12.3	9.4	1.3	100.0
읍 / 면	(90)	66.6	20.0	13.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9.3	16.9	12.3	1.5	100.0
중도	(578)	74.3	15.6	9.2	.9	100.0
보수적	(289)	83.1	7.9	8.0	1.0	100.0
■ 종교						
불교	(258)	75.5	9.7	13.6	1.2	100.0
기독교	(263)	78.5	11.2	9.2	1.1	100.0
천주교	(114)	74.7	15.7	8.7	.9	100.0
기타	(7)	56.1	29.8	14.0	.0	100.0
종교없음	(546)	73.6	17.3	8.1	1.1	100.0
무름 / 무응답	(13)	68.4	7.8	23.8	.0	100.0

표38-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1)	20.4	40.5	34.8	4.4	100.0
■ 성별						
남자	(611)	19.7	40.9	34.6	4.8	100.0
여자	(590)	21.0	40.0	35.0	4.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1.7	39.1	33.7	5.4	100.0
30대	(290)	21.6	43.7	31.2	3.5	100.0
40대	(306)	22.3	37.6	35.6	4.6	100.0
50대이상	(346)	16.6	41.3	37.9	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0.4	42.8	40.1	6.7	100.0
고졸	(510)	18.8	42.3	34.6	4.3	100.0
대재이상	(565)	24.3	38.5	33.5	3.7	100.0
무름 / 무응답	(14)	.0	37.1	48.5	14.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4.4	22.5	47.0	6.1	100.0
자영업	(335)	22.3	39.3	32.7	5.7	100.0
블루칼라	(247)	15.4	42.1	38.5	4.0	100.0
화이트칼라	(252)	24.0	37.8	35.4	2.8	100.0
전업주부	(211)	18.6	43.4	33.5	4.5	100.0
무직 / 기타	(140)	20.1	43.0	32.5	4.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9.1	44.9	30.0	6.0	100.0
200~299만원	(287)	15.3	42.1	39.2	3.5	100.0
300~399만원	(384)	21.9	40.4	32.4	5.3	100.0
400만원이상	(311)	23.4	36.1	37.3	3.2	100.0
무름 / 무응답	(13)	35.3	40.8	23.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4.9	37.9	33.6	3.6	100.0
충청권	(117)	15.0	40.2	40.2	4.7	100.0
호남권	(116)	15.5	48.0	33.0	3.4	100.0
영남권	(314)	13.8	45.4	36.0	4.9	100.0
강원	(35)	34.3	22.9	25.7	17.1	100.0
제주	(13)	23.1	23.1	53.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8.1	41.4	35.6	4.9	100.0
중·소도시	(541)	23.0	38.8	33.8	4.4	100.0
읍 / 면	(90)	18.8	44.5	35.6	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9.9	40.5	35.1	4.5	100.0
중도	(578)	20.5	41.8	33.6	4.1	100.0
보수적	(289)	20.7	37.8	36.9	4.7	100.0
■ 종교						
불교	(258)	20.5	40.3	34.8	4.4	100.0
기독교	(263)	19.1	42.4	33.5	4.9	100.0
천주교	(114)	28.6	34.0	32.2	5.2	100.0
기타	(7)	14.0	14.0	57.9	14.0	100.0
종교없음	(546)	19.2	41.2	35.7	3.9	100.0
무름 / 무응답	(13)	22.7	45.8	31.5	.0	100.0

표38-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1)	13.8	40.7	34.6	10.8	100.0
■ 성별						
남자	(611)	14.8	40.7	33.7	10.8	100.0
여자	(590)	12.8	40.7	35.6	10.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7	40.2	30.2	12.8	100.0
30대	(290)	13.9	48.1	28.0	10.0	100.0
40대	(306)	14.2	39.6	35.1	11.0	100.0
50대이상	(346)	11.3	35.9	43.0	9.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5	33.8	49.1	11.6	100.0
고졸	(510)	11.6	41.6	36.3	10.4	100.0
대재이상	(565)	17.9	41.6	29.6	10.9	100.0
무름 / 무응답	(14)	.0	28.8	57.0	14.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1	24.5	57.2	6.1	100.0
자영업	(335)	14.4	40.6	35.3	9.6	100.0
블루칼라	(247)	11.4	40.0	36.1	12.5	100.0
화이트칼라	(252)	15.8	41.4	32.1	10.7	100.0
전업주부	(211)	12.2	39.7	37.1	10.9	100.0
무직 / 기타	(140)	15.8	44.5	28.2	11.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5.2	36.7	33.0	15.0	100.0
200~299만원	(287)	11.5	45.2	34.7	8.5	100.0
300~399만원	(384)	12.4	40.1	36.4	11.1	100.0
400만원이상	(311)	16.5	40.2	33.4	9.9	100.0
무름 / 무응답	(13)	23.6	36.2	32.4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6.8	41.0	31.9	10.4	100.0
충청권	(117)	10.3	40.6	45.7	3.4	100.0
호남권	(116)	13.8	37.1	35.3	13.8	100.0
영남권	(314)	9.4	41.5	35.6	13.5	100.0
강원	(35)	14.3	37.1	37.1	11.4	100.0
제주	(13)	15.4	53.8	23.1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2.8	41.2	35.7	10.4	100.0
중·소도시	(541)	15.1	40.7	32.0	12.2	100.0
읍 / 면	(90)	13.2	37.8	43.4	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5.7	39.5	32.9	11.9	100.0
중도	(578)	12.7	40.2	36.4	10.8	100.0
보수적	(289)	14.1	43.3	33.0	9.7	100.0
■ 종교						
불교	(258)	12.0	43.8	34.4	9.8	100.0
기독교	(263)	13.8	37.1	36.1	13.0	100.0
천주교	(114)	23.4	37.4	28.7	10.5	100.0
기타	(7)	14.0	14.0	57.9	14.0	100.0
종교없음	(546)	12.7	42.3	34.8	10.2	100.0
무름 / 무응답	(13)	15.1	30.5	39.2	15.1	100.0

표38-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1)	24.7	39.4	33.1	2.8	100.0
■ 성별						
남자	(611)	24.7	41.0	31.1	3.1	100.0
여자	(590)	24.6	37.7	35.2	2.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8.3	43.8	25.2	2.7	100.0
30대	(290)	26.3	43.1	28.5	2.1	100.0
40대	(306)	25.1	35.1	37.3	2.6	100.0
50대이상	(346)	20.2	36.8	39.2	3.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4.9	41.9	37.8	5.4	100.0
고졸	(510)	22.6	38.9	35.2	3.2	100.0
대재이상	(565)	28.7	39.7	29.9	1.8	100.0
무름 / 무응답	(14)	15.5	21.5	48.5	14.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42.8	22.5	34.7	.0	100.0
자영업	(335)	25.6	37.3	34.6	2.5	100.0
블루칼라	(247)	22.1	41.0	32.9	4.0	100.0
화이트칼라	(252)	26.0	43.2	28.9	1.9	100.0
전업주부	(211)	20.1	35.6	41.4	2.9	100.0
무직 / 기타	(140)	29.5	42.3	24.6	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4.0	42.1	28.1	5.8	100.0
200~299만원	(287)	20.9	43.6	31.6	3.8	100.0
300~399만원	(384)	25.9	36.8	35.4	1.9	100.0
400만원이상	(311)	26.9	37.4	34.4	1.3	100.0
무름 / 무응답	(13)	27.5	24.1	48.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8.0	37.9	31.6	2.5	100.0
충청권	(117)	18.4	37.6	43.2	.9	100.0
호남권	(116)	20.7	41.1	34.8	3.4	100.0
영남권	(314)	21.3	44.2	30.6	3.9	100.0
강원	(35)	20.0	25.7	48.6	5.7	100.0
제주	(13)	53.8	30.8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2.9	40.0	34.3	2.8	100.0
중·소도시	(541)	27.3	38.5	30.9	3.3	100.0
읍 / 면	(90)	20.0	41.2	38.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3.8	40.2	32.7	3.3	100.0
중도	(578)	25.8	39.4	32.4	2.4	100.0
보수적	(289)	23.5	38.3	35.1	3.1	100.0
■ 종교						
불교	(258)	23.8	36.5	35.3	4.3	100.0
기독교	(263)	25.9	37.0	33.6	3.5	100.0
천주교	(114)	32.0	36.7	28.7	2.6	100.0
기타	(7)	14.0	56.1	29.8	.0	100.0
종교없음	(546)	22.8	42.4	33.0	1.8	100.0
무름 / 무응답	(13)	37.9	30.7	23.9	7.5	100.0

표39-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㉞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1)	72.4	1.6	24.1	1.9	100.0
■ 성별						
남자	(611)	75.8	1.5	21.0	1.8	100.0
여자	(590)	68.9	1.8	27.3	2.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6.3	2.0	29.0	2.7	100.0
30대	(290)	74.1	1.6	23.6	.7	100.0
40대	(306)	68.6	1.6	27.2	2.6	100.0
50대이상	(346)	78.9	1.4	17.9	1.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80.5	.9	16.0	2.6	100.0
고졸	(510)	72.8	2.6	21.6	2.9	100.0
대재이상	(565)	70.2	.9	28.0	.9	100.0
무름 / 무응답	(14)	78.1	.0	21.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3.2	.0	36.8	.0	100.0
자영업	(335)	76.5	.9	20.8	1.8	100.0
블루칼라	(247)	72.5	2.8	21.8	2.8	100.0
화이트칼라	(252)	69.8	1.2	28.6	.4	100.0
전업주부	(211)	71.3	3.1	22.8	2.8	100.0
무직 / 기타	(140)	69.7	.0	28.1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77.5	2.0	19.6	1.0	100.0
200~299만원	(287)	71.7	2.6	22.5	3.1	100.0
300~399만원	(384)	71.6	1.3	26.3	.8	100.0
400만원이상	(311)	70.5	1.0	26.0	2.6	100.0
무름 / 무응답	(13)	76.4	.0	15.7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78.0	1.2	19.2	1.6	100.0
충청권	(117)	70.1	.0	29.1	.9	100.0
호남권	(116)	65.8	.0	33.3	.9	100.0
영남권	(314)	65.2	4.0	27.7	3.2	100.0
강원	(35)	68.6	.0	28.6	2.9	100.0
제주	(13)	76.9	.0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0.7	2.2	25.4	1.7	100.0
중·소도시	(541)	74.0	1.3	22.8	1.8	100.0
읍 / 면	(90)	73.3	.0	23.4	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9.7	2.4	25.8	2.1	100.0
중도	(578)	70.1	1.6	26.4	1.9	100.0
보수적	(289)	80.2	.7	17.4	1.7	100.0
■ 종교						
불교	(258)	70.1	2.3	25.3	2.3	100.0
기독교	(263)	80.9	1.2	16.4	1.5	100.0
천주교	(114)	70.3	.9	26.2	2.6	100.0
기타	(7)	86.0	.0	14.0	.0	100.0
종교없음	(546)	69.9	1.6	26.9	1.6	100.0
무름 / 무응답	(13)	61.5	7.8	22.9	7.8	100.0

표39-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1)	2.4	62.7	31.1	3.8	100.0
■ 성별						
남자	(611)	1.8	65.1	30.0	3.1	100.0
여자	(590)	3.1	60.2	32.2	4.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5	54.3	35.9	6.2	100.0
30대	(290)	2.5	60.8	32.3	4.4	100.0
40대	(306)	1.3	65.4	31.0	2.2	100.0
50대이상	(346)	2.5	68.1	26.5	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3	74.2	20.8	1.8	100.0
고졸	(510)	3.0	64.5	28.4	4.1	100.0
대재이상	(565)	1.6	58.8	35.7	3.9	100.0
무름 / 무응답	(14)	8.2	62.7	21.9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63.2	36.8	.0	100.0
자영업	(335)	1.5	68.8	26.7	3.0	100.0
블루칼라	(247)	2.1	62.3	30.8	4.9	100.0
화이트칼라	(252)	3.2	58.8	35.6	2.4	100.0
전업주부	(211)	4.2	61.5	29.6	4.6	100.0
무직 / 기타	(140)	1.5	57.5	35.3	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6	64.4	24.6	4.4	100.0
200~299만원	(287)	1.0	62.0	31.1	5.9	100.0
300~399만원	(384)	1.9	61.6	33.0	3.6	100.0
400만원이상	(311)	1.7	63.0	33.3	2.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6.4	23.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5	66.5	27.2	3.8	100.0
충청권	(117)	.0	56.4	40.2	3.4	100.0
호남권	(116)	2.3	67.5	28.4	1.7	100.0
영남권	(314)	3.0	56.6	35.1	5.4	100.0
강원	(35)	2.9	54.3	42.9	.0	100.0
제주	(13)	7.7	69.2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0	64.6	30.1	2.3	100.0
중·소도시	(541)	2.0	60.7	32.3	5.0	100.0
읍 / 면	(90)	1.1	62.2	30.0	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0	63.8	29.9	3.3	100.0
중도	(578)	1.9	58.5	35.3	4.3	100.0
보수적	(289)	2.9	69.7	24.0	3.4	100.0
■ 종교						
불교	(258)	2.8	64.8	28.9	3.5	100.0
기독교	(263)	4.0	64.9	26.9	4.3	100.0
천주교	(114)	3.4	60.8	34.9	.9	100.0
기타	(7)	.0	100.0	.0	.0	100.0
종교없음	(546)	1.4	60.9	33.3	4.4	100.0
무름 / 무응답	(13)	.0	45.8	46.6	7.6	100.0

표39-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1)	15.3	3.2	74.3	7.1	100.0
■ 성별						
남자	(611)	19.8	3.6	70.0	6.5	100.0
여자	(590)	10.6	2.8	78.8	7.8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3	4.3	70.9	8.5	100.0
30대	(290)	18.7	3.1	73.2	5.1	100.0
40대	(306)	12.6	2.3	79.9	5.2	100.0
50대이상	(346)	14.1	3.4	72.9	9.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8.9	4.7	72.7	13.7	100.0
고졸	(510)	14.4	3.8	73.1	8.7	100.0
대재이상	(565)	17.2	2.5	75.7	4.6	100.0
무름 / 무응답	(14)	21.8	.0	78.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2.1	.0	75.6	12.3	100.0
자영업	(335)	18.9	2.2	72.3	6.6	100.0
블루칼라	(247)	16.1	5.0	72.0	6.9	100.0
화이트칼라	(252)	12.5	1.6	81.9	3.9	100.0
전업주부	(211)	10.8	3.8	76.4	9.0	100.0
무직 / 기타	(140)	17.3	5.0	66.1	11.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5	6.3	70.9	9.3	100.0
200~299만원	(287)	17.4	4.7	69.5	8.4	100.0
300~399만원	(384)	12.2	2.1	77.7	8.0	100.0
400만원이상	(311)	18.7	1.3	76.2	3.8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0	92.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0.6	2.8	68.6	8.1	100.0
충청권	(117)	13.7	.9	80.3	5.1	100.0
호남권	(116)	11.2	4.9	76.1	7.8	100.0
영남권	(314)	8.6	4.9	80.8	5.7	100.0
강원	(35)	5.7	.0	85.7	8.6	100.0
제주	(13)	7.7	.0	84.6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6.7	4.1	72.2	7.0	100.0
중·소도시	(541)	15.0	2.9	74.7	7.4	100.0
읍 / 면	(90)	7.8	.0	85.5	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6.9	3.7	72.8	6.6	100.0
중도	(578)	13.1	2.7	76.7	7.4	100.0
보수적	(289)	17.8	3.7	71.2	7.3	100.0
■ 종교						
불교	(258)	13.5	4.6	75.3	6.6	100.0
기독교	(263)	14.2	2.5	72.9	10.3	100.0
천주교	(114)	19.0	.9	77.5	2.6	100.0
기타	(7)	28.1	29.8	42.1	.0	100.0
종교없음	(546)	16.1	2.8	74.6	6.5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5.6	60.6	23.8	100.0

표39-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1)	4.2	15.4	61.7	18.7	.1	100.0
■ 성별							
남자	(611)	4.4	16.8	61.8	16.8	.2	100.0
여자	(590)	3.9	14.0	61.5	20.6	.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5	14.7	60.0	19.8	.0	100.0
30대	(290)	5.7	13.5	62.7	18.1	.0	100.0
40대	(306)	1.3	13.8	66.2	18.7	.0	100.0
50대이상	(346)	4.5	18.9	58.0	18.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1	14.5	59.8	21.6	.0	100.0
고졸	(510)	5.2	17.0	57.6	20.0	.2	100.0
대재이상	(565)	3.4	14.0	65.8	16.8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21.9	56.6	21.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12.3	69.3	12.3	.0	100.0
자영업	(335)	3.5	18.1	58.8	19.6	.0	100.0
블루칼라	(247)	5.3	15.4	58.2	20.5	.5	100.0
화이트칼라	(252)	2.8	12.6	70.5	14.1	.0	100.0
전업주부	(211)	4.7	14.5	58.9	21.9	.0	100.0
무직 / 기타	(140)	5.1	15.8	61.8	17.3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1	18.4	58.6	16.4	.5	100.0
200~299만원	(287)	6.0	19.4	55.9	18.7	.0	100.0
300~399만원	(384)	2.9	15.2	61.9	20.0	.0	100.0
400만원이상	(311)	3.0	10.7	68.5	17.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68.0	32.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1	18.4	58.7	18.7	.2	100.0
충청권	(117)	7.7	10.7	68.8	12.8	.0	100.0
호남권	(116)	2.3	8.6	62.4	26.7	.0	100.0
영남권	(314)	3.7	15.3	64.4	16.6	.0	100.0
강원	(35)	2.9	5.7	62.9	28.6	.0	100.0
제주	(13)	7.7	7.7	61.5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1	19.9	57.7	18.4	.0	100.0
중·소도시	(541)	4.2	10.9	65.4	19.3	.2	100.0
읍 / 면	(90)	4.5	14.5	64.4	16.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7.1	17.2	60.1	15.3	.3	100.0
중도	(578)	2.8	12.3	65.3	19.6	.0	100.0
보수적	(289)	3.6	19.5	56.2	20.7	.0	100.0
■ 종교							
불교	(258)	4.2	17.9	60.6	17.3	.0	100.0
기독교	(263)	5.0	16.0	60.3	18.3	.4	100.0
천주교	(114)	3.5	13.2	65.1	18.2	.0	100.0
기타	(7)	.0	71.9	28.1	.0	.0	100.0
종교없음	(546)	4.0	13.9	62.6	19.5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5	60.8	31.7	.0	100.0

표4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	원하는 편이다 %	%	원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전체	(1201)	6.5	31.7	38.1	49.5	12.4	61.9	100.0
■ 성별								
남자	(611)	6.2	31.4	37.5	49.0	13.4	62.5	100.0
여자	(590)	6.8	31.9	38.7	49.9	11.4	61.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7	27.2	29.9	50.7	19.4	70.1	100.0
30대	(290)	6.5	25.6	32.0	55.2	12.8	68.0	100.0
40대	(306)	5.2	32.7	37.9	49.0	13.2	62.1	100.0
50대이상	(346)	10.4	39.3	49.6	44.2	6.2	5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1.2	39.2	50.5	45.7	3.9	49.5	100.0
고졸	(510)	7.7	32.1	39.8	47.8	12.4	60.2	100.0
대재이상	(565)	4.4	29.7	34.1	51.7	14.2	65.9	100.0
무름 / 무응답	(14)	7.1	37.1	44.1	48.8	7.1	55.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6.4	16.4	71.4	12.3	83.6	100.0
자영업	(335)	7.0	34.5	41.5	48.9	9.6	58.5	100.0
블루칼라	(247)	6.4	32.5	38.9	47.6	13.6	61.1	100.0
화이트칼라	(252)	4.0	30.5	34.5	51.5	14.0	65.5	100.0
전업주부	(211)	11.0	32.7	43.7	48.3	8.0	56.3	100.0
무직 / 기타	(140)	3.6	25.9	29.5	49.7	20.9	7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9.7	33.7	43.4	44.0	12.6	56.6	100.0
200~299만원	(287)	5.8	35.4	41.2	47.7	11.1	58.8	100.0
300~399만원	(384)	6.8	26.8	33.6	53.6	12.8	66.4	100.0
400만원이상	(311)	4.8	33.3	38.1	48.7	13.3	61.9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9.6	19.6	72.5	7.9	8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2	33.2	41.3	48.1	10.5	58.7	100.0
충청권	(117)	7.7	28.6	36.3	46.6	17.1	63.7	100.0
호남권	(116)	4.3	23.9	28.2	54.6	17.2	71.8	100.0
영남권	(314)	2.5	31.6	34.1	52.4	13.5	65.9	100.0
강원	(35)	5.7	42.9	48.6	42.9	8.6	51.4	100.0
제주	(13)	30.8	30.8	61.5	38.5	.0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5.7	30.9	36.7	50.0	13.4	63.3	100.0
중·소도시	(541)	7.0	32.7	39.7	48.3	12.0	60.3	100.0
읍 / 면	(90)	7.8	30.0	37.8	53.3	8.9	62.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9	30.3	37.2	45.2	17.7	62.8	100.0
중도	(578)	6.0	32.4	38.4	50.3	11.2	61.6	100.0
보수적	(289)	6.8	31.8	38.6	52.8	8.6	61.4	100.0
■ 종교								
불교	(258)	7.7	32.6	40.3	48.8	10.9	59.7	100.0
기독교	(263)	9.7	32.9	42.6	46.0	11.4	57.4	100.0
천주교	(114)	6.1	29.5	35.6	47.7	16.7	64.4	100.0
기타	(7)	15.8	42.1	57.9	28.1	14.0	42.1	100.0
종교없음	(546)	4.4	31.0	35.4	52.0	12.6	64.6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0.0	30.0	54.7	15.3	70.0	100.0

표4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④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	원하는 편이다 %	%	원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전체	(1201)	.8	9.4	10.2	65.0	24.7	89.7	.1	100.0
■ 성별									
남자	(611)	.8	6.9	7.7	65.4	26.9	92.3	.0	100.0
여자	(590)	.8	11.9	12.8	64.6	22.5	87.0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	9.2	9.6	58.9	31.4	90.4	.0	100.0
30대	(290)	.7	7.6	8.3	65.6	26.1	91.7	.0	100.0
40대	(306)	1.0	9.2	10.1	66.9	22.9	89.9	.0	100.0
50대이상	(346)	1.2	11.1	12.3	67.3	20.1	87.4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	8.3	10.0	67.9	21.0	88.9	1.0	100.0
고졸	(510)	1.2	11.0	12.2	64.5	23.3	87.8	.0	100.0
대재이상	(565)	.4	8.1	8.4	64.6	27.0	91.6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8.2	8.2	77.1	14.6	91.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0	.0	75.5	24.5	100.0	.0	100.0
자영업	(335)	1.2	6.2	7.4	72.2	20.4	92.6	.0	100.0
블루칼라	(247)	.4	11.4	11.8	56.8	31.3	88.2	.0	100.0
화이트칼라	(252)	.4	8.7	9.1	63.8	27.1	90.9	.0	100.0
전업주부	(211)	1.9	14.0	15.9	66.2	17.4	83.6	.5	100.0
무직 / 기타	(140)	.0	8.6	8.6	61.3	30.1	91.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	10.2	10.7	64.4	24.3	88.7	.5	100.0
200~299만원	(287)	.3	14.2	14.6	61.0	24.4	85.4	.0	100.0
300~399만원	(384)	1.6	8.3	9.9	66.3	23.8	90.1	.0	100.0
400만원이상	(311)	.6	5.8	6.4	67.4	26.2	93.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3.9	3.9	64.4	31.7	96.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	10.0	10.9	64.9	24.1	88.9	.2	100.0
충청권	(117)	.0	7.3	7.3	63.7	29.1	92.7	.0	100.0
호남권	(116)	.9	9.5	10.3	71.6	18.1	89.7	.0	100.0
영남권	(314)	.6	9.6	10.2	63.1	26.7	89.8	.0	100.0
강원	(35)	2.9	.0	2.9	68.6	28.6	97.1	.0	100.0
제주	(13)	7.7	15.4	23.1	61.5	15.4	76.9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	8.5	9.2	65.2	25.6	90.8	.0	100.0
중·소도시	(541)	.9	10.9	11.8	64.5	23.5	88.0	.2	100.0
읍 / 면	(90)	1.1	5.6	6.7	66.6	26.7	93.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2	11.0	12.2	60.5	27.3	87.8	.0	100.0
중도	(578)	.7	8.7	9.4	68.2	22.4	90.6	.0	100.0
보수적	(289)	.7	8.7	9.4	63.8	26.4	90.2	.4	100.0
■ 종교									
불교	(258)	.8	13.8	14.5	64.7	20.7	85.5	.0	100.0
기독교	(263)	.4	12.9	13.2	61.9	24.9	86.8	.0	100.0
천주교	(114)	2.6	6.1	8.7	69.5	21.8	91.3	.0	100.0
기타	(7)	.0	15.8	15.8	56.1	28.1	84.2	.0	100.0
종교없음	(546)	.7	6.4	7.2	65.3	27.3	92.6	.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84.9	15.1	100.0	.0	100.0

표4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1.2	12.2	13.4	63.9	22.7	86.6	100.0
■ 성별								
남자	(611)	1.5	10.2	11.6	63.7	24.7	88.4	100.0
여자	(590)	1.0	14.3	15.3	64.1	20.6	84.7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6	12.0	13.5	61.2	25.3	86.5	100.0
30대	(290)	1.4	8.9	10.3	64.7	25.0	89.7	100.0
40대	(306)	1.0	11.1	12.1	64.3	23.6	87.9	100.0
50대이상	(346)	1.2	16.0	17.2	64.9	18.0	82.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8	10.6	12.4	63.9	23.7	87.6	100.0
고졸	(510)	1.2	12.9	14.0	64.7	21.3	86.0	100.0
대재이상	(565)	1.2	11.6	12.9	63.2	23.9	87.1	100.0
무름 / 무응답	(14)	.0	22.4	22.4	63.1	14.4	77.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2.3	12.3	69.3	18.4	87.7	100.0
자영업	(335)	1.8	10.9	12.7	66.9	20.4	87.3	100.0
블루칼라	(247)	2.0	15.1	17.2	56.4	26.4	82.8	100.0
화이트칼라	(252)	.4	7.5	7.9	69.5	22.6	92.1	100.0
전업주부	(211)	1.4	16.4	17.8	64.9	17.3	82.2	100.0
무직 / 기타	(140)	.0	12.1	12.1	57.6	30.3	8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	13.0	13.5	63.5	23.0	86.5	100.0
200~299만원	(287)	1.4	14.4	15.8	60.2	24.1	84.2	100.0
300~399만원	(384)	1.6	11.2	12.7	65.1	22.2	87.3	100.0
400만원이상	(311)	1.3	10.5	11.8	65.8	22.4	88.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9.6	19.6	72.2	8.1	8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8	13.6	15.4	62.9	21.7	84.6	100.0
충청권	(117)	.0	7.3	7.3	67.9	24.8	92.7	100.0
호남권	(116)	.9	10.9	11.8	74.4	13.8	88.2	100.0
영남권	(314)	.3	11.5	11.8	59.7	28.5	88.2	100.0
강원	(35)	2.9	14.3	17.1	71.4	11.4	82.9	100.0
제주	(13)	7.7	15.4	23.1	61.5	15.4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9	11.3	12.2	63.1	24.7	87.8	100.0
중·소도시	(541)	1.7	13.5	15.1	63.7	21.2	84.9	100.0
읍 / 면	(90)	1.1	10.0	11.1	70.0	18.9	88.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4	13.7	16.1	60.2	23.7	83.9	100.0
중도	(578)	.9	11.1	12.0	67.1	21.0	88.0	100.0
보수적	(289)	.7	12.6	13.2	61.8	25.0	86.8	100.0
■ 종교								
불교	(258)	1.1	14.9	16.0	63.4	20.6	84.0	100.0
기독교	(263)	1.5	11.7	13.2	63.5	23.3	86.8	100.0
천주교	(114)	2.6	15.6	18.2	56.6	25.2	81.8	100.0
기타	(7)	.0	29.8	29.8	42.1	28.1	70.2	100.0
종교없음	(546)	.9	10.5	11.4	65.8	22.8	88.6	100.0
무름 / 무응답	(13)	.0	.0	.0	77.1	22.9	100.0	100.0

표4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1.2	14.4	15.7	69.9	14.3	84.2	.1	100.0
■ 성별									
남자	(611)	1.6	13.5	15.1	69.1	15.8	84.9	.0	100.0
여자	(590)	.9	15.4	16.3	70.8	12.7	83.5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8	16.2	17.0	64.7	18.3	83.0	.0	100.0
30대	(290)	1.4	12.1	13.5	73.1	13.4	86.5	.0	100.0
40대	(306)	1.0	14.8	15.7	69.2	15.1	84.3	.0	100.0
50대이상	(346)	1.7	14.8	16.5	71.9	11.3	83.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5	10.8	14.3	73.7	11.0	84.7	1.0	100.0
고졸	(510)	1.4	14.5	15.9	70.5	13.7	84.1	.0	100.0
대재이상	(565)	.7	15.1	15.8	68.5	15.7	84.2	.0	100.0
무름 / 무응답	(14)	.0	15.5	15.5	77.1	7.3	84.5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12.3	12.3	75.5	12.3	87.7	.0	100.0
자영업	(335)	2.4	12.1	14.5	73.2	12.3	85.5	.0	100.0
블루칼라	(247)	1.2	16.7	17.9	65.4	16.8	82.1	.0	100.0
화이트칼라	(252)	.4	12.7	13.2	71.3	15.6	86.8	.0	100.0
전업주부	(211)	1.4	17.7	19.1	71.4	8.9	80.4	.5	100.0
무직 / 기타	(140)	.0	14.4	14.4	64.8	20.8	85.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4	13.0	14.4	69.1	16.0	85.0	.5	100.0
200~299만원	(287)	1.4	17.4	18.8	66.7	14.5	81.2	.0	100.0
300~399만원	(384)	1.6	13.8	15.4	72.3	12.3	84.6	.0	100.0
400만원이상	(311)	.6	13.5	14.2	69.8	16.0	85.8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11.8	11.8	88.2	.0	88.2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1.6	13.9	15.5	69.7	14.6	84.3	.2	100.0
충청권	(117)	.9	18.4	19.2	61.1	19.7	80.8	.0	100.0
호남권	(116)	.9	19.8	20.7	69.0	10.3	79.3	.0	100.0
영남권	(314)	.3	13.6	13.9	71.0	15.0	86.1	.0	100.0
강원	(35)	2.9	2.9	5.7	91.4	2.9	94.3	.0	100.0
제주	(13)	7.7	7.7	15.4	84.6	.0	84.6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	12.6	13.3	71.5	15.2	86.7	.0	100.0
중·소도시	(541)	1.8	16.5	18.4	68.0	13.5	81.4	.2	100.0
읍 / 면	(90)	1.1	13.4	14.5	72.2	13.4	85.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8	15.5	17.3	68.0	14.7	82.7	.0	100.0
중도	(578)	1.0	14.1	15.1	70.4	14.5	84.9	.0	100.0
보수적	(289)	1.0	13.8	14.9	71.3	13.5	84.7	.4	100.0
■ 종교									
불교	(258)	1.5	18.2	19.7	69.0	11.3	80.3	.0	100.0
기독교	(263)	1.5	13.5	15.0	69.5	15.5	85.0	.0	100.0
천주교	(114)	2.6	17.4	20.0	63.4	16.6	80.0	.0	100.0
기타	(7)	.0	29.8	29.8	70.2	.0	70.2	.0	100.0
종교없음	(546)	.7	12.5	13.2	71.6	15.0	86.6	.2	100.0
무름 / 무응답	(13)	.0	7.6	7.6	84.8	7.6	92.4	.0	100.0

표41.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문)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체	(1201)	49.4	41.4	90.8	7.6	1.6	9.2	100.0
■ 성별								
남자	(611)	53.6	38.2	91.8	6.3	2.0	8.2	100.0
여자	(590)	45.0	44.8	89.8	9.0	1.2	10.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3.8	39.9	83.7	13.2	3.1	16.3	100.0
30대	(290)	50.7	39.1	89.9	8.1	2.0	10.1	100.0
40대	(306)	51.7	41.1	92.8	5.5	1.6	7.2	100.0
50대이상	(346)	50.3	44.7	95.1	4.9	.0	4.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1.4	44.1	95.5	4.5	.0	4.5	100.0
고졸	(510)	46.7	44.1	90.7	8.3	1.0	9.3	100.0
대재이상	(565)	51.4	38.3	89.7	7.8	2.5	10.3	100.0
무름 / 무응답	(14)	49.5	50.5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7.2	36.6	93.9	6.1	.0	6.1	100.0
자영업	(335)	54.7	41.0	95.7	3.7	.6	4.3	100.0
블루칼라	(247)	51.5	39.3	90.8	8.0	1.2	9.2	100.0
화이트칼라	(252)	50.5	39.5	90.0	7.2	2.8	10.0	100.0
전업주부	(211)	40.1	46.4	86.5	12.5	.9	13.5	100.0
무직 / 기타	(140)	43.8	42.6	86.4	10.0	3.6	1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5.5	35.4	90.9	7.7	1.4	9.1	100.0
200~299만원	(287)	49.5	43.6	93.2	5.8	1.1	6.8	100.0
300~399만원	(384)	43.5	44.5	88.1	10.1	1.8	11.9	100.0
400만원이상	(311)	52.4	39.8	92.2	5.9	1.9	7.8	100.0
무름 / 무응답	(13)	47.4	36.6	84.0	16.0	.0	16.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5.3	37.3	92.6	6.2	1.2	7.4	100.0
충청권	(117)	47.0	38.5	85.5	12.0	2.6	14.5	100.0
호남권	(116)	53.4	37.9	91.4	7.8	.9	8.6	100.0
영남권	(314)	35.6	52.4	88.0	9.8	2.2	12.0	100.0
강원	(35)	54.3	42.9	97.1	.0	2.9	2.9	100.0
제주	(13)	76.9	23.1	100.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8.3	40.1	88.3	9.9	1.8	11.7	100.0
중·소도시	(541)	51.3	41.3	92.6	6.3	1.1	7.4	100.0
읍 / 면	(90)	44.5	51.0	95.5	1.1	3.3	4.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0.2	38.5	88.7	8.6	2.7	11.3	100.0
중도	(578)	47.5	42.8	90.3	8.4	1.4	9.7	100.0
보수적	(289)	52.1	42.2	94.2	5.1	.7	5.8	100.0
■ 종교								
불교	(258)	47.6	42.5	90.1	8.3	1.5	9.9	100.0
기독교	(263)	57.4	36.0	93.4	5.8	.8	6.6	100.0
천주교	(114)	52.2	35.6	87.9	10.4	1.7	12.1	100.0
기타	(7)	57.9	42.1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46.2	44.1	90.3	7.7	2.0	9.7	100.0
무름 / 무응답	(13)	22.3	69.9	92.2	7.8	.0	7.8	100.0

표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체	(1201)	48.3	43.6	91.9	5.8	2.3	8.1	100.0
■ 성별								
남자	(611)	51.8	40.6	92.4	5.0	2.6	7.6	100.0
여자	(590)	44.6	46.8	91.4	6.6	2.0	8.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0.0	47.3	87.2	9.3	3.5	12.8	100.0
30대	(290)	50.5	42.6	93.1	5.2	1.7	6.9	100.0
40대	(306)	46.4	44.3	90.8	5.3	3.9	9.2	100.0
50대이상	(346)	54.2	41.2	95.4	4.0	.6	4.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2.0	32.7	94.7	4.5	.9	5.3	100.0
고졸	(510)	45.5	46.8	92.3	6.2	1.6	7.7	100.0
대재이상	(565)	48.4	42.5	90.8	5.8	3.4	9.2	100.0
무름 / 무응답	(14)	35.7	64.3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9.3	40.7	100.0	.0	.0	.0	100.0
자영업	(335)	54.2	40.9	95.2	3.3	1.5	4.8	100.0
블루칼라	(247)	48.5	43.8	92.2	6.6	1.2	7.8	100.0
화이트칼라	(252)	48.4	41.7	90.1	5.5	4.3	9.9	100.0
전업주부	(211)	42.4	47.2	89.6	8.0	2.4	10.4	100.0
무직 / 기타	(140)	40.9	48.3	89.2	7.9	2.9	10.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53.6	39.2	92.8	4.8	2.4	7.2	100.0
200~299만원	(287)	48.1	45.5	93.7	5.3	1.0	6.3	100.0
300~399만원	(384)	45.1	44.5	89.6	7.0	3.4	10.4	100.0
400만원이상	(311)	49.2	43.3	92.5	5.2	2.3	7.5	100.0
무름 / 무응답	(13)	35.6	56.5	92.1	7.9	.0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50.9	43.4	94.3	4.2	1.5	5.7	100.0
충청권	(117)	41.5	43.2	84.6	9.4	6.0	15.4	100.0
호남권	(116)	44.3	43.7	87.9	6.9	5.2	12.1	100.0
영남권	(314)	44.7	46.2	90.9	7.2	1.9	9.1	100.0
강원	(35)	57.1	37.1	94.3	5.7	.0	5.7	100.0
제주	(13)	84.6	15.4	100.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6.2	45.6	91.9	5.4	2.8	8.1	100.0
중·소도시	(541)	49.7	42.7	92.5	6.3	1.3	7.5	100.0
읍 / 면	(90)	52.3	36.6	88.9	5.6	5.6	11.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0.2	38.5	88.7	7.4	3.9	11.3	100.0
중도	(578)	44.0	48.0	92.0	5.8	2.2	8.0	100.0
보수적	(289)	54.5	40.9	95.4	3.9	.7	4.6	100.0
■ 종교								
불교	(258)	47.9	44.8	92.7	5.0	2.3	7.3	100.0
기독교	(263)	56.6	35.4	91.9	5.8	2.3	8.1	100.0
천주교	(114)	49.6	39.0	88.6	8.7	2.6	11.4	100.0
기타	(7)	43.9	42.1	86.0	.0	14.0	14.0	100.0
종교없음	(546)	44.8	47.6	92.4	5.4	2.2	7.6	100.0
무름 / 무응답	(13)	23.0	61.4	84.4	15.6	.0	15.6	100.0

표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체	(1201)	43.2	41.4	84.6	11.5	3.9	15.4	100.0
■ 성별								
남자	(611)	46.4	38.6	85.0	10.1	5.0	15.0	100.0
여자	(590)	39.9	44.4	84.3	12.9	2.9	15.7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7.3	42.5	79.8	14.3	5.8	20.2	100.0
30대	(290)	46.7	39.7	86.4	10.5	3.1	13.6	100.0
40대	(306)	45.5	40.3	85.7	9.6	4.7	14.3	100.0
50대이상	(346)	42.6	43.1	85.7	11.7	2.6	14.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48.6	34.0	82.6	12.1	5.3	17.4	100.0
고졸	(510)	39.8	44.5	84.3	12.7	3.0	15.7	100.0
대재이상	(565)	45.4	40.1	85.5	9.9	4.6	14.5	100.0
무름 / 무응답	(14)	33.7	44.4	78.1	21.9	.0	2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51.1	42.8	93.9	6.1	.0	6.1	100.0
자영업	(335)	48.6	39.7	88.3	9.0	2.7	11.7	100.0
블루칼라	(247)	39.1	46.9	86.1	10.2	3.8	13.9	100.0
화이트칼라	(252)	45.3	40.8	86.2	8.3	5.5	13.8	100.0
전업주부	(211)	38.0	39.3	77.3	18.5	4.3	22.7	100.0
무직 / 기타	(140)	40.2	40.2	80.4	15.2	4.3	19.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07)	45.5	42.8	88.2	8.4	3.4	11.8	100.0
200~299만원	(287)	46.6	38.3	85.0	12.1	2.9	15.0	100.0
300~399만원	(384)	37.8	43.0	80.7	14.6	4.7	19.3	100.0
400만원이상	(311)	45.4	41.6	87.0	8.5	4.5	13.0	100.0
무름 / 무응답	(13)	35.6	40.5	76.2	23.8	.0	23.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5.0	43.7	88.6	8.6	2.8	11.4	100.0
충청권	(117)	37.2	32.5	69.7	24.4	6.0	30.3	100.0
호남권	(116)	49.1	35.3	84.5	10.3	5.2	15.5	100.0
영남권	(314)	38.0	43.4	81.4	13.7	4.9	18.6	100.0
강원	(35)	48.6	40.0	88.6	5.7	5.7	11.4	100.0
제주	(13)	69.2	30.8	100.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1.0	40.8	81.8	13.7	4.4	18.2	100.0
중·소도시	(541)	44.3	42.9	87.2	10.2	2.6	12.8	100.0
읍 / 면	(90)	50.1	36.6	86.6	4.5	8.9	13.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4.8	38.1	83.0	10.2	6.9	17.0	100.0
중도	(578)	39.5	45.2	84.7	12.4	2.9	15.3	100.0
보수적	(289)	48.5	37.9	86.4	11.0	2.6	13.6	100.0
■ 종교								
불교	(258)	43.3	38.9	82.1	13.5	4.4	17.9	100.0
기독교	(263)	47.4	38.1	85.4	10.8	3.8	14.6	100.0
천주교	(114)	45.1	40.9	86.0	9.6	4.4	14.0	100.0
기타	(7)	42.1	29.8	71.9	.0	28.1	28.1	100.0
종교없음	(546)	41.2	44.6	85.8	10.7	3.5	14.2	100.0
무름 / 무응답	(13)	23.0	37.5	60.5	39.5	.0	39.5	100.0

표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체	(1201)	19.7	51.9	71.6	22.9	5.5	28.4	100.0
■ 성별								
남자	(611)	22.1	50.4	72.5	21.4	6.1	27.5	100.0
여자	(590)	17.3	53.4	70.7	24.5	4.8	29.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4.8	47.2	62.0	29.9	8.2	38.0	100.0
30대	(290)	20.1	53.2	73.4	21.0	5.6	26.6	100.0
40대	(306)	21.2	51.8	73.0	20.7	6.3	27.0	100.0
50대이상	(346)	21.9	54.3	76.2	21.2	2.6	23.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1.5	47.0	68.4	25.2	6.3	31.6	100.0
고졸	(510)	19.0	54.5	73.5	23.2	3.3	26.5	100.0
대재이상	(565)	20.1	50.9	70.9	21.7	7.4	29.1	100.0
무름 / 무응답	(14)	19.1	37.1	56.1	43.9	.0	43.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38.8	48.9	87.7	6.1	6.1	2.3	100.0
자영업	(335)	21.7	55.4	77.0	20.0	3.0	23.0	100.0
블루 칼라	(247)	18.8	51.9	70.7	22.8	6.5	29.3	100.0
화이트칼라	(252)	17.4	56.4	73.8	19.9	6.3	26.2	100.0
전업 주부	(211)	20.8	46.5	67.3	28.6	4.1	32.7	100.0
무직 / 기타	(140)	17.3	43.9	61.1	28.8	10.1	38.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0.2	49.9	70.1	22.6	7.3	29.9	100.0
200~299만원	(287)	23.0	51.5	74.5	21.5	4.0	25.5	100.0
300~399만원	(384)	7.1	52.1	69.2	25.0	5.8	30.8	100.0
400만원이상	(311)	20.2	53.5	73.7	20.9	5.4	26.3	100.0
무름 / 무응답	(13)	7.9	47.7	55.5	44.5	.0	44.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0.4	55.2	75.7	18.8	5.6	24.3	100.0
충청권	(117)	13.7	42.7	56.4	35.9	7.7	43.6	100.0
호남권	(116)	27.9	34.2	62.1	28.4	9.5	37.9	100.0
영남권	(314)	17.5	54.1	71.6	24.6	3.8	28.4	100.0
강원	(35)	20.0	62.9	82.9	17.1	.0	17.1	100.0
제주	(13)	23.1	53.8	76.9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7.5	53.1	70.6	23.1	6.3	29.4	100.0
중·소도시	(541)	21.3	51.3	72.6	22.8	4.6	27.4	100.0
읍 / 면	(90)	24.5	47.7	72.2	22.3	5.6	2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0.4	49.7	70.1	22.0	7.9	29.9	100.0
중도	(578)	18.9	53.3	72.2	23.3	4.5	27.8	100.0
보수적	(289)	20.7	51.6	72.2	23.2	4.6	27.8	100.0
■ 종교								
불교	(258)	19.0	52.5	71.5	24.5	4.0	28.5	100.0
기독교	(263)	21.3	48.6	69.9	23.3	6.8	30.1	100.0
천주교	(114)	27.8	43.6	71.4	23.4	5.2	28.6	100.0
기타	(7)	14.0	43.9	57.9	14.0	28.1	42.1	100.0
종교 없음	(546)	18.0	55.3	73.4	21.4	5.2	26.6	100.0
무름 / 무응답	(13)	7.8	37.7	45.5	47.0	7.5	54.5	100.0

표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1)	21.3	51.0	72.3	23.5	4.2	27.7	100.0
■ 성별								
남자	(611)	24.2	49.2	73.4	21.5	5.1	26.6	100.0
여자	(590)	18.3	52.8	71.1	25.6	3.3	28.9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7.5	46.1	63.6	29.0	7.4	36.4	100.0
30대	(290)	21.9	51.5	73.4	21.7	4.9	26.6	100.0
40대	(306)	23.7	51.3	75.0	21.7	3.4	25.0	100.0
50대이상	(346)	21.6	53.9	75.4	22.5	2.0	24.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22.0	48.8	70.8	25.6	3.6	29.2	100.0
고졸	(510)	21.0	53.2	74.1	23.2	2.7	25.9	100.0
대재이상	(565)	21.6	49.6	71.3	22.9	5.9	28.7	100.0
무름 / 무응답	(14)	14.2	41.9	56.1	43.9	.0	43.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34.7	53.0	87.7	12.3	.0	12.3	100.0
자영업	(335)	24.0	54.2	78.2	19.7	2.1	21.8	100.0
블루칼라	(247)	20.0	53.7	73.7	21.4	5.0	26.3	100.0
화이트칼라	(252)	20.1	53.7	73.8	21.0	5.1	26.2	100.0
전업주부	(211)	19.8	44.3	64.1	32.8	3.1	35.9	100.0
무직 / 기타	(140)	20.1	43.1	63.2	28.1	8.7	36.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22.0	52.7	74.7	20.9	4.4	25.3	100.0
200~299만원	(287)	24.7	49.5	74.2	22.5	3.3	25.8	100.0
300~399만원	(384)	18.7	51.6	70.2	25.2	4.5	29.8	100.0
400만원 이상	(311)	21.7	50.2	72.0	23.2	4.8	28.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55.5	55.5	44.5	.0	44.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21.9	55.3	77.2	19.0	3.8	22.8	100.0
충청권	(117)	14.5	45.3	59.8	34.2	6.0	40.2	100.0
호남권	(116)	27.0	39.4	66.4	26.7	6.9	33.6	100.0
영남권	(314)	20.3	47.9	68.2	27.7	4.1	31.8	100.0
강원	(35)	25.7	54.3	80.0	20.0	.0	20.0	100.0
제주	(13)	15.4	69.2	84.6	15.4	.0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19.3	50.5	69.8	25.6	4.5	30.2	100.0
중·소도시	(541)	22.5	52.0	74.5	21.4	4.1	25.5	100.0
읍 / 면	(90)	26.7	47.7	74.4	22.3	3.3	25.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25.2	45.5	70.7	23.2	6.1	29.3	100.0
중도	(578)	19.5	53.4	72.9	23.8	3.3	27.1	100.0
보수적	(289)	20.4	52.5	72.8	23.2	3.9	27.2	100.0
■ 종교								
불교	(258)	19.7	51.4	71.1	25.3	3.6	28.9	100.0
기독교	(263)	21.0	50.8	71.8	23.2	5.0	28.2	100.0
천주교	(114)	26.9	43.5	70.5	26.0	3.5	29.5	100.0
기타	(7)	14.0	43.9	57.9	14.0	28.1	42.1	100.0
종교 없음	(546)	21.2	53.2	74.4	21.7	3.9	25.6	100.0
무름 / 무응답	(13)	15.4	22.5	37.9	54.6	7.5	62.1	100.0

표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1)	39.0	21.0	39.9	.1	100.0
■ 성별						
남자	(611)	41.1	24.5	34.5	.0	100.0
여자	(590)	36.9	17.3	45.6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34.5	20.6	44.9	.0	100.0
30대	(290)	40.1	17.2	42.7	.0	100.0
40대	(306)	46.9	19.6	33.5	.0	100.0
50대이상	(346)	34.5	25.6	39.7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3.1	25.8	41.0	.0	100.0
고졸	(510)	37.4	24.7	37.7	.2	100.0
대재이상	(565)	41.9	16.2	41.9	.0	100.0
무름 / 무응답	(14)	29.3	37.3	33.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42.9	6.1	50.9	.0	100.0
자영업	(335)	36.6	23.6	39.9	.0	100.0
블루 칼라	(247)	35.1	23.4	41.5	.0	100.0
화이트칼라	(252)	43.8	19.3	36.9	.0	100.0
전업 주부	(211)	39.2	21.0	39.4	.5	100.0
무직 / 기타	(140)	42.4	15.1	42.5	.0	100.0
■ 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8.8	24.8	36.4	.0	100.0
200~299만원	(287)	36.7	9.5	43.5	.3	100.0
300~399만원	(384)	42.0	21.1	36.9	.0	100.0
400만원이상	(311)	38.2	19.0	42.9	.0	100.0
무름 / 무응답	(13)	23.8	36.3	39.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7.5	21.6	40.7	.2	100.0
충청권	(117)	41.5	25.2	33.3	.0	100.0
호남권	(116)	54.0	15.5	30.5	.0	100.0
영남권	(314)	33.7	21.8	44.5	.0	100.0
강원	(35)	45.7	8.6	45.7	.0	100.0
제주	(13)	61.5	15.4	23.1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37.8	20.1	41.9	.2	100.0
중·소도시	(541)	38.6	21.9	39.6	.0	100.0
읍 / 면	(90)	49.0	21.0	30.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49.6	13.8	36.6	.0	100.0
중도	(578)	36.8	21.2	41.9	.2	100.0
보수적	(289)	31.2	28.9	40.0	.0	100.0
■ 종교						
불교	(258)	40.1	26.5	33.4	.0	100.0
기독교	(263)	43.1	17.1	39.4	.4	100.0
천주교	(114)	36.3	17.3	46.4	.0	100.0
기타	(7)	42.1	15.8	42.1	.0	100.0
종교 없음	(546)	37.6	20.8	41.6	.0	100.0
무름 / 무응답	(13)	15.1	30.3	54.6	.0	100.0

표44.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문)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별로 상관없다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	%	%	%	%	%	%
■ 전체	(1201)	29.4	46.6	76.0	20.4	3.2	.3	3.6	100.0
■ 성별									
남자	(611)	29.3	44.8	74.1	21.2	4.6	.2	4.7	100.0
여자	(590)	29.5	48.5	78.0	19.6	1.8	.5	2.3	100.0
■ 연령별									
19~29세	(259)	25.6	45.0	70.6	25.5	2.7	1.2	3.9	100.0
30대	(290)	27.8	44.4	72.2	23.6	4.2	.0	4.2	100.0
40대	(306)	33.8	45.9	79.7	17.1	2.8	.3	3.2	100.0
50대이상	(346)	29.7	50.3	80.0	16.9	3.2	.0	3.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33.1	43.7	76.9	18.7	4.5	.0	4.5	100.0
고졸	(510)	28.8	48.8	77.6	19.3	2.9	.2	3.1	100.0
대재이상	(565)	29.0	45.3	74.3	21.8	3.4	.5	3.9	100.0
무름 / 무응답	(14)	35.0	43.7	78.7	21.3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8.5	65.4	93.9	6.1	.0	.0	.0	100.0
자영업	(335)	31.6	49.3	80.8	15.6	3.2	.3	3.5	100.0
블루칼라	(247)	30.7	44.4	75.2	21.1	3.3	.4	3.8	100.0
화이트칼라	(252)	28.9	47.6	76.5	20.0	3.1	.4	3.5	100.0
전업주부	(211)	28.3	43.1	71.4	25.8	2.8	.0	2.8	100.0
무직 / 기타	(140)	24.5	45.4	69.9	25.1	4.3	.7	5.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38.0	38.0	76.0	19.0	4.5	.5	5.0	100.0
200~299만원	(287)	30.3	45.0	75.4	21.2	3.5	.0	3.5	100.0
300~399만원	(384)	23.7	51.1	74.8	21.9	3.1	.3	3.3	100.0
400만원이상	(311)	9.7	48.0	77.8	19.1	2.5	.7	3.2	100.0
무름 / 무응답	(13)	32.7	51.6	84.3	15.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35.0	43.6	78.6	17.7	3.4	.3	3.7	100.0
충청권	(117)	22.2	55.6	77.8	21.4	.9	.0	.9	100.0
호남권	(116)	27.3	45.1	72.4	22.4	3.4	1.7	5.2	100.0
영남권	(314)	22.2	50.0	72.2	24.0	3.9	.0	3.9	100.0
강원	(35)	31.4	40.0	71.4	28.6	.0	.0	.0	100.0
제주	(13)	23.1	53.8	76.9	15.4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27.6	45.6	73.3	22.9	3.7	.2	3.9	100.0
중·소도시	(541)	31.9	45.8	77.7	18.5	3.3	.6	3.8	100.0
읍 / 면	(90)	25.6	57.7	83.3	16.7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31.8	43.8	75.6	19.9	3.6	.9	4.5	100.0
중도	(578)	25.8	48.3	74.0	23.2	2.7	.0	2.7	100.0
보수적	(289)	33.9	46.5	80.4	15.4	3.8	.3	4.2	100.0
■ 종교									
불교	(258)	28.0	46.7	74.7	22.6	2.7	.0	2.7	100.0
기독교	(263)	0.3	37.9	78.2	18.4	2.6	.8	3.4	100.0
천주교	(114)	27.9	47.0	74.9	17.3	6.1	1.7	7.8	100.0
기타	(7)	56.1	43.9	100.0	.0	.0	.0	.0	100.0
종교없음	(546)	25.1	50.3	75.5	21.2	3.3	.0	3.3	100.0
무름 / 무응답	(13)	16.1	61.0	77.1	22.9	.0	.0	.0	100.0

표51.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체	(1201)	8.1	51.9	59.9	34.3	5.7	40.0	.1	100.0
■ 성별									
남자	(611)	8.7	49.7	58.4	33.8	7.7	41.6	.0	100.0
여자	(590)	7.4	54.1	61.5	34.8	3.6	38.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9)	10.1	55.4	65.5	31.0	3.5	34.5	.0	100.0
30대	(290)	8.9	52.8	61.7	33.5	4.8	38.3	.0	100.0
40대	(306)	8.3	51.6	59.9	32.1	7.9	40.1	.0	100.0
50대이상	(346)	5.6	48.6	54.2	39.4	6.1	45.5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3	48.3	54.7	36.9	7.5	44.3	1.0	100.0
고졸	(510)	5.9	53.1	58.9	33.4	7.6	41.1	.0	100.0
대제이상	(565)	10.4	51.5	62.0	34.5	3.5	38.0	.0	100.0
무름 / 무응답	(14)	7.3	49.1	56.4	36.3	7.3	43.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0	40.7	40.7	36.8	22.5	59.3	.0	100.0
자영업	(335)	7.9	50.1	58.0	36.6	5.4	42.0	.0	100.0
블루칼라	(247)	8.8	50.7	59.5	35.1	5.4	40.5	.0	100.0
화이트칼라	(252)	9.4	52.6	62.0	33.9	4.1	38.0	.0	100.0
전업주부	(211)	7.5	52.3	59.7	34.1	5.6	39.7	.5	100.0
무직 / 기타	(140)	6.5	57.5	64.0	28.0	7.9	36.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1.2	53.0	64.2	30.0	5.3	35.3	.5	100.0
200~299만원	(287)	4.9	52.8	57.7	36.2	6.2	42.3	.0	100.0
300~399만원	(384)	7.2	48.4	55.6	38.2	6.2	44.4	.0	100.0
400만원이상	(311)	10.3	54.2	64.6	30.6	4.8	35.4	.0	100.0
무름 / 무응답	(13)	.0	59.5	59.5	32.7	7.9	40.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9.0	56.4	65.4	30.1	4.3	34.4	.2	100.0
충청권	(117)	7.7	56.4	64.1	31.6	4.3	35.9	.0	100.0
호남권	(116)	12.1	48.9	60.9	31.6	7.5	39.1	.0	100.0
영남권	(314)	5.4	45.7	51.1	43.3	5.6	48.9	.0	100.0
강원	(35)	.0	34.3	34.3	37.1	28.6	65.7	.0	100.0
제주	(13)	15.4	23.1	38.5	53.8	7.7	61.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7.9	52.0	59.9	35.2	4.9	40.1	.0	100.0
중·소도시	(541)	8.5	51.8	60.3	32.9	6.6	39.5	.2	100.0
읍 / 면	(90)	6.7	51.0	57.7	36.7	5.6	4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7	53.3	62.0	29.6	8.4	38.0	.0	100.0
중도	(578)	6.6	50.5	57.1	38.2	4.7	42.9	.0	100.0
보수적	(289)	10.3	53.0	63.3	31.9	4.5	36.3	.4	100.0
■ 종교									
불교	(258)	7.8	49.3	57.0	37.2	5.8	43.0	.0	100.0
기독교	(263)	11.4	55.8	67.2	27.5	5.3	32.8	.0	100.0
천주교	(114)	8.7	51.4	60.1	34.7	5.2	39.9	.0	100.0
기타	(7)	14.0	56.1	70.2	.0	29.8	29.8	.0	100.0
종교없음	(546)	6.4	51.2	57.6	36.9	5.3	42.2	.2	100.0
무름 / 무응답	(13)	7.3	53.2	60.5	23.1	16.4	39.5	.0	100.0

표52.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신뢰도

문) ○○님은 작년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	반반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전체	(1201)	7.0	26.5	33.5	31.4	26.0	9.1	35.2	100.0
■ 성별									
남자	(611)	10.3	27.2	37.4	30.1	23.0	9.4	32.4	100.0
여자	(590)	3.7	25.7	29.4	32.6	29.2	8.8	38.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5.0	21.7	26.7	27.5	32.6	13.2	45.8	100.0
30대	(290)	2.7	19.4	22.1	36.8	29.2	11.9	41.1	100.0
40대	(306)	4.8	27.5	32.4	35.6	23.6	8.5	32.1	100.0
50대이상	(346)	14.1	35.1	49.1	25.9	20.7	4.3	25.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0.9	36.4	47.2	28.1	21.7	2.9	24.7	100.0
고졸	(510)	7.1	27.3	34.4	33.5	22.3	9.8	32.1	100.0
대재이상	(565)	6.0	23.9	29.8	29.9	30.5	9.8	40.2	100.0
무름 / 무응답	(14)	14.6	21.5	36.1	37.5	19.3	7.1	26.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1	30.7	36.8	24.4	28.6	10.2	38.8	100.0
자영업	(335)	10.6	32.1	42.7	30.1	19.0	8.2	27.3	100.0
블루칼라	(247)	6.8	21.0	27.9	33.8	25.3	13.0	38.3	100.0
화이트칼라	(252)	6.3	27.4	33.7	30.9	26.5	8.8	35.4	100.0
전업주부	(211)	3.3	26.6	30.0	34.7	29.2	6.1	35.3	100.0
무직 / 기타	(140)	5.8	20.1	25.9	26.6	38.1	9.4	47.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9.6	28.8	38.4	29.9	23.5	8.2	31.6	100.0
200~299만원	(287)	6.0	25.8	31.7	34.3	26.3	7.6	33.9	100.0
300~399만원	(384)	7.0	25.0	31.9	29.8	27.9	10.4	38.3	100.0
400만원이상	(311)	6.0	27.5	33.5	32.1	24.8	9.7	34.5	100.0
무름 / 무응답	(13)	15.7	24.5	40.3	16.0	35.9	7.9	43.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8.6	29.0	37.7	32.6	22.2	7.5	29.8	100.0
충청권	(117)	6.0	23.5	29.5	23.1	33.8	13.7	47.4	100.0
호남권	(116)	3.4	14.7	18.1	31.6	37.6	12.6	50.3	100.0
영남권	(314)	5.7	27.5	33.2	31.1	27.3	8.3	35.7	100.0
강원	(35)	2.9	22.9	25.7	45.7	17.1	11.4	28.6	100.0
제주	(13)	15.4	3.1	38.5	15.4	23.1	23.1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8.1	27.5	35.6	29.4	25.3	9.6	35.0	100.0
중·소도시	(541)	6.1	25.2	31.3	33.1	26.5	9.2	35.7	100.0
읍 / 면	(90)	5.6	27.8	33.4	33.2	27.8	5.6	33.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7	23.1	28.7	26.8	31.6	12.8	44.5	100.0
중도	(578)	4.4	26.4	30.8	36.5	24.8	7.8	32.7	100.0
보수적	(289)	13.8	30.6	44.4	26.3	22.0	7.4	29.3	100.0
■ 종교									
불교	(258)	8.9	30.8	39.7	30.0	21.8	8.6	30.4	100.0
기독교	(263)	8.3	29.9	38.2	29.9	23.9	8.0	31.9	100.0
천주교	(114)	8.6	24.3	32.9	26.1	30.6	10.4	41.0	100.0
기타	(7)	.0	42.1	42.1	14.0	14.0	29.8	43.9	100.0
종교없음	(546)	5.1	22.9	28.0	34.0	28.4	9.6	38.0	100.0
무름 / 무응답	(13)	16.3	30.1	46.4	31.0	22.7	.0	22.7	100.0

표57-1.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 1순위

문) ○○님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학교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환경 보존과 에너지 정책 전환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전체	(1201)	67.2	10.3	9.7	5.1	4.0	3.3	.2	.1	100.0
■ 성별										
남자	(611)	66.4	12.6	9.7	4.3	3.4	3.4	.0	.2	100.0
여자	(590)	68.1	8.0	9.8	6.0	4.6	3.2	.3	.0	100.0
■ 연령별										
19~29세	(259)	65.1	9.3	10.1	6.2	3.9	5.0	.0	.4	100.0
30대	(290)	65.2	11.0	12.0	6.0	3.0	2.7	.0	.0	100.0
40대	(306)	68.7	11.5	8.7	4.9	3.3	2.6	.3	.0	100.0
50대이상	(346)	69.2	9.6	8.4	3.8	5.5	3.2	.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64.8	9.2	12.7	5.3	4.4	3.6	.0	.0	100.0
고졸	(510)	69.8	10.4	9.0	4.2	3.7	2.7	.2	.0	100.0
대재이상	(565)	65.0	10.7	9.9	6.0	4.2	3.9	.2	.2	100.0
무름 / 무응답	(14)	85.8	6.9	7.3	.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81.8	12.3	.0	.0	.0	6.0	.0	.0	100.0
자영업	(335)	71.0	11.1	7.0	3.6	4.2	3.0	.3	.0	100.0
블루칼라	(247)	69.6	12.2	8.1	5.3	3.6	1.2	.0	.0	100.0
화이트칼라	(252)	63.9	7.6	15.0	5.2	3.2	4.8	.4	.0	100.0
전업주부	(211)	65.8	9.0	9.9	5.5	5.7	4.3	.0	.0	100.0
무직 / 기타	(140)	60.5	12.2	10.8	8.6	3.6	3.6	.0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62.5	11.2	13.2	4.9	4.8	3.4	.0	.0	100.0
200~299만원	(287)	67.5	12.6	8.4	5.6	2.1	3.5	.3	.0	100.0
300~399만원	(384)	71.0	9.2	8.3	5.1	4.4	2.1	.0	.0	100.0
400만원이상	(311)	65.0	9.6	10.6	5.1	4.8	4.2	.3	.3	100.0
무름 / 무응답	(13)	76.2	.0	8.1	.0	.0	15.7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69.9	10.7	8.1	3.8	4.3	3.1	.2	.0	100.0
충청권	(117)	59.8	10.3	17.9	7.7	.9	2.6	.0	.9	100.0
호남권	(116)	56.9	15.5	12.9	6.9	1.7	5.2	.9	.0	100.0
영남권	(314)	70.6	8.5	7.1	5.6	5.1	3.2	.0	.0	100.0
강원	(35)	51.4	8.6	22.9	5.7	5.7	5.7	.0	.0	100.0
제주	(13)	61.5	.0	15.4	15.4	7.7	.0	.0	.0	100.0
■ 지역 크기										
대도시	(570)	71.8	10.3	9.3	3.6	3.1	1.8	.2	.0	100.0
중·소도시	(541)	64.4	10.5	9.2	6.3	5.2	4.2	.0	.2	100.0
읍 / 면	(90)	55.5	10.0	15.6	7.8	2.2	7.8	1.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63.7	9.9	10.7	4.7	6.3	4.8	.0	.0	100.0
중도	(578)	68.3	10.9	9.2	5.4	3.1	2.9	.0	.2	100.0
보수적	(289)	69.0	9.8	9.8	5.2	3.1	2.4	.7	.0	100.0
■ 종교										
불교	(258)	69.4	6.6	11.2	5.0	4.6	3.1	.0	.0	100.0
기독교	(263)	64.4	11.0	10.0	6.5	4.6	2.7	.8	.0	100.0
천주교	(114)	55.4	15.8	11.3	4.4	6.1	7.0	.0	.0	100.0
기타	(7)	57.9	.0	.0	14.0	14.0	.0	.0	14.0	100.0
종교없음	(546)	70.6	10.7	8.4	4.7	2.7	2.9	.0	.0	100.0
무름 / 무응답	(13)	46.4	15.3	22.7	.0	7.8	7.8	.0	.0	100.0

표57-2.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 1+2+3순위

문) ○○님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학교개혁	환경 보존과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기타	모름/무응답
		%	%	%	%	%	%	%	%
■ 전체	(1201)	89.8	54.5	53.2	36.4	32.9	25.4	1.0	.1
■ 성별									
남자	(611)	88.9	55.2	57.1	33.1	28.6	27.7	1.0	.2
여자	(590)	90.7	53.9	49.2	40.0	37.4	23.0	1.0	.0
■ 연령별									
19~29세	(259)	89.1	59.8	52.7	37.1	34.9	20.2	.4	.4
30대	(290)	87.0	57.3	53.9	41.1	31.0	21.8	1.0	.0
40대	(306)	91.9	46.4	52.8	41.1	28.0	30.5	1.3	.0
50대이상	(346)	90.7	55.6	53.4	28.0	37.4	27.8	1.2	.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92.9	57.5	56.0	23.0	34.5	29.8	.9	.0
고졸	(510)	89.2	53.1	55.2	35.3	36.4	24.2	1.6	.0
대재이상	(565)	89.6	55.2	51.4	39.8	29.5	25.7	.5	.2
무름 / 무응답	(14)	93.1	56.6	33.5	50.8	30.0	21.9	.0	.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87.9	65.3	50.9	12.3	46.9	36.8	.0	.0
자영업	(335)	90.1	51.5	54.1	33.3	32.2	30.3	.9	.0
블루칼라	(247)	89.5	52.5	58.4	37.1	32.4	21.2	2.4	.0
화이트칼라	(252)	91.3	58.8	46.6	42.1	28.9	26.0	.4	.0
전업주부	(211)	89.7	49.6	53.2	35.2	40.1	25.4	.5	.0
무직 / 기타	(140)	87.1	64.1	54.0	37.2	30.2	18.7	.7	.7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87.9	58.0	60.5	33.0	34.8	21.0	.0	.0
200~299만원	(287)	88.9	47.7	55.4	36.6	33.8	26.4	2.1	.0
300~399만원	(384)	89.4	55.3	49.1	41.1	32.9	25.4	.8	.0
400만원이상	(311)	91.9	57.4	51.2	33.2	30.5	28.1	.6	.3
무름 / 무응답	(13)	100.0	60.4	59.7	24.5	39.3	8.1	7.9	.0
■ 지역별									
수도권	(606)	91.1	48.7	54.3	39.0	30.3	26.1	1.1	.0
충청권	(117)	86.3	76.1	1.3	34.2	24.8	18.8	.0	.9
호남권	(116)	81.0	55.5	63.8	31.0	44.5	20.7	1.7	.0
영남권	(314)	91.0	56.2	49.1	33.6	36.0	30.2	.6	.0
강원	(35)	94.3	62.9	37.1	45.7	40.0	14.3	.0	.0
제주	(13)	92.3	61.5	69.2	30.8	30.8	7.7	7.7	.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92.9	54.1	52.7	35.3	30.5	26.5	1.2	.0
중·소도시	(541)	86.8	54.3	55.5	36.9	35.0	24.2	.6	.2
읍 / 면	(90)	87.8	58.8	42.3	41.2	35.6	25.6	2.2	.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89.0	53.5	56.7	34.8	33.1	28.2	.3	.0
중도	(578)	90.0	54.5	51.4	36.4	34.5	24.6	.7	.2
보수적	(289)	90.2	55.9	52.7	38.4	29.6	23.7	2.4	.0
■ 종교									
불교	(258)	90.7	57.6	49.9	34.2	32.5	28.3	.8	.0
기독교	(263)	86.6	49.6	51.7	38.7	35.0	27.6	2.7	.0
천주교	(114)	88.6	48.8	46.2	38.1	31.5	32.8	.9	.0
기타	(7)	71.9	42.1	29.8	28.1	15.8	42.1	.0	14.0
종교 없음	(546)	91.3	56.8	57.5	36.2	32.8	20.7	.4	.0
무름 / 무응답	(13)	92.5	54.4	46.6	38.1	23.2	45.4	.0	.0

표58-1.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 평화공존 VS 흡수통일

문)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공존				중간				흡수통일	
		1	2	3	4	5	6	7	8	9	10
		사례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 전체	(1201)		8.3	9.7	13.4	12.2	25.6	12.4	7.9		
■ 성별											
남자	(611)		9.6	10.2	13.4	11.2	22.3	11.8	8.2		
여자	(590)		6.9	9.3	13.3	13.2	29.1	13.1	7.6		
■ 연령별											
19~29세	(259)		7.0	8.5	15.1	12.8	21.7	11.3	10.5		
30대	(290)		7.4	9.7	13.2	12.4	28.7	11.4	7.9		
40대	(306)		10.4	9.8	9.4	13.2	25.5	12.8	8.1		
50대 이상	(346)		8.0	10.6	15.8	10.7	26.1	13.9	5.8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8.9	11.7	16.7	10.8	25.5	13.0	6.2		
고졸	(510)		8.2	9.7	10.7	12.7	30.7	12.3	6.7		
대재이상	(565)		8.1	9.6	15.5	11.9	21.3	12.4	9.2		
무름 / 무응답	(14)		14.4	4.9	.0	14.6	14.2	15.5	14.6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4.5	22.5	12.3	6.1	6.1	4.1	6.1		
자영업	(335)		9.8	7.8	14.3	10.2	27.4	11.7	6.6		
블루칼라	(247)		7.2	8.6	10.5	11.5	29.2	14.8	7.3		
화이트칼라	(252)		8.6	12.7	13.5	14.3	21.7	10.0	9.4		
전업주부	(211)		6.1	9.5	14.7	14.6	28.4	15.0	7.1		
무직 / 기타	(140)		7.3	10.0	14.3	11.5	20.2	11.5	10.8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3.5	8.1	11.2	10.7	27.5	9.7	5.8		
200~299만원	(287)		6.2	8.8	12.9	9.0	27.2	16.9	8.4		
300~399만원	(384)		6.0	11.9	14.4	14.7	25.3	11.9	8.6		
400만원이상	(311)		8.9	9.1	13.9	12.5	24.4	10.9	8.1		
무름 / 무응답	(13)		23.8	8.1	15.7	24.5	.0	11.8	8.1		
■ 지역별											
수도권	(606)		9.1	6.4	12.2	10.2	30.3	12.0	7.6		
충청권	(117)		9.4	12.8	15.4	17.9	18.8	9.4	6.8		
호남권	(116)		16.4	13.5	14.7	9.5	23.0	4.0	7.8		
영남권	(314)		1.2	14.5	14.9	15.8	18.7	18.5	10.0		
강원	(35)		17.1	5.7	14.3	5.7	40.0	5.7	2.9		
제주	(13)		30.8	.0	.0	7.7	23.1	7.7	.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6.8	11.5	14.3	11.5	23.9	13.9	7.2		
중·소도시	(541)		10.1	8.4	13.1	11.6	27.8	11.0	8.3		
읍 / 면	(90)		6.7	6.7	8.9	19.9	23.4	12.2	1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1.6	12.5	13.6	9.6	22.7	11.6	8.3		
중도	(578)		6.7	8.1	13.3	13.8	28.8	12.1	7.1		
보수적	(289)		7.6	9.9	13.2	11.9	22.7	14.2	9.1		
■ 종교											
불교	(258)		8.0	12.8	11.7	1.3	6.3	14.0	7.0		
기독교	(263)		8.0	10.2	13.5	9.9	26.8	9.0	8.8		
천주교	(114)		10.4	7.8	13.9	16.5	20.1	14.8	6.9		
기타	(7)		.0	28.1	28.1	15.8	14.0	14.0	.0		
종교없음	(546)		8.4	8.3	13.8	12.7	25.4	13.1	8.2		
무름 / 무응답	(13)		.0	7.5	15.4	15.4	53.9	.0	7.8		

(continued)

표58-1.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 평화공존 VS 흡수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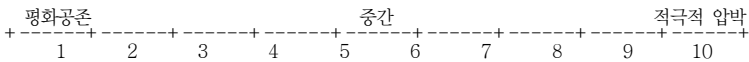
문)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공존				중간				흡수통일		계	(평균) 점
	1	2	3	4	5	6	7	8	9	10		
	8	9	10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	
■ 전체	5.5	1.4	3.4	.1	100.0							(4.66)
■ 성별												
남자	6.5	1.6	5.2	.0	100.0							(4.74)
여자	4.5	1.2	1.5	.2	100.0							(4.59)
■ 연령별												
19~29세	7.7	1.2	4.3	.0	100.0							(4.85)
30대	4.6	1.0	3.7	.0	100.0							(4.66)
40대	4.3	2.9	3.6	.0	100.0							(4.69)
50대이상	5.8	.6	2.3	.3	100.0							(4.5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5.5	.0	.9	.9	100.0							(4.31)
고졸	5.0	1.4	2.6	.0	100.0							(4.63)
대재이상	5.8	1.8	4.6	.0	100.0							(4.74)
무름 / 무응답	14.4	.0	7.3	.0	100.0							(5.37)
■ 직업별												
농/수축산업	12.3	6.0	.0	.0	100.0							(3.81)
자영업	6.5	1.5	4.2	.0	100.0							(4.70)
블루칼라	4.1	1.6	5.2	.0	100.0							(4.87)
화이트칼라	5.2	.4	4.3	.0	100.0							(4.54)
전업주부	3.6	.5	.0	.5	100.0							(4.45)
무직 / 기타	8.6	3.6	2.2	.0	100.0							(4.85)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7.8	2.9	2.9	.0	100.0							(4.59)
200~299만원	5.0	1.0	4.2	.3	100.0							(4.88)
300~399만원	3.9	1.0	2.3	.0	100.0							(4.53)
400만원이상	6.5	1.3	4.4	.0	100.0							(4.71)
무름 / 무응답	7.9	.0	.0	.0	100.0							(3.76)
■ 지역별												
수도권	6.1	1.6	4.4	.0	100.0							(4.84)
충청권	5.1	.9	3.4	.0	100.0							(4.34)
호남권	3.4	1.7	6.0	.0	100.0							(4.22)
영남권	5.3	.6	.6	.0	100.0							(4.66)
강원	.0	2.9	2.9	2.9	100.0							(4.15)
제주	23.1	7.7	.0	.0	100.0							(4.77)
■ 지역크기												
대도시	6.6	1.0	3.3	.0	100.0							(4.67)
중·소도시	4.4	1.7	3.5	.0	100.0							(4.62)
읍 / 면	5.6	2.2	3.3	1.1	100.0							(4.90)
■ 정치적성향												
진보적	4.5	1.5	3.9	.3	100.0							(4.46)
중도	6.0	1.2	2.9	.0	100.0							(4.72)
보수적	5.9	1.7	3.8	.0	100.0							(4.77)
■ 종교												
불교	4.6	1.5	2.7	.0	100.0							(4.57)
기독교	5.4	2.7	5.7	.0	100.0							(4.82)
천주교	7.0	.0	1.7	.9	100.0							(4.48)
기타	.0	.0	.0	.0	100.0							(3.58)
종교없음	5.9	1.1	3.1	.0	100.0							(4.69)
무름 / 무응답	.0	.0	.0	.0	100.0							(4.47)

표58-2.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문)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	%	%	%	%	%	%
■ 전체	(1201)	9.7	11.0	17.6	11.3	27.9	11.5	6.3
■ 성별								
남자	(611)	11.4	11.8	16.6	10.7	26.0	10.1	7.4
여자	(590)	7.9	10.2	18.6	11.8	29.9	13.0	5.1
■ 연령별								
19~29세	(259)	7.0	10.5	19.0	13.6	25.2	13.6	5.0
30대	(290)	9.1	12.9	16.7	9.7	31.5	11.1	6.0
40대	(306)	12.6	9.1	17.6	11.2	27.5	11.0	6.5
50대이상	(346)	9.7	11.7	17.3	10.9	27.3	10.9	7.3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15.1	9.8	15.2	13.8	28.1	8.9	4.7
고졸	(510)	7.9	11.7	15.7	9.2	33.4	10.9	7.7
대재이상	(565)	10.4	10.8	20.1	12.7	23.1	12.5	4.7
무름 / 무응답	(14)	7.1	4.9	7.1	7.3	21.5	15.5	29.3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28.6	22.5	42.8	.0	.0	.0	6.1
자영업	(335)	11.5	8.4	17.1	9.8	30.7	11.1	6.4
블루칼라	(247)	9.6	10.7	11.8	8.2	29.3	13.5	10.1
화이트칼라	(252)	9.4	13.9	20.5	13.6	22.9	10.2	5.1
전업주부	(211)	5.1	11.1	17.5	14.1	30.2	13.4	5.7
무직 / 기타	(140)	10.8	11.4	20.9	12.9	27.4	10.1	2.1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12.9	10.0	13.2	12.7	27.8	8.3	6.9
200~299만원	(287)	7.9	8.7	15.3	9.8	33.2	14.1	6.7
300~399만원	(384)	8.4	14.5	18.7	10.6	26.4	11.3	6.8
400만원이상	(311)	10.2	10.0	20.4	12.2	25.7	12.1	4.9
무름 / 무응답	(13)	23.8	.0	39.8	16.7	11.8	.0	7.9
■ 지역별								
수도권	(606)	10.1	7.5	16.8	8.6	34.0	11.0	6.2
충청권	(117)	11.1	13.7	19.7	14.5	18.8	7.7	8.5
호남권	(116)	23.0	14.4	19.0	11.2	20.4	6.9	2.6
영남권	(314)	2.9	16.3	19.4	14.7	20.8	15.8	7.5
강원	(35)	14.3	2.9	8.6	11.4	42.9	11.4	2.9
제주	(13)	15.4	15.4	7.7	23.1	23.1	7.7	.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8.0	12.5	18.1	11.1	27.7	12.2	5.9
중·소도시	(541)	12.2	10.2	16.8	10.2	28.7	10.9	6.1
읍 / 면	(90)	5.6	6.7	18.9	18.8	24.5	11.1	1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15.7	14.2	17.0	10.4	23.6	9.7	6.6
중도	(578)	7.6	8.9	16.7	11.7	32.5	12.5	5.5
보수적	(289)	6.9	11.6	20.1	11.4	23.7	11.7	7.4
■ 종교								
불교	(258)	9.9	14.9	17.8	8.1	23.9	14.0	6.2
기독교	(263)	10.2	9.0	14.7	10.3	32.1	11.0	7.8
천주교	(114)	12.2	7.8	22.6	15.6	20.1	11.3	.9
기타	(7)	14.0	14.0	29.8	14.0	14.0	14.0	.0
종교없음	(546)	9.0	11.1	17.9	12.4	28.2	10.9	7.0
무름 / 무응답	(13)	.0	.0	7.6	7.8	84.6	.0	.0



(continued)

표58-2.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문)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9	10	모름/무응답	계	(평균)
	%	%	%	%	%	점
■ 전체	26	.3	1.7	.1	100.0	(4.23)
■ 성별						
남자	2.5	.6	2.8	.0	100.0	(4.24)
여자	2.7	.0	.5	.2	100.0	(4.22)
■ 연령별						
19~29세	4.2	.0	1.9	.0	100.0	(4.35)
30대	1.3	1.4	.3	.0	100.0	(4.16)
40대	2.6	.0	1.9	.0	100.0	(4.17)
50대이상	2.3	.0	2.3	.3	100.0	(4.24)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2.7	.0	.9	.9	100.0	(3.96)
고졸	2.5	.0	1.0	.0	100.0	(4.32)
대재이상	2.6	.7	2.3	.0	100.0	(4.17)
무름 / 무응답	.0	.0	7.3	.0	100.0	(5.46)
■ 직업별						
농/수/축산업	.0	.0	.0	.0	100.0	(2.45)
자영업	2.4	.6	1.8	.0	100.0	(4.27)
블루칼라	3.6	.4	2.8	.0	100.0	(4.58)
화이트칼라	2.4	.4	1.6	.0	100.0	(4.03)
전업주부	1.9	.0	.5	.5	100.0	(4.30)
무직 / 기타	2.8	.0	1.4	.0	100.0	(3.98)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3.8	.0	4.3	.0	100.0	(4.34)
200~299만원	2.8	.3	.7	.3	100.0	(4.42)
300~399만원	1.8	.5	1.0	.0	100.0	(4.12)
400만원이상	2.6	.3	1.6	.0	100.0	(4.15)
무름 / 무응답	.0	.0	.0	.0	100.0	(3.24)
■ 지역별						
수도권	3.3	.5	2.0	.0	100.0	(4.40)
충청권	4.3	.0	1.7	.0	100.0	(4.07)
호남권	.0	.0	2.6	.0	100.0	(3.41)
영남권	1.6	.0	1.0	.0	100.0	(4.26)
강원	.0	2.9	.0	2.9	100.0	(4.32)
제주	7.7	.0	.0	.0	100.0	(3.85)
■ 지역크기						
대도시	2.4	.2	1.9	.0	100.0	(4.25)
중·소도시	3.0	.4	1.5	.0	100.0	(4.17)
읍 / 면	1.1	1.1	1.1	1.1	100.0	(4.45)
■ 정치적성향						
진보적	1.5	.6	.3	.3	100.0	(3.81)
중도	2.6	.2	1.7	.0	100.0	(4.38)
보수적	3.8	.3	3.1	.0	100.0	(4.41)
■ 종교						
불교	2.3	.4	2.4	.0	100.0	(4.19)
기독교	3.0	.0	1.9	.0	100.0	(4.37)
천주교	.1	.0	2.6	.9	100.0	(4.11)
기타	.0	.0	.0	.0	100.0	(3.42)
종교없음	1.8	.5	1.1	.0	100.0	(4.20)
무름 / 무응답	.0	.0	.0	.0	100.0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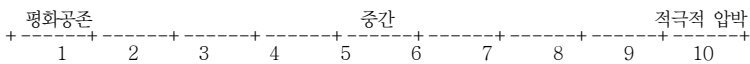


표59.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문)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계
		%	%	%	%	%	%
■ 전체	(1201)	46.6	17.1	14.6	11.5	10.2	100.0
■ 성별							
남자	(611)	45.7	17.8	14.3	10.3	11.8	100.0
여자	(590)	47.5	16.4	14.8	12.6	8.6	100.0
■ 연령별							
19~29세	(259)	40.3	16.7	15.5	15.5	12.0	100.0
30대	(290)	44.9	18.2	13.8	11.2	11.9	100.0
40대	(306)	50.8	17.2	13.0	11.0	7.9	100.0
50대이상	(346)	49.1	16.5	15.8	9.0	9.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12)	51.7	12.7	21.2	6.3	8.1	100.0
고졸	(510)	46.3	15.1	15.6	12.1	11.0	100.0
대재이상	(565)	45.5	19.7	12.7	12.2	9.9	100.0
무름 / 무응답	(14)	63.6	21.8	.0	.0	14.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69.3	12.3	.0	.0	18.4	100.0
자영업	(335)	48.7	18.0	13.0	11.5	8.8	100.0
블루칼라	(247)	43.0	17.9	15.3	12.8	11.1	100.0
화이트칼라	(252)	53.1	16.6	10.7	9.1	10.6	100.0
전업주부	(211)	41.8	14.4	21.5	12.2	10.0	100.0
무직 / 기타	(140)	41.0	19.5	15.1	13.6	10.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7)	47.5	16.8	17.8	7.6	10.2	100.0
200~299만원	(287)	44.0	18.4	12.9	14.1	10.6	100.0
300~399만원	(384)	47.3	17.4	14.4	10.3	10.6	100.0
400만원이상	(311)	47.9	16.2	13.8	12.3	9.8	100.0
무름 / 무응답	(13)	40.5	7.9	23.8	27.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6)	44.0	17.6	15.2	12.6	10.6	100.0
충청권	(117)	48.7	13.2	16.2	13.2	8.5	100.0
호남권	(116)	52.9	15.5	8.3	9.5	13.8	100.0
영남권	(314)	47.7	17.3	15.8	9.8	9.3	100.0
강원	(35)	48.6	28.6	8.6	8.6	5.7	100.0
제주	(13)	61.5	7.7	15.4	7.7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70)	47.4	17.2	13.9	11.2	10.3	100.0
중·소도시	(541)	46.9	16.2	13.4	12.7	10.7	100.0
읍 / 면	(90)	39.9	22.3	25.6	5.6	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35)	52.1	20.5	8.8	7.8	10.8	100.0
중도	(578)	44.5	13.7	17.6	13.5	10.8	100.0
보수적	(289)	44.5	20.2	15.3	11.6	8.4	100.0
■ 종교							
불교	(258)	50.9	12.7	14.3	12.2	9.8	100.0
기독교	(263)	43.7	6.9	17.9	11.7	9.7	100.0
천주교	(114)	48.7	20.8	10.6	9.5	10.4	100.0
기타	(7)	42.1	29.8	28.1	.0	.0	100.0
종교 없음	(546)	45.6	18.6	14.1	11.3	10.4	100.0
무름 / 무응답	(13)	47.1	7.5	.0	22.7	22.7	100.0

A



208 SAJ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Gallup 201116093

## 2011 통일외식조사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소장: 박 명 규 교수  
 전화: 880-4052

2011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 무 강  
 담당연구원 우 중 강  
 실사연구원 박 주 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18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6-7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성 별 : 9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10-11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66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2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3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료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6 ㉡ 학술인·예술인·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7 ㉢ 금강산개성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8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19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2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21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22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23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2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26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용 것 : \_\_\_\_\_ )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7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8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9 ㉠ 빈부격차	1	2	3	4	5
30 ㉡ 부동신투기	1	2	3	4	5
31 ㉢ 실업문제	1	2	3	4	5
32 ㉣ 범죄문제	1	2	3	4	5
33 ㉠ 지역갈등	1	2	3	4	5
34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5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6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7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8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가 신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0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2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43 ㉠ 선군정치	1	2	3	4
44 ㉡ 주체사상	1	2	3	4
45 ㉢ 천리마운동	1	2	3	4
46 ㉣ 고난의 행군	1	2	3	4
47 ㉠ 장마당	1	2	3	4
48 ㉢ 이리랑 축전	1	2	3	4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은요?

조시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 |    |   |                         |   |   |
|----|---|-------------------------|---|---|
| 49 |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 1 | 2 |
| 50 |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 1 | 2 |
| 51 |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1 | 2 |
| 52 | ㉣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 1 | 2 |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시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
| 53 | ㉠ | 선거방식         | 1 | 2 | 3 | 4 |
| 54 | ㉡ | 생활수준         | 1 | 2 | 3 | 4 |
| 55 | ㉢ | 역사인식         | 1 | 2 | 3 | 4 |
| 56 | ㉣ | 언어사용         | 1 | 2 | 3 | 4 |
| 57 | ㉤ | 생활종습(관혼상제 등) | 1 | 2 | 3 | 4 |
| 58 | ㉥ | 가치관          | 1 | 2 | 3 | 4 |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9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0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3)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1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 24)로 가십시오

문 23-1) (보기카드 5 제시) [문23에서 4,5로 응답한 응답자만]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62-63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24)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4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5)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5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6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7) ○○님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7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 28)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8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69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0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71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2 ㉣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3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74 ㉥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문 30)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75 ㉠ 북한의 책임	1	2	3	4	5
76 ㉡ 한국의 책임	1	2	3	4	5
77 ㉢ 미국의 책임	1	2	3	4	5
78 ㉣ 중국의 책임	1	2	3	4	5
79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1)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80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⑤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86	㉠ 동네 이웃	1	2	3	4	5
7	㉡ 직장 동료	1	2	3	4	5
8	㉢ 사업 동업자	1	2	3	4	5
9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3)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0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⑤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12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13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14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5
- |       |        |
|-------|--------|
| 1. 미국 | 4. 중국  |
| 2. 일본 | 5. 러시아 |
| 3. 북한 |        |

문 36) (보기카드 7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6
- |       |        |
|-------|--------|
| 1. 미국 | 4. 중국  |
| 2. 일본 | 5. 러시아 |
| 3. 북한 |        |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7-18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

문 38)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①부터 ④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19	㉠ 미국	1	2	3	4
20	㉡ 중국	1	2	3	4
21	㉢ 일본	1	2	3	4
22	㉣ 러시아	1	2	3	4

문 39)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①부터 ④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23	㉠ 미국	1	2	3	4
24	㉡ 중국	1	2	3	4
25	㉢ 일본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①부터 ④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7	㉠ 미국	1	2	3	4
28	㉡ 중국	1	2	3	4
29	㉢ 일본	1	2	3	4
30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1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①부터 ④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2	㉠ 미국	1	2	3	4
33	㉡ 중국	1	2	3	4
34	㉢ 일본	1	2	3	4
35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6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문 44)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7
1. 매우 우려스럽다
  2. 우려스러운 편이다
  3. 별로 상관없다
  4. 바람직한 편이다
  5.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38	㉠ 4·19	1	2	3	4	5
39	㉡ 5·16	1	2	3	4	5
40	㉢ 10월 유신	1	2	3	4	5
41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42	㉤ 6월 항쟁(1987년)	1	2	3	4	5
43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5)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4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5. 잘 모름

문 46)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45	㉠ 환경파괴	1	2	3	4
46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47	㉢ 빈부격차	1	2	3	4
48	㉣ 실업문제	1	2	3	4
49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50	㉥ 종교갈등	1	2	3	4
51	㉦ 이념갈등	1	2	3	4
52	㉧ 부정부패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7)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3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8)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4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50) (보기카드 10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55-56



문 51)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7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52) ○○님은 작년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반반',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8

1. 전적으로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반반
4.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 55)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9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6)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0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7)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61

- |          |           |
|----------|-----------|
| 1. 한나라당  | 5. 진보신당   |
| 2. 민주당   | 6. 국민참여당  |
| 3. 민주노동당 | 7. 미래희망연대 |
| 4. 자유선진당 | 8. 지지정당없음 |

문 58) ○○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2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9) ○○님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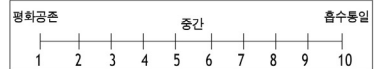
1순위 63-64 2순위 65-66 3순위 67-68

1.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2.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3. 복지확대와 지역균형
4. 사교육문제해결과 학교개혁
5.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
6. 환경보존과 에너지정책 전환
7.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60)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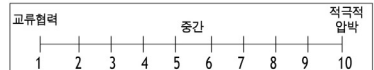
69-70

㉔ 평화공존 vs 흡수통일



71-72

㉕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문 61)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3

1.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2.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3.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4. 북한 핵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5. 평화협정체결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74-75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3. 판매/서비스직 (상점직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인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을 것 : \_\_\_\_\_ )

-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76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첩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77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78-79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80-81
1. 월 49만원 이하
  2. 월 50 - 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4. 월 150 - 1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6. 월 250 - 299만원
  7. 월 300 - 349만원
  8. 월 350 - 399만원
  9. 월 400 - 4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덕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C6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 D 7)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7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8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9-10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북한
  18. 외국

면접후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력처	1. 일반전화 ( 11-13 ) - ( 14-17 ) - ( 18-21 )		
	지역번호 22-24	국 25-28	번호 29-32
	2. 휴대폰 ( ) - ( ) - ( )		
조사일시	97 월 일	98-99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분간 ) ( 반드시 적어주세요 )		
협조정도	1. 상	2. 중	3. 하 33
응답신뢰도	1. 상	2. 중	3. 하 34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35-39	
Supervisor		검 증 원	
40-41			